한중인문학연구
71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제71집 목차

▣ 기획 논문

기획 주제-한중언어의 양상과 수용

박화염 • 한 · 중 '다리' 지칭어의 의미 확장 대조 ····· 1
우상흠 • 한국어 연결어미 '-도록'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 25
유일진 • 텍스트언어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문학 번역비평 연구 ····· 49
朴成日 • 汉·韩祈使句中人称信息的人际功能对比研究····· 75
左思民 • 论现代汉语助动词的词义····· 93

▣ 일반 논문

강설금 • 중국 드라마 〈아빠와 함께 유학을(帶著爸爸去留學)〉(2019)에 나타난 성과 속의식 ····· 123
王朶朶 •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수 방안에 대한 연구 ··· 155
원림림 • 팬자막과 공식자막 번역 양상의 비교 연구 ····· 181
이영란 • 청말 '마정방종(摩頂放踵)'의 감정과 공감 개혁 ····· 205
易 靜 • 중국인 학습자 대상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 231
장봉춘 · 주문현 · 뢰정 · 송수화 · 주롱 • 자극 유형에 따른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어두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 연구 ····· 259
허재영 • 근대 중국과 한국에서의 '격치(格致)' 개념 형성과 변화 과정 ····· 279
田 宇 • 韩中日同素逆顺语社会-会社"考察 ····· 307
曲劲竹 • 新罗花郎道与『论语』关联研究····· 331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1.001

한·중 '다리' 지칭어의 의미 확장 대조*

박 화 염 **

국문요약

신체어는 인간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신체부위 다리를 지칭하는 신체어 '다리'와 '腿'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복합어에서 신체어 자체의 의미 확장 방향과 인지과정을 대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먼저 신체어 '다리'와 '腿'의 사전에서의 기술 양상을 검토하고, 다음 인지의미론과 대조언어학의 이론을 기반으로 신체어 의미 확장의 시맨틱 익스트랙션을 '구조·모양면'과 '기능면'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대조 분석한다. 그중에서 '구조·모양면'은 다리 자체의 모양과 구성,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몸에서 차지하는 위치적 특성을 말하는데 신체어 '다리'의 '형태, 구성, 위치'적 특성을 포함하여 가리킨다. '기능면'은 신체부위 다리 자체의 쓰임 기능과 낱말 '다리'의 의미기능, 문법화기능을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신체화에 기초한 신체어의 다양한 의미 확장의 형성 원인, 그리고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자질 및 인지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대조와 분석을 통하여 '다리'를 지칭하는 신체어 '다리'와 '腿'의 의미 확장 방향과 인지과정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냄으로써, 외국어로서의 한·중 언어 교육 및 한·중 통번역 연구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주제어 신체어, 다리, 腿, 구조·모양면, 기능면, 한·중 대조

---

* 본 논문은 제23차 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일시:2021년 2월 26일, 온라인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박사후연구원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중 '다리' 지칭어의 원형 의미
3. 한・중 '다리' 지칭어의 의미 확장 대조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인간은 신체를 통하여 얻은 경험을 '인접성'에 바탕을 둔 환유와 '유사성'에 바탕을 둔 은유 메커니즘을 통하여 원형 의미를 기점으로 하여 다른 인지 세상으로 나아가 그 개념 시스템을 구성한다. 신체어는 인간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신체부위 '다리'를 지칭하는 단어는 한・중 양국에서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신체어 중 하나이다. 한국어에는 동음어로 '다리[1](脚)'과 '다리[2](橋)'가 있다. 이에 대하여 임지룡(2007)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를 참고로 '다리[1]'과 '다리[2]'가 동음이의어로서 별개의 어휘항목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다리[2]는 신체어 다리[1]과 형태나 기능의 유사성을 지니므로 의미가 확장된 다의어일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다.[1] 하지만 '다리[1]'과 '다리[2]'는 중국어에 각자 대응되는 어휘가 존재하며, 또한 중국어에서 양자는 의미적으로 서로 관계가 없는 두 단어이다. 따라서 본고는 신체부위 다리를 지칭하는 한・중 기본어휘인 '다리[1]'과 '腿'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黃碧蓉(2010)에서는 신체어를 대상으로 중・영 대조를 하였고, 박화염・한용

1) 15세기 국어에서 '다리[2](橋)'는 'ᄃᆞ리 爲橋'에서 보듯이 '다리[1](脚)'과 형태가 달랐는데, 이것은 한자어 '脚, 橋' 유입으로 '다리'를 변별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택(1992:225)에서는 '다리[1]'의 어원을 'ᄃᆞᆯ니다>다니다'와 관련된 '*ᄃᆞᆯ'으로 보고 'ᄃᆞᆯ>ᄃᆞ리>다리'의 변천 과정을 겪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다리[1]'이 'ashi', '다리[2]'가 'hashi'이며, 영어에서는 '다리[1](脚)'이 'leg', '다리[2]'가 'bridge'로서 별개의 형태이다. 곧 '다리[1]'과 '다리[2]'에 대해 국어와 일본어에서는 동일한 어원이 인정되며, 한자어와 영어에서는 별개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라 하겠다.(임지룡 2007:23 재인용)

수(2015,2016,2017,2020,2021)에서는 한・중 신체어의 의미 확장을 대조하였는데, 양자의 공통점은 모두 신체어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복합어에서 신체어 자체가 나타내는 의미를 연구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고는 한・중 양국의 언어에서 신체어 '다리'와 '腿'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복합어에서 신체어 자체가 나타내는 의미를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배도용(2002)에서는 Pustejovsky(1995)의 속성 구조(Qualia Structure)를 원용하여 신체어의 중심 의미를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의 결합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이루는 어떤 요소가 주변적 의미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趙倩(2013)에서는 신체어의 시맨틱 익스트랙션(semantic extraction)을 '형태면', '위치면', '기능면'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에서 '형태면'은 신체부위 자체의 형태와 모양을 말하고, '위치면'은 신체부위가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차지하는 위치적 특성을 말한다.

본고는 한・중 사전에서의[2] '다리'와 '腿'의 기술 양상을 바탕으로 신체어의 의미 확장을 '구조・모양'과 '기능면'으로 분류한다. 그 중 '구조・모양면'은 신체부위 다리 자체의 '형태'와 '구성', 그리고 다리가 신체에서 차지하는 '위치'적 특성을 포함하여 가리킨다. '기능면'은 낱말 '다리'가 가리키는 지시물의 목적이나 기능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은 다리 자체의 쓰임기능과 문법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신체화에 기초한 신체어 의미 확장의 형성 원인, 그리고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자질 및 인지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대조 연구 분석을 통하여 한・중 '다리'를 지칭하는 신체어 '다리'와 '腿'가 의미 확장 방향과 인지과정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냄으로써, 외국어로서의 한・중 언어 교육 및 한・중 통번역 연구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

2) 본고에서 참고한 한국어사전은 주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 『우리말 샘』(이하 『우리』)이고, 중국어사전은 『辭海』(이하 『辭海』), 『漢語大詞典』(이하 『大詞典』), 『新華詞典』(이하 『新華』), 『現代漢語詞典』(이하 『現漢』)이다.

2. 한·중 '다리' 지칭어의 원형 의미

1) '다리'의 원형 의미

현대 국어 '다리'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 지금까지 이어진다. '다리'의 어원은 『석보상절6:32』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고에서 참고한 한국어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다리'에 대한 원형 의미를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다리'의 원형 의미

순 번	사 전	원형 의미	예 문
1	『표준』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 서고 걷고 뛰는 일 따위를 맡아 한다.	다리가 굵다./ 다리를 다치다./ 다리에 쥐가 나다./ 사람은 팔과 다리가 각각 두 개씩 있다./ 뱀은 다리가 없지만 빨리 움직인다.
2	『고려』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에 붙어 몸을 받치며, 서거나 걷거나 뛰는 일을 맡는 부분.	긴 다리./ 다리가 짧다./ 아이는 다리가 아프다며 업어 달라고 엄마를 보챘다./ 너무 걸었더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3	『우리』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 서고 걷고 뛰는 일 따위를 맡아 한다.	다리가 굵다./ 다리를 다치다./ 다리에 쥐가 나다./ 사람은 팔과 다리가 각각 두 개씩 있다./ 뱀은 다리가 없지만 빨리 움직인다./ 머리를 다리 사이로 쑤셔 박고 소나기같이 쏟아지는 매를 고스란히 받았다./ 처음에는 가까스로 일어나서 걷더니 그날 밤에 온통 다리가 부어오르고 열이 나서 헛소리까지 하는 것이었다./ 오다가 다리가 아파서 쉬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바로 집으로 오기가 부끄러웠던 것일까./ 우린 가려운 제 다리는 놓아두고 남의 다리만 긁고 있는 희극 배우 같은 거죠.

<표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참조한 한국어사전에 기재된 신체어 '다리'의 원형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 사전의 원형 의미를 참고로 '다리'의 시맨틱 익스트랙션을 분석한다면, 여기에는 주로 위치면, 형태면, 기능면의 특징이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라는 위치면, '몸통 아래

붙어있는 신체 부분' 이라는 형태면, 그리고 '서거나 걷거나 뛰는 역할' 이라는 기능면이다. 『고려』에서는 특별히 '다리'의 유의어로 '각(脚), 하지'가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이 외의 다른 의미를 신체어 '다리'의 확장 의미로 판단한다.

2) '腿'의 원형 의미

중국어에서 신체부위 '다리'를 지칭하는 단어를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진나라 통일 이전의 선진(先秦) 시대에는 '股, 脛, 脚, 髀'이 있었고 한위(漢魏) 시대에는 '骭, 骹'이 있었다. 후에 당송(唐宋) 시대부터 명청(明淸)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헌에서 '腿、股、骻、脛、髀、臁, 骭, 骹, 髀, 胜, 髈' 등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신체어 '腿'는 현대중국어에서 '다리'를 지칭하는 어휘 중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기본어휘이다.

따라서 중국어 참고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腿'의 원형 의미를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腿'의 원형 의미

순번	사 전	원형 의미	예 문
1	『辭海』	脛(小腿)和股(大腿)的總称。是人或動物用來行走或支持軀体的部位。(종아리와 넓적다리의 총칭이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받치며 걷는 일을 맡아 하는 부분이다.)	玉腿 / 拔腿就跑 / 盤腿而坐
2	『大詞典』	下肢, 在脚的上面。在膝上胯下的称"大腿", 在膝下脚上的称"小腿"。(하지, 발의 위에 있는 부분이다. 무릎 위에 가랑이 아래 있는 부분은 넓적다리, 무릎 아래 발 위에 있는 부분은 종아리이다.)	腿脚
3	『新華』	人和動物用來支持身体和行走的部分。(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받치는 부분으로 걷는 일을 맡아 하는 부분이다.)	大腿 /前腿 /后腿
4	『現漢』	人和動物用來支持身体和行走的部分。(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받치는 부분으로 걷는 일을 맡아 하는 부분이다.)	大腿 /前腿 /后腿

<표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참고한 중국어사전에 기재된 신체어 '腿'의 원형 의미에 대한 기술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시맨틱 익스트랙션의 몇 가지 특징에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辭海』,『新華』,『現漢』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받치며 걷는 일을 맡아 하는 부분이다."라는 의미 항목에 대한 동일한 해석으로 시맨틱 익스트랙션의 기능면 특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 외에『辭海』과『大詞典』에서는 "종아리와 넓적다리의 총칭이다.", "..... 넓적다리, ... 종아리이다."라는 공통된 의미 분석이 있는데, 이는 구조면 특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달리『大詞典』에서는 유일하게 "발의 위에 있는 부분이다."라는 위치면 특성을 보여주는 설명이 있다. 이상 중국어사전에 기재된 신체어 '腿'의 원형 의미를 종합하여 다루자면 '하지로 넓적다리와 종아리로 나눈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받치는 부분으로 걷는 일을 맡아 하는 부분이다.'이다. 본고는 이 외의 다른 의미를 신체어 '腿'의 확장 의미로 판단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다리'와 '腿'의 원형 의미는 거의 일치한다. 즉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에 붙어 몸을 받치는 부분으로 서거나 걷거나 뛰는 일을 맡아 하는 부분'이다. 이 외의 다른 의미는 신체어의 확장 의미로 본다.

3. 한・중 '다리' 지칭어의 의미 확장 대조

시맨틱 익스트랙션이란 사람들이 사물에 대한 전반전인 인지 결과를 말하는데, '이미지(意象)'를 바탕으로 의미를 추출하는 경험적이며 추상적인 심리적 도식이다.[3] 본 장에서는 한・중 '다리' 지칭어의 시맨틱 익스트랙션을 '구조・모양면' 과 '기능면'으로 나누어 이들의 의미 확장 방향과 인지과정에 대하여 대조 분석을 하고자 한다.

3) "語義取象是人們對事物進行整体認知的結果，是一种經驗性的抽象的性理圖式。" 陸儉明・沈陽(2004：369)

1) 구조・모양면

(1)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

신체어 '다리'와 '腿'의 의미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신체어는 [+사람]이란 동일한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의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4] 환유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임지룡, 김동환(2010:174)에서는 "커베체쉬와 라덴(Kővecses & Radden 1998, Radden & Kővecses 1999)을 따라 환유는 동일한 틀, 영역, 이상적 인지모형 속의 한 개념적 요소나 실체(사물, 사건, 특성), 즉 매체가 다른 개념적 실체(사물, 사건, 특성), 즉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지 과정이다. 이것은 '영역 내 사상'으로 간주되며, 매체 실체가 목표 실체로 사상된다."고 환유에 대해 더욱 정확히 정의를 내렸다. 또한 "**사물의 부분은 전체 사물을 대표한다**는 **전체 사물은 사물의 부분을 대표한다**는 환유보다 더 평범하거나 더 일반적인 환유로 인식된다. 활성지역 환유가 기본적으로 결코 의식적으로 환유나 '비유'로 인식되진 않지만, 그 역인 환유 **부분은 전체를 대표한다**는 흔히 의식적으로 창조되고 환유로서 인식된다. 이러 환유는 전통적으로 제유(synecdoche)라고 부른다. "(임지룡, 김동환 2010:176-177) 이를 바탕으로 아래 예문 ①-③에서 나타나는 신체어의 의미 확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

① 가(a). 남산에는 개나리가 만발했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이 '남산에는 개**다리**[15] 가 만발했습니다.'라고 했다가 오해를 받은 사람도 있다.

---

4) Lakoff(1987)에서는 환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모든 이상적 인지모형(ICM. Idealized Cognitive Model의 약칭)은 내적구조가 있는 하나의 복합체로서 완형(完形)을 이룬다. 환유는 이상적 인지모형 안에서 발생하는데 ICM은 배경조건이고, A와 B는 두 개의 요소로서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유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전체인 ICM과 부분 사이의 환유, 또 하나는 같은 ICM 안에서 나타나는 부분과 부분 사이의 환유이다." 이러한 환유의 형식은 전체로 부분을 대표하는, 반대로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또는 부분으로 부분을 대표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반영이 된다. 박화염・한용수(2021 : 316)

5) 예문 ②가-나의 개다리[2], ⑩가의 개다리[3], 예문 ⑮가-다의 개다리[4]와 구분하기 위하여 '개다리[1]'로 표기한다.

가(b). 그놈, 일제 개**다리**[1] 노릇헌 사람이여.

(가): 韓老六有時接濟他一点，就這樣他成了韓家大院的**腿**子。

周立波《暴風驟雨》

(나): 狗**腿**子、狗**腿**

예문 ①에서 쓰이는 신체어 '다리'와 '腿'는 모두 세력이나 권력이 있는 나쁜 사람의 사주를 받고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주구 노릇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한・중 양국 언어에서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모두 동일한 동물 '개'와 결합을 하여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그 생동함을 드러내고 있다. 예문과 같이 '개다리', '狗腿子，狗腿' 등이다.

② 가. 조문객들은 손님맞이는 하지 않고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는 개**다리**[2]상제를 비난하였다.

나. 개**다리**[2]참봉도 벼슬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꼴이 정말 못 봐주겠다.

다(a). 명동 뒷골목의 당구장에 곁**다리**[1][6] 붙어 지내다가 변두리 맥주홀에 취직이 되었수다.

다(b). 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법통황제인 유비가 곁**다리**[1]가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정사로서 가치가 크다.

라(a). 요즘엔 조금만 유행에 뒤떨어지면 아이들로부터 구닥**다리**[1][7]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라(b). 자네가 그러한데 나 같은 구닥**다리**[1]가 더군다나 뭘 알겠나?

(가):泥**腿**杆、泥**腿**子

(나):也不怪御史，我們听見說是府上的家人同几个泥**腿**在外頭哄嚷出來的。

《紅樓夢》

예문 ②에서 쓰이는 신체어 '다리'와 '腿' 역시 사람을 지칭하지만, 이는 사람을 욕하거나 사람을 얕잡아 부를 때 쓰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②가의 '개다리[2]상제'는 상제가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되지 못한 상제라는 뜻으로

6) 예문 ⑧가에서 나타나는 곁다리[2]와 구분하기 위하여 '곁다리[1]'로 표기한다.

7) 예문 ⑧나-다의 구닥다리[2], ⑨가-나의 구닥다리[3]과 구분하기 위하여 '구닥다리[1]'로 표기한다.

상제를 욕하는 말이고, ②나의 '개다리[2]참봉'은 예전에 돈으로 참봉 벼슬을 사서 거드름 피우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②다의 '곁다리[1]'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며, ②라의 '구닥다리[1]'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중국어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②(가)-(나)의 '泥**腿**, 泥**腿**杆, 泥**腿**子' 등이 그 용례이다. 이들은 농민을 가리키는 말인데, 옛날 농민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③ (가): 跑**腿**子/ 跑**腿**儿
(나): 飛毛**腿**
(다): 獨脚**腿**
(라): 粗**腿**[1]8)
(마): 抱粗**腿**

예문 ③에서 쓰이는 신체어 '腿'는 그 어떤 특징이나 표지를 지닌 어휘의 수식을 받아 그러한 성질을 갖춘 사람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③(가)의 ' 跑腿子, 跑腿儿'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을 말하고 (나)의 '飛毛腿'는 굉장히 빨리 달리는 사람을 말하며 (다)의 '獨脚腿'는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③(라)의 '粗腿[1]'는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는 또는 권세가 등등한 사람을 말하고, (마)의 '抱粗腿'는 권력과 세력이 있는 자를 아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확장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2) 다리의 구성 부분을 지칭하는 경우

④ 가. 아이가 엄마의 **다리**에 앉아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 한**다리**
(가): 粗**腿**[2]
(나): **腿**股

8) 예문 ④(가)에서 나타나는 粗腿[2]와 구분하기 위하여 '粗腿[1]'로 표기한다.

⑤ 가. 옛날 여성은 **다리**에 천으로 싸서 감았다.
(가): **腿**肚子/ **腿**套/ 護**腿**/ 綁**腿**/ 裹**腿**

예문 ④-⑤에서 신체어 '다리'와 '腿'는 주로 다리의 한 구성 부분인 넓적다리와 종아리를 가리킨다. 이는 '전체 사물로 사물의 부분을 대표하는' 환유의 형식이다. 예를 들어 ④의 신체어 '다리'와 '腿'는 넓적다리를 가리키는 경우인데 ④나의 '한다리'는 넓적다리의 옛말로서 다리에서 무릎 관절 위의 부분을 말하고 ④(가)의 '粗腿[2]'는 다리 전체가 아닌 지방이 쌓여 있는 둥글고 굵직한 넓적다리를 말하며 ④(나)의 '腿股' 역시 넓적다리를 의미하는데 비슷한 표현으로 '大腿'가 있다.

예문 ⑤는 신체어 '다리'와 '腿'가 종아리를 가리키는 경우인데 한국어보다 중국어의 표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가)의 '腿肚子'는 종아리의 살이 불룩한 부분인 장딴지를 말하고 '腿套'는 바지 겉에 씌워서 종아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용품이다. '護腿'는 종아리를 보호하는 용품으로서 보통 야구나 소프트볼 선수들이 종아리를 보호하는 운동 장비 중의 하나이다. '綁腿'는 종아리를 감싸서 묶어 놓는 천이며 '裹腿'는 종아리를 바지 겉으로 감싸 놓은 가늘고 긴 헝겊인데 옛날에 병사들이 행군할 때 많이 하고 다닌다.

(3) 신체의 다른 부위를 지칭하는 경우

⑥ (가): **腿**帶
⑦ (가): **腿**腕/ **腿**腕子
(나): 老雄說着, 蹺**腿**出門。 柳青《种穀記》十

예문 ⑥-⑦에서 신체어 '腿'는 발과 발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이는 '부분으로 부분을 대표하는' 환유의 형식이다. 예를 들어 ⑥(가)의 '腿'는 발목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腿帶'는 발목 부분의 바짓단을 단단히 졸라맨 끈이나 줄을 말한다. 그리고 ⑦(가)-(나)는 신체어 '腿'가 발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가)의 '腿腕, 腿腕子'는 발과 종아리 사이의 부분을 말하는데 비슷한 표현으로 '脚腕, 脚腕子'가 있다. ⑦(나)의 '蹺腿'는 발을 들고 걷는 모습을 의미한다.

(4) 사물을 낮잡아 이르는 말

⑧ 가. 그 방은 원래 가게에 세든 사람이 쓰도록 달아낸 곁**다리**[2] 살림방이다.
나. 그 옷은 이제 구닥**다리**[2]가 되었다.
다. 놀랍게도 사내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그 구닥**다리**[2] 여름 양복을 아직도 그대로 걸치고 있었다.

예문 ⑧에서 신체어 '다리'는 사물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인다. 예를 들어 ⑧가의 '곁다리[2] '는 부차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와 결합하는 사물을 지칭하는 명사 '살림방'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 ⑧나-다의 '구닥다리[2]'는 낡고 오래되어 유행에 뒤떨어진 물건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문맥으로 보아 각자 '옷'과 '여름 양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신체어 '다리'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의미로부터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뒤떨어진 사상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

⑨ 가. 그런 구닥**다리**[3] 사상은 집어치워라.
나. 난 구질구질한 소리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그 제안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구닥**다리**[3] 같은 소리밖엔 떠오르지 않는군요.

예문 ⑨에서 신체어 '다리'는 뒤떨어진 사상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⑨가-나의 '구닥**다리**[3] '은 여러 해 묵어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말하는데, 보통 뒤에 사상이나 생각, 소리와 관련된 추상적인 의미가 온다. 이러한 의미는 신체어 '다리'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낮잡아 말하는 의미로부터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권총을 나타내는 경우

⑩ 가. 개**다리**[3] 그냥 가지고 계시죠? 그거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실탄도 세 발이 장전되어 있으니까.....

예문 ⑩에 나오는 신체어 '다리'는 한국어의 특유한 의미이다. 여기에서 '개다리[4] '는 은어의 사용으로서 권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처럼 신체어 '다리'가 그 어떤 특정된 사물을 가리킨다는 의미 확장은 중국어 신체어 '腿'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7)오징어나 문어의 다리를 지칭하는 경우

⑪ 가. 그는 술안주로 오징어 **다리**를 씹었다.
나. 문어는 낙지류와 마찬가지로 4쌍 8개의 **다리**를 가지며 다리에는 빨판이 배열되어 있다.

예문 ⑪가-나에서 신체어 '다리'는 걷는 몸을 받치며 걷거나 뛰는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달리 오징어나 문어 따위의 동물의 머리에 여러 개 달려 있어, 헤엄을 치거나 먹이를 잡거나 촉각을 가지는 기관이다. 여기에서 문어나 오징어의 머리를 사람의 몸통으로 이해할 경우, 여러 개 달린 다리는 몸통에 붙는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겠다. 따라서 이는 신체어 '다리'의 형태면의 특징을 보여주는 의미 확장으로 판단이 된다.

(8) 절인 돼지소시지를 나타내는 경우

⑫ (가): 火**腿**/ 南**腿**
(나): 云**腿**/ 宣**腿**/ 宣威**腿**
(다): 羊肉四百斤，熏**腿**五十二斤。 明沈榜《宛暑雜記》
(라): 用嫩鷄湯、好火**腿**腸、新蘑菇三樣湯滾之，看燕窩變成玉色爲度。

清袁枚《隨園食單・海鮮單》

예문 ⑫(가)에서 신체어 '腿'는 돼지 뒷다리의 고기로 만든 절인 소시지를 가리키는데, 중국에서는 흔히 '火腿, 南腿'로 표현을 한다. ⑫(나)의 '云腿, 宣腿, 宣威腿'는 중국 운남성(云南省) 선위현(宣威縣)에서 생산된 소시지로 그 지역의 이름을 빌려 지어낸 식품의 이름이다. ⑫(다)-(라)의 예문은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문헌에서 나타난 문구인데, 용례로 보아 신체어 '腿'가 절인 돼지소시지의 의미로 확장된 것은 고전중국어에서부터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때 신체어 '腿'의 의미 확장은 '동물→식품'으로 전이하는 은유적 인지과정을 거치었다.

(9) 안경의 테에 붙어서 귀에 걸게 된 부분

⑬ 가. 김 선생은 **다리**가 부러진 안경을 고치기 위해 안경점에 갔다.
나. 경호는 **다리** 없는 안경을 억지로 끼어서 콧등에 옥죄어 오른 것이 매우 거북할 성싶어서 그것만 바라봤다.
(가): 眼鏡腿

예문 ⑬가-나에서 신체어 '다리'는 안경의 테에 붙어서 귀에 걸게 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예문 ⑪과 같이 안경의 렌즈를 사람의 몸통으로 이해한다면, 안경의 다리는 몸통에 붙어 있는 부분으로 설명이 된다. 따라서 이는 '다리'의 형태면의 특징을 보여주는 확장 의미이다. 물론 여기에서 '다리'는 안경을 귀에 걸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신체어 '다리'에서 유래된 기능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때 신체어 '다리'와 '腿'의 의미 확장이 모두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안경(의 다리)'로 전이하는 은유적 인지과정을 거치었다.

(10) 사물의 아래 부분을 지칭하는 경우

⑭ 가. 책상 **다리**/ 상**다리**/ 지겟**다리**

나. 이 의자는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
다. 지게도 용도에 따라서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
라. 선동이는 한쪽이 짧은 의자의 **다리**를 톱으로 잘랐다.
(가): 桌**腿**儿 / 床**腿**儿

예문 ⑭가-(가)에서 신체어 '다리'와 '腿'는 사물(책상, 상, 지게, 의자)의 아래쪽에 붙어서 그 물체를 받치거나 직접 땅에 닿지 아니하게 하거나 높이 있도록 버티어 놓은 부분, 즉 물건의 몸통 아래 붙어 바닥과 일정한 공간을 두도록 받쳐주는 부분을 가리킨다. 이는 신체어 '다리'가 몸통의 아래에 위치하여 있다는 위치면의 특징을 보여주는 확장 의미이다. 중국어에서는 보통 '腿'보다 그 뒤에 '儿化'를 결합하여 '腿儿'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다리'는 물론 물체를 받쳐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우선 신체어 '다리'의 모양과 형태를 본떠서 확장된 의미로 판단된다. 이때 신체어 '다리'와 '腿'의 의미 확장은 모두 '사람(의 아래 부분)→사물(의 아래 부분)'으로 전이하는 은유적 인지과정을 거치었다.

⑮ 가. 개**다리**[4]상 옆에 술병을 얌전하게 내려 놓았다.
나. 개**다리**[4]소반에 받쳐 온 것 샛노란 조밥 반 그릇에 시퍼런 열무김치 한 탕기뿐이었다.
다. 아낙은 어느새 개**다리**[4]소반에 밥과 반찬을 차려 가지고 들어왔다.

예문 ⑭과 달리 예문 ⑮에서는 사람이 아닌 동물 다리의 형태와 모양을 본떠서 확장된 의미이다. 즉 ⑮가-다의 '개다리상'과 '개다리소반'은 상다리 모양이 개의 뒷다리처럼 구부러진 작은 밥상이나 소반을 말한다. 이때 신체어 '다리'의 의미 확장은 또 '동물(의 다리)→사물(의 다리)'로 전이하는 은유적 인지과정을 거치었다. 중국어에서는 이러한 의미 확장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2) 기능면

(1) 걷고 다니거나 이동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

⑯ (가): 你**腿**勤，煩你跑一趟。
(나): **腿**脚/ 歇**腿**/ 溜**腿**
(다): 盧五那年犯案下刑部監，一應都是耿二替他跑**腿**。 《官場現形記》

신체부위 '다리'는 주로 걷거나 뛰는 일을 맡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의 신체어 '腿'는 독립적으로 쓰이거나 또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신체부위 '다리'의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예문 ⑯(가)의 '腿勤'은 이리저리 다니기 좋아하거나 또는 자주 움직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⑯(나)의 '腿脚'은 걸어 다니는 능력을 말하고, '歇腿'는 걷는 행위를 멈춰서 잠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슷한 말로 '歇脚'이 있다. '溜腿'는 충분히 속도를 내어 걷지 않거나 또는 정상적인 속도로 걷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⑯(다)의 '跑腿'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분주하며 잡일을 처리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문 ③(가)의 '跑腿子, 跑腿儿' 등 명사와 달리 동사로 실현된다. 한국어 '다리'의 기능면 확장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보이지 않았다.

(2) 발걸음이나 보조(步調)의 속도를 나타내는 경우

⑰ (가): 撒**腿**/ 開**腿**
(나): 拔**腿**

신체부위 '다리'는 걸어 다니는 일을 맡아 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중국어의 신체어 '腿'는 이와 관련된 발걸음이나 보조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예문 ⑰(가)의 '撒腿, 開腿'는 발걸음을 빨리 내디디며 걷기 시작한 것을 말하고, ⑰(나)의 '拔腿'는 빠른 속도로 발을 들어 그 자리를 뜨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보통 뒤에 동사 '跑(달리다)'와 많이 결합하여 빨리 이동하는 발걸음의 속도를 의미한다.

한국어에서 발걸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신체어 '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어 '발'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그는 갑자기

발을 멈추었다.', '어머니의 발기척에 놀라 졸음이 달아났다."에서처럼 신체어 '발'은 발걸음의 의미를 지닌다.[9] 신체어 '발'이 발걸음의 속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박화염・한용수(2020)에서는 '발이 빠르다.', '발이 느리다.', '발이 재다.'등 예를 들어 신체어 '발'이 속도를 의미하는 형용사 '느리다, 빠르다'와 결합하여 걸음이 느리거나 빠름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3) 무술 동작의 하나를 나타내는 경우

⑱ (가): 掃堂**腿**/ 勾鐮**腿**
(나): 譚**腿**/ 潭**腿**
(다): 戳**腿**
(라): 彈**腿**

중국의 쿵후(功夫)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중국 무술에는 무기를 쓰는 궁술, 검술, 창술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 무기 없이 유연한 동작으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중국식 권법이 있다. 그 중에서 다리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무술의 동작을 중국에서는 흔히 신체어 '腿'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예를 들어 예문 ⑱(가)의 '掃堂腿'는 발을 걷어차 상대를 넘어뜨리는 무술 동작을 말하고, '勾鐮腿'도 역시 다리가 낫질하는 것처럼 움직여 상대를 넘어뜨리는 무술 동작을 가리킨다. ⑱(나)-(라)의 '譚腿, 潭腿, 戳腿, 彈腿'도 마찬가지로 무술에서 다리의 힘과 기술을 통하여 나타내는 권법의 이름이다. 이러한 의미의 확장은 한국어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4) 어떤 일 또는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

⑲ (가): 哪里有油水，他就往哪里伸**腿**。

9) 박화염・한용수, 「漢韓"足"類詞語義取象分析」, 『중국학』,제72집, 대한중국학회, 2020, p.127.

(나): 他們兩个有一**腿**。

예문 ⑲(가)-(나)에서 신체어 '腿'는 어떤 일 또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간섭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⑲(가)의 '伸腿'는 사람이 조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에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⑲(나)처럼 중국어에 '有一腿'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체어 '腿'는 ⑲(가)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제삼자로 혼인・연애관계가 있는 다른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중국어에서 말하는 '小三(혼인관계에 개입하는 제삼자)'이다. 중국어에는 '伸腿'와 '有一腿'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插足'이다. 이는 신체어 '족(足)'을 이용한 표현인데, 여기에서 '足'은 자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화염・한용수(2020)에서는 "'插足'의 기본 의미는 어떤 자리를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참여하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보통 혼인관계에 개입하여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획을 망치는 것을 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체어 '腿'와 '足'이 이런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신체부위 다리와 발은 이어져 있어 두 신체부위를 하나의 전체로 볼 때, 다리로 서거나 발로 밟아 한 공간을 차지한다는 기능적 의미에서 출발한 의미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5) 거짓말을 나타내는 경우

⑳ (가):行者仍站在跟前，要偷他宝貝，眞个甚有見識:走上廳，對那怪扯个**腿**子道："大王，你看那孫行者拴在柱上左右爬蹉，磨坏那根金繩，得一根粗壯些的繩子換將下來才好。" 《西游記》

예문 ⑳(가)에서 '扯腿子'는 동사 '扯(언급하다)'와 명사 '腿子'의 결합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를 테면 신체어 '腿'로 이루어진 명사 '腿子'는 여기에서 거짓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6) 분류사로 쓰이는 경우

㉑ (가):陳大郎便問酒保打了几角酒，回了一**腿**羊肉，又擺上些鷄魚肉菜類。
《拍案惊奇》八卷
(나): 叫嘍羅賞沈全酒二瓶，肉一**腿**，且去將息。 明清溪道人《禪眞逸史》
(다): 姆入房，拖一腿肉出，又入拖一**腿**曰："你食肉乎？你報丈夫乎？"
明張應兪《杜騙新書 婦人騙》

예문 ㉑(가)-(다)에서 신체어 '腿'는 분류사로 쓰이는 경우인데, 이때 양, 닭, 돼지 등 동물의 한 쪽 다리의 양만큼 되는 무게를 가리킨다. 이러한 표현은 고전 문학작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현대중국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7) 하찮거나 사소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㉒ (가): 打倒你老子，干我**腿**事！ 元无名氏《獨角牛》第二折
(나): 你替他走，管你**腿**事！ 《金瓶梅詞話》第二十回
(다): 他走動走不動，累你**腿**事？ 《醒世姻緣傳》第六九回

예문 ㉒(가)-(다)에서 신체어 '腿'의 기본 의미는 하찮거나 사소하다는 의미인데 형용사로 쓰인다. 하지만 ㉒(가)-(다)에서처럼 일을 나타내는 명사 '事'와 결합하여 '腿事'로 사용될 경우, '鳥事', '屁事' 등과 같은 의미로서 주로 상욕으로 많이 쓰인다. 보통 앞에 '管你', '干你', '關你' 등 표현과 결합하여 쓰이며 전반 의미는 한국어의 '당신과 뭔 상관인가?', '당신과는 볼 일 없어.' 등 의미와 유사하다.

3) 정리

이상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신체부위 '다리'를 지칭하는 신체어 '다리'와 '腿'의 시맨틱 익스트랙션에 대하여 '구조・모양면'과 '기능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자가 의미 확장 방향과 인지과정에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한・중 ‘다리’ 지칭어의 구체적인 의미 확장에 대한 대조 분석표는 아래와 같다.

<표 3> 한・중 '다리' 지칭어의 의미 확장 대조 분석표

한・중 ‘다리’ 지칭어	의미 확장	시맨틱 익스트랙션
다리 腿	주구 노릇을 하는 사람 사람을 얕잡아 부를 때 특별한 표지를 갖춘 사람 넓적다리 종아리 발 발목 오징어나 문어의 다리 절인 돼지소시지 안경의 다리 사물의 아래 부분 사물을 낮잡아 이르는 말 뒤떨어진 사상이나 생각 권총	구조・모양면
다리 腿	걷고 다니거나 이동하는 능력 발걸음이나 보조의 속도 무술 동작의 하나 일이나 사람 사이에 개입하는 행위 거짓말 분류사 하찮거나 사소한	기능면

4. 나오는 말

Philbrick, F.A. (1942:32-42)에서는 “다의어는 하나의 기본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다. 하나의 기본의미에서 유도될 수 없는 것은 의미적 유연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의어로 실현되는 한・중 ‘다리’ 지칭어는 ‘인접성’에 바탕을 둔 환유와 ‘유사성’에 바탕을 둔 은유 메커니즘을 통하여 원형 의미를 기점으로 하여 다양한 의미로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의미 확장을 ‘형태면, 위치면, 구성면, 기능면’ 등 특징으로 나누어 대조 분석하였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첫째, 전반적으롤 볼 때, 한・중 ‘다리’ 지칭어의 의미 확장 양상이 각자 다른 수량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조・모양면’에서 한국어 의미 항목은 10개, 중국어는 10개, 그중 양자의 공통 의미는 6개로 나타나고 있다. ‘기능면’에서 한국어 의미 항목은 0개, 중국어는 7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는 ‘구조・모양면’에서 다양한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능면’에서는 특이하게 의미 확장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구조・모양면’에서 보이는 공통점으로 한・중 ‘다리’ 지칭어는 모두 인지언어학의 환유와 은유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의미 확장이 ‘사람→사물’로 전이하는 인지과정을 거치었으며, 또한 [+사람], [+사물] 등 동일한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으로 한국어는 ‘동물→사물’로 전이하는 인지과정, 예를 들면 ‘개다리상, 개다리소반’ 등 표현을 보여주었고, 중국어는 ‘동물→식품’으로 전이하는 인지과정, 예를 들면 ‘火腿, 云腿, 南腿’ 등 표현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기능면’에서 볼 때 중국어의 의미 확장이 비교적 발달하여 한국어보다 훨씬 다양한 의미를 보이고 있다. 그중 신체어 ‘腿’가 신체부위 자체의 쓰임 기능으로 인한 의미 확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문법화 기능에 의한 의미 확장이다. 예를 들면 신체어 ‘腿’는 명사 외에 또 분류사와 형용사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一腿肉’, ‘腿事’ 등과 같은 용례이다.

본고는 한・중 ‘다리’ 지칭어 중 ‘다리’와 ‘腿’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서의 기술 양상을 바탕으로 한・중 신체어의 의미 확장을 대조 분석한 것이

다. 앞으로 연구의 대상을 다른 신체어로 점차 확대하고, 자료의 범위도 말뭉치를 이용한 의미 확장까지 망라하여 연구함으로써 한・중 신체어에 대한 의미 확장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1. 자료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590102&viewType=confirm

2. 단행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국립국어연구원,『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김종택,『국어 어휘론』, 서울: 탑출판사, 1992.
임지룡, 김동환 옮김,『언어・마음・문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역락출판사, 2010.
陳至立,『辭海』第七版, 上海：上海辭書出處社, 2020.
漢語大詞典編纂處,『漢語大詞典』, 上海：上海辭書出版社, 2011.
陸儉明・沈陽,『漢語和漢語研究十五講』, 北京：北京大學出版社, 2004.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修訂),『新華詞典』, 北京：商務印書館, 2013.
趙　倩,『漢語人体名詞詞義演變規律及認知動因』,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3.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第7版, 北京：商務印書館, 2016.

3. 논문

강기진,「국어 다의어의 의미구조」,『한국문학연구』제8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5, pp.25-41.
박화염・한용수,「漢韓"嘴/口"類詞的語義認知分析」,『중국학논총』,제50집, 한중인문학회,2015,pp.51-72.
_____,「漢韓"耳"類詞的語義取象分析」,『동아인문학』,제36집, 동아인문학회,2016,pp.155-178.
_____,「漢韓"眼/目"類詞的語義取象分析」,『중국문화연구』,제35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17,pp.349-369.

_____, 「漢韓“臉/面”類詞的語義取象特征分析」, 『한중인문학연구』,제67집, 한중인문학회, 2020a, pp.53-73.
_____, 「漢韓“足”類詞語義取象分析」, 『중국학』,제72집, 대한중국학회, 2020b, pp.115-134.
_____, 「한・중 ‘목’ 지칭어의 확장 의미 비교」, 『철학사상문화』,제35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1, pp.310-329.
배도용, 「우리말 ‘손’의 의미 확장 연구」, 『한글』,제258호, 한글학회, 2002, pp.219-252.
임지룡, 「신체화에 기초한 의미 확장의 특성 연구」, 『언어과학연구』 제40, 언어과학회, 2007, pp.1-31.
黃碧蓉, 「從人体詞語的意義分布看語義的認知性」, 『上海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0年第6期, 2010, pp.118-125.
Philbrick, F.A.(1942),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New York, 32-42.
Pustejovsky, J.(1995), *The Generative Lexicon,* The MIT Press. Universiry Of Chicago Press.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5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19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5월 31일

Abstract

The Analysis of Semantic Extraction on the Word Class of "Leg" in Chinese and Korean Linguistics

Piao, Huayan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gnitive linguistics, the human body experience is the basis of human cognition of the world, the starting point of cognition and the tool of cognition. Feet refers to the lower part of the human body and some animals that touch the ground, and are important weight-bearing organs and movement organs of the human body. Chinese and Korean "leg" words are the core vocabulary in both Chinese and Korean languages.

This article mainly studies simple words and compound words composed of Chinese and Korean "leg" morphemes, and divides their semantic image features into two types: "structural meaning" and "functional meaning". "Structural meaning" refers to the synthesis of "shape, location, and composition", and "functional meaning" refers to the grammatical functions of the body parts themselves, the semantic functions of human words, and part of speech func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can be found,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and credible semantic examples and theoretical research basis for teach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Chinese-Korean human lexics, and Chinese-Korean bilingual translation.

Keyword Body word, 다리, 腿, Structure meaning, function meaning,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1.025

한국어 연결어미 '-도록'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우 상 흠 *

국문요약

본고는 한・중 신문 기사 병렬말뭉치를 이용하여 한국어 연결어미 '-도록'의 각 의미 범주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도록'의 의미로 [도급], [정도],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도록'은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고 [도급]과 [정도]의 '-도록'의 사용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급]의 '-도록'은 흔히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중국어 표현과 대응 관계를 이루며, [정도]의 '-도록'은 구조조사에 대응될 수 있다. 또한 실제 말뭉치 분석 결과 [목적]의 '-도록'은 그 구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중국어 표현과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도록' 보문과 상위문의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 주로 중국어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응되고, 둘째, '-도록' 보문과 상위문의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주체를 나타내는 '목적+사동'의 구조 표현이나 단순한 사동 표현, 혹은 그 주체의 행위를 규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에 빈번하게 대응되며, 셋째, '-도록 하-/만들-'의 구조로 나타나며 '-도록' 보문의 행위의 주체가 따로 제시되는 경우 그 주체를 나타내는 피・사동 표현이나 그 주체의 행위를 규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응된다.

주제어 연결어미, -도록, 중국어, 대응 표현, 신문 기사, 병렬말뭉치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1. 서론
2. 기존 연구에서 '-도록'의 의미 범주에 대한 논의
3. 말뭉치에서 '-도록'의 각 의미의 사용 빈도
4. '-도록'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1) 〔도급〕과 〔정도〕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2) 〔목적〕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5. 결론

1. 서론

본고는 연결어미 '-도록'의 각 의미 범주가 신문 기사 병렬말뭉치에서 사용되는 빈도를 살펴보고 각 의미 범주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그리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도록'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근할 수 있는 연결어미이며 그 의미와 용법이 매우 복잡하다. 의미론적으로 보면 기존 연구에서 '-도록'의 의미 범주를 세 가지에서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도록'이 의미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1] 통사론적으로 보면 '-도록' 구문은 '-도록'이 포함된 보문과 그 뒤의 상위문으로 구성되며 보문과 상위문의 서술어의 선택에 모두 통사적 제약을 받는다.[2] 한편, 상위문의 서술어가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일 경우 상위문이 생략되어 '-도록'이 종결어미처럼 쓰일 수 있다. 또한, '-도록'은 보조동사 '하다, 만들다'와 '-도록 하다/만들다'의 구조로 쓰여 명령이나 권유 따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형태론적으로 보면 '-도록'이 '어근+하다'류 동사와 결합할 때 음운적으로 축약되어 '-토록'의 형태로 출현할 수도 있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도록'의 이러한 복잡한 의미와 용법을 제대로 파

1) '-도록'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2) '-도록'의 통사적 제약을 검토한 기존 연구로는 윤평현(1981), 김재윤(1983), 김혜성(1993), 강영(2002), 이해영(2017) 등이 있다.

악하기에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연결어미라는 개념이 없으며 절과 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련사(关联词)나 접속어(连词) 등을 이용하여 복문을 구성하는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연결어미 '-도록'을 습득이나 사용하는 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연결어미 '-도록'이 어떠한 중국어 표현에 대응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있으나 앞선 연구들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교재나 사전에 한정되어 있다.[3] 따라서 본고는 실제적인 언어 사용을 반영할 수 있는 대규모 신문 기사 병렬말뭉치를 이용하여 연결어미 '-도록'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기존 연구에서 '-도록'의 의미 범주에 대한 논의

김재봉[4]은 고대 국어에서의 '-도록'은 [도급]으로의 쓰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석주연은 '-도록'은 중세와 근대 국어에서 [익심]과 [도급]의 두 가지 기본 의미로 쓰였지만 현대에 이르면서 [익심]으로의 쓰임이 전반적으로 쇠퇴해 온 반면, [도급]의 '-도록'은 다양한 의미의 분화를 거쳐 결국 현대 국어의 '-도록'에 이른다고 하였다.[5] 이를 통해 '-도록'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도급]으로 설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도 '-도록'의 [도급]이라는 의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를 '~(으)ㄹ 때까지'로 해석하기도 한다.[6]

---

3) '-도록'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살펴본 연구로는 조효염(2014), 왕중기(2019) 등이 있다.

4) 김재봉, 「접속어미 「-도록」과 선어말어미 「-겠」의 쓰임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제46집, 한국국어교육학회, 1990, pp.105-106.

5) [익심]과 [도급]을 나타내는 '-도록'을 15~18세기 문헌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나 19세기 문헌에서 [익심]으로의 쓰임과 관련 용례를 확보하기 어려워 [익심]으로의 쓰임이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도록'이라는 하나의 형식이 [익심]과 [도급]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부담이 컸다는 점, 경쟁 관계에 있던 어미인 '~(으)ㄹ수록'이 통시적으로 빈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석주연,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 의미학』 제19집, 한국어의미학회, 2006, pp.48-52.

6) 이러한 연구로는 윤평현(1981, 1988), 이은정(1983), 김재봉(1990), 강영(2002) 등이 있다.

석주연[7]은 '-도록'의 의미가 [도급]에서 [정도]까지 발달되어 나갔다는 것과 [정도]의 의미가 현대 국어로까지 이어져 온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역시 [정도]의 의미를 '-도록'의 한 독립적 의미 범주로 보고 있으나,[8] 이양혜[9]는 [도급]과 [정도]를 모두 '그 정도에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함께 묶어 [도달성]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의 의미는 시간상의 '극점'에 초점을 둔다는 데에 비해 [정도]의 의미는 상위문의 행위의 지속 및 격렬성의 '정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의미를 묶어서 보기 어렵다.[10] 결국 [정도]의 의미는 [도급]의 의미로부터 파생되어 온 것으로 [도급]의 의미와 구별 지어 '-도록'의 한 독립적 의미 범주로 봐야 하며, 이때의 '-도록'은 대체로 '~(으)ㄹ 만큼' 혹은 '~(으)ㄹ 정도로'로 해석이 가능하다.[11]

한편, 현대 국어에서의 '-도록'은 [목적] 또는 [결과]의 의미도 지니는데, 이는 역시 '-도록'의 [도급]의 의미에서 발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12]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도록'의 이러한 의미를 [결과], [목적] 중 어떤 것으로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윤평현[13]은 '-도록'을 보문이 상위문 동작이나 상태의 결과가 되도록 보문과 상위문을 이어주는 결과 관계 접속어미로 정의하면서 [결과]가 '-

---

그러나 윤평현은 '-도록'은 그 동작이 어느 지점(시간상의)에 다다르고도 그 지점을 다소 넘어설 수 있는 느긋한 느낌이 있으나, '-까지'에는 그 동작이 어느 지점에 다다르고는 완전히 종결되는 느낌을 갖고 있어 그 둘의 어감이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윤평현, 「'-도록'의 의미와 문법」, 『한국언어문학』 제20집, 한국언어문학회, 1981, p.41.

7) 위의 논문, pp.54-56.

8) [정도]의 의미를 '-도록'의 한 독립적 의미 범주로 보고 있는 연구로는 윤평현(1981, 1988), 이은정(1983), 김재봉(1990), 강영(2002), 석주연(2006, 2013) 등이 있다.

9) 이양혜, 「'-도록'의 기능적 특징」, 『외대어문논집』 제13집, 부산외국어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8, pp.53-75.

10) 석주연, 위의 논문, p.55.

11) 윤평현(1981, 1988), 이은정(1983) 등 연구에서는 '-도록'의 [정도]의 의미를 '~ㄹ 만큼'으로 해석하였으며, 김재봉(1990), 이양혜(1998), 강영(2002) 등 연구에서는 '~ㄹ 정도로'로 해석하고 있다.

12) 석주연, 위의 논문, pp.57-58.

13) 윤평현, 「'-게, -도록'의 의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100호, 국어국문학회, 1988, pp.307-309.

도록'의 중심 의미라고 주장하였다. 석주연은 보문과 상위문 간의 '상황적 관계(결과–결과를 초래한 상황)'에 초점이 두어진 '-도록'을 [결과]로 해석하였다.[14] 반면 오윤경[15]은 앞선 논의와는 다르게 '-도록'이 가진 [목적]과 [결과]라는 의미 중 [목적]을 기본으로 삼는데 그 이유로 결과의 실재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 취소절로써 얼마든지 그 결과성을 없앨 수 있다는 점, 개념적으로 [목적]이 [결과]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목적]의 의미에 [결과] 의미가 함축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 의미 발달 과정을 살폈을 때 '목적→결과'라는 발달 방향성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점, [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도록'의 '사동'이나 '명령' 등의 의미 발달을 설명하기 용이하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도록'의 의미를 [결과]가 아닌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보며, 이때 '-도록'이 포함된 보문은 상위문 동작이나 행위의 목적으로 해석된다.

'-도록'의 의미에 대한 또 다른 쟁점은 '-도록'이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윤평현[16]은 '-도록'을 [사역]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사형 어미 '-게'로 바꾸어도 의미에 아무 변화 없으며 이때 '-도록'도 [사역]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이양혜 역시 '-도록'을 장형 사동을 위해 결합할 수 있는 어미형태소 중의 하나로 간주하였다.[17] 이들 관점과 달리 서정수[18], 김혜성[19]

---

14) 여기서의 '상황적 관계'란 주로 결과 상황을 지시하는 문장과 결과를 초래하게 된 상황을 지시하는 문장으로 조성된다고 하였다. 석주연, 위의 논문, p.57.

15) 오윤경, 「'-도록'의 의미—도급에서 온 목적」, 『국어학』 제74집, 국어학회, 2015, pp.281-288.

16) 위의 논문, p.37.

17) 이양혜는 보조동사 중 '하다'와 '만들다'만 사동형 문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시키다, 명령하다' 등과 결합한 경우에 문장은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들 어휘는 그 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보조 동사로 쓰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위의 논문, pp.53-75.

18) 서정수, 「"게"와 "도록"에 관하여」, 『인문논총』 제14집,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987, p.63.

19) 김혜성, 「'-도록'의 의미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18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3, pp.71-73.

등은 '-게'는 피사동주의 설정을 일관되게 요구하는 데에 반해 '-도록'은 피사동주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록'이 사동법 어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덧붙이자면 '-도록 하다/만들다'와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되고 주어 자신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흔한데, 이때 역시 '-도록'을 사동법 어미로 보기 어려우며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의지' 따위를 표명한다는 해석이 더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도록'은 '-도록 하다/만들다'의 구조로 쓰일 때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와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록'의 사동법적 의미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으며 사동법 어미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명령'이나 '요구'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도록 하다/만들다'는 '-겠-'과의 결합이 자기 자신에게 요구를 하면서 자신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게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도록'을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할 목적으로 명령하거나 요구한다는 점에서 [목적]의 의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윤평현[20]은 [사역]과 [의도]의 의미 사이에 명확하지 않은 의미적 혼동이 있어 두 가지의 의미를 하나로 묶어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오윤경[21] 역시 목표가 되는 상황을 누군가에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과정에서 [목적]의 의미가 '사동'이나 '명령'의 용법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봤듯이 '-도록'의 의미 범주는 [도급], [정도], [목적]으로 나뉠 수 있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 '-도록'의 의미를 더 세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런 의미 범주를 가지고 '-도록'의 구문을 해석하면 결국 중의성이 따를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 예컨대, 김재봉은 '-도록'의 의미를 [가능], [정도], [도급], [사역], [의도], [목적]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가능]이라는 의미는 보문 내용에 나타나는 결과가 가능해지게 상위문의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목적]으로 해석 가능하며, [사역]과 [의도]의 의미는 [목적]과 긴밀한 관계를

20) 위의 논문, pp.37-39.
21) 위의 논문, p.288.

가지므로 하나의 문장을 둘 혹은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은정은 '-도록'의 의미를 '양태'와 연관시켜 [도급 양태], [정도 양태], [행위 규정], [동작 양태], [성상 양태]로 세분화시켰는데, 여기의 [동작 양태]와 [성상 양태]는 '-도록'과 결합된 선행 용언의 속성에 따른 분류이지 '-도록'의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며, 다른 세 가지의 의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말뭉치에서 '-도록'의 각 의미의 사용 빈도

어미 '-도록'은 동사 어간이나 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문장에서 [도급], [정도],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쓰이거나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상위문의 생략됨에 따라 종결어미로 사용되기도 한다.[22] 그러나 '-도록'은 일부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으면서 문장에서 본래의 연결어미적 기능을 잃어 하나의 어휘로 굳어져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1)
ㄱ. 시민 의견은 "불안하고 꺼림칙하니 되도록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겠다"로 요약된다. (『중앙일보』 경제)
ㄴ. 기억을 잃어버린 어머니를 자기만이라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다. (『동아일보』 사회)

(1ㄱ)에서의 '되도록'은 문장에서 서술어가 아닌 부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도록'은 [도급], [정도], [목적] 중 어느 의미로도 해석할 수 없으며 '~(으)ㄹ 수 있는 대로'와 같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1ㄴ)에서의 '오래도록'도 역시 형용사 '오래다'와 '-도록'이 하나의 부사로 굳어져 문장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의 별도의 개별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김재윤[23]은 '되도록'이 부사화되어 관용어로 고정된 것으로 보았고, 윤평현[24]은

22) 본고에서 분석한 자료인 한·중 신문 기사 병렬말뭉치에서는 '-도록'이 종결어미로 쓰인 경우가 없다는 것을 밝힌다.

23) 김재윤, 「'-도록'의 통사적 제약 및 의미분석」, 『국어교육』 제46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도록’이 어휘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양혜[25]는 ‘-도록’이 단어형성 자격을 가지고 부사를 파생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 견해와 더불어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등 사전에서도 ‘되도록’과 ‘오래도록’을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어휘적 특징이 강한 ‘되도록’과 ‘오래도록’은 어미 ‘-도록’의 의미 기능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도록’은 ‘어근+하다’류 어휘와 결합될 때 ‘하다’와 ‘-도록’이 음운적으로 축약되어 ‘-토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의 ‘-토록’은 ‘-하도록’의 축약형일 뿐 ‘-도록’과 별다른 의미적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부 지시 대명사와 결합된 ‘이토록, 그토록, 저토록’에서의 ‘-토록’과 일부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된 ‘영원토록, 종일토록, 평생토록’ 등에서의 ‘-토록’은 ‘-하도록’으로 축약된 ‘-토록’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강영[26]은 ‘-토록’은 일부 지시 대명사와 결합되는 경우 ‘~(으)ㄹ 정도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와 결합되는 경우 ‘~동안 내내’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취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토록’과 결합되어 생성된 ‘-토록’절은 문장에서 부사를 기능해 수식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의 ‘-토록’ 역시 어미로 사용되는 ‘-도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도록’의 각 의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고찰하기 위하여 본고는 100만 어절로 구성된 신문 기사 병렬말뭉치[27]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말뭉치를 검색한

1983, pp.257-258.

24) 윤평현, 『한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서울: 박이정, 2005, pp.368-369.

25) 위의 논문, pp.53-75.

26) 강영, 「‘-도록’의 의미 범주 연구」,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화와 과제』, 한국문화사, 2002, pp.340-341.

27) 한・중 신문 기사 병렬말뭉치는 신문 기사 4,655편을 대상으로 작업하여 총 67,674문장 쌍, 1,016,826어절로 구축되어 있다. 신문 기사의 다양성 또한 균형성을 고려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3대 신문사의 신문 기사를 경제/국제/사회/정치/문화의 다섯 가지의 영역별로 골고루 추출하여 맞춤 작업을 실시하였다.

결과로 '-도록'이 882회, '-토록'이 25회, 총 907회로 나타났다. 이중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되지 않는 '되도록', '오래도록', 또한 '-도록'의 축약으로의 '-토록'이 아닌 것들을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883개의 '-도록'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28] 말뭉치에서 나타난 '-도록'의 의미를 분석한 다음 각 의미의 사용 빈도를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말뭉치에서의 '-도록'의 의미에 따른 사용 빈도[29]

의미		출현 빈도	비율
도급		8회	0.9%
정도		3회	0.3%
목적	-도록 하-/만들- (353회)[30]	872회	98.8%
	-도록 (519회)		
합계		883회	100%

<표 1>을 보듯이 말뭉치에서 '-도록'의 절대다수는 [목적]의 의미로 쓰였고 매우 드물게 [도급]과 [정도]의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관희는 신문 텍스트 말뭉치를 분석함으로써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31] 이것은 공식성을 드러내는 문어 텍스트에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도록'이 [도급]과 [정도]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목적]을 나타내는 '-도록' 구문 중 상위문에 보조동사 '하다, 만들다'가 위치하는 '-도록 하다/만들다'가 고빈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목적]의

28) 이때 제외한 것은 '되도록'(4회), '오래도록'(6회), '이토록'(7회), '그토록'(7회)이다.

29) '-토록'은 11회 출현하였고 모두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 것들이었다. 이중 '-토록 하-'는 7회, 그 이외의 경우는 4회였다. '-토록'은 '-하도록'의 축약형으로서 결국 '-하도록'으로 복원 가능하므로 의미 범주에 따른 사용 빈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도록'에 포함하였다.

30) '-도록 하-'는 341회, '-도록 만들-'은 12회로 나타났다.

31) 이관희는 '-도록'이 쓰인 기사 260건, '-게'가 쓰인 기사 156건을 추출하여 전체 119,360어절의 신문 텍스트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도급]의 '-도록'은 8회, [정도]의 '-도록'은 1회, [목적]의 '-도록'은 364회로 나타났다. '목적성 사동'으로 간주된 '-도록 하-'는 227회로 나타났다. 이관희, 「신문 텍스트에 쓰인 "-도록 하-"와 "-게 하-"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25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0, p.134.

‘-도록’ 뒤에 일반 서술어가 오는 경우 흔히 ‘-도록’ 보문이 목적이 되고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도록’ 뒤에 오는 보조동사 ‘하다, 만들다’는 [목적]의 ‘-도록’과 연어 관계를 이루며, 이들은 ‘-도록’의 기능을 결정하는 ‘-도록’의 기능 결정소가 된다. 즉, ‘-도록’ 뒤에 보조동사 ‘하다, 만들다’가 온다면 이는 목적성을 드러내는 명령이나 요구 따위의 의미를 나타내 사동법적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을 미루어 보면 [목적]의 ‘-도록’ 뒤에 일반 서술어가 오는 경우와 보조동사 ‘하다, 만들다’가 오는 경우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에 차이가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4장에서 ‘-도록 하다/만들다’ 구조를 ‘-도록’ 뒤에 일반 서술어가 오는 경우와 구별하여 ‘-도록 하다/만들다’ 구조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별도로 분석해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4. ‘-도록’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1) 〔도급〕과 〔정도〕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도급]의 ‘-도록’은 동작이나 상태가 어느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으)ㄹ 때까지’로 해석된다. 말뭉치에서 [도급]의 의미로 쓰인 ‘-도록’의 출현 빈도는 8회에 불과하지만 용례들을 보듯이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다양하다.

(2)

ㄱ. 지난해 9월 시작된 11차 방위비 협상은 6개월이 넘도록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앙일보』 국제)

去年9月启动的第11届防卫费谈判已经持续6个多月，双方立场却始终没有任何交集。

ㄴ. 1977년, 그의 첫 내한 실황 방송을 녹음해 그해 겨울 내내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영화를 봤다. (『동아일보』 문화)

1977年，我录下了他第一次来韩实况广播，回忆起当年冬天一直听磁带直到卡机为止的情景，我去看了电影。

ㄷ. 햄리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2년이 넘도록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방치한 것에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고 했다. (『조선일보』 정치)

对文在寅政府两年多来一直不任命朝鲜人权国际合作大使，任其"空缺"的做法，哈姆雷表示"失望和生气"。

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결렬 후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동아일보』 정치)

美国总统特朗普在工作磋商破裂后过去的三天里，没有任何谈及。

(2ㄱ)에서 '-도록'은 '지속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持续'로 번역되는데 이때 '持续'와 뒤에 오는 '시간'과 함께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가 그 시간 내에 계속 유지함'의 뜻을 나타낸다. (2ㄴ)에서의 '-도록'은 '直到……为止'구조에 대응되는데 이때 이 구조는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뜻으로 쓰인다.[32] (2ㄷ)에서 '-도록'으로 사용된 '来'는 조사이며, 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 뒤에 붙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뜻한다. (2ㄹ)에서의 '-도록'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개사 '在'와 범위를 나타내는 명사 '里'로 구성된 '在……里'라는 개사구조로, '~동안에/기간에'의 뜻을 지닌다. 이와 같이 [도급]의 '-도록'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다양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적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말뭉치에서 [정도]의 '-도록'은 전체 말뭉치에서 가장 낮은 빈도로 출현하였고 모두 중국어 구조조사에 대응되었다.

(3)

ㄱ.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인간의 건망증을 깨부수기 위해서' 딕스는 반전의 화가가 되어 이 잔혹한 유혈참사의 장면을 그리고 또 그렸다. (『동아일보』 문화)

正如某评论家所说，"令人毛骨悚然地为了打破人类的健忘症"，迪克斯成为反战画家，描绘了一幅又一幅这种残酷流血惨案的场面。

32) '直到……为止' 사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시간이 될 때까지'를 뜻한다.

ㄴ. 땀에 흠뻑 젖도록 걷고 싶다면, 휴양림 가장 안쪽에 차를 세워두고 '불바라기 약수터'를 다녀와 보자. (『중앙일보』 문화)
如果想要来一场酣畅淋漓的徒步，可以把车开到修养林地的深处，一睹“佛见药泉池”的风采。

(3ㄱ)에서처럼 '-도록'이 앞의 단어나 구를 부사어로 전환시켜 부사어로서 뒤에 오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어 구조조사 '地'로 대응되는 경우가 두 번 있었다. 이 경우 '-도록' 보문은 부사구로 번역 처리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3ㄴ)에서의 '-도록'은 중국어 구조조사 '的'와 대응 관계에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어 '徒步(걷다)'는 명사와 동사로 모두 쓰일 수 있어 이중적 품사를 지니는 '겸류사(兼類詞)'이다.[33] (3ㄴ)에서의 '徒步'는 명사로써 쓰이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 오는 수량사 '一场'의 수식 전제하에 실현된 것이다. 이때 '땀에 흠뻑 젖-'에 대응되는 '酣畅淋漓'가 수량사 '一场'과 명사 '徒步' 사이에 삽입되어 관형어로 기능해 뒤에 조사 '的'가 붙을 수밖에 없다. 다만, (3ㄴ)에서 수량사 '一场'을 지우면 '徒步'가 동사가 되면서 '酣畅淋漓'가 다시 부사어가 되어 뒤의 조사를 '地'로 대치해야 한다.[34] 다시 말하면, '徒步'가 명사일 경우 '酣畅淋漓' 뒤에 조사 '的'가 붙어 관형어로 기능해야 하며, '徒步'가 동사일 경우 뒤에 조사 '地'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해야 한다.

'-도록'의 [도급]과 [정도]의 의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출현 빈도상으로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일종의 대응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도급]의 '-도록'은 중국어 '持续……', '在……里/后', '直到……为止', '……来' 등의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응될 수 있으며 [정도]의 '-도록'은 앞의 단어나

33) 중국어에서 명사와 동사를 구별하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주어나 목적어 위치에 나타나는 일부 동사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 학자들은 이들 동사들에 대한 견해가 달라 '동사겸명사(动词兼名词)', '동명겸류사(动名兼类词)', '동명사(动名词)' 등과 같이 다양한 지칭을 지어 주었다. 박중규는 이들 어휘는 대체로 한국어의 'X + 의존명사 '것' + 주격표지 '이', 혹은 'X + 주격표지 '이'에 대응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중규, 「動名詞和兼類詞的區別特征」, 『중국인문학회』 제26집, 중국인문학회, 2003, p.138.

34) 如果想要来一场酣畅淋漓的徒步(한 번의 땀에 흠뻑 젖을 정도의 걷기를 원한다면) → 如果想要酣畅淋漓地徒步(땀에 흠뻑 젖도록 걷고 싶다면)

구를 부사어로 전성시킬 수 있는 구조조사 '地'에 대응될 수 있다. 이를 아래의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도급]과 [정도]의 의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의미	하위분류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빈도(회)
〔도급〕	동사	持續……	2
	구조	在……里/后	2
		直到……爲止	1
	조사	……來	1
	무표지[35]		2
〔정도〕	구조조사	地	2
		的	1
합계			11

2) 〔목적〕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1) '-도록' 뒤에 보조동사가 오는 경우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목적]을 나타내는 '-도록'은 '-도록 하-/만들-'의 구조로 자주 사용되었다. '-도록 하-/만들-'은 목적성을 드러내는 명령이나 요구 등의 의미를 나타내며 아래와 같이 중국어 사동 구문과 대응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4)

ㄱ. 또 손흥민에게 공격뿐 아니라 수비 가담도 많이 하도록 했다. (『동아일보』 문화)

另外，他还让孙兴慜多参与进攻和防守。

ㄴ. 팀은 나노섬유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 구조물을 지나 기판에 한 방향으로 떨어지도록 했다. (『조선일보』 사회)

研究组使纳米纤维经过不导电的绝缘体结构，按照同一方向掉落在板子上。

ㄷ.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야 하는데 국회가 거꾸로

35)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시간만 번역한 경우는 무표지로 처리하였다.

심의했다. (『중앙일보』 경제)
把资金投入可以持续创造就业岗位的领域，国会的审查方向完全反了。
ㄹ.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발급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조선일보』 정치)
检方还着手调查郑静心令人伪造和发放女儿韩国科学技术研究院实习证明的相关嫌疑。

(4)에서의 '让', '使', '把', '令'은 모두 중국어의 사동사이다. 이 중 '让', '使', '令'으로 구성된 사동문은 '使'구문, '把'로 구성된 사동문은 '把'구문이라고 불린다.[36] 이들 사동사는 개사의 특성이 강해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동 구문에서 쓰여야만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중국어에서 사동사가 아니지만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구성되는 사동문도 있는데, '-도록'이 이들 동사와의 대응 관계도 이룰 수 있다.

(5)
ㄱ. 의회는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석유 제품 수출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선일보』 정치)
国会要求对朝鲜煤炭、矿物、纤维、原油、石油产品的进出口进行义务性制裁。
ㄴ. 토트넘은 28일부터 1군 선수들에게 훈련장에서 개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아일보』 문화)
托特纳姆热刺队从28日开始允许一线队球员在训练场上进行个人运动。
ㄷ. A씨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해 경찰 수사를 받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일보』 문화)
他唆使A某翻供，并唆使接受警方调查的嫌犯躲避调查。

(5)에서의 '要求', '允许', '唆使', 그리고 이 외에 말뭉치에서 나타난 '安排', '促使', '迫使', '强迫' 등은 모두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며 이를 사동 동사라고 한다.[37] '让', '使', '把' 등 사동사는 추상적인 사동 관계만 드러내거나 단순

36) 개사 '使', '把'는 중국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동 표지로서 각각 '使'구문과 '把'구문이 구성한다. 한편, 范晓(2000) 등은 '使'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叫', '让', '令' 등으로 구성된 사동문은 '使'구문에 포함시켜 광의의 '使'구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范晓, 「论"致使"结构」, 『语法研究和探索十』, 中国语文杂志社, 2000, p.141.

한 사동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비해 이들 사동 동사는 구문에서 구체적인 동작이나 행위에 내재된 사동의 의미로 사동 구문이 실현되었다.[38]

(6)

ㄱ.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운영 방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등교 일정은 각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다. (『조앙일보』 사회)
首尔市教育厅只公布了总体的返校复学指南，具体的返校时间仍需由各学校自主决定。

ㄴ. 정부는 어제 마스크 생산업자가 하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 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했다. (『동아일보』 사회)
政府昨天规定，口罩生产企业有义务向公共机构出库一天生产量的一半以上。

ㄷ. 지난 5월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고... (『조선일보』 국제)
美国商务部在5月份决定，若美企想与华为交易就要受到美国政府的许可承认……

이외에 '-도록'은 (6ㄱ)과 같이 중국어의 피동 표현인 '由'에 대응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나타난 '由'로 구성된 피동 구문은 모두 지시류(指示类) '由'구문으로서 구문의 의미상으로 일반적으로 '지시, 명령, 요구, 제안' 등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39] 즉, 행위자가 피동자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함을 시도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또한 '-도록'은 (6ㄴ)에서의 '규정함'을 나타내는 동사 '规定' 및 (6ㄷ)에서의 '결정함'을 나타내는 동사 '决定'과 보다 높은 빈도로 대응되

37) 중국 학계에서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사령사(使令词)'라고 하며, 사령사로 구성된 구문은 '사령구(使令句)'라고 한다. 본고는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사동 동사라고 지칭하기로 하였다.

38) 宛新政은 사동 동사는 일반적으로 '使', '把', '让' 등 사동사로 대치될 수 있는데, 의미적 차이에 따라 대치 가능한 사동사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즉 '唆使'와 같이 사동의 의미가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사동 동사는 '使'로 대치 가능하며, '要求'와 같이 사동의 의미가 보다 간접적이고 약한 사동 동사는 대체로 '叫', '让'으로 대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들 동사가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 『现代汉语致使句研究』, 浙江: 浙江大学出版社, 2005, pp.153-154.

39) 王文娟(2006)은 '由'구문을 단언류(断言类), 지시류(指示类), 약속류(承诺类), 표현류(表达类)으로 나누었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王文娟, 「现代汉语"由"字句研究」, 南京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6, pp.35-41.에서 다루었다.

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문의 주어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위를 규정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발급된 법률, 지침 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록 하-/만들-'의 구조가 중국어의 피・사동 표현이나 행위 규정 표현과 빈번하게 대응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도록'의 특징이며 이는 '-도록' 보문의 행위의 주체가 따로 갖추어지므로 그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록 하-/만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정리한 것은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도록 하-/만들-'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하위분류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빈도(회)
-도록 하-/만들-	사동 표현	사동사: 讓(47), 使(26), 把(2), 令(1)	139
		사동 동사: 要求(37), 允許(19), 唆使(2), 安排(2), 促使(1), 迫使(1), 强迫(1)	
	피동 표현	由(5)	5
	행위 규정 표현	規定(23), 決定(3)	26
	무표지[40]		183
	합계		353

(2) '-도록' 뒤에 일반 서술어가 오는 경우

[목적]의 '-도록' 뒤에 보조동사 '하다, 만들다' 이외의 다른 서술어가 올 때 '-도록' 보문은 목적이 되며 상위문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같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개사나 접속사가 있다.

40) '-도록 하-/만들-'는 무표지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행위의 주체가 표현구조로 나오지 않을 때 중국어 번역문에서 주동문으로 처리한 경우, '-도록' 보문에 행위의 주체가 따로 있으나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을 때 중국어 번역문에서도 그 행위의 주체와 사동 표현을 함께 생략된 경우, 주어 자신이 행위의 주체가 되며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할 때 의지 표현만으로 대응된 경우, 마지막으로 맥락상의 연결성이나 문장의 매끄러움을 위해 문장의 기본 의미를 바꾸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번역된 경우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7)

ㄱ.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연내에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발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정치)
李洛渊总理表示，将通过与安倍举行会谈，起到为年内举行韩日首脑会谈营造氛围的"跳板"作用。

ㄴ. 에버랜드는 새끼 판다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당분간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선일보』 사회)
爱宝乐园为了保证小熊猫健康成长，计划短期内不向外界公开。

ㄷ. 질본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나온 국내 유전자서열 정보를 세계보건기구에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사회)
疾控本部计划向世卫组织公开韩国这次对病毒基因序列进行分析的结果，以供国内外研究人员进行研究使用。

ㄹ.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정치)
政府计划尽快开始协商，以便开展环境调查。

ㅁ.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HIV가 잡히도록 기도나 했던 사람을 임명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 국제)
参议员伯尼·桑德斯在推特上辛辣地批评说："任命了企图靠祈祷来防控HIV的人。"

(7ㄱ)과 (7ㄴ)에서의 '为'와 '为了'는 모두 목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개사이다. 구문의 구성상 '为'와 '为了'로 구성된 '목적'이 우선 제시되고 '수단'이 그 뒤에 놓인다. 이와 반대로 (7ㄷ~ㅁ)에서의 '以', '以便', '来'는 접속사이며 접속사 앞에 '수단'이 오고 접속사 뒤에 그 수단이 지향하는 '목적'이 따른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4)의 용례들은 '-도록' 보문과 상위문 행위의 주체가 모두 일치하다는 것이다. (8)과 같이 '-도록' 보문과 상위문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도록'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목적 표현뿐 아니라 목적 표현 뒤에 사동사가 따를 수 있다.

(8)

ㄱ. 북한이 제재를 비켜갈 수 있도록 러시아가 압하지야를 통해 평양에 동아줄을 내려준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동아일보』 정치)

专家分析说，为使朝鲜避开制裁，俄罗斯通过阿布哈兹向平壤递出了逃命绳索。

ㄴ. 더 많은 미국 기업이 유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내놓을 것. (『조선일보』 경제)
为了让更多美国企业回归，将出台必要的政策。

ㄷ. 미래엔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 업계 최초 시차출퇴근제 도입을 비롯해... (『중앙일보』 사회)
为了使员工可以更好地平衡工作和家庭生活，Mirae-n在教育行业最早引进了错时上下班制度……

ㄹ. 이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사나 또 분석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회)
他还表示："将通过各项追加调查或分析，对相关信息进行彻查，并努力在最快的时间内告知公众，以便让国民更加放心地接种疫苗。"

(8)에서 '-도록'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인 '为+使', '为了+使', '为了+让', '以便+让'은 모두 '목적+사동'의 구조 표현이다. 이는 '-도록' 보문에 행위의 주체가 별도로 밝혀져 있어 그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기 위해 중국어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뿐 아니라 목적 표현 뒤에 사동 표현이 붙어 '사동+목적'의 구조 표현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록'은 (9)와 같이 목적 표현 없이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중국어 사동 표현에만 대응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어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포함된 후행절의 경우 행위의 주체가 따로 갖추어지면 목적 접속사의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41]

(9)

ㄱ. 의료 개혁, 부자 증세 등 자신의 공약이 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동아일보』 정치)
其宗旨是继续确认国民的支持，使医疗改革、富人增税等自己的竞选承诺反映在党的政策上。

ㄴ. 또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모든 한국인 승무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선일보』 국제)

41) 吕叔湘,『中国文法要略』, 北京: 商务印书馆, 1956, p.567.

此外，东航还将调整安排，让目前留在中国的所有韩国籍乘务员返回韩国。

ㄷ. 검찰총장이 고검장만 지휘토록 변경함으로써 수사지휘 권한을 전국 고검장에게 나누도록 권고했다. (『중앙일보』 사회)
建议把调查指挥权下放到全国各地的高检长手中，使检察总长只能对高检长行使指挥权。

ㄹ. 앞서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중앙일보』 사회)
韩国教育部此前公布的空调使用指南要求学校在使用空调时必须打开三分之一以上的门窗。

(9ㄱ～ㄷ)에서 사용된 '使', '让', '把'는 모두 중국어 사동사이며 (9ㄹ)의 '要求'와 이외에 말뭉치에서 보다 낮은 빈도로 출현한 '推动', '促使', '迫使' 등은 모두 중국어 사동 동사에 속한다. (8ㄹ)에서의 '-도록'이 중국어 '목적 접속사+사동' 구조 표현에 대응되는 것과는 달리 (9)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도록'이 중국어 사동 표현에만 대응되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 접속사의 생략됨에 따라 후행절의 '목적'의 역할을 잃은 것이 아니라 구문의 의미상으로 후행절이 여전히 선행절 내용이 지향하는 목적이 된다. 한편, 목적 표현인 '为', '为了' 등은 개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생략될 수 없으며 주어가 다르더라도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과 사동사가 공기하여 나타나야 한다.

(10)
미국 상·하원이 행정부가 주한 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마음대로 감축할 수 없도록 내년 국방수권법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일보』 정치)
美国众参两院决定，在明年的国防授权法中明确规定，美国政府不能随意缩减驻韩美军至目前水平的2.85万人以下。

이외에 (10)에서 '규정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规定'은 말뭉치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한 것은 아니지만 '-도록'에 대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떠한 행위를 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 두기 위하여 법안이나 법률을 마련할 때, 즉, '-도록' 보문이 규칙 내용일 경우 '规定'은 '-도록'에 대응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목적]의 의미로 쓰이는 '-도록'은 다양한 중국어 표

현과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때의 '-도록'은 보문과 상위문의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도록' 보문과 상위문의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 흔히 중국어의 목적 표현에 대응되며, 둘째, '-도록' 보문과 상위문의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도록' 보문의 행위의 주체가 따로 갖추어지는 경우 그 주체를 나타낼 수 있는 '목적+사동'의 구조 표현이나 단순한 사동 표현, 혹은 그 주체의 행위를 규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에 고빈도로 대응된다. [목적]의 '-도록'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도록'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하위분류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빈도(회)
-도록	목적 표현	爲(32), 爲了(16), 以(15), 以便(8), 來(2), 以免(2), 從而(1)	76
	목적+사동 표현	爲了讓(15), 爲使(4), 爲了使(3), 爲了把(1), 從而讓(1), 以便讓(1)	25
	사동 표현	사동사: 讓(41), 使(39), 把(6), 使得(1)	104
		사동 동사: 要求(13), 推動(2), 促使(1), 迫使(1)	
	행위 규정 표현	規定(2)	2
	무표지[42]		312
	합계		519

42) '-도록'이 고빈도로 '무표지'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 '以', '以便' 등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생략되더라도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중국어 번역문에서 생략된다. 둘째, 상위문의 서술어가 '경고하다, 지시하다, 요청하다' 등과 같은 '명령, 요구'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일 때 중국어 번역문에서 중국어 사동 동사를 이들 동사에 대응시켜 사동 구문으로 구성된다. 이때 중국어 사동 동사는 이들 명령이나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에 대응되는 것이지 어미 '-도록'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주어 자신이 행위의 주체가 되며 상위문의 서술어가 '노력하다, 기울이다, 돕다, 다하다' 등 동사이며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할 때 흔히 중국어 의지 표현만으로 번역된다.

5. 결론

본고는 한・중 신문 기사 병렬말뭉치를 이용하여 한국어 연결어미 '-도록'의 각 의미 범주가 말뭉치에서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았고 각 의미 범주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도록'의 의미로 [도급], [정도],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도급]은 8회, [정도]는 3회, [목적]은 872회로 대부분의 '-도록'은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고 [도급]과 [정도]의 '-도록'의 사용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록'은 공식적인 신문 텍스트에서 [도급]과 [정도]의 의미보다 [목적]의 의미가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도급]과 [정도]의 '-도록'은 비록 말뭉치에서 매우 낮은 빈도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우선 [도급]의 '-도록'은 흔히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중국어 표현과 대응 관계를 이루며, [정도]의 '-도록'은 구조조사에 대응될 수 있다. 또한 실제 말뭉치 분석 결과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는 '-도록'은 그 구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중국어 표현과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록' 보문과 상위문의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 흔히 중국어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응되고, 둘째, '-도록' 보문과 상위문의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주체를 나타내는 '목적+사동'의 구조 표현이나 단순한 사동 표현, 혹은 그 주체의 행위를 규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에 빈번하게 대응되며, 셋째, '-도록 하-/만들-'의 구조로 나타나며 '-도록' 보문의 행위의 주체가 따로 밝혀져 있는 경우 그 주체를 나타내는 피・사동 표현이나 그 주체의 행위를 규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응된다.

본고는 대규모 말뭉치를 통해 '-도록'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또한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말뭉치에서 매우 낮은 빈도로 출현한 [도급]과 [정도]의 '-도록'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한데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다른 연구 자료를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윤평현, 『한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2005.

吕叔湘, 『中国文法要略』, 北京: 商务印书馆, 1956.

宛新政, 『现代汉语致使句研究』, 浙江: 浙江大学出版社, 2005.

2. 논문

강영, 「'-도록'의 의미 범주 연구」,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2002, pp.329-359.

김재봉, 「접속어미 「-도록」과 선어말어미 「-겠」의 쓰임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제46집, 한국국어교육학회, 1990, pp.105-114.

김재윤, 「'-도록'의 통사적 제약 및 의미분석」, 『국어교육』 제46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3, pp.255-272.

김혜성, 「'-도록'의 의미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18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3, pp.63-79.

박중규, 「動名詞和兼類詞的區別特征」, 『중국인문학회』 제26집, 중국인문학회, 2010, pp.127-146.

서정수, 「"게"와 "도록"에 관하여」, 『인문논총』 제14집,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987, pp.41-67.

석주연,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 의미학』 제19집, 한국어의미학회, 2006, pp.37-63.

_____, 「신소설 자료에 나타난 어미 '-도록'의 의미와 문법」, 『우리말 글』 제59집, 우리말글학회, 2013, pp.25-49.

오윤경, 「'-도록'의 의미—도급에서 온 목적」, 『국어학』 제74집, 국어학회, 2015, pp.267-302.

왕중기, 「한국어 어미 '-도록'의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윤평현, 「'-도록'의 의미와 문법」, 『한국언어문학』 제20집, 한국언어문학회, 1981, pp.27-51.

_____, 「'-게, -도록'의 의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100호, 국어국문학회, 1988, pp.307-318.

이관희, 「신문 텍스트에 쓰인 "-도록 하-"와 "-게 하-"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25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0, pp.119-163.

이양혜, 「'-도록'의 기능적 특징」, 『외대어문논집』 제13집, 부산외국어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8, pp.53-75.

이은정, 「{~도록}의 기능과 의미 유형 고찰」, 『한글』 제181집, 한글학회, 1983, pp.39-58.

이해영, 「연결어미 '-도록'의 의미·통사적 특성과 교재기술 양상」, 『한국(조선)어교육연구

』 제12호,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pp.199-226.
조효염,「연결어미 '-게'와 '-도록'의 교육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范晓,「论"致使"结构」,『语法研究和探索十』, 中国语文杂志社, 2000, pp.135-162.
刘永耕,「使令度和使令类动词的再分类」,『语文研究』 第75期, 中国语文杂志社, 2000, pp.8-13.
王文娟,「现代汉语'由"字句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6.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5월 06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23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6월 10일

Abstract

A Study on the Chinese Expression Corresponding to the Korean Connective Ending with '-dorok'

Yu, Xiangxin

This paper analyzed Chinese expressions corresponding to each semantic category of the Korean connective ending with '-dorok' using parallel corpus of Korean-Chinese newspaper articles.

The '-dorok' of [unitl] is often correlated with the Chinese expression representing the temporal range, and the '-dorok' of [degree] can correspond to the structural particl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corpus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dorok' of [purpose] had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with various Chinese express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ntax. First, when the subject of the actions of the antecedent clause and the following clause coincide, it mainly corresponds to the expression indicating the purpose of Chinese. Second, when the subject of the action of the antecedent and following clauses does not coincide, it frequently corresponds to the structural expression of the 'purpose+causation', or the simple expression of the causation, or the expression that defines the behavior of the subject. Third, when it appears in the structure of '-dorok ha-/mandeul-', it corresponds to causative and passive expressions or the expression that defines the subject's behavior.

Keyword connective ending, -dorok, Chinese, corresponding expression, newspaper articles, parallel corpus of Korean-Chinese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1.049

텍스트언어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문학 번역비평 연구

—『아큐정전(阿Q正傳)』 한역본의 번역양상을 중심으로

유 일 진 *

국문요약

국문요약 현재까지의 문학작품 번역비평이 지나치게 형식에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고, 이 두 가지 비평방식은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번역분석 단계에서 간혹 원작과 대조분석을 통한 오류분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본고는 번역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즉 텍스트언어학적 접근을 통해 기존의 단편적인 원문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의 대조 분석에서 벗어나 텍스트성의 일곱 가지 기준을 적용시킴으로써 보다 결실 있는 번역비평을 추구한 것이다. 본 연구는 번역 텍스트를 원작과 비교하여 분석할 때 텍스트언어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텍스트 중심 번역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 『아Q정전』의 세 가지 한역본에 대한 비평적 텍스트 분석을 통해 원작과 대조분석을 통한 오류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이처럼 텍스트언어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번역비평 연구는 기존의 없었던 시도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번역비평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주제어 텍스트언어학, 텍스트성, 텍스트분석, 문학정전, 문학번역, 번역비평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텍스트성에 의한 비교 분석
   1) 작가소개 및 창작배경
   2) 사례 분석
4. 결론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한 문학작품에 대한 여러 버전의 번역 텍스트가 존재할 때 어느 버전의 번역 텍스트가 더 좋은 번역인지 판단하려면 평가보다는 비평의 개념이 더 정확하다. 이것은 어떤 번역이 단순히 좋고 나쁘고의 개념을 따지는 것이라기보다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또는 역자가 생산한 번역 텍스트가 작품의 문학성을 재생산했는지를 알아보는 문학 번역비평을 의미한다. 전현주(2008: 6)에서는 '번역비평'이란 '비평가의 주관적인 안목과 객관적인 판단력을 갖고 ST와 TT를 동시에 고려하여 작가나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중의 작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문학작품 번역비평은 지나치게 형식에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평방식은 모두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번역분석 단계에서 간혹 원작과의 대조분석을 통한 오류분석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본고는 번역 텍스트에 대한 분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텍스트언어학적 접근을 통해 기존의 단편적인 원문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의 대조분석에서 벗어나 텍스트성의 일곱 가지 기준을 적용시킴으로써 보다 질 높은 번역비평을 추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번역비평이나 평가의 규범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 텍스트를 원작과 비교하여 분석할 때 텍스트언어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텍스트 중심 번역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번역연구와 텍스트언어학 사이에 어떤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가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Nida(1964), Halliday(1964), Hasan(1968), Reiss(1977), House(1997)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번역연구의 초점을 문장 이하의 단위가 아니라 텍스트에 두었다. 즉 번역에 있어서 문장에 대한 고립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텍스트언어학 관점을 번역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20년간 한국 내에서도 텍스트 중심 번역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곽성희(2000), 이재원(2001/2013), 양명희/안경화(2003), 백수진(2003/2004), 이계연(2004), 황세정(2007), 최진실(2010), 박상수(2013)의 논문이 이에 해당된다. 이제 번역은 더 이상 낱말이나 문장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번역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선 텍스트언어학의 핵심 개념인 텍스트성에 대해 알아보고 번역에서 텍스트성이 갖는 의미를 고찰한 다음, 텍스트성의 일곱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중국소설인 루쉰의 『아Q정전』의 세 가지 한역본을 분석할 것이다.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에 대한 파악은 번역 텍스트 분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본고 3.1에서 루쉰과 그의 작품인 『아Q정전』이 지닌 시대적 배경을 먼저 고찰한 다음에 3.2에서 구체적인 번역 사례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Beaugrande · Dressler(1981: 6)에 의하면 텍스트는 텍스트성의 일곱 가지 기준[응결성(cohesion), 응집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상황성(situationa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부합되는 통보적 발화체라고 정의된다. 텍스트성은 텍스트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언어를 수행할 때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활동들과 얽혀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텍스트란 구조적 연쇄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 속에서 발휘되는 통합적인 의미결합의 단일체로 봐야 한다. 그래서 언어, 인간 정신, 외적 현실, 의사소통적 요소가 모두 개입된다고 본다. 이렇게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적 현실의 상황적인 면을 고려한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Beaugrande · Dressler(1981: 6)는 일곱 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황세정(2007)에서는 텍스트성이 원문 텍스트를 분석할 때나 번역을 준비할 때, 또 실질적 번역 행위인 목표 텍스트로 번역할 때 방향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이것을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해주는 것이 바로 텍스트성이라는 이들의 주장에 기댔다. 본고에서 텍스트성의 요소들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1> 텍스트성의 요소들을 적용한 분석 기준

텍스트성	문학번역 텍스트의 분석 기준
응결성	번역 텍스트에서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표층적 문법 규칙을 잘 지켰는가
응집성	문학 텍스트의 의의 연속성을 잘 파악하여 올바로 번역했는가
정보성	문학 텍스트의 정보를 필요한 만큼 제대로 전달하였는가
의도성/용인성	역자가 문학 텍스트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번역 텍스트의 독자가 용인할 수 있도록 번역했는가
상황성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상황맥락과 문화맥락을 잘 파악하여 번역 텍스트에서 이를 제대로 살렸는가
상호텍스트성	문학 텍스트가 가진 유형적 및 개별적 상호텍스트성을 번역 텍스트에서 제대로 실행했는가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텍스트 중심'의 비평방식은 텍스트의 내・외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번역과 관련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방식이다[1].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텍스트성의 일곱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아Q정전』의 번역본들을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3. 텍스트성에 의한 비교 분석

1) 작가소개 및 창작배경

루쉰(1881~1936)은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혁명가이자 사상가이다. 또한, 위대한 풍자 예술가로 인정받았다. 일본에서 의학을 전공했던 루쉰

1) Beaugrande・Dressler(1995)에 기대면 응결성, 응집성과 정보성은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텍스트 내적 요인에 해당된다. 의도성, 용인성, 상황성, 상호텍스트성은 주로 텍스트의 생산자와 사용자, 텍스트가 사용된 상황,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등과 관련이 있으며 텍스트 외적 요인에 해당된다.

은 국민의 질병을 치료해주기보다 더 시급한 것이 국민을 계몽하여 봉건성에서 탈피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의학을 단념한 뒤 문학 작품을 쓰면서 문예 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했다. 몇 천 년 동안 내려온 낡은 관습과 현실의 어둠 속에서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며 그의 일생은 봉건성의 극복과 근대의 실현을 위해 싸웠다. 그의 대표작이자 세계적 수준의 작품인『아Q정전』은 루쉰의 첫 번째 창작집『외침(吶喊)』에 수록된 것으로 중국 현대문학의 출발점으로 인정을 받았다.

『아Q정전』은 주어진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되는 표현을 통해 사람들을 암시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소설이다.『아Q정전』은 풍자소설의 독특한 매력을 띠며 비현실적인 세계와 실존하는 세계가 뒤섞인 이야기를 통해 봉건사상과 교조주의로 인해 정신적으로 깊은 잠에든 중국인의 사상을 일깨웠다.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인 책의 본문은 서문을 제외하여 기술하는데『아Q정전』은 서문을 본문에 수렴하여 오히려 책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다루었다. 이에 본고는 서문을 포함한 번역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아Q정전』은 백화문(白話文)으로 쓰였으나 우리는 적지 않은 중국 문화 전적에서 유래한 문언(文言)과 고어를 행간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입언(立言)', '죽백(竹帛)' 등이 그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쓴 목적은 당시 문단의 보고파(保古派)를 풍자하고『아Q정전』을 읽는 사람을 일깨우는 데에 있다.『아Q정전』을 창작하게 된 시대배경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었고 중국은 무정부의 상태로 방황했을 때였다. 의학을 단념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루쉰은 곤경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중을 보고 신음하였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서 직면하여 글쓰기를 무기로 삼아 항쟁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배경에서 창작된 소설은 시대적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소설에서 등장한 인물과 전개된 스토리로 인해 반영된 것들은 일종의 문화기호로 볼 수 있다. 이는 오래된 중국 문명과 중국 문화가 잉태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며 작가 루쉰이 민중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 외치는 고함이다.

2) 사례 분석

『아Q정전』은 루쉰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중국 현대문학에 크게 기여한 걸작으로 평가를 받는다. 루쉰은 일종의 '정신 승리법'이라는 아Q주의를 창조하여 『광인일기』 등 다른 작품보다 더 통절하게 조국과 민중의 장래 운명을 걱정하는 애국적 심정으로 중국 민중의 정신적 병리를 폭로하고 있다[2]. 1990년부터 지금까지 『아Q정전』에 대한 번역서는 중역 및 재판을 제외하여 30여 종이 넘는다. 본고에서 분석할 대상이 될 한역본은 정석원(2004), 우인호(2007), 김태성(2011)의 번역본으로, 텍스트성을 적용하여 비교와 분석을 통해 비평을 시도하도록 하겠다. 정석원(2004)과 우인호(2007)는 모두 학자들로서 이들의 번역에는 다른 역본보다 상대적으로 학술성을 더 강하게 띠고 있다. 김태성(2011)은 『무슬림의 장례』 등 중국 저작물을 100여 권이나 낸 전문번역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독서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책들을 많이 번역하였다. 김태성(2011)의 『아Q정전』 번역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자병기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김태성(2011)과 같은 해에 출간된 번역이 있는데 바로 신여준(2011)이다. 그러나 신여준(2011)의 번역은 지나친 의역이 눈에 띄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대상에 제외한다.

> 원문: 他寫了一封"黃傘格"的信，托假洋鬼子帶上城，而且托他給自己介紹介紹，去進自由党。
>
> 역문: 그는 '황산격(黃傘格)'으로 쓴 엄중한 성토문을 가짜 양놈 편에 부치면서, 자신을 잘 좀 소개하여 자유당(自由黨)에 입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신여준: 2011:186)

徐花(2020: 282)에서는 위 예문을 제시하면서 역자가 문맥을 잘못 파악한 점과 밑줄 친 '신신당부하였다'는 원문의 '托'의 번역으로 적절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신여준(2011)은 '帶上城'을 '편지를 가지고 읍내(城)에 간다'로 번역하지 않고 '엄중한 성토문'이라 번역했다. 그리고 '신신당부하다'는 주로 윗사람이

2) 노신문학회, 『노신선집[1]』, 여강출판사, 2003, pp.9-10.

아랫사람에게 행하는 동작을 말하는 것인데 원문'托'(부탁하다)의 의도와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 학술성과 가독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정석원(2004), 우인호(2007), 김태성(2011)의 번역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연구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번을 매겼다.

<표2>『아Q정전』 한역본 및 역자 정보

순번	번역자	출판사	출판시기
1	정석원	서울: 문예출판사	2004
2	우인호	서울: 신원문학사	2007
3	김태성	파주: 열린책들	2011

(1) 응결성

Beaugrande · Dressler(1981: 71)에 기대면 응결성은 표층구성 요소들의 관계 즉 "문법적 의존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응결성은 응결수단들을 통해 실현된다. 회기법(recurrence), 부분 회기법(partial recurrence), 병행구문(paraphrase), 환언(paraphrase), 대용형(pro-form), 생략(ellipses), 시제(tense), 상(aspect), 접속표현(junction), 기능적 문장관점(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등은 이에 해당된다. 본고에서는『아Q정전』번역본에 많이 나타나는 회기법과 접속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ST'는 원천언어(중국어), 'TT'는 목표언어(한국어)를 의미한다.

<예시1>

[ST]: 但一面要做，一面又往回想，這足見我不是一个"立言"的人。

[TT1]: 그러나 막상 정전을 쓰려고 하니 옛날을 회상하게 되는데, 그러고 보니 나는 '입언'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것 같기도 하다.

[TT2]: 써야겠다 써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막상 쓰려고 하면 자꾸 망설여지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할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TT3]: 그러나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또다시 예전처럼 된다. 이는 내가 <후세를 위해 뭔가를 기록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회기법(recurrence)이란 구성 요소나 그 패턴을 단순히 반복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기법의 사용에 있어서 회기작용이 지나치게 빈번히 일어나면 텍스트의 정보성을 저하시킬 수 있지만 정보의 반복을 통해 강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문학번역에서 자기의 견해를 두드러지게 주장하고 재확인하거나 자신의 견해와 모순되는 발화체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회기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TT2]를 보면 '써야겠다'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사용되어 강조의 효과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상응하는 원문 텍스트 '要做'는 한국어 문법인 '-려고 하다'의 기본의미와 일치하지만 중국어 능동동사 '要'는 화자가 주관적인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는 감정적 표현이기도 하다. 'Break, break, break(부서져라, 부서져라, 부서져라) / On thy cold grey stones, O Sea!(차가운 네 잿빛 바위 위로, 오 바다여!)'는 회기법에 의해 파도의 움직임이 생생하게 표현되었다. [TT2]는 역시 두 번의 반복을 통해 중국어 어휘에 함축된 감정색체까지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또한 이것은 쓰려다가 주저하는 그러한 행동을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는 도상적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응결성은 언어의 도상성(iconic use)과 관련이 깊다. 왜냐하면 매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전달 방법 자체가 주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Cureton, 1981: 183), 어떤 가치가 또는 가치의 어떤 국면은 어떤 식으로든 언어 형식에 담겨질 수 있는 것이다.[3] 그러나 [TT1]와 [TT3]은 원문 텍스트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라 의미전달에는 문제가 없지만 [TT2]보다 생동감이 덜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문학비

3) 김태옥, 「텍스트 언어학과 현대문학_문학적 커뮤니케이션의 대체성 원리를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제6집(1), 국립국어연구원, 1996, pp.118. 김태옥(1996)에서는 '응집성'을 대신 '결속구조'를 사용했지만 본고에서 용어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결속구조'를 '응집성'으로 바꾸기로 한다.

평 측면에서의 반복은 미학적 효과의 중심이다. 반복 어법은 수사학에서 문장이나 담화의 구성과 관련된 구문의 문채(文彩)의 하나로 분류되어 왔다(김성운, 2014: 88). 이는 문장에서의 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감정, 정서적으로 격조를 높여주며 논리적 순차성을 보장하고 글의 내적 운율을 보장하는 등 경우에 쓰인다(태평무, 1999: 318). 따라서 반복의 미학적 가치를 고려할 때, 시너지(Synergy) 효과에 따르면 '1+1'의 답은 2가 아닐 수 있으며 3이나 4가 될 수 있듯이 반복적 표현, 음의 합창 등도 단순합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T2]처럼 문학번역에서 회기법의 적용을 통해 문학성이 더 풍부하고 미학적인 가치가 강조되는 번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형태적・통사적 측면에서 견주어 볼 때는 [TT2]에서 '써야겠다'를 꼭 두 번 반복해서 써야하는 이유가 있다. '-(어)야겠다'라는 문법 형태의 반복은 복수일 때 가장 자연스럽고 어미의 반복을 통해 복수의 대상인 '쓰다'가 갖는 표현적인 효과가 더 강조되기 때문이다.

<예시2>

[ST]: 因爲從來不朽之筆，須傳不朽之人，于是人以文傳，文以人傳 — 究竟誰靠誰傳，漸漸的不甚了然起來...(생략)

[TT1]: 왜냐하면 예로부터 불후의 붓은 불후의 사람을 전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문장에 의해 전해지고 문장은 또 사람에 의해 전해졌던 게 아니었을까? 결국 나는 무엇이 무엇에 의해 전해지는지조차 점점 불명확해졌지만...(생략)

[TT2]: 예부터 불후의 문장이라고 하면 반드시 불후의 인물이 전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은 문장에 의해 전해지고 문장은 사람에 의해 전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누구에 의해 전해지게 되는 것인가가 점점 모호해진다...(생략)

[TT3]: 옛날부터 불후한 글은 불후한 인물들의 전기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글을 통해 전해지고 글은 사람에 의해 전해진다는 것이 점점 더

알 수 없게 된다...(생략)

접속구조는 사건과 상황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수법이고 접속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Beaugrande · Dressler(1981: 111)에 기대면 최소한 네 가지의 주요 유형이 제시된다. 즉 등위 접속(conjunction), 이접적 접속(disjunction), 역접속(contrajunction)과 종속 접속(subordination)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문장 부호인 줄표는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고 정의된다.『現代漢語概論』에 따르면 중국어 줄표의 의미는 총 3가지가 포함된다. 즉 (1) 보충설명, (2) 의미의 전환, (3) 의미의 중단 혹은 연장이다. 김정우(2003: 46)에서 줄표는 국어 문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줄표가 담당하고 있는 문장상의 기능을 파악해서 줄표를 없애고 문장을 다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역자들이 중국어 줄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번역한 것인지 한국어에서 줄표를 제목 외에 잘 쓰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번역한 것인지를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TT1], [TT2], [TT3]은 모두 줄표를 삭제하여 접속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TT1]에서는 접속부사 '결국'이 첨가되어 앞 문장과 뒷문장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결국'이라는 부사를 통해 둘 중 하나만이 텍스트 세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접적 접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TT2]에서는 연결어미 '-는데'와 접속표현 '이렇게 되면'을 사용해 원문의 줄표를 번역했고 '-는데' 뒤에 나온 절이 앞에 있는 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상적인 결속성 관계를 명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속 접속 유형으로 귀납시켜 볼 수 있다. [TT3]에서는 연결어미 '-고'를 통해 병행구조를 이루었다. 이는 명확한 등위 접속이다. 다시 원문 텍스트로 돌아가 보면 원문 텍스트에서 나타난 문장부호인 '—'의 역할은 앞 절을 보충하여 설명한 것이다. 세 가지 역문은 모두 접속표현을 활용하여 번역했지만 원문 텍스트의 의미와 가장 근접한 번역은 [TT2]밖에 없다. [TT1]와 [TT3]은 오히려 오역에 더 가깝다. 따라서 번역텍스트에 나타난 응결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번역의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

(2) 응집성

하나의 텍스트가 '의미 있다'는 것은 "그 텍스트의 표현들에 의해 활성화되는 지식 간에 의의(意義)의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응집성은 바로 의의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응결성에 상대되는 개념이자 한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들어 주는 의미상의 조건이기도 한다. Beaugrande · Dressler(1981: 144-145)는 응집성에 대하여 "결속이란, 주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공간들이 구성하는 하나의 망(network)으로서, 개념들과 그들 관계가 그 안으로 결합해 들어감으로써 이루는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1차 개념과 2차 개념을 세운 토대 위에서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들의 의미망을 축조하는 방법론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이 자기 스스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추론이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응결성이란 명백히 단순한 하나의 텍스트 자질이 아니라 텍스트 사용자간의 인지적 처리과정에서 오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다. 문학번역에 있어서 문학텍스트의 의의 연속성 파악은 반드시 추론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음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예시3>

[ST]: (a)阿Q忍不下去了，他只好到老主雇的家里去探問－－(b)但獨不許踏進趙府的門檻，－－(c)然而情形也异樣：(d)一定走出一个男人來，現了煩厭的相貌，像回夏乞丐一般搖手道：...(省略)

[TT1]: 아Q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동안 붙어 살았던 몇 집을 찾아가보기로 했다. 짜오 가만은 대문이 출입이 금지되지만. 그러나 이상한 노릇이었다. 어떤 집이든 남자가 나와 마치 거지를 대하듯 귀찮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젓는 것이 아닌가... (생략)

[TT2]: 아Q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단골집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았다. 조씨 댁은 제하고서 말이다. 그런데 사태는 일변했다. 반드시 남자가 나와서 귀찮다는 듯한 얼굴로 거지라도 쫓아 버리듯 손을 내저으며 아Q에게 말하는 것이었

다... (생략)

[TT3]: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아Q는 옛날의 주인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원래 자오 나리 댁만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거의 모든 집에서 남자가 나와서는 귀찮다는 얼굴로 거지를 내쫓기라도 하듯이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생략)

Collins(1978)에 따르면 인간은 확실히 전통적 논리학이 설명할 수 없었던 복잡한 추론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결론으로의 비약, 주관적 유추의 추구, 심지어 지식 없이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이에 해당된다. 원문 텍스트 (b)에서는 '반드시 한 남자가 나와서'라고 했는데, 어떤 남자인지 바로 알기가 어려우므로 독자에게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원문 텍스트 문맥이 제공한 화용적 정보와 Collins가 말한 인간의 추론 능력에 의해서 짜오 나리 댁을 제외한 아Q의 옛날 단골집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T2]는 (b)문장을 그대로 직역하여 '반드시 남자가 나와서'로 번역했다. [TT1]은 '어떤 집이든'과 [TT3]은 '거의 모든 집에서'라는 정보를 첨가하여 남자가 나타난 범위를 한정했다. 그래서 텍스트 수용자의 입장에서 견주어 볼 때 [TT1]과 [TT3]은 [TT2]에 비해 더 명확한 번역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3) 정보성

정보성은 수용자에게 제시된 자료가 새롭거나 예측 불가능한 정도를 나타낸다(Beaugrande · Dressler, 1981: 209). 이것을 번역 텍스트에 적용해보면 두 가지 처리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원문 표현이 독자에게 생소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역자가 정보의 추가나 축소의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역자는 번역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의 추가 및 축소의 수단을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한다. 번역텍스트 내에서 괄호 안에 설명을 추가하거나 역주를 다는 방법, 각주 등을 통해 정보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4]. 두 번째는 원문텍스트에 주어진 정보를 도착텍스트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바꾸어 쓰는 것이다. 하지만 번역할 때 텍스트에 쓰인 독창적인 요소들을 모두 격하시켜 독자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춰주는 것만이 훌륭한 번역은 아니다. 왜냐하면 독자는 자신의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정보성의 텍스트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기준보다 높은 정보처리 과정이 필요한 텍스트에 더 흥미를 갖고 접근하기도 하기 때문이다[5]. 다음으로는 정보성을 적용한 예시를 통해 세 가지 번역본을 비교하여 분석해보자.

<예시4>

[ST]: 他活着的時候，人都叫他阿Quei，死了以后，再沒有一个人叫阿Quei了，那里還會有“著之竹帛”的事。

[TT1]: 그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아꿰이(Quei)”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자 마무도 그를 ‘아꿰이’라고 부르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 소위 “죽백(竹帛)에 기록할 만한” [6]건더기라도 있었겠는가?

[TT2]: 그가 살아 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아쿠이(阿Quei)라고 불렀으나 죽은 뒤에는 누구 하나 그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물며 “죽백(竹帛)에 기록한다”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TT3]: 그가 살아 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아Quei라고 불렀다. 죽은 뒤로는 누구 하나 아Quei를 입에 올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 어디 <역사에 기록되는>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TT1]에서는 직역을 했지만 각주를 다는 방식을 통해 ‘竹帛’의 어원을 밝혔고

---

4) 백수진, 「텍스트성과 번역전환-중한 번역-」, 『중국어문학회』 제13집, 중국어문학회, 2003, pp.224.

5) 김세정, 「텍스트의 정보성-문학작품 속 어휘번역」, 『번역학연구』 제4집(2), 한국번역학회, 2003, pp.66.

6) 《여씨춘추(呂氏春秋)》의 중춘기(仲春紀)에 “죽백에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다(著之竹帛, 傳乎后世)”고 한 것에서 따온 말임, 죽백(竹帛)이란 죽간과 비단으로 중국 고대 사서의 도구이다.

[TT2]에서는 원문텍스트를 '죽백(竹帛)에 기록한다'로 그대로 직역했다. [TT3]에서는 '竹帛'을 '역사'로 의역했다. 정보성을 고려하면 [TT1]의 정보량이 가장 많으므로 중국 고전문화 지식이 부족한 독자에게 [TT1]의 역주를 통해 원문 텍스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竹帛'을 '역사'로 의역한 [TT3]도 독자에게 쉽게 읽히는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번역 텍스트를 형성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역동적인 등가의 관점으로 출발언어와 도착언어에서 수신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텍스트에 반응하는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TT3]은 한국인 독자에게 쉽게 읽히는 표현으로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 2.1에서 『아Q정전』은 백화문으로 쓰였지만 중국 문화 전적에서 유래한 문언과 고어를 많이 인용한 작품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다. 그래서 '竹帛'라는 고어에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자가 이에 대한 번역 전략을 세울 때 [TT3]처럼 저자의 의도보다 독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할지, 아니면 정보량이 좀 많더라도 [TT1]과 같이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지영(2019)에서는 번역과 문학정전의 시대적 다시쓰기의 연구를 통해 『아Q정전』 한영본의 다시쓰기 양상을 출판시기에 따라 제1기(1978~1994)와 제2기(2003~2018)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2기의 『아Q정전』 번역텍스트에 나타난 언어적 다시쓰기 양상은 제1기의 그것과 견주어 유형화해볼 때 난해한 한자어 사용의 감소, 풍성한 의태어 및 의성어 사용에 기반한 고유어의 확장 등이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은 언어적 변이양상의 시대적 차이는 21세기 초 한국사회의 문학정전 '다시쓰기' 맥락에서 정전텍스트를 읽는 주 독자층(청소년 수용자)의 수용성이 크게 고려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문학정전의 수용대상을 청소년으로 가정할 때 청소년은 배경지식이 부족하고 한자어 사용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TT3]의 번역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독자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춰주는 것만이 훌륭한 번역은 아닐 수 있다는 말처럼 청소년의 비위를 계속 맞추다보면 청소년들에게는 문학정전의 진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놓쳐버리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의도성과 용인성

Beaugrande · Dressler(1981)는 다른 텍스트성들을 각각 장을 달리 해서 다루고 있는 반면 용인성과 의도성을 같은 장에서 다루었다. 이는 텍스트의 용인성과 의도성의 긴밀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의도성은 원문 텍스트를 생산한 저자의 입장이라면 용인성은 번역 텍스트를 수용하는 독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번역에 있어서 텍스트를 생산한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듯 텍스트를 수용하는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역자가 원문 텍스트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번역 텍스트의 독자가 용인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음 <예시5>, <예시6>에서 의도성과 용인성을 적용하여 분석하겠다.

<예시5>

[ST]: 很白很亮的一堆洋錢！而且是他的—現在不見了！說是算被儿子拿去罷，總還是忽忽不樂；說自己是虫多罷。也還是忽忽不樂：他這回才有些感到失敗的苦痛了.

[TT1]: 희고 빛까지 났던 은전 한 무더기 — 그것은 아Q의 것이었는데 — 이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아이들에게 빼앗겼다고 쳤지만, 그래도 아Q는 어딘지 모르게 서글펐다. 그렇지, 스스로 버러지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자위해보았지만 그래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번만은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다.

[TT2]: 반짝반짝 새하얗게 빛나던 은화 더미! 바로 자기의 것이었는데.....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자식 놈이 가져간 셈 쳐 보았으나 역시 분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나는 버러지다'라고 크게 소리쳐 보았으나 그것도 신통치 않았다. 아Q도 이번만은 실패의 고통을 뼈저리게 맛보았다.

[TT3]: 새하얗고 번쩍번쩍 빛나는 은화 더미였다! 게다가 남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이었는데 이제 전부 사라지고 없었다. 말로는 아들놈이 가져간 셈 치고자

했지만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이 벌레라고 말해 봐도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역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실패의 고통을 느낀 것이다.

<예시5>는 저자의 의도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루쉰은 『아Q정전』에서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여 아Q의 정신세계를 부각시켰다. 작품의 우의성과 풍자성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해 '似乎'(마치), '有些'(약간), '仿佛'(마치...인듯하다)와 같은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했다. "似乎"는 23번, "有些"는 19번, "仿佛"는 13번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원문 텍스트에서 '有些'(약간)라는 중국어 표현에 담겨진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번역본 중에 [TT3]은 직역을 통해 저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표현된다. [TT1]은 저자의 의도를 잘 표현하지 못할뿐더러 원문 텍스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호한 표현까지 의미 없이 추가된다. [TT2]는 '뼈저리게'라는 표현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아Q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지만 저자의 의도와 멀어졌다고 판단된다.

<예시6>

[ST]: 阿Q不開口，想往后退了；趙太爺跳過去，給了他一个嘴巴

[TT1]: 아Q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짜오타이예가 달려들더니 따귀를 냅다 갈겼다.

[TT2]: 아Q는 입을 열지 않고 계속 다망치려고만 했다. 조 나리는 아Q에게 와락 달려들어 따귀를 한 대 갈겼다.

[TT3]: 아Q가 입을 열지 않은 채 뒤로 물러나려 하자, 자오 나리가 달려들어 따귀를 한 대 올려붙였다.

<예시6>에서 [TT1]과 [TT2]는 한국인 독자층의 수용성을 높이는 번역으로 분석될 수 있다. [TT1]은 '냅다'라는 부사를 추가했고 [TT2]는 '와락'이라는 부사를 첨가했다. '냅다'는 몹시 빠르고 세찬 모양을묘사하는 것이며 '와락'은 갑

자기 행동하는 모양을 말한다. 한국어 부사는 동사가 가리키는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묘사할 때 쓰이고, 한국어 고유어 부사의 정수인 의성어, 의태어는 어떤 대상이 시간 속에서 나타내는 변화를 순간순간 개별적으로 섬세하게 나타내는 데 알맞은 말이다(이희재 2009: 115-118)[7]. [TT1]과 [TT2]에서 '냅다'와 '와락'이라는 의태어를 통해 조 나리가 아Q에게 달려들어 따귀를 갈기는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TT3]은 원문 텍스트의 표현을 정보 추가나 삭제 없이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 독자에게 실감나는 부사를 첨가한 [TT1]과 [TT2]는 [TT3]보다 더 나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상황성

상황성이란 한 텍스트를 그 발화의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만드는 요인들에 관여한다. 상황성이라는 용어는 한 텍스트를 현재의 발화 상황이나 복원 가능한 상황에 적절히 관련 있도록 만들어 주는 요인들에 대한 일반적 명칭이다(Beaugrande・Dressler, 1981: 18/263). '천천히 노는 어린이들'이라는 도로표지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이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 할만한 지점에 설치된다. 즉 '천천히'라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알리기보다는, 속도를 줄이라는 요청이라고 이해하는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상황성 요인을 적용한 예시를 보자.

<예시7>

[ST]: (생략) ...哪知道第二天，地保便叫阿Q到趙老太爺家里去... (생략)

[TT1]: (생략) ...그러나 이튿날이 되자 띠빠오(地保, 옛날 토지 매매 증명서나 관리의 명령을 전달하던 지방 관리)가 찾아와 짜오타이예가 부른다고 했다...

7) 이지영, 「번역과 문학정전(正典)의 시대적 수용: 『아큐정전(阿Q正傳)』 한역본(韓譯本) 곁텍스트(paratext) 분석을 중심으로(1972-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9, pp.95.

(생략)

[TT2]: (생략) ...그런데 이튿날 지보(地保, 향촌에 토착한 치안대)가 오더니 아Q를 조 나리 댁으로 끌고 갔다...(생략)

[TT3]: (생략)...그런데 다음 날, 지보(地保)가 오더니 아Q를 자오 나리 댁으로 끌고 갔다... (생략)

주인공 아Q는 성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의 성이 조(趙)인 것 같기도 했지만 다음 날이 되니 그것마저 모호해졌다. 조 나리의 아들이 수재(秀才)에 급제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을 때 아Q는 술 취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미친 발언을 했다. 조 나리의 아들이 수재에 급제한 것은 자신에게도 커다란 영광이라며 자기는 조 나리와는 사실 일가로서 엄밀히 따지면 자신이 수재보다 3대나 위라는 것이다. <예시7>의 원문 텍스트는 이 이야기의 뒤를 이어 발생한 일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원문 텍스트에서 사용된 중국어 동사 '叫'는 인칭대명사 앞에 놓이면 '부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TT1]처럼 지보가 찾아와 조 나리가 아Q를 부른다고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아Q의 말을 들은 조 나리가 모욕을 당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조차 없는 하찮은 아Q가 감히 자신과 한 집안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도 조 나리는 아Q를 보자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쳤다고 묘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보는 조 나리의 권세를 빌어 우세를 부린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보는 아Q를 보자마자 아Q의 이름조차 안 부르고 바로 끌고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텍스트가 수용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 그 텍스트의 '지시체'가 '옳은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 오히려 참여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상황에서 텍스트가 신뢰성과 적합성을 갖는냐 하는 점에 달려있는 것이다(Beaugrande · Dressler, 1981: 274). 문학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관계를 잘 파악해야 번역 텍스트를 재생산할 때 주어진 상황과 걸맞은 표현을 골라서 쓸 수 있다. 따라서 [TT2]와 [TT3]은 원문 텍스트의 언어 환경을 이해하고 인물관계를 더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가 더 잘 표현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은 프랑스 언어학자인 Kristeva가 만든 용어이고 한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다른 텍스트의 흔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성경 전도서 1장 9절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개역한글)”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것이 없고 그저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뿐이다. 이 말은 상호텍스트성이 없는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Beaugrande · Dressler(1981: 19)가 언급한 상호텍스트성은 어떤 텍스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전에 경험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텍스트 지식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요인에 관여한다. 상호텍스트성은 또한 유형적 상호텍스트성과 지식적 상호텍스트성으로 나뉜다. 전자는 텍스트 종류의 형식과 깊은 관련이 있고 후자는 인용과 인유가 여기에 해당된다. Beaugrande · Dressler(1981: 278-281)가 유형적 상호텍스트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텍스트, 화술 텍스트, 쟁론 텍스트, 문학 텍스트로 분류했고 많은 텍스트의 경우에 기술적, 화술적, 쟁론적 기능이 혼합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문학 텍스트도 역시 다양한 기술, 활술, 쟁론의 집합이다. 그래서 쟁론 텍스트에서 강조와 역설을 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 회기법, 병행구문과 같은 결속구조적 장치들이 문학텍스트에서도 적용된다. 본고 2.2.1에서 회기법을 적용한 번역 사례를 분석한 바가 있었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문학정전『아Q정전』은 문학 텍스트의 풍자소설 유형에 속하며 작가 루쉰은 작품의 풍자성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해 고전문학에 대한 인용이 많다. 따라서 상호텍스트성을 적용하여 세 가지 번역본을 분석할 때 인용에 대한 번역전략을 고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다음 <예시8>을 통해 상호텍스트성이『아Q정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예시8>

[ST]: 總而言之，這一篇也便是“本傳”，但從我的文章着想，因爲問題卑下，是“引車賣蔣者流”所用的話，所以不敢僭称。

[TT1]: 이상을 종합해보면 이 문장도 곧 하나의 '본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문장은 문체가 마치 '수레나 끌고 된장이나 파는 자'들이 사용하는 말처럼 비속한 까닭에 감히 '본전'이란 명칭은 사용할 수가 없다.

[TT2]: 그러므로 결국 본전이라고 해야 하겠으나, 문장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문체에 품위가 없어 리어카꾼이나 행상인의 문장과 비슷함으로 감히 본전이라 칭할 수도 없다.

[TT3]: 요컨대 이 글은 <본전>이 되겠지만 내 글의 성격을 가지고 따지자면 문체가 워낙 저속하고 <수레를 끌면서 콩국이나 파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감히 본전이라고 주제넘게 칭할 수도 없었다.

원문텍스트에서 인용된 '引車賣蔣者流'라는 말은 중국고전 <史記・魏公子傳>에 있으며 사회지위가 아주 낮은 하층민을 의미한다. 작가 루쉰은 백화문 운동을 열렬히 지지하는 혁명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引車賣蔣者流'라는 표현은 백화문을 비유한다. 당시 복고주의자였던 린수(林紓)가 차이위엔페이(蔡元培)에게 보낸 글 속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만일 고서를 모두 폐지하고 토속어를 문장에 사용한다면 현재 수레를 끌거나 된장을 파는 장사치들이 사용하는 말도 모두 문법에 맞는 판이다."[8]

'引車賣蔣者流'라는 표현이 인용된 것은 혁명가로 불리는 루쉰이 백화문 운동을 앞장서서 제창하는 차이위엔페이(蔡元培)를 성원하는 목적도 있고 반대 소리를 내는 린수(林紓)를 풍자하는 의도도 있다. [TT1]와 [TT3]은 직역을 통해 원문텍스트를 비슷하게 목표텍스트로 옮겼다. [TT2]는 '수레나 끌고 된장이나 파는 자'의 상위어 '리어카꾼이나 행상인'을 사용하여 의역한 것이다. 이는 모두 목표문화권의 사회성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원문 텍스트의 의미를 손색없이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TT1]과 [TT3]은 원문 텍스트를 그대로 직역하여

8) 원문: "都下引車賣漿者流，所操之語，按之皆有文法。".

‘수레’, ‘된장’, ‘콩국’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TT2]보다 오히려 풍자의 의미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번역에 있어서 상호텍스트성을 적용한 번역은 원문 텍스트의 문화와 목표 텍스트의 문화 사이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독자의 수용도가 낮아진다. 중국과 한국은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지만 한국 독자에게는 중국 백화문 운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위의 예문을 이해할 때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문학번역은 비문학번역보다 목표문화권에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문화 수출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수용 가능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만약에 용인성의 관점으로 독자층의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TT2]는 ‘리어카꾼이나 행상인’과 같은 고어투의 표현은 오늘날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은 표현이고 ‘길거리 노점상들이나 장사치’와 같은 현대적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4. 결론

지금까지 텍스트성의 일곱 가지 기준을 문학작품 『아Q정전』의 세 가지 한역본에서 적용하여 비평적 시각으로 분석해봤다. 김태옥(1999: 110)에서는 문학은 하나의 무한히 열려 있는 영속적 의미 적용이며, 문학성은 따라서 텍스트 자체의 속성이기보다는 텍스트 사용자의 성향과 그들의 끊임없는 정신 작업에 달려 있다고 했다. 문학비평의 난점은 문학성을 개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번역에 있어서 시적 혹은 문학적 기능이 번역 텍스트에서 동일한 작동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시적 기능이나 문학적 기능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난제로 간주된다. 문학비평에 대한 연구는 실용번역평가의 연구에 비해 빈약한 현실에 처해 있다. 실용번역과 달리 문학번역은 미학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문학번역 텍스트를 분석할 때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어렵고 작품의 문학성을 살릴 수 있는 비평기준이 필요하다. 기존의 문학번역비평 방법론은 원문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의 대조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본고는 『아Q정전』의 세 가지 한역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텍스트언어학적

번역비평의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원작과 대조분석을 통한 오류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와 텍스트 수용자의 입장을 번역비평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도성과 용인성의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는 응결성을 적용하여 '회기법'이라는 응결장치의 사용을 통해 문학성이 더 풍부한 번역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화용적 정보와 인간의 추론 능력에 의한 응집성에 대한 적용은 번역 텍스트에 한국 독자층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원문텍스트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의미의 연속성을 이루었다. 또한 정보성을 적용한 분석에서는 난해한 한자어에 대한 처리방법을 논의하였다. 즉 문학정전 텍스트를 읽는 주 독자층(청소년 수용자)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한자어를 회피하는 것보다 역주나 각주를 다는 방식을 통해 문학정전의 진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 방법이다. 상황성의 분석에서는 역자가 문학번역 텍스트를 재생할 때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과 걸맞은 표현을 골라서 써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번역가는 이것을 파악해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호텍스트성을 적용하여 분석할 때 인용에 대해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같은 예문이라도 텍스트성의 여러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본고의 예시와 분석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더 강력히 적용됨으로써 텍스트 내용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작품의 문학성이 더 풍부하게 전달될 수 있을지 중요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문학번역은 정답이 없는 작업이고 번역 과정에서 만나게 된 정보성과 용인성의 모순, 의도성과 용인성의 대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자의 정확한 판단뿐만 아니라 과감한 선택도 반드시 필요하다.

본고에서 『아Q정전』의 세 가지 한역본에 대한 비교 분석은 통계적인 패턴이나 일반화된 원리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더 많은 예시와 분석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그러나 텍스트언어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문학 번역비평 연구는 기존의 없었던 시도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생

산적인 번역비평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고영근, 『텍스트이론-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아르케, 1999.
김태성, 『아Q정전』, 서울: 열린책들, 2008.
노신문학회, 『노신선집[1]』, 여강출판사, 2003.
우인호, 『아Q정전』, 서울: 신원문학사, 2009.
정석원, 『아Q정전』, 서울: 문예출판사, 2010.
태평무, 『중국어 번역이론과 기교』, 연변: 신성출판사, 1999.
Beaugrande, R.-A. Dressler, W. 『텍스트 언어학 입문』, 김태옥・이현호 공역, 양영각, 1981.
陳阿宝・吳中偉, 『現代漢語概論』,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2.

2. 논문

김세정, 「텍스트의 정보성-문학작품 속 어휘번역」, 『번역학연구』 제4집(2), 한국번역학회, 2003, pp.49-69.
김성운, 「옵아트에 나타난 반복 미학에 대한 연구_질 들뢰즈의 반복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제17집,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14, pp.83-93
김정우, 「자연 과학 텍스트의 번역 방법론 시론」, 『번역학연구』 제4집(1), 한국번역학회, 2003, pp.27-49
김태옥, 「텍스트 언어학과 현대문학_문학적 커뮤니케이션의 대체성 원리를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제6집(1), 국립국어연구원, 1996, pp.108-139.
백수진, 「텍스트성과 번역전환-중한 번역-」, 『중국어문학회』 제13집, 중국어문학회, 2003, pp.207-236.
이재원, 「드 보그랑데/드레슬러(1981)의 텍스트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텍스트언어학』 제11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1, pp.279-302.
_____, 「번역에서의 텍스트성 등가를 위한 기고-응결성 등가를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제5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구소, 2013, pp.217-240.
이상원, 「문학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학연구』 제9집(2), 한국번역학회, 2008, pp.149-166.
이지영, 「번역과 문학정전(正典)의 시대적 수용: 『아큐정전(阿Q正傳)』 한역본(韓譯本) 곁텍스트(paratext) 분석을 중심으로(1972-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

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9.
전현주, 「번역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 『번역학연구』 제9집, 한국번역학회, 2008, pp.215-257
황세정, 「텍스트 유형과 텍스트성에 따른 번역 방법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7.
徐花, 「『아Q정전』의 번역현황과 시대별 특징에 대한 고찰」, 『中國學』 第70輯, 2020, pp.257-289.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4월 19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20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6월 10일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by Using Text Linguistic Methodology
—Focusing on the Translation Aspects of the 『The True Story of Ah Q』

Liu, Yichen

There are two characteristics of literary work translation criticism up to now, either excessively obsessed with form or excessively subjective evaluation, and both methods of criticism have problems. In addition, in the translation analysis stage, there is a problem that sometimes cannot escape from error analysis through the original work and contrast analysis. In consideration of these problems, this paper attempted a new approach to analysis of translated texts. In other words, it seeks more fruitful translation criticism by applying the seven criteria of textuality, deviating from the contrast analysis between the existing fragmentary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ed text through a text linguistic approa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rsue text-oriented translation by using a text-linguistic methodology when analyzing translated texts compared with the original works.

In this paper, through critical text analysis of the three Korean translations of literary canon 『The True Story of Ah Q』, the problem of error analysis through contrast analysis with the original work was supplemented. And translation criticism research using text linguistic methodology is an unprecedented attempt and can have important value in that it moves toward more specific and productive translation criticism.

Keyword text linguistics, textuality, text analysis, literary canon,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criticism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1.075

汉·韩祈使句中人称信息的人际功能对比研究

박 성 일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명령문에서 인칭정보의 실현방식에 주목하여 명령문에서 주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어가 나타내는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성분에 의해 보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령문에 나타나는 인칭정보를 인칭대명사 뿐 아니라 중국어에서는 어기사, 한국어에서는 문장종결법, 높임법과의 연계 속에서 분석했으며 주어부와 술어부에서의 한국어와 중국어 인칭정보의 비대칭 양상에 대해 통계하고 분석했다. 중국어에 비해 주어 위치에서 한국어의 인칭대명사 생략이 빈번했고, 한국어에서의 인칭정보는 인칭대명사보다는 술어부의 종결어미, 선어말어미들을 통해 실현되는 현상들을 기술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령문에서 인칭정보의 비대칭 현상은 상호관계적 메타기능을 수행할 때에도 차이를 보여준다. 중국어의 명령문에서는 인칭대명사 ni와 nin의 교차사용 및 어기사의 사용을 통해 명령 강도를 조절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주로 종결어미의 화계와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높임 정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명령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조분석에서의 대화 맥락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준-구어자료에 해당되는 희곡 작품 및 그 번역본을 대화 자료로 사용했다. 이것은 희곡 작품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언어에 대한 연구가 용이해지고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제어 명령문, 인칭정보, 상호관계적 메타기능, 인칭대명사, 서법, 높임화계

<目录>

1. 引言
2. 人称和语气研究
3. 汉·韩祈使句人称信息分布的倾向性
4. 汉·韩祈使句人际功能分析
5. 结语

*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부교수

1. 引言

汉语的句子一般分为陈述句、疑问句、感叹句、祈使句四类。其中祈使句是人们用来表达命令、要求、劝阻、禁止等意愿的句子，是说话人让听话人做某事的句子。汉语祈使句从句法形式上看，它的谓语主要由表示动作、行为的谓词性词语充当，主语往往是第二人称代词你、您、你们或第一人称代词复数形式咱们、我们；此外，祈使句的主语常常可以略去不说。从表达功能上看，祈使句的作用主要是要求(包括命令、希望、恳求等)听话人做或不做某事[1)]。韩国语通过终结语尾向听话人传达自己的意愿。这种文章终结法称作文体法，一般分为五种：即平叙文、疑问文、感叹文、命令文、请诱文。其中与汉语祈使句对应的有命令文和请诱文。命令文指“说话人要求听话人按照自己的意图行动的句子类型，以命令型终结语尾实现”[2)]。请诱文指“说话人向听话人邀请或建议一起行动的句子类型”[3)]。命令文和请诱文都是表示说话人让听话人做出行动的句子。命令文实施命令的主体是听话人，请诱文则说话人和听话人一起做某事。二者都具有要求听话人做或不做某事的语义功能，跟汉语的祈使句相对应，为了叙述方便，本文将命令文和请诱文统称为韩国语祈使句。汉·韩祈使句在人称信息的表达方式上有所不同。例如：

(1) 你坐吧！
　(너) 앉아라.
(2) 您坐吧！
　(Ø) 앉으십시오.
(3) 咱们坐吧！
　(우리) 앉읍시다.

---

1) 袁毓林,『现代汉语祈使句研究』,北京大学出版社,1993.p7.
2) 남기심·고영근,『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탑출판사,1993.p352.
3) 남기심·고영근,『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탑출판사,1993.p354.

祈使句是要求听话人做某事，听话人自然成为主语，通常认为主语体现人称信息。例(1)、(2)、(3)中，汉语祈使句的“你”、“您”、“咱们”人称代词表示听话人的信息，即表示[-尊敬]、[+尊敬]、[+复数]。韩国语祈使句体现人称信息可以不直接使用主语位置的人称代词，而用“-아라”、“-ㅂ시오”、“-ㅂ시다”等终结语尾或先语末语尾“-시-”来表示，即便省略了主语，也能知道主语的人称信息。

我们认为汉语和韩国语在祈使句中表示人称信息的方式除了人称代词，还有汉语的语气词以及韩国语的终结词尾、先语末语尾都能表示重要的人称信息。汉语和韩国语人称信息体现方式的不同，会导致主语隐现的差异，也会影响话语中的人际功能。本文将以曹禺的话剧<雷雨>以及其韩译文作为语料，分析汉语和韩国语祈使句中人称信息的不对称性，分析并叙述人称信息不对称导致的汉·韩祈使句人际意义的差异。

2. 人称和语气研究

在交际过程中，说话人可以随时改变自己的言语角色，如陈述自己的见解、提问或下命令，有时表达惊讶或恐惧等情感。尽管语言的言语角色多种多样，但它只有“给予”和“求取”这两个最基本的任务。说话人给予听话人某种东西，或者向他求取某种东西。“给予”和“求取”指向一定的交际对象，它们和交际中的基本“交换物”，即“服务/物品”和“信息”相结合，组成了人类交际的四种基本功能类型：“提供”、“命令”、“陈述”、“提问”[4]。“给予”和“求取”是指向一定的交际对象的，说话人不但自己做某事，同时还要求听话人做事，这就意味着，代表交际双方的人称和语气是有关系的、互相影响的。

言语活动一般都具有交际性特征，有说话人和听话人等交际参与者。人称作为表示言语活动参与者的重要语法范畴，会对言语活动产生重要的影响。这种人称信息通过不同的方式体现在句子中，如人称代词、语气词等。김

4) 参见胡壮麟、朱永生、张德禄、李战子,『系统功能语言学概论(第三版)』,北京大学出版社,2017.pp.110-113.

미형(1995:214)认为“人称”是掌握交际参与者角色概念和意义关系的要素。第一人称是说话人用来指示他自己作为谈话主题；第二人称指示听话人；第三人称用于指示说话人和听话人以外的其他人或事物。박동열(2003)认为韩国语是以词汇、语义或话语语境来实现言语行为人称的。这种言语行为人称的痕迹以“-시-”、“-ㅂ니”、“-님”、“께서”、“께”、“겠”，还有敬语话阶等方式体现在词汇和句子中。我们从系统功能语法的角度出发，认为人称(person)是“指一个语言活动情景中参与者和相关角色的数目和性质”[5]，是语言活动中影响言语角色的重要因素。

一般认为，语气指“mood”，情态则是指“modality”。西方语言学认为语气是mood，是通过动词的曲折变化而表达的说话人的主观态度，是语法范畴，有直陈语气、祈使语气、虚拟语气三种；而情态是modality，是表达说话人主观态度的语义范畴。西方的mood是指通过动词的曲折变化来表现出来的说话人的态度。而汉语没有明显的形态变化，是孤立语，没有跟“动词的曲折变化”相对应的部分。对这个问题学者们认为由于汉语语气词与印欧语言的动词形态在功用上是相同的，都是表达说话人的态度和看法，于是找不到动词形态方面的语法特征时，就利用了汉语中最为显著的语气词来替换西方语言中的动词形态来定义语气。虽然目前现代汉语语法学界混淆使用mood和modality术语，但所指出的本质特征是相同的，即mood是区分句类的标准，而modality是指说话人对命题内容的主观态度或感情。

关于现代汉语语气系统，贺阳(1992)把汉语的语气分成功能语气、判断语气、情感语气三大类。功能语气又分为陈述语气、疑问语气、祈使语气、感叹语气。他认为汉语的功能语气跟西方的mood没有太大差别，而判断语气所表达的意义跟西方的modality有着密切的关系。齐沪扬(2002)将汉语的语气系统分成功能语气和意志语气两大类。功能语气又细分为陈述语气、疑问语气、祈使语气、感叹语气。贺阳和齐沪扬根据交际目的先划分出功能类别，然后以说话人的主观态度为依据划分意志类别、评判类别、情感类别，跟西方的mood

5) 朱敏，『汉语人称与语气选择性研究』，世界图书出版公司，2012.p10.

和modality相对应。房玉清(2008)将语气分成九类：确定语气、夸张语气、停顿语气、疑问语气、反问语气、假设语气、测度语气、祈使语气、感叹语气。房玉清的分类中功能和主观态度掺杂在一起，不容易分辨其划分标准。温锁林(2001)先区分语气和口气，根据句子的具体功能将语气区分陈述语气、祈使语气、感叹语气、疑问语气，然后以说话人对命题内容的主观感情和态度为基础将口气(modlity)区分主观情态和客观情态[6]。根据前人研究成果，我们按说话人的交际目的将现代汉语语气系统分为陈述语气、疑问语气、祈使语气、感叹语气。

韩国语学界也有对mood(叙法)和modality(样态)术语的争论。将“叙法”当做句子类型范畴术语的有임홍빈·장소원(1995:352)、이남순(1995)、장경희(1985,1998)等。서정수(1996:6章)将把“叙法”分为“文末叙法”和“非文末叙法”，前者指句子类型范畴，后者指样态范畴[7]。我们按句子类型将韩国语语气分为陈述、疑问、命令、请诱、感叹，其中命令和请诱相当于汉语的祈使语气。区分句子类型的句子终结法跟敬语有着密切联系。韩国语终结语尾敬语话阶可分为六个等级：即，해라体、해体、하오体、하게体、해요体、하십시오体。

3. 汉·韩祈使句人称信息分布的倾向性

1）人称代词信息不对称

汉语和韩国语的第二人称代词均有“平称－－敬称”之分，汉语有“你”－“您”，韩国语有“너”、“자네”、“당신”、“그대”、“임자”、“자기”、“어르신”等。韩国语的“그대”是文言式代词，现代韩国语中很少用，只在书信体或诗歌中偶尔使用。现代韩国语中“임자”也几乎很少出现。“자기”原是用作反身代词的，从70年代开始逐渐作为第二人称代词使用。在现代韩国语中，“자기”在3、40岁以下的彼此熟悉的同龄人之间使用，不是所有社会阶层都使用的代词形

6）引自金智妍,『现代汉语句末语气词意义研究』,夏旦大学博士学位论文,2011.pp18-22.
7）引自박재연,『한국어 양태어미 연구』,태학사,2006.p22

式。一些传统语法书中，还把“어르신”包括在第二人称代词的范畴里，我们认为“어르신”应归分到身份名词中。本文就对常用的“너”、“자네”、“당신”作为考察对象，语料中也只出现了“너”、“자네”、“당신”三种第二人称代词形式。

我们对汉语<雷雨>和韩译版<뇌우>的祈使句主语形式进行了统计。以下是汉·韩祈使句主语人称形式频率表。

<表1> 祈使句主语人称形式频率表

汉语	次数（比率）	韩国语	次数（比率）
您	62（11.2%）	당신	28（5.1%）
你	326（59.1%）	자네	8（1.5%）
		너	41（7.4%）
我们、咱们	29（5.2%）	우리	20（3.6%）
零形式	133（24.1%）		447（81%）
其他名词	2（3.6%）		8（1.4%）
总计	552（100%）		552（100%）

可以看出，在语料中，汉语祈使句主语使用频率最高的是第二人称代词形式，汉语原文“您”和“你”共出现388次，占63%，省略不出现的代词零形式也较多，占24%。韩国语则代词省略形式最多，占81%，“당신”、“자네”、“너”等第二人称代词形式出现在主语位置的有77次，占14%。汉·韩第二人称代词使用对比值为5:1，祈使句中第二人称代词出现在主语位置的次数汉语明显比韩国语多。汉语的第二人称代词只有“你”、“您”两种形式，但使用次数多，使用频率也比韩国语高；韩国语第二人称代词，虽然有多种形式，相对汉语而言，使用次数少，频率也很低。

当代词出现在主语话题位置时，或者有称呼语，再回指其称呼语的时候韩国语往往省略代词，汉语不省略，这种现象较为普遍。例如：

(4) 您少说闲话吧！

쓸데 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5) 凤，你坐下。

봉아, 앉아봐.

例(4)是没有先行词的情况下直接用了“您”，“您”出现在主语话题位置，韩国语省略人称代词更自然。例(5)则是先出现先行词“凤”，后用“你”来回指的情况，这时韩国语也省略主语。

2）语气词成分的不对称

汉语和韩国语都在祈使句的末尾加语气词[8]，汉语表祈使语气的语气词有“啊”、“吧”、“嘛”、“呢”[9]。韩国语通过″-라, -어, -어요, -게, -십시오″等命令型终结语尾来实现祈使语气。汉语语气词起到缓和祈使语气作用，其功能跟韩国语的语气词(终结语尾)截然不同。汉语语气词可有可无，只是起到缓解语气的作用，韩国语语气词是句子的终结成分，每个句子几乎都要出现，是句子必须有的组成部分。另外，汉语语气词的出现不受敬语制约，韩国语的语气词跟敬语有密切联系。与汉语“吧”对应的韩国语祈使句如下:

(6)a.你去吧。 (鲁四凤对鲁贵)
b.가보세요.
(7)a.(不愿他向下说) 嗯， 你去吧！ (周朴园对周冲)
b.가봐라!

例(6a)中鲁四凤对其父鲁贵的对话用了“你去吧”，例(7a)周朴园对其子周冲的对话也用了“你去吧”。汉语在“你去”后加“吧！”来缓解祈使语气，“吧”能用在下对上人际关系中，也用在上对下人际关系中。例(6b)中韩国语用了先语末语尾“-시-”和해요体终结语尾话阶来表示尊敬，例(7b)则用해라体话阶，不表示尊敬。韩国语随着说话人和听话人的人际关系调整话话阶，达到交际效

8) 为了叙述方便，本文将韩国语的叙法也统称为语气。
9) 除此之外张恒君(2014) 认为“呗”、“看”、“了”也能算作语气词。这些语气词并不只用于祈使句，或也被陈述句、疑问句等其他句子广泛使用。据金智妍(2011:123)调查结果显示：在996个句子中，“吧”用在祈使句有549次，占55.1%；用在陈述句有145次，用在疑问句有292次。

果。

语料中一共出现136个使用了“吧”的祈使句，多为下对上的人际关系中使用的。例如鲁四凤的102个祈使句话语中用“吧”41次，占40%，相反，具有绝对权威的周朴园的94个祈使句话语中用“吧”只有11次，占12%。可知社会地位低的说话人在祈使句中使用缓和语气作用的“吧”的使用频率高一些。

“啊”(包括“呀”、“哇”、“哪”等变体)既用于语气强烈的祈使句，也可用于相对缓和的祈使句。“啊”用于语气强烈的祈使句中，表示催促或敦促，表现了说话人的急切心情。语料中共出现“呀”7次，“啊”2次。例如：

(8) (无人应)你们跟我找呀，我的大儿子呢？(周朴园对仆人)
너희들 가서 찾아 와, 내 큰 아들은?

(9) 说呀，这不是大姑娘上轿，说呀！ (鲁贵对鲁四凤)
말해라, 이건 뭐 다 큰 처녀가 꽃가마 타고 시집가는 것도 아닌데 어려워 말고, 말하라니까.

例(8)和(9)都在比较紧急的情况下，“呀”表示说话人催促听话人的赶紧完成某事的人际意义，韩国语的“찾아와”、“말해라”难以表达说话人对听话人的这种催促的人际意义。

4. 汉·韩祈使句人际功能分析

韩礼德(1994)的系统功能语言学认为，语言除了具有表达说话人的亲身经历和内心活动的功能外，还具有表达说话人的身份、地位、态度、动机和他对事物的推断、判断和评价等功能。语言的这一功能称作“人际功能”。祈使句是一种主观色彩浓厚的句子，具有很显著的人际功能，不仅能够表达说话人的身份、地位、态度、情感，而且能够影响听话人的态度和行为，建立和巩固说话人和听话人之间的社会关系[10]。在话剧<雷雨>的祈使句中我们了解人称代词使用的这种人际功能，以及语韩国语对用的形式，这不仅可以帮助我们理

解作品中的人物关系，而且还可以让我们更得体地使用祈使句。

1）体现权势关系

祈使语气强烈的祈使句，具有施行和维护权势的人际功能，说话人可以支配或影响听话人的意志和行动。例如下面的例(10)是周朴园要让繁漪喝下一碗药的场面，繁漪拒绝喝下药，经过几番波折，周朴园以严厉的父亲的身份命令周萍，让他劝繁漪喝药。周朴园用的都是最为强烈的动词原形祈使句，祈使度非常高。

(10) a.周朴园： 萍儿，劝你母亲喝下去。
周　萍： 爸！我——
周朴园： 去，走到母亲面前！ 跪下，劝你的母亲。
[萍走至繁漪面前。]
周　萍： (求恕地）哦，爸爸！
周朴园： (高声）跪下！叫你跪下！ (萍正向下跪)
繁　漪： (望着萍，不等萍跪下，急促地）我喝，我现在喝！

例文中，周朴园用的“去”、“走到母亲面前！”、“跪下”、“劝你的母亲”、“叫你跪下！”等都是强势祈使句。而且，还具体命令劝母亲喝药的行动步骤，如，先“去”，走到跟前后“跪下”，然后“劝母亲”。如此详细的命令，明确了命令的发出者、听话人以及命令的内容。听话人不需要理解命令意图、语境信息，只能按照说话人的意愿遵行命令，别无选择。对应的韩国语如下：

(10) b.주복원： 평아, 네가 어머님한테 드시라고 권해라.
주　평： 아버님! 제가……

10）张恒君,『现代汉语祈使句人际功能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4.p170.下文例(15)、例(20)引自张恒君(2014)p181、p182，参考了其部分观点。

주복원 : 가, 어서 어머님 앞으로 가! 무릎을 꿇고 어머님 드시라고 권해.
주 평 : 저, 아버님!
주복원 :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으라잖아!
번 의 : 마실께요, 지금 마실께요.

与汉语对应的韩国语的“가！”、“굻어！”、 “권해！”等해体话阶的祈使句形式也又简短，又相当强式。

在权势关系中，交际双方的关系是非对称的，交际参与者意识到并尊重社会地位之间的差异，这时特别要恪守礼貌原则。一般地位高、年龄长、官职大、财产多的一方是权势方，他有资格选择强势祈使句；相反，地位低、年龄幼、官职小、财产少的一方是弱势方，他倾向于选择礼貌度较高的祈使句，多用代词“您”和语气词“吧”。例如：

(11) 鲁四凤： (高兴地) 妈，您坐一坐。(鲁四凤对母亲)
엄마, 앉아계세요.
(12) 鲁四凤： 太太，您吃药吧。(鲁四凤对繁漪)
마님, 약 드세요.

例(11)和(12)中的“坐”、“吃药”是有益于听话人的情况，并且鲁四凤对母亲、对女主人分别用了“您”以及“您”和“吧”。汉语中使用“您”的主语句多为“所祈请事项在语义上常常具有有益于听者的特点，即具有听者[+受惠]特点。”[11]。本文考察的语料中不管身份、地位，还是年龄上都处于劣势的鲁四凤使用“您”和“吧”的次数最多。此外，周冲对其母繁漪，周萍对其父周朴园，鲁大海对其母鲁侍萍都用“您”指称。韩国语则用“해요体”以上终结词尾话阶和表尊敬的先语末语尾“-시-”，韩国语主语多为零形式，也用名词形式代替代词的方

11)朱敏,『汉语人称与语气选择性研究』,世界图书出版公司,2012.p29.

式。

48岁的鲁贵对17岁的周家二少爷周冲恭敬地多次使用“您”，反映了鲁贵对权势阿谀奉承的奴才性。例如：

(13) 鲁贵： 二少爷，您先坐下。 (鲁贵对二少爷周冲)
작은 도련님, 우선 좀 앉으세요.

“你”有时也可以用在地位高的人，可是受一定的限制。下面的例 (14) 是对地位高的人用“你”来回指的情况。

(14) 周萍： (突然) 爸，你不该生我！ (周萍对父亲周朴园)
아버지, 날 낳지 말았어야 해요!

例(14)是周萍对周朴园的发话，例句中先出现先行词“爸”，然后再用代词“你”来回指。韩国语用亲属称谓代替代词称谓或用零形式。

说话人有意违背权势对祈使句的约束，将被看做是不得体的表达方式。例如：

(15) 鲁　贵： 对极了，这才是正理。
옳지! 그게 도리지.
鲁大海： 你少说话！
그만하슈!
鲁侍萍： 大海。不要这样同父亲说话。
대해야,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例(15)中，鲁大海主语主题位置上直接使用了“你”，没有出现先行词“爸”。鲁贵与鲁大海是父子关系，鲁大海直接用“你少说话！”被认为是不得体的。因为晚辈一般不能对长辈使用这样的祈使句，鲁大海挑战鲁贵的长辈资

格，表达他对鲁贵的反感，他有意选用不得体的祈使句来制止父亲。与“你少说话！”对应的韩国语用了하십시오体，也没有出现代词形式，这很难恰如其分的表达鲁大海对其父鲁贵的不满和不敬。

2）体现亲疏关系

祈使句人称信息的选用可以拉近亲疏关系，也可以是疏远双方的关系。例如，鲁大海是工人出身的硬汉子，祈使句中的人称信息很明确，更显出他爱憎分明的性格。鲁大海对其父鲁贵，以及对周家的任何人，如周朴园、周萍、周冲都用“你”，从不使用“您”。韩国语用终结语尾话阶和代词“당신”等方式来调整祈使语气。例如：

(16) 鲁大海： 你小心点。你少惹我的火！ (鲁大海对父亲鲁贵)
당신, 조심해. 내 화 안 돋구는 게 좋을 걸.

(17) 鲁大海：(叹一口气，递手枪与萍) 你还是拿去吧。这是你们矿上的东西。 (鲁大海对周萍)
당신이 가져가쇼.

鲁大海对那卑劣的父亲鲁贵深恶痛绝，都用“你”，如例(16)。韩国语对父亲用了非敬语해体“조심해”，同时也用了非敬语代词“당신”，体现了当时愤怒、争吵的话语情景。另外，他对周家大少爷周萍也用“你”，如例(17)。这跟例(13)中鲁贵对二少爷周冲使用“您”成鲜明对比。韩国语用的也是代词形式，并未使用更表尊敬的名词形式。

鲁大海痛恨其父亲，而对母亲侍萍十分敬重，爱得深，全都用“您’，如下例(18)。即便是非常紧急的情况下也不忘使用“您”，如下例(19)。韩国语用해요体以上终结语尾话阶以及尊敬标记“-시-”。

(18) 鲁大海： 不，您留着自己用吧。 (鲁大海对母亲)

아니, 그건 엄마 뒀다 쓰세요.

(19) 鲁大海： 您放下我，您放下我！（急得跺脚）（鲁大海对母亲）
놓으세요, 날 놓아 줘요!

语气缓和的祈使句，会缩短双方之间的心理距离，拉近双方之间的关系，从而赢得对方好感和信任。在上对下的权势关系中，说话人也往往选择语气缓和的祈使句，来拉近与对方的心理距离。例如：

(20) 鲁四凤： 二少爷。
周　冲： （站起来）谢谢你。（四凤红脸）。
[四凤倒汽水。]
周　冲： 你给太太再拿一个杯子来，好么？
(마님께 한잔만 더 갖다 줄래?)
繁　漪： 冲儿，你们为什么这样客气？

例(20)中四凤是周家的佣人，周冲是周家的二少爷，周冲与四凤是上对下的主仆关系，但是周冲喜欢四凤，想赢得四凤的好感，有意拉近双方的关系。周冲采用了核实对方想法的方式来缓和祈使语气，用“好吗？”来询问了四凤的想法。按理来说周冲叫四凤干活不需要这种表达方式，可以直接用祈使句。繁漪也觉得奇怪，就问了他“为什么这样客气？”。对应的韩国语也是核实对方意见的方式，即“마님께 한잔만 더 갖다 줄래?”。

3）弱化指称对象

复数第一人称代词“我们”用于指称单个的听话人，可以弱化指称对象，避免直接指向对方，使话语变得间接一点，这是一种语用移情。如下例：

(21) 鲁侍萍： （愤怨）我没有找你，我没有找你，我以为你早死了。我今

天没想到到这儿来，这是天要我在这儿又碰见你。

周朴园： 你可以冷静点。现在你我都是有子女的人，如果你觉得心里有委屈，这么大年纪，我们先可以不必哭哭啼啼的。

주박원： 좀 진정해요. 이젠 당신이나 나나 다 자식이 있는 몸인데 마음 속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 나이에 울고불고 할 것 없어요.

上例中，周朴园所说“我们先可以不必哭哭啼啼的”话语中的“我们”其实是指向鲁侍萍的，劝说鲁侍萍不要哭哭啼啼的，用“我们”将把自己纳入行为的对象中，而不是直接用“你”单称鲁侍萍，以便更有效的劝说对方。韩国语省略“우리”，达不到像汉语一样的人称效果。

5. 结语

汉语和韩国语的祈使句体现人称信息的方式有所不同。汉语倾向于代词形式，韩国语倾向于终结语尾和敬语话阶方式。本文分析了汉语和韩国语的祈使句中人称信息的实现方式，以及人称信息不同导致的汉·韩祈使句人际功能的差异。本文还对汉·韩祈使句的人称代词、汉语的语气词以及韩国语的终结语尾做了计量分析。结果在语料中，汉语祈使句主语使用频率最高的是第二人称代词，汉·韩第二人称代词使用对比值为5:1，祈使句中第二人称代词出现在主语位置的次数汉语明显比韩国语多。汉语的第二人称代词只有“你”、“您”两种形式，但使用次数多，使用频率也比韩国语高；韩国语第二人称代词，虽然有多种形式，相对汉语而言，使用次数少，频率也很低。韩国语祈使句主语经常省略，人称信息多出现在句子末尾的终结语尾的使用上。汉·韩祈使句在人称信息形式和使用频率的不对称，使得在实现人际功能时也出现差异。本文从权势和距离的人际关系出发，对汉·韩祈使句人际功能的差异做了分析。

◆ 参考文献

1. 资料

조 우,『중국현대희곡총서(조우 희곡선)』,하경심,신진호 공역,<뇌우>,학고방,2013.
中国话剧艺术研究会编，刘厚生，胡可，徐晓钟主编，『中国话剧百年剧作选，20世纪30年代[I]』,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2007年.

2. 单行本

고성환,『국어 명령문에 대한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3.
고영근·구본관,『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김미형,『한국어 대명사』, 한신문화사, 1995.
남기심·고영근,『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1993.
박재연,『한국어 양태어미 연구』, 태학사, 2006.
서정수,『수정증보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원, 1996.
이남순,『시제·상·서법』, 월인, 1998.
임홍빈·장소원,『국어문법론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5.
장경희,『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1985.
房玉清,『实用汉语语法』，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08.
胡壮麟、朱永生、张德禄、李战子,『系统功能语言学概论（第三版）』, 北京大学出版社, 2017.
金智妍,『现代汉语句末语气词意义研究』, 夏旦大学博士学位论文, 2011.
齐沪扬,『语气词与语气系统』, 安徽教育出版社, 2002.
温锁林,『现代汉语语用平面研究』, 北京图书出版社, 2001.
袁毓林,『现代汉语祈使句研究』, 北京大学出版社, 1993.
张恒君,『现代汉语祈使句人际功能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4.
赵 微,『指令行为与汉语祈使句研究』, 夏旦大学博士学位论文, 2005.
朱 敏,『汉语人称与语气选择性研究』, 世界图书出版公司, 2012.
朱永生、严世清、苗兴伟,『功能语言学导论』,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4.
Halliday, M.A.K,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2nd ed.), London: E.Arnold, 1994. 山口登, 笕寿雄 [共]译,『机能文法概说：ハリデ-理论への诱い』, 2001, くろしお出版.

3. 论文

박동열,「한국어의 인칭범주 : 프랑스어 인칭체계와 비교연구」,『프랑스어문교육』, 제15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3, pp.163-183.
박동열,「한국어 인칭의 특수성이 제기하는 문제 - 정신역학적 관점에서의 한국어와 프랑

스어 대조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56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7, pp.91-122.
장경희, 「서법과 양태」, 서태룡 외 편, 『문법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1998, pp.261-304.
刘月华, 「从〈雷雨〉〈日出〉〈北京人〉看汉语的祈使句」, 『语法研究和探索』(三), 北京大学出版社, 1985, pp.100-129.
贺 阳, 「试论汉语书面语的语气系统」, 『中国人民大学学报』, 1992, 第5期, pp.59-66.
齐沪扬, 「论现代汉语语气系统的建立」, 『汉语学习』, 2002, 第4期, pp.1-12.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5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18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5월 31일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Interrelational Meta-Function by Person Information of Imperative Sentences in Korean and Chinese

PIAO CHENGRI

Paying attention to the method of realizing the person information in imperative sentences, this study viewed that a subject could not be shown in an imperative sentence because the information shown in the subject could be replenished by other components in any methods.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person information shown in imperative sentences in the connection with personal pronoun, mood words in Chinese, and sentence concluding, and honorification in Korean, and also statistically analyzed the asymmetric aspect of person information in the subject part and predicate part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mpared to Chinese, the personal pronouns were frequently omitted in the position of subject in Korean. In Korean, the person information was more realized through sentence-final ending and pre-final ending of predicate part, rather than personal pronoun. The asymmetric phenomenon of person information in imperative sent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also shows differences when performing the interrelational meta-function. In Chinese imperative sentences, the intensity of order is regulated through the cross-use of personal pronouns such as 'ni' and 'nin', and the use of mood words. In Korean, however, many functions of order are performed by regulating the degree of honorification mainly through the speech level of sentence-final ending and pre-final ending '-si-'. To maintain the agreement of dialogue context in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used a play work as quasi-spoken language data, and its translation. If this play work is translated into various languages, it would be easy to study various languages and also could be led to further researches in the future, which is a strength of this method.

Keyword Imperative Sentence, Person Information, Interrelational Meta-Function, Personal Pronoun, Mood, Honorific Speech Level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1.093

论现代汉语助动词的词义*

左思民**

국문요약

현대중국어 조동사는 능원동사라고도 불리며 이중 많은 단어가 '정태의미[情態義]'를 나타낸다. 광의의 정태의미는 가능 의미, 필연적 의미, 실제적 의미를 포함하고, 협의의 정태의미는 가능 의미와 필연적 의미만을 포함한다. 현재 '정태'에 대한 언어학계의 견해는 협의의 정태의미에 치우쳐 있지만 허용, 염원 등과 같은 비정태 의미가 추가되었다. 협의의 정태의미는 더 나아가 '진리 정태의미[眞勢情態義]', '인식 정태의미[認識情態義]', '의무 정태의미[義務情態義]', '동력 정태의미[動力情態義]'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확장의미는 모두 정태의미와 조동사의 내재적 비정태 의미가 서로 어우러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정태의미만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상당히 적으며 일부 조동사는 정태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내재적 비정태 의미만을 나타낸다. 또 다른 일부 현대중국어 조동사는 가능, 필연 등의 정태의미 이외에 내재적 비정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로보아 중국어 조동사는 '정태사[情態詞]'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현대중국어 조동사에 대한 분석으로, 어떤 조동사의 의미 항목은 사실상 단어 의미가 아닌 화용적 함의를 나타낸다. 일부 조동사에 나타난 정태의미는 맥락적 요인 등의 제약으로 단독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정태의미는 '언어적 강도[語力强度]' 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현대중국어 조동사의 단어 의미가 비교적 복잡하여 더욱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심지어 화용적 함의와도 얽혀 있어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현대중국어, 조동사, 단어 의미, 정태의미, 내재적 비정태 의미, 화용적 함의

---

* 本文曾于2020年12月5日在第22届亚细亚文化学会学术大会暨定期大会上宣读。此稿参考了启明大学李铁根教授等的意见有所修改。在此谨向指教者致以谢意！

** 高丽大学校 中语中文学科 教授, 华东师范大学 中文系 教授。

<目录>

1. 绪论
2. 助动词表示的情态义
3. 助动词表示的认识情态义、义务情态义等
4. 助动词表示的非情态内涵义
5. 结论和余论

1. 绪论

助动词（auxiliary，缩写为aux）又叫能愿动词。刘月华等（2001:171）把现代汉语助动词称为“能愿动词”，认为它们“从语义上可以分为两类：一类表示意愿和对情理、事理、主客观条件、价值的主观判断，一类表示对事情发生的可能性的判断。”并把前一类细分为五类：

1）表示意愿的：“要、想、愿意、肯、敢”。

2）表示对事理、情理判断的：“应该、应当、应、该、得（děi）”。

3）表示对主客观条件判断的：“能、能够、可以”。

4）表示准许、允许的：“能、可以、可、准、许、得（dé）”。

5）表示评价的：“配、值得”。

6）表示可能的：“可能、会、要、得（děi）、能”。[1)]

以上诸词中，“想”、“准”、“许”可以后附动态助词，我认为不宜归为助动词。请看例句：

1）刘月华等（2001）的这些分类不见得都准确、合理。但本文的论述主题不是现代汉语助动词的义项分类，为便于称说，暂且维持刘月华等（2001）的分类，仅从后文中去除了我认为不宜看作助动词的词语。

(1) a.我想到杭州去一趟。(动词“想”的义项三：“希望；打算”；『现代汉语词典』，2012:1424)

b. 我想过到杭州去一趟。

(2) a.不准迟到或早退。(动词“准[1]”：“准许”；『现代汉语词典』，2012:1717)

b.我准了你可以早退。

(3) a.只许成功。(动词“许”的义项四：“允许；许可”；『现代汉语词典』，2012:1470)

b. 我许过你可以早退。

“配”虽然在『现代汉语词典』(2012) 和『现代汉语八百词』(1999) 中归为助动词，其实不是，因为它可以带补语，说成“配得上”、“配不上”。“值得”在『现代汉语词典』(2012) 和『现代汉语八百词』(1999) 中没有归为助动词，它也不像其他助动词那样能够进入“不___不V”的框架之中。[2] 考虑到以上情况，本文不把“想、准、许、配、值得”归为助动词。

现代汉语助动词具有多种语法特点，在刘月华等 (2001) 提及的几个特点中，我挑出以下四个，其中特点1) 和特点2) 说明现代汉语助动词具有动词性，特点3) 和特点4) 说明它们和表示活动、变化等意义的典型动词很不一样。

1) 大多可以单独充当句子的谓语甚至单独回答问题，这类助

2) 助动词“得” (děi) 也不能进入“不___不V”的框架。但是我怀疑“不得不V”中的“得” (dé) 其实就是“得” (děi) 。『现代汉语词典』(2012) 把助动词“得” (dé) 解释为“用在别的动词前，表示许可 (多用于法令和公文) ”，例如“凡符合条件者得依法申请”，可见这个“得” (dé) 是“允许”之义。但是在“不得不V”框架中使用的“得”并不表示“允许”，而表示“必须”之义，如“这个会议很重要，我不得不去”。由此推测“不得 (dé) 不V”中的“得” (dé) 就是“表示意志上或事实上的必要”的助动词“得” (děi) 。铁根、昌吉 (1995) 认为“得” (děi) 不是助动词，而应分化为一般动词 (表示需要义和必须义) 及副词 (表示揣测的必然义) 。其说有合理之处。但本文不讨论这个问题，暂把“得” (děi) 归为助动词。

动词有："可以、可能、会、能、要、肯、愿意、敢、该、应该、应当"。例如：

(4) 甲：这样说可以吗？
乙：可以。
(5) 甲：小明该被教练惩罚吗？
乙：该。

2) 它们都可以用另一个动词或动词短语、形容词或形容词短语、主谓短语为其宾语。例如：

(6) 你可任取一个小挂件。
(7) 每一个学生都能够参加这次竞赛。
(8) 我不得说几句吗？
(9) 你这样蛮干，很快就会累的。
(10) 下面应该老周发言。

3) 它们不能重叠。如：

(11) a. 下午可能下雨。
b. *下午可能可能下雨。
(12) a. 老李敢上台表演节目。
b. *老李敢敢上台表演节目。

4）它们不能后附动态助词“了、着、过”。例如：

(13) a. 姐姐要报考复旦大学。

b. *姐姐要了报考复旦大学。

(14) a. 老师愿意教他吗？

b. *老师愿意过教他吗？

(15) a. 小张能做这道题目。

b. *小张能着做这道题目。

刘月华等（2001）认为现代汉语助动词可以带宾语，但是不少中国语法学家不持此说。比如胡裕树（1981:287）认为：“表示可能的动词叫助动词”，“助动词常用来修饰动词或形容词（这一点跟副词相同），有时单独充当谓语（这一点区别于副词）。”如果承认这个观点，那么现代汉语助动词不能把动词等作为宾语，而是充当动词等的状语，由此显出了副词的语法特点。

现代汉语助动词不仅语法特点较为复杂，它们所含的意义也相当复杂，难以说清。如果以表义的种类为标准，助动词可以分为几个不同的类，比如克里斯特尔（David Crystal，汉译2000:35）对助动词（auxiliary）有如下解释：“给动词作语法分类时用来指一组从属于主要词汇动词的动词，帮助区分语气、体、态等等。英语的主要助动词是do，be和have，例如she is coming‘她就来’，does she know‘她知道吗？’she has taken‘她已拿取’。情态助动词包括can/could‘能，会’，may/might‘可以，可能’，shall/should‘将/应该’，will/would‘将，愿意’，must‘必须，必定’，ought to‘应该’，used to‘过去经常’等。”[3]

3）根据Crystal, D.（2008:46）对auxiliary一词的解释，这里的“语气”的英语对译词是mood。然而克里斯特尔（汉译2000:228）是把mood和modal、modality归在一个词条之内加以解释的，而且在克里斯特尔（汉译2000）中，不论是解释助动词（auxiliary）还是语气（mood、modal或modality），他都把can、may、must等词归为“情态助动词”（modal

本文不谈其他问题，集中论述现代汉语助动词的词义以及与其密切相关的一些意义。

2. 助动词表示的情态义

从上一节所引克里斯特尔对助动词的解释可知，表示情态义是一部分助动词的重要功能。那么何为“情态的”？该义在英语中用形容词modal表示。modal又兼名词，指“情态动词”。克里斯特尔（汉译2000:228）说：“英语主要采用**情态助动词**（**modal auxiliary**），例如may‘可以’，can‘能’，shall‘应该’，must‘必须’等，但也用少数屈折形式（例如if I were you‘假如我是你的话’与I was…‘我是…’的对立）。”

对modal，『牛津高阶英语词典』（第七版）有如下解释：

1）“（also **modal verb**, **modal auxiliary**, **modal auxiliary verb**）*noun*（*grammar*） a verb such as *can*, *may* or *will* that is used with another verb（not a modal）to express possibility, permission, intention, etc.”（（又称为**情态动词**，**情态助动词**，**情态助动动词**）*名词*（*语法*）。 一个动词，诸如*can*、*may*或*will*，和另一个动词（非情态动词）一起使用，表示可能性、允许、意愿等。）

2）*Adj.*（*形容词*）

对名词modal的解释，『柯林斯COBUILD英汉双解词典』和『牛津高阶英

---

auxiliary）。由此推断，这里的“语气”实际上指modality（情态）。

语词典』（第七版）相似："In grammar, a **modal** or a **modal auxiliary** is a word such as *can* or *would* which is used in a verbal group and which expresses possibility, intention, necessity, etc."（**情态动词**或**情态助动词**如*can*或*would*等用在动词词组中表示可能性、意愿、必要性等。）

形容词modal变为名词，就是modality。『牛津高阶英语词典』（第七版）把modality分为三个义项，第二个义项和语言学有关，解释为"[U]（*linguistics*）the idea expressed by modals"（[不可数名词]（*语言学*）通过情态动词表示的看法）。这个modality，在语言学上汉译为"情态"，在逻辑学上如今多汉译为"情态"或"模态"。

康德（Immanuel Kant）在『纯粹理性批判』（*The Critique of Pure Reason*, 英译本2010:76）一书中列出四个逻辑范畴：Quantity（量）、Quality（质）、Relation（关系）和Modality（Modalität，情态），其中Modality包括三个次类：problematical、assertorical、apodeictical。对此蓝公武（汉译1957:81）分别有如下汉译：modality："形相"，problematical："想当然的"，assertorical："实然的"，apodeictical："必然的"。查『英汉大词典』，未收assertorical和apodeictical，有modality和problematical，分别汉译如下：modality："【逻】模态"；problematical："【数】【逻】盖然性的，或然性的"。『牛津高阶英语词典』（第七版）、『柯林斯COBUILD英汉双解词典』和『英汉大词典』都未收assertorical（实然的）和apodeictical（必然的），但是收了和assertorical同词根的动词assert，并有解释。『牛津高阶英语词典』（第七版）把assert分为四个义项，和本文所论有关的是第一个义项，解释为"to state clearly and firmly that sth is true"（清楚地、确定地陈述某事是真的）。『柯林斯COBUILD英汉双解词典』对assert的解释是"if someone asserts something such as a fact, belief, or opinion, they state it firmly and forcefully.宣称；断言。"[4]『英汉大词典』把assert分为三个义项：1）"肯定地说（出），坚定地断言"。2）"主张，维护，坚持"。3）"假定

4）这一段英语解释可以汉译如下："如果某人断言某事，诸如一个事实、信念或看法，那么他们对此作出确定而有说服力的陈述。"

（或肯定）…的存在”。由assert的词义推论，assertorical（实然的）和“断言”之义关系密切。

如何理解problematical（想当然的，盖然性的，或然性的）、assertorical（实然的）、apodeictical（必然的）？康德（汉译1957:87）对此有更加明确的说明：

1）problematical（或然的）：“可能性——不可能性”。

2）assertorical（实然的）：“存在性——非存在性”。

3）apodeictical（必然的）：“必然性——偶然性”。

显然，如果站在康德的立场上，modality（情态）包括assertorical（实然的），因此涵盖面极大，远大于把modality（情态）仅仅归为“可能性”、“必然性”等而形成的范围。但是把modality（情态）限于“可能性”、“必然性”等范围之内，却是当今的主流看法。请看基弗（Kiefer F., 2009:179）的如下介绍：“Modality is a central notion in logic and it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in linguistics. Logical definitions of modality are based on the notions of necessity and possibility and modal notions must all be traceable to the logical notions of necessity and possibility.”（情态是逻辑学的一个核心概念，它也在语言学中得到了很大的关注。情态的逻辑学定义建立在必然性和可能性概念的基础之上，情态概念必须全都回溯到必然性和可能性的逻辑学概念。）康德和基弗对modality（情态）的不同概括，我认为分别反映了“广义情态观”和“狭义情态观”，由此也分别得到“广义情态”和“狭义情态”。目前语言学界所说的情态义，偏于狭义情态义，但添加了允许、意愿等非情态义。

在上述辨析的基础上，再来考察现代汉语助动词，便可得到两种很不一样的结果——若取广义情态观，那么所有的现代汉语助动词都含有情态义。若取狭义情态观，那么仅其中的一部分含有情态义。比如按刘月华等（200

1）的分类（不计我在前文第1节已经排除的5个词），如下助动词可以表示情态义：

2）表示对事理、情理判断的："应该、应当、应、该、得（děi）"。

3）表示对主客观条件判断的："能、能够、可以"。

4）表示准许、允许的："能、可以、可、得（dé）"。

6）表示可能的："可能、会、要、得（děi）、能"。

其实在上述助动词中，仅"可能"可以独自表示情态义，其他各词都不能独自表示情态义。比如第2）类不能独自表示必然性；第3）、第4）类不能独自表示可能性；第6）类中，"会、要、能"不能独自表示可能性，"得"（děi）不能独自表示必然性。下面结合四个助动词，作一简要说明。

1）"能"。

（16）这雨能下长吗？

上例中的"能"，按『现代汉语词典』（2012:941）的解释是助动词"能"的第四个义项："对于尚未实现的自然现象的推测"。既然是推测，就是表示可能性。然而是否表示这一意思，还取决于所指对象是不是自然现象。如果不是，另当别论。例如：

（17）小李能说法语。

（18）机器能说话吗？

上两例中的“能”，按『现代汉语词典』(2012:941) 的解释是助动词“能”的第一个义项：“表示具备某种能力或达到某种效率”，并不表示可能性。

由此可见，助动词“能”表示可能性的前提，是所指对象不具有“可控性”。若离开认知和外在语境因素的介入，这一点无法确定。

下例中的“能”应理解为“具有被准许的可能性”。虽然『现代汉语词典』(2012) 中没有收录这一个义项，但它只能被这样理解。请看例句：

(19) 根据规定，小李能进去，你们不能进去。

这种理解也是特定的认知和外在语境因素介入下的产物，如果介入因素改变，便须另作理解。比如下例 (20) 中的“能”只可理解为“具备某条件”，无法理解为“具有被准许的可能性”。

(20) 这件衣服太小了，小李能穿，你们穿不下。

由此可见，现代汉语助动词“能”无法独自表示“可能性”这一情态义。

2) “可能”。

助动词“可能”不含其他意思，只表示“具备可能性”，按『现代汉语词典』(2012:734) 的解释，是“表示估计，不很确定”，所以它可以直接表示“可能性”这一情态义。例如：

(21) 小李可能来参会吗？

3) “要[2]”。

“要[2]”在『现代汉语词典』(2012:1515) 中分为多个义项，下例 (22) 中的助动词“要[2]”用的是“要[2]”的第八个义项：“表示估计，用于比较”。既然是估计，就是表达可能性了。例如：

(22) 夏天屋子里太热，树荫底下要凉快得多。(『现代汉语词典』，2012:1515)

用助动词“要[2]”表示可能之义也受到认知和外在语境等因素的制约，即必须“进行比较”。若不作比较，便很难表示可能性。比如下例 (23) 不含比较义，句中的“要[2]”就不表示“可能”，而表示“将要”。根据『现代汉语词典』(2012:1515) 的解释，这是“要[2]”的第七个义项，为助动词。请看：

(23) 秋天来了，天气要凉快了。

4) “得 (děi) ”。

助动词“得” (děi) 在『现代汉语词典』(2012:273) 中分为三个义项，下例 (24) 中是第二个义项的“得” (děi) ，解释为“表示意志上或事实上的必要”，可见，这个“得” (děi) 表示“必然性”的情态义，不过是和“意志”、“事实”等其他意义融合在一起表示的。

(24) 你们都得进去。

3. 助动词表示的认识情态义、义务情态义等

情态助动词所表示的狭义情态义如今已被进一步划分，由此增加了情态义的种类。请看基弗 (Kiefer F., 2009:179) 的介绍：“Logical treatments of

modality are restricted to properties of propositions and exclude all nonpropositional features of sentences. In linguistics, normally a broader view of modality is espoused. Three major approaches can be distinguished. (i) Modality is related to necessity and possibility, it is used to relativize the validity of propositions to a set of possible worlds. On this view, modality is not necessarily propositional, it may also include nonpropositional aspects of the sentence. (ii) Any modification of a proposition comes under the heading of modality. According to this view, volitional, emotive, evaluative modifications, too, belong to modality,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se modifications are not related to necessity and possibility. (iii) Modality is what the speaker is doing with a proposition. This notion of modality includes (i) and (ii); in addition, it also covers illocution, in particular, the speech acts of imposing obligation and granting permission.”（对情态的逻辑学处理被限制为命题的属性，并被排除了句子的非命题特征。在语言学中，通常情况下一个范围更广的情态观得到了支持。在此可以区分三个主要方法。（i）情态和必然性与可能性相联系，它被用于把命题的合法性和一组可能世界相关联。根据这个观点，情态并不非得是命题性的，它也可以包括句子的非命题的方面。（ii）把对一个命题的任何限制置于情态的标目之下。根据这个观点，意志、感情、评价等方面的限制也属于情态，尽管在实际上这些限制并不和必然性与可能性相联系。（iii）情态是言者处置命题的那个东西。这个情态概念包括了（i）和（ii）；此外，它还包括了行事行为，尤其包括了施行强制性义务和授予权限的言语行为。）基弗的这段话让我们了解到哪怕采取了狭义情态观，情态义仍旧超越了单纯的必然性和可能性，扩张了它的使用范围。

正因为狭义的情态义被引申到意志、感情、评价等更大的意义范围，前文提及的刘月华等分出的第1）类表示意愿的“要、愿意、肯、敢”等词虽然不表示必然性、可能性等，仍被不少人理解为表示了情态义。

同理，正因为狭义的情态义不仅包括了必然性和可能性，还被引申为表

示了意志、感情、评价等意义，甚至包括了施行强制性义务和授予权限的言语行为，所以它被进一步分为alethic modality（真势情态）、epistemic modality（认识情态）、deontic modality（义务情态）和dynamic modality（动力情态）等多种类别。[5] 克里斯特尔（汉译2000:14-15，129，103）解释了前三种：

1）alethic modality（真势情态）："关涉到命题的必然真或偶然真，例如像The car must be ready这种包含情态动词的句子，按真势情态理解意思是'根据已知情况（如汽车已停在门口）汽车显然已准备好'。真势情态有别于认识情态和义务情态，上面这个句子按认识情态理解意思是'汽车想必已准备好了'，按义务情态理解意思是'汽车必须准备好'。"

2）epistemic modality（认识情态）："它们断定或蕴含相关命题是已知的或信念中的。"

3）deontic modality（义务情态）："与逻辑上的义务与允许有关"。

对dynamic modality（动力情态），基弗（2009:186-187）有如下解释："The distinction between epistemic and root modals was originally proposed as a syntactic one, epistemic modals modifying the whole

5）deontic modality（义务情态）曾常被汉译为"道义情态"。dynamic modality目前一般汉译为"动力情态"，其实翻译为"能动情态"更好。但"动力情态"的说法已被广泛使用，本文姑且从众。

sentence whereas root modals the predicate phrase. Some researchers use the term ‘dynamic modality’ instead of root modality, other prefer to restrict the former to events that are not conditioned deontically (e.g. circumstantial, dispositional and boulomaic modality) noting that both dynamic and deontic modality are distinct from epistemic modality in that they are modalities of events, while the latter is the modality of propositions. Ability, too, would come under the heading of dynamic modality (Palmer 1979:3-4). But as we shall see later on, ability, though related to modality, is not a modal notion.”（在认识情态动词和根情态动词之间的区别最初是从句法角度提出的，认识情态动词修饰整个句子，根情态动词修饰谓词短语。一些研究者用“动力情态”这个术语来取代根情态，其他学者则倾向于把前者【左按：指“认识情态”】限制为不受义务制约的事件（比如情境情态、意向情态、意愿情态），并指出动力情态和义务情态都不同于认识情态，因为它们都是事件情态，而后者【左按：指“认识情态”】是命题情态。能力也被置于动力情态的标目之下（帕尔默1979:3-4）。但是，如我们将在后文所看到的那样，能力尽管被联系于情态，并不是情态概念。）由基弗的解释可知，人们对“动力情态”看法不一，但总体上是归为与动作发出者的能力相关的情态，正因如此，我主张把它从狭义情态中排除出去。

尽管在当今的语言学界，“真势情态、认识情态、义务情态、动力情态”之类的说法大行其道，实际上“义务、动力”等并不属于情态的范畴，它们所传递的限制性仅反映了人们从哪些角度去看待情态，因此理应把“义务情态、动力情态”等看作情态义和非情态义相融合的产物。[6] 至于“认识情态”之说，其修饰语“认识”其实多余，因为情态原本就是用来刻画判断的真是实然的、或然的还是必然的，当然属于认识范畴。[7]

了解到以上关系之后，我们就能更好地认识并解释现代汉语助动词在词

6）我将在下文中将助动词所表示的这些“非情态义”称作“非情态内涵义”

7）如何看待“真势情态、认识情态、义务情态、动力情态”等是一个大问题，在此无法详议，有待另外撰文论述。

义上的复杂性。请看如下例句：

(25) a. 应该爱护公共财产。（助动词“应该”的义项一：“表示理所当然”；『现代汉语词典』，2012:1559）

b. 今天出门早，应该不会迟到。（助动词“应该”的义项二：“估计情况必然如此”；『现代汉语词典』，2012:1559）

(26) a. 这片麦子已经熟了，可以割了。（助动词“可以”的义项一：“表示可能或能够”；『现代汉语词典』，2012:735）

b. 你可以走了。（助动词“可以”的义项二：“表示许可”；『现代汉语词典』，2012:735）

c. 那篇文章写得不错，很可以读一读。（助动词“可以”的义项三：“表示值得”；『现代汉语词典』，2012:735）

(27) a. 这个工程得三个月才能完。（〈口〉助动词“得”（děi）的义项一：“需要”；『现代汉语词典』，2012:273）

b. 咱们决不能落后，得把工作赶上去。（〈口〉助动词“得”（děi）的义项二：“表示意志上或事实上的必要”；『现代汉语词典』，2012:273）

c. 快下大雨了，要不快走，就得挨淋。（〈口〉助动词“得”（děi）的义项三：“表示揣测的必然”；『现代汉语词典』，2012:273）

上例（25a）中“应该”的意思是“理所当然”，它是“义务性”和“必然性”的融合。例（25b）中“应该”的意思是“估计情况必然如此”，它是“主观揣测性”和“必然性”的融合。

上例（26a）中的“可以”，按『现代汉语词典』（2012）的解释，它“表示

可能或能够”，其实表示“具备某条件”之义，接近“允许”义。例（26b）中的“可以”表示“允许”。例（26c）中“可以”的意思是“值得”。可见，这三例中的“可以”都不表示狭义情态义，它们表示的意思可归入康德所说的assertorical（实然的）次范畴。

上例（27a）中“得”（děi）的意思是“需要”，它不属于狭义情态，可归入康德所说的assertorical（实然的）次范畴。例（27b）中“得”（děi）的意思是“意识上或事实上的必要”，是“义务性”和“必然性”的融合。例（27c）中“得”（děi）的意思是“揣测的必然”，表达了“主观揣测性”和“必然性”的融合。

至于助动词“能够”，因为包括了语素“能”，和“可能性”的关系似乎难以割断。那么，该词是否表示“可能性”呢？对此可作辨析。请看下例：

（28）人类能够创造工具。（助动词“能够”的义项一：“表示具备某种能力，或达到某种程度”；『现代汉语词典』，2012:941）

若把这个“能够”表示的意思归为“可能性”，可以用如下推论来证明：

1）“能够”在此表示“具备某种能力”。

2）“具备某种能力”意味着它有表现这种能力的机会。

3）“有表现的机会”意味着有可能。

4）因此，这个“能够”表示可能性之义。

上述推论看似十分有力，其实不然。因为用类似的方式也可证明助动词“能够”表示了“必然性”之义。请看如下推论：

1）“能够”在此表示“具备某种能力”。

2）“具备某种能力”意味着它始终存在。

3）“始终存在”意味着必然存在。

4）因此，这个“能够”表示必然性之义。

若这样来证明助动词含有可能性或必然性之义，显然都不合理，因为“具备某种能力”涉及的是“实然性”，而不是“可能性”或“必然性”。当然，“能够”或许会发展出表示可能性的义项，到了那时，“明天能够下雨”或许可以表示“明天可能下雨”之义，就好比如今可以用“明天能下雨”表示“明天可能下雨”之义那样。但是目前“能够”还没有形成这个表示可能性的义项。

由第2节和本节的论述可见，现代汉语助动词并非都表示狭义情态义。从本节的论述来看，狭义情态义还可以和非情态义从不同的方面产生融合，形成所谓的“动力情态”、“义务情态”等，其结果，便是让一部分现代汉语助动词增添了狭义情态义之外的义项。

4. 助动词表示的非情态内涵义

助动词除了可能表示狭义情态义，还可能表示非情态内涵义（个别助动词比如“可能”另当别论）。所谓的“非情态内涵义”，是指助动词以词义的方式对所涉对象或事件的某些属性的概括。下面根据『现代汉语词典』（2012）的解释，以表格形式列举前文第1节刘月华等（2001）提及的五类现代汉语助动词的词义（已剔除“想”等五个非助动词），以便简要展示其非情态内涵义。为了控制篇幅，每个助动词仅列举它的一个义项，并转引该词典中的一个相关例句。

1）得（děi）：需要。（义项一）

(29) 这个工程得三个月才能完。（同例（27a）；『现代汉语词典』，2012:273）

2) 该[1]：应当。（义项二的a义）

(30) 该说的一定要说。（『现代汉语词典』，2012:415）

3) 敢：表示有胆量做某种事情。（义项二）

(31) 敢作敢为。（『现代汉语词典』，2012:422）

4) 会[2]：表示有可能实现。（义项五）

(32) 他不会不来。（『现代汉语词典』，2012:581）

5) 可[1]：表示许可或可能，跟“可以”的意思相同。（义项三）

(33) 榆木可制家具。（『现代汉语词典』，2012:733）

6) 可能：表示估计，不很确定。（义项三）

(34) 他可能开会去了。（『现代汉语词典』，2012:734）

7）可以：表示可能或能够。（义项一）

⑶5）不会的事情，用心去学，是可以学会的。（『现代汉语词典』，2012:735）

8）肯[2]：表示主观上乐意；表示接受要求。（义项二）

⑶6）肯虚心接受意见。（『现代汉语词典』，2012:738）

9）能：能够。（义项四）

⑶7）蜜蜂能酿蜜。（『现代汉语词典』，2012:941）

10）能够：表示具备某种能力，或达到某种程度。（义项一）

⑶8）人类能够创造工具。（『现代汉语词典』，2012:941）

11）要[2]：表示做某件事的意志。（义项四）

⑶9）他要学游泳。（『现代汉语词典』，2012:1515）

12）应：应该。（义项三）

(40) 发现错误，应立即纠正。（『现代汉语词典』，2012:1558）

13) 应当：应该。（唯一的义项）

(41) 父母应当抚养子女，子女应当赡养父母。（『现代汉语词典』，2012:1558）

14) 应该：表示理所当然。（义项一）

(42) 应该爱护公共财产。（同例（25a）；『现代汉语词典』，2012:1559）

15) 愿意：认为符合自己心愿而同意（做某事）。（义项一）

(43) 我不愿意做太剧烈的运动。（『现代汉语词典』，2012:1605）

助動詞[8]	词义（某一个义项）	情态义	非情态内涵义
得 (děi) ❶	需要。	×	需要
該[1]❷a	应当。	必然	义务
敢❷	表示有胆量做某种事情。	×	有胆量做某种事情
会[2]❺	表示有可能实现。	可能	×
可[1]❸	表示许可或可能。	a.可能	b.允许
可能❸	表示估计，不很确定。	可能	×
可以❶	表示可能或能够。	a.可能	b.允许[9]
肯[2]❷	表示主观上乐意；表示接受要求。	×	主观上乐意
能❹	能够。	×	具备某种能力

能够❶	表示具备某种能力，或达到某种程度。	×	具备某种能力 10)
要^{2}❹	表示做某件事的意志。	×	做某件事的意志
应❸	应该。	必然	义务
应当	应该。	必然	义务
应该❶	表示理所当然。	必然	义务
愿意❶	认为符合自己心愿而同意（做某事）。	×	符合自己心愿而同意（做某事）

在上表中，凡在同一行中兼具情态义和非情态内涵义的义项，且未标以a、b序号的，就是情态义和非情态内涵义的融合义项，比如“该^{1}”；凡在同一行的情态义栏中有a义，在非情态义栏中有b义的，就是应再分为a、b两个义项的，比如“可^{1}”。

考察非情态内涵义和情态义的关系，助动词“可能”最特殊，因为该词有情态义，没有非情态内涵义。不过，在现代汉语助动词中，“可能”这样的词只有一个。即使助动词“会^{2}”的义项五“表示有可能实现”这一狭义情态义，然而这个意义和“会^{2}”所表示的其他意义常常分不太清。请看下例：

（44）他会表演魔术的。

如果离开特定的交际语境，例（44）是有歧义的，因为它可理解为“他有能力表演魔术”（义项三，助动词），11) 也可理解为“（我揣测）他待会儿可能表演魔术”，因此无法独自表示可能性之义。补充说一句，『现代汉语词典』（2012）对“会^{2}”的义项五的解释并不准确，有关论述请看后文第5节中的辨析。

8）下列助动词右边的❶、❷等符号表示义项一、义项二等；没有标写❶、❷等符号的表示该助动词仅具一个义项。

9）请参看后文第5节中对助动词“可以”的论述。

10）从『现代汉语词典』（2012:941）上的例句“他能够独立工作了”看，“达到某种程度”之义其实就是“具备某种能力”之义，故此合并。

11）『现代汉语词典』（2012:581）把“会^{2}”的义项三归为助动词，我以为它应归为一般动词。比如『现代汉语词典』中的相关例句“我不会滑冰”中的“会”其实可以充当补语，如“我学会了滑冰”、“我学不会滑冰”。

以上简论说明，绝大部分现代汉语助动词不是纯粹的情态词。认清这一点，不仅有利于把现代汉语助动词和逻辑学上的纯“模态词”区别开来，也有助于我们全面而准确地认识现代汉语助动词的表义特点。

5. 结论和余论

论述至此，我们得到如下结论：

1）情态可以分为两大类：广义情态和狭义情态。广义情态包罗万象，狭义情态仅包括可能性和必然性。目前语言学界对情态的看法偏于狭义。

2）助动词并不等于情态动词，因为有一部分助动词并不表示狭义情态，其余助动词可以表示狭义情态中的可能性或者必然性等意思，但多数无法或难以独自表示这些情态义，得借助于上下文等语境因素的帮助方可表达。

3）那些不表示狭义情态义的助动词可以表示非情态内涵义，这些非情态内涵义可分为能力、意愿、义务等多种类别，它们中的某一些又和狭义情态义相结合，融合成助动词的一部分义项。

上述结论是暂时的，因为仍有一些疑问尚待解答，比如那些不能由现代汉语助动词“独自”表示的情态义到底是不是词义，便是一个重要而有趣的问题。左思民（2019:29）曾提过如下看法：“语用含义固然和话语或句子等有密切的关系，经常依附于句子或话语之上并借此产生交际作用，但是它们也可以在短语内部发挥作用，甚至在词的层面通过和词义的纠缠而发挥作用，从而为句义、话语义的形成提供来自下层意义的依托。”那么，那些不能用助动

词独自表示的意思，究竟算不算词义呢？它们可能是语用含义吗，或者其实是其他意义吗？

下面我抽检几个现代汉语助动词的若干义项，再作辨析。义项分类取自『现代汉语词典』(2012)。

1）助动词“得”(děi)的义项三：“表示揣测的必然”。例如：

(45) 快下大雨了，要不快走，就得挨淋。（同例（27c）；『现代汉语词典』，2012:273)

例（45）中“得”(děi)“表示揣测的必然”，所谓的“必然”，是情态义，不能消除，而“揣测”义是可以消除的。请看：

(46) a. 你今天买的话，得花一千块钱。

b. 你今天买的话，恐怕得花一千块钱。

上例（46a）中，“得”(děi)用的是义项一“需要”，没有“揣测”的意思。例（46b）中，“得”(děi)看似带有“揣测”之义，其实那是“恐怕”一词造成的意义制约，并不是“得”(děi)自身所含的意思。既然在例（46a）和（46b）中，“得”(děi)都不表示“揣测”的意思，那么，例（45）中的“得”(děi)为什么会表示“揣测”之义呢？令人生疑。

回过头来看例（45），可知这是一个假设充分条件复句，那么，该句中所谓由“得”(děi)表示的“揣测”义，应该来自复句所带的假设意义，并非“得”(děi)的词义。

2）“会[2]”的义项五（助动词），“表示有可能实现”。例如：

(47) 树上的果子熟了，自然会掉下来。（『现代汉语词典』，2012:581）

例（47）是『现代汉语词典』(2012）为解释义项五的助动词“会^{2}”而举的例子，这个“会^{2}”无法理解为义项三（助动词）的“表示懂得怎样做或有能力做（多半指需要学习的事情）”之义，也无法理解为义项四（助动词）的“表示擅长”之义，那么能否把它看作“表示有可能实现”吗？不行。因为例（47）的意思跟下例（48b）接近，而不跟例（48a）接近。

(48) a. 树上的果子熟了，自然可能掉下来。
b. 树上的果子熟了，自然一定掉下来。

再看更多的例子：

(49) 火候到了，肉就会熟的。
(50) 洗的次数多了，颜色就会慢慢地淡了。

分析以上例句，可以看到句中的“会^{2}”都表示一种“自然而然得到某个结果”之义。这个“自然而然得到某个结果”之义，与其说是表示了“可能性”，不如说是表示了一种依照事理或者情理推断而得的“必然性”，只不过『现代汉语词典』(2012）中并未收录这一义项。

那么，助动词“会^{2}”就不能“表示有可能实现”之义了吗？否。请看下例：

(51) 他不会不来。（同例（32）；『现代汉语词典』，2012:581）

若用表示狭义情态的其他词语替换例（51）中的“会^{2}”，例（52a）

合法，例（52b）不合法。

（52）a. 他不可能不来。

b. *他不必定不来。

再看下例（53），句中的“会[2]”较倾向于理解为表示“可能”之义。

（53）我无法确定他们会不会准时出发。

这说明，在现代汉语中，助动词“会[2]”具有表示可能性的义项。但是它在什么情况下表示可能性，在什么情况下表示其他意义，受到所处上下文等语境因素的制约。

3）“可以”的义项一，“表示可能或能够”之义。例如：

（54）不会的事情，用心去学，是可以学会的。（同例（35）；『现代汉语词典』，2012:735）

（55）这片麦子已经熟了，可以割了。（同例（26a）；『现代汉语词典』，2012:735）

例（54）中的“可以”，理解为“表示可能或能够”没有什么问题；例（55）中的“可以”表示“具备某条件”，较为接近“可以”的义项二“表示许可”，因为例（55）可以换说成下例（56b），却不能换说成下例（56a）。

（56）a. *这片麦子已经熟了，可能割了。

b. 这片麦子已经熟了，允许割了。

可见，『现代汉语词典』(2012:735) 在解释助动词“可以”的词义时用错了一个例句。

“允许”的内涵较为复杂，它可以是（站在被述对象立场上的）外部条件的允许，也可以是（站在被述对象立场上的）内在条件的允许；它可以是意志性的允许，也可以是非意志性的允许。在例（56b）中，助动词“允许”表示非意志性的内在条件的允许。

既然连『现代汉语词典』(2012) 都用错了例句，这说明助动词“可以”“表示可能或能够”的义项和“表示许可”的义项不容易分辨，也说明了助动词“可以”若离开了上下文等语境条件的制约，便难以独自地表示这些意义。

4）助动词“该[1]”和助动词“得”（děi）的相应义项的对比：（ⅰ）“该[1]”的义项二的次义项a表示“应当”；（ⅱ）“得”（děi）的义项二“表示意志上或事实上的必要”。例如：

(57) 该说的一定要说。（『现代汉语词典』，2012:415）

(58) 要取得好成绩，就得努力学习。（『现代汉语词典』，2012:273）

例（57）中的“该[1]”和例（58）中的“得”（děi）都兼表义务和必然性，但是它们所传递的言者对实现这些必然性义务的确定程度即所谓的“语力”（force）强度不同，“得”（děi）的语力强度大，“该[1]”的语力强度弱。值得注意的是这些语力强度的差别并不受上下文制约，而是固化在词义中的。比如下例（59）中针对“必须努力学习”这个要求而传递的语力强度不及例（58），这仅取决于例（58）中用了助动词“得”（děi），而例（59）中用了助动词“该[1]”。

(59) 要取得好成绩，就该努力学习。

上述对比说明，即使不同的助动词分享了相同的狭义情态义，甚至分享了相同的非情态内涵义，但是它们所含的语力强度仍可不同。

综合以上的补充论述，我们又得到如下三个看法：

1）被『现代汉语词典』(2012）等工具书收释的某些现代汉语助动词的义项，其实不是词义，而是语用含义。

2）一部分现代汉语助动词所含的词义，受制于认知或外在语境因素等的制约，无法或难以独自地表达出来。

3）应该引进“语力强度”这个概念，以便更加清楚而准确地解释一部分现代汉语助动词的词义。推而广之，这个思路及做法也可用于其他语言中助动词的词义研究，因为“语力强度”是对一部分助动词的词义特征的正确反映。

总之，现代汉语助动词的词义较为复杂，应该进一步分为多个类别，而且这些意义还常常彼此融合或者牵连，甚至和语用含义相纠缠，值得我们重新认识。从这个立场上看，刘月华等（2001）和『现代汉语词典』(2012）等对现代汉语助动词的义项分类，也需要重新审视并调整。

◆ 参考文献

1 单行本

戴维·克里斯特尔编，沈家煊译，『现代语言学词典』(第四版），北京：商务印书馆，2000.

胡裕树主编，『现代汉语』(重订本）,上海：上海教育出版社，1981.

康德著，蓝公武译，『纯粹理性批判』，北京：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1957.

『柯林斯COBUILD英汉双解词典』电子版，载于CASIO E-SF300.
刘月华、潘文娱、故韡,『实用现代汉语语法』(增订本)，北京：商务印书馆, 2001.
吕叔湘主编,『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北京：商务印书馆, 1999.
『牛津高阶英语词典』(第七版) 电子版，载于CASIO E-SF300.
『英汉大词典』电子版，载于CASIO E-SF300.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现代汉语词典』(第六版)，北京：商务印书馆, 2012.
Crystal, D.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6th). Malden / Oxford / Carlton: Blackwell Publishing, 2008.
Kant, I. *The Critique of Pure Reason* (trans. Meiklejohn, J. M. D.). A Penn State Electronic Classics Series Public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10.

2 论文

Kiefer, F. Modality. In Brisard, F. Östman, J.-O. and Verschueren, J. (eds.) *Grammar, Meaning and Pragmatic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14年上海外语教育出版社由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授权出版) 2009, pp.179-207.
铁根、昌吉,「“得děi”的归类问题」,『汉语学习』第2期 (总第86期)，1995, pp.22-24.
左思民,「论和词义有关的语用操作」,『当代修辞学』第4期 (总第214期)，2019, pp.19-31.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5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18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5월 31일

Abstract

On the Meaning of Auxiliary Verbs in Modern Chinese

Zuo, Simin

Auxiliary verbs in modern Chinese are also called capable-volitive verbs, most of which are thought to express modal meanings, i.e. modality. These meaning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broad sense and narrow sense. The broad sense of modality includes the meanings of possibility, necessity and reality, and the narrow sense only includes possibility and necessity. The current view of linguists on modality tends to narrow one, but non-modal meanings such as permission and volition have been added, and the modality is further divided into alethic modality, epistemic modality, deontic modality and dynamic modality, etc. In fact, these extended meanings are the mixed products of modal meanings and non-modal intensional meanings owned by auxiliary verbs. In modern Chinese, there are a few auxiliary verbs can just express modal meanings. Some auxiliary verbs do not express modal meanings but only express non-modal intensional meanings. Another part of modern Chinese auxiliary verbs not only express the meanings of possibility or necessity, but also the meanings of non-modal intension simultaneously. From this perspective, Chinese auxiliary verbs are not equivalent to modal words. This article's investigation of auxiliary verbs in modern Chinese shows that some so-called items of meaning of auxiliary verbs are actually not word meanings, but pragmatic implicatures. Some modal meanings seem to be expressed by auxiliary verbs themselves, but they are restricted by specific context and other situational factors, difficult to be expressed by auxiliary verbs alone. Otherwise, some auxiliary verbs own different performative force when they express modal meanings. These phenomena show that the meanings expressed by auxiliary verbs in modern Chinese are more complicated and should be further divided into several different kinds. Moreover, the meanings discussed above are often merged or implicated each other, and even entangled

with pragmatic implicatures, all of which is worthy of our re-understanding.

Keyword Modern Chinese, auxiliary verb, word meaning, modal meaning, non-modal intensional meaning, pragmatic implicature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1.123

중국 드라마 〈아빠와 함께 유학을(帶著爸爸去留學)〉(2019)에 나타난 성과 속 의식

—엘리아데의 개념을 중심으로

강 설 금*

국문요약

본고의 목적은 중국 드라마 <아빠와 함께 유학을(帶著爸爸去留學)>(2019)에 드러난 성과 속 양상을 연구하는 데 있다. 엘리아데의 성과 속은 인간의 거룩한 것에 대한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인간 존재 양태의 두 측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종교적이며 낙원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두 성 속에서 진정한 삶을 영위한다. 성과 속은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이며, 인간은 속의 세계에서 히에로파니를 통해 성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

본고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거룩한 체험을 분석했다. 사회주의권의 작품임에도 드라마의 내용에는 종교적 체험과 각성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황씨 부자는 일상의 생활 안에서 성스러운 영역에 진입함으로써 존재론적 초월과 구원을 받게 된다. 황씨 부자 모두 일련의 시련과 경험을 통하여 둥메이링의 부재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자들의 행복한 관계를 구축한다.

드라마에 보이는 거룩한 경험은 성스러운 공간과 시간, 상징과 제의를 수반한다. 주인공 황씨 부자가 히에로파니를 맞이한 공간은 기숙사・저택의 방・주방 등 일상을 보내는 집이 3회, 병실이 2회, 공항과 식당이 각 1회로 나타난다. 성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황씨 부자는 생명력을 체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정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생명의 힘을 통해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성을 획득한다. 히에로파니는 인간이 살아가는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엘리아데의 이론에 부합한다. 드라마 속의 거룩한 시간은 재생과 제의의 순간이다. 황씨 부자는 아내이자 어머니인 둥메이링의 죽음 이후에 그녀의 부활을 체험한다. 한편 아버지 황청둥이 병실에서 아들을 위해 반복적으로 책, 영상, 노래를 들려주며 보살피는 모습은 의례적인 체험의 시간에 해당한다. 주방에서 아들 황샤오둥이 목격한 두 아버지의 노래와 춤은 축제의 성격을 보여주며, 제의의 체험에 해당한다. 드라마에는 상징물을 통해 주인

*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객원교수

공의 히에로파니를 표현하는 부분이 다수 나타난다. 이때의 상징물로 햇빛, 둥메이링의 영상, 결혼 예복, 해초 노래 등이 활용된다. 모두 초월적 힘과 생명의 복원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주제어 엘리아데, 성과 속, 히에로파니, 중국 드라마, 아빠와 함께 유학을

〈목차〉

1. 서언
2. 엘리아데의 성과 속 개념
3. 드라마에 나타난 거룩한 공간과 시간
4. 드라마 속 상징의 구조와 의미
5. 결어

1. 서언

본고의 목적은 중국 드라마 <아빠와 함께 유학을(帶著爸爸去留學)>(2019)에 드러난 성과 속 양상을 탐구하는 데 있다. 성과 속은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가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의 두 가지 존재양태이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종교적이며, 실존적 위기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거나, 이 세상의 원리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자세를 인간의 종교적 지향성이라고 한다. 인간은 가능한 한 거룩한 것 안에서 살거나 또는 거룩한 것에 다가가서 살려는 경향을 지닌다.[1] 이때 인간이 갈망하는 존재・의미・상태・속성을 '성'이라고 한다.[2] 오늘날과 같은 탈신성화된 시대에서도, 성과 속은 여전히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개념이다. 현대인에게 성은 주로 상상적 세계에 현존하면서 작동한다. 그리고 이 상상적 경험은 총

1)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서울: 학민사, 1999, p.13.
2) 유요한, 『우리 시대의 신화: 현대 소설 속 종교적 인간의 이야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20.

체적 인간 존재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실적 경험 못지않게 중요하다.[3)]

엘리아데는 많은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이 총체적이고 완전한 재생을 추구하며, 자신의 존재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혁신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갈망을 드러낸다고 한다.[4)] 종교적 문학이란 인간이 속된 욕망과 선한 의지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선하고 성스러운 존재・정체성의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문학이다.[5)] 엘리아데의 시각을 빌린다면, 세속적인 편견과 선한 의지 사이에서 방황하며 성의 요소와 성스러운 존재양상을 지향하고 갈망한다는 점에서 드라마 <아빠와 함께 유학을>(2019)도 종교적 문학 장르에 속한다.

본 드라마는 46부작으로 미국에 유학 간 세 청소년 황샤오둥(黃小棟)・우단단(武丹丹)・주루사(朱露莎)와 그들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다. 세 청소년은 대학교 어학당에서 1년 정도의 어학공부를 마친 뒤 학부에 진학할 예정이다. 그 사이 그들은 총기테러, 화재, 학교 따돌림과 폭력 등의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본 논문은 세 가정의 이야기 가운데, 황가(黃家)의 이야기를 분석한다. 드라마는 중국 도시 중산층의 가족 위기를 그리고 있다. 황가는 부부 갈등, 부자 갈등이 심각하다. 아내 둥메이링(董美玲)은 황씨 부자를 미국에 보낸 후 베이징의 레스토랑을 팔고 자신도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녀는 암에 걸려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부자에게 알려야할 진실이 있었다. 아들 황샤오둥의 친부가 황청둥(黃成棟)이 아닌 추원보(楚文博)라는 사실이다. 추원보는 둥메이링의 첫사랑인데 그녀가 임신한 후 홀로 미국으로 떠났다. 둥메이링은 임신한 상태로 황청둥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키웠다. 그녀는 남편을 19년이나 속이다가 죽기 전 진실을 부자에게 알린다. 둥메이링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황씨 부자는 우여곡절 끝에 서로 화해하고 끝내 추원보와 함께 셋이서 생활하게 된다.

---

3) 멀치아 엘리아데, 『종교의 의미: 물음과 답변』, 박규태 역, 서울: 서광사, 1990, p.189.

4) 위의 책, p.189.

5) 진상범, 「Das Nibelungenlied의 지크프리트를 통해 나타난 성년식 서사구조 분석-엘리아데(M, Eliade)의 성년식(Initiation) 이론의 관점에서」, 『世界文學比較研究』 제30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10, p.307.

드라마가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이유는 세대 간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베이징완바오(北京晚報)》와 《광저우르바오(廣州日報)》 등 언론들도 드라마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황씨 부자의 충돌과 소통 방식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6] 본고는 황씨 부자의 갈등과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성과 속의 구조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7] 즉 성과 속을 둘러싸고 황씨 부자의 실존적 위기와 타개 방식, 협력 과정 등에 나타나는 주요 장면을 성의 드러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성장 서사 구조를 고찰하는 것이다.[8]

황씨 부자는 둥메이링의 죽음과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과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차례의 위기의 순간에 초월적이고 거룩한 경험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실존적 존재에 대해 각성하게 된다. 이들은 속의 세계에서 발생하고 증폭된 갈등을 성의 세계에 진입하면서 해결하는 양상을 보

---

6) <把家長最憂心問題融入劇情中>, 《北京晚報》, 2019.06.21; <熒屏新劇展現“青春期”“更年期”的碰撞>, 新華網, 2019.06.23.

7) 본 드라마는 중산층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유행하는 해외유학에 동참한 가족의 희로애락을 잘 보여준 교육드라마이다. 교육드라마의 특성상 교육의 문제점들을 가족의 위기 상황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치링허우로 대표되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인 링링허우 사이의 소통의 부재, 부부 갈등, 가족의 파탄 위기 등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교육드라마 분석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주인공의 문제의식을 빌어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여러 사건을 통해 사회적 공평과 개인의 이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산층의 번민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 본고는 교육과 가족의 위기적 상황에 대한 치링허우와 링링허우의 문제 해결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주인공들의 성장 서사 구조를 연구함에 엘리아데의 성과 속 개념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심리, 언행을 구조화하고 사고방식과 문제의식 등을 세밀하게 고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8) 둥메이링은 30회에서 34회까지 잠깐 나오는 인물이다. 전체 46부작에서 그녀의 출현 분량이 많지 않고 비중도 작아, 본고의 주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아데의 이론, 즉 모든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라는 이론에 비추어보면 그녀의 행동도 성과 속의 요소를 다분히 내포한다. 예컨대 혼전 임신한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 결혼한 것은 속으로 볼 수 있으며, 19년 후 아들에게 친부를 찾아주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마음먹는 장면은 성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본고는 그녀보다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황씨 부자의 극복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둥메이링의 성과 속에 대한 고찰은 논외로 하고자 한다. 향후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여준다.

본고의 2장에서는 엘리아데의 성과 속의 이론을 소개한다. 인간이 상상의 세계인 성과 현실의 세계인 속 두 개의 세계를 왕래하며, 생명력을 획득하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주로 공간과 시간의 비균질성과, 그것이 인간의 경험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과정을 살펴본다. 3장의 내용은 드라마에 나타난 거룩한 공간과 시간에 대한 분석이다. 거룩한 것을 경험하는 인간에게 성과 속의 공간은 단절적이며, 따라서 비균질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시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황씨 부자가 여러 사건과 계기를 통해 경험하는 성의 공간과 시간을 분석한다. 성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황씨 부자가 생명력을 체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정점을 찾아내며, 생명의 힘을 통해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성을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한다. 4장은 성의 표현 방식 가운데서 드라마에 나타난 상징에 대한 고찰이다. 성은 여러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드라마에서는 상징과 의례의 사례가 나타난다. 해초 노래, 결혼 예복 등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상징이 성의 현현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드라마는 종교성을 전혀 표방하지 않은 작품이며, 사회주의 체제 중국에서 방영되었다. 이 작품에서 엘리아데의 성과 속 이론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라는 그의 이론에 유의미한 증거사례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여전히 초월적 존재를 갈망하는 현대인의 정신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엘리아데의 성과 속 개념

엘리아데는 종교현상학 분야에 큰 성과를 남겼다. 그의 업적은 토속 종교를 비롯하여 세계 다양한 종교들을 종교현상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였으며 종교현상학의 관점과 개념을 정립한 데에 있다.[9] 그는 종교를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험

9) 이진경・김문덕, 「M.엘리아데의 종교현상학 관점으로 본 현대 기독교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4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7, p.58.

으로 보고, '히에로파니'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종교적 인간의 삶의 의미와 구조들을 분석하였다. 엘리아데에 있어서 성과 속, 히에로파니는 중요한 개념범주로 그는 그것을 둘러싸고 다양한 상징체계와 의미, 경험의 구조들을 세분화하고 있다.

1) 성과 속, 그리고 히에로파니

'성'(聖, sacred)과 '속'(俗, profane)은 장소와 관련된 개념이다. '성'은 'sacrum'을 어원으로 하는데, 신이나 신의 힘을 가리킨다. '속'의 어원은 'profanum'으로 '성전 경내 앞'을 뜻하는 것으로, 경내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관례와 관계가 있다.[10] 이로부터 성과 속 모두 성스러운 행위나 경험, 종교적 행위 또는 그러한 장소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엘리아데에 있어서 성과 속은 거룩한 것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인간 존재 양태의 두 측면을 가리킨다. 성과 속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존재의 두 양태,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에 의하여 상정된 두 개의 실존적 정황이다.[11] 그에게 있어서 종교란 신과 그들에 대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움의 경험을 가리키며, 존재・의미・진리의 개념과 연관된다. 여기서 성스러움은 의미 있고, 실재적이며, 진실로 경험되는 것을 뜻한다.[12] 이때 인간이 지향하는 존재・의미・상태・속성을 '성스러움'(또는 성)이라고 부른다. 속은 이러한 성스러움과 대립되는 개념이다.[13]

성과 속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성은 어떤 방법으로든 속세에서 자신을 표명한다. 성이 속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스스로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히에로파니'라고 한다. 즉 히에로파니(hierophany, 성현, 聖顯)란 성스러운 것의 현현을 가리킨다.[14]

---

10)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이은봉 역, 서울: 한길사, 1998, p.21.

11) 정진홍, 『M. 엘리아데: 종교와 신화』, 서울: 살림, 2003, p.25.

12) 더글라스 알렌, 『엘리아데의 신화와 종교』, 유요한 역, 서울: 이학사, 2008, p.117.

13) 유요한, 『우리 시대의 신화: 현대 소설 속 종교적 인간의 이야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20.

히에로파니는 보편성을 지닌다. 히에로파니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발견된다. 엘리아데는 인간을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으로 규정한다. 모든 인간에게 종교적 성향, 즉 성스러운 것 또는 성화(聖化)된 사물이나 시공간에 가까이 접근하여 거주하려는 성향이 있다. 존재하고자 하고, 실재에 참여하려고 하며, 힘으로 충만해 있고자 하는 갈망을 지닌다.[15] 탈신성화된 근대사회의 비종교인들도 여전히 은폐된 신화와 변질된 종교적 제의를 시행한다. 신년축제 또는 집들이, 관혼상제, 임신과 출산, 입학식과 졸업식, 입사식, 성년식 등은 비록 속화되었지만 여전히 제의적 구조와 의미를 드러낸다.[16] 비종교인이란 실제로 현존하지 않는다. 비종교적 인간은 나름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들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을 때에도 종교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은폐된 성이나 가려진 성을 살고 있는 것이 그들 삶의 실상이다.[17]

2) 공간과 시간의 비균질성

종교적 인간에 있어서 공간은 균질적이지 않다. 그는 공간 내부의 단절과 균열을 경험한다. 거룩한 공간은 강력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구조나 일관성을 지니며, 형태를 갖춘다. 그에 비해 세속적인 공간은 구조나 일관성이 없으며 형태를 갖추지 못한다.[18]

두 공간에서의 경험은 질적으로 다르다. 세속적인 공간에서 인간은 고정점과 방향성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유일한 존재론적 지위도 향유하지 못한다. 이 공간은 부서진 우주의 단편들로 구성된, 중성적이고 무정형의 더미들로만 이루어진다.[19] 그에 비해 성은 속과는 다른 영역에서 비롯되며, 속의 세계에 속해있지 않으며, 속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20] 속의 공간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는 성의 공간,

---

14)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이은봉 역, 서울: 한길사, 1998, p.49.
15) 위의 책, p.50.
16)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서울: 학민사, 1999, p.182.
17) 정진홍, 『M. 엘리아데: 종교와 신화』, 서울: 살림, 2003, p.31.
18)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서울: 학민사, 1999, p.19.
19) 위의 책, p.22.

즉 거룩한 공간의 경험은 고정점과 방향성을 획득하고, 세계를 창건하고, 참다운 의미에서 그 속에 거주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21] 그것은 중심에 자리잡은 성화된 공간이다.

모든 거룩한 공간은 히에로파니를 함축한다. 성소(또는 중심)란 히에로파니적인 거룩한 공간을 가리킨다. 성소는 속의 공간과 구분되면서도, 그 안에서 선택된 지역이다. 그것은 주위 세속적인 공간으로부터 분리되고 특수화된, 그 장소를 성별한 히에로파니로부터 항구적 영구성을 획득한 공간이다. 히에로파니를 통하여 그 장소가 성의 항구적인 '중심'이 되며, 힘과 성성의 원천이 된다. 이곳은 그 안에 들어선 인간에게 힘을 부여해주고, 성과의 교제를 가능케 한다.[22] 이 때문에 인간은 성소 또는 중심에 접근하려고 한다.[23]

종교적 인간에 있어서 시간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비균질적이다. 종교적 인간은 두 종류의 시간, 즉 거룩한 시간과 세속적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거룩한 시간은 순환적이고 가역적이며 회복가능한 시간이다. 그것은 "제의라는 수단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회귀하는 일종의 영원한 신화적 현재"이다. 즉 종교적 인간은 제의라는 수단에 의하여 "일상적 시간의 지속으로부터 거룩한 시간에로의 이행을 위험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세속적 시간이란 "종교적 의미를 배제한 행위가 자리를 차지하는" 일상적인 시간이다.[24] 두 종류의 시간 사이에는 지속성의 단절이 존재한다.

3) 상징의 의미

상징은 직접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기호의 일종으로, 어떤 대상・행위

---

20) 멀치아 엘리아데, 『상징, 신성, 예술』, 박규태 역, 서울: 서광사, 1991, p.192.

21)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서울: 학민사, 1999, p.22.

22) 멀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서울: 한길사, 1997, p.472.

23) 엘리아데는 다양한 성소에 대하여 소개한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스러운 산', 모든 사원・궁전・성스러운 마을이나 왕궁이 '중심'이 된다. 멀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서울: 한길사, 1997, p.480;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서울: 학민사, 1999, pp.33-34.

24)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서울: 학민사, 1999, pp.61-62.

를 속적 경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변용시키는 것이다.[25] 상징은 은유와 비유 등을 포함하며, 연상의 힘을 빌려 이미지를 밖으로 형상화하는 일이다.[26]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일깨우고, 그것을 영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파악으로 변모시킨다."[27]

성소는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발견될 뿐이다.[28] 이 때 히에로파니는 성소의 발견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히에로파니의 모델에는 상징, 신화, 의례, 신의 형태 등이 포함된다.[29]

상징은 히에로파니의 변증법을 연장한다. 히에로파니에 의해 직접적으로 성별되지 않은 것은 모두 상징을 분유함으로써 성스러운 것이 된다. 대부분의 히에로파니는 상징이 될 수 있다. 상징은 히에로파니를 연장하고, 히에로파니의 대용이 되기도 하며, 히에로파니화의 과정을 계속할 수 있고, 때로는 상징 자체가 히에로파니가 된다. 즉 상징은 성스러운 실재 혹은 우주론적 실재를 계시한다.[30] 예를 들면 성스러운 돌은 자연계의 평범한 돌로 일반적인 다른 돌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종교적 인간에게는 돌이 초자연적 실재로,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31]

드라마는 엘리아데의 거룩한 공간・성스러운 시간・상징의 구조를 서술함에 각각의 지향점을 구원・재생・생명과 확장성으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공간과 구원 추구・성스러운 시간과 재생의 의지・상징의 구조와 초월적 생명 실현 및 히에로파니의 확장성으로 나타난다. 3장에서는 거룩한 공간과 시간을 다루고, 4장에서는 상징의 구조를 다루고자 한다.

---

25) 멀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서울: 한길사, 1997, p.560.

26) 이진경・김문덕, 「한국 기독교공간에 나타난 종교현상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M. 엘리아데의 종교현상학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제18권 2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7, p.504.

27)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서울: 학민사, 1999, p.188.

28) 멀치아 엘리아데, 『상징, 신성, 예술』, 박규태 역, 서울: 서광사, 1991, p.191.

29) 멀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서울: 한길사, 1997, p.61.

30) 위의 책, pp.560-561.

31)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이은봉 역, 서울: 한길사, 1998, p.50.

3. 드라마에 나타난 거룩한 공간과 시간

엘리아데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종교적인 존재이다. 탈신성화된 근대사회의 비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실제 삶의 현장은 종교적 경험으로 가득하며, 인간은 모두 종교적 성향과 지향성을 지닌다. 인간은 성화된 사물이나 시공간에 가까이 가려는 성향을 지니며, 초월적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거나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 엘리아데의 관점에 따르면 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황씨 부자는 전형적인 종교적 현상을 겪게 되며, 따라서 종교적 인간에 속한다. 그들은 성화된 시공간에서 거룩한 것의 현현을 체험하며, 세속의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 신성한 힘을 획득한다.

1) 거룩한 공간과 구원 추구

종교적 인간은 공간의 비균질성을 경험한다. 즉 그의 공간이 거룩한 공간과 세속적 공간으로 나뉘는 균열과 단절을 겪게 된다. 이 공간에 진입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환경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며, 새로운 존재양상 확립의 기점이자 출발점을 획득한다. 드라마 속 황씨 부자도 성소를 체험한다. 황청둥이 거룩한 것을 체험한 장소는 베이징의 병원 응급실, 미국의 공항, 미국 오스카 총장의 집, 아들이 입원한 미국의 병원이다. 아들 황샤오둥은 가출해서 잠시 머물던 다리, 어머니가 찾아온 기숙사, 두 아버지와 함께한 주방에서 성스러움을 경험한다.

이들 부자의 성소를 이해하기 위해 드라마의 기본 줄거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내 둥메이링은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황청둥과 결혼한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황샤오둥이다. 아들이 자라 대학 진학을 위해, 황씨 부자는 미국으로 건너온다. 식당경영을 위해 베이징에 남아있던 둥메이링은 자신이 암에 걸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첫 사랑 추원보 – 황샤오둥의 친부 – 에게 돌아간다. 둥메이링은 황샤오둥의 출생의 비밀을 시간 차이를 두고 두 부자에게 알린다. 그리고 황청둥에게는 이혼을 요구하고, 아들에게는 꿋꿋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한다. 본고는 드라마 속의 황씨 부자가 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거룩함의 양상에 대해 고찰한다.

어느 날 둥메이링은 베이징의 레스토랑을 모두 정리하고, 미국에 있는 아들의 기숙사를 불쑥 찾아온다. 그리고 황샤오둥은 부모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논하는 것을 엿듣게 된다. 아들은 황청둥이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슬픔과 당혹을 이기지 못한 그는 가출한다. 그는 노숙자들의 임시 거주지인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데, 기둥 앞에 쪼그리고 앉은 채 멍하니 모닥불을 쳐다본다. 이곳은 인종도 국적도 언어도 다른 낯선 이들의 의미 없는 집결지이다. 그는 이곳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이 된다.(30회)

아버지가 찾아오자 황샤오둥은 다리 밑의 계단을 통해 도망친다. 그것은 나선형의 구불구불한 계단으로 미로를 연상케 한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미궁은 중심·성역을 지키는 장소로, 외부자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도시나 중심을 보호하는 공간이다. 그 길은 가파르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린다. 미궁의 여정은 속에서 성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덧없는 것에서 실재와 영원으로, 인간에서 신성으로 이행하는 의식이다.[32]

나선형의 계단은 엘리아데의 미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황샤오둥은 아버지로부터 도망하고자 미궁에 들어선다. 그리고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정체성 정립을 향한 고된 여정을 시작한다. 이 장면에서는 거룩한 것의 경험이 등장하지 않는다. 핵심 장소인 계단-미궁은 성소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아들 황샤오둥이 이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황청둥은 비밀을 알게 된 후 아내의 요구로 미국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와 이혼하고 혼자 여관에 머무른다. 비록 이혼을 택했지만 그는 여전히 괴로움에 빠진다. 그는 여관 난로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실신한 채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다. 정신이 돌아온 그는 아내를 발견한다. 창문이 열리고 따스한 햇빛이 비치는 가운데, 자신의 옆에 아내가 누워 있다. <사진1>은 황청둥이 병실에서 이혼한 아내를 만나는 모습이다. 아내는 늘 그랬듯이 다정하게 오늘 식당의 장

32) 멀치아 엘리아데, 『영원회귀의 신화: 원형과 반복』, 심재중 역, 서울: 이학사, 2003, p.29.

사가 잘 되었는지 물으며 대화를 나눈다. 황청둥은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 아내와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했었다. 아내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는 순간, 아내가 사라진다. 아내는 환영이었다.

<사진1> 황청둥이 아내의 환영을 보는 장면(31회)

병원의 응급실은 그가 거룩한 것을 경험하는 장소이다. 비록 아내의 요구에 의해 이혼을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황청둥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병실 밖은 절망의 세계이며, 이곳은 아내와의 소통이 이루어진 신비로운 공간이다. 응급실은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며, 동시에 재생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아내의 모습을 보고 삶의 목표와 용기를 얻는다. 아내는 환자의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황의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란히 누워 서로를 마주보며, 오늘의 장사를 물어보는 장면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가능함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성스러운 체험 이후에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자신이 해야할 일을 찾았다. 그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것이다. 엘리아데의 성소가 가지는 특징, 즉 수련자가 삶의 방향성을 획득한다는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기숙사로 돌아온 아들 황샤오둥에게, 이번에는 어머니와의 사별이 기다린다. 남편 황청둥과 이혼한 후 둥메이링은 아들의 기숙사를 다시 찾아온다. <사진2>는 모자의 재회 장면이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햇빛과 바람이 따스하고 새 소리도 듣기 좋으니 매 순간을 잘 보내기를 당부한다. 오랜만에

나타난 어머니의 갑작스런 이야기에 아들은 의아해한다. 몇 달 뒤 둥메이링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는 어머니의 말을 다시 떠올린다.

> 이 햇빛이 몸을 얼마나 따뜻하게 비추는지, 이 작은 바람이 얼굴에 불면 얼마나 편안한지, 이 새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보렴. 이 1분을 잘 보내라. 1분 동안 네 마음속에는 아무런 근심거리도 없을 것이다. 몇 년 후 네가 다시 이 1분을 떠올릴 때, 너는 무엇을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일이 발생하기 전의 그 1분이 바로 생애 최고의 시간으로, 나는 정말 그 1분으로 돌아가고 싶구나.[33]

<사진2> 아들 기숙사에서 모자 재회 장면(34회)

둥메이링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당부의 말은 햇빛이 비쳐드는 공간의 성스러움과 이러한 공간을 마음대로 만끽할 수 있는 1분이라는 시간의 거룩함을 동시에 드러낸다. 특히 햇빛은 아들을 성의 영역에 인도하는 매개체이다. 두개의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따스한 햇빛을 손으로 받으며 황샤오둥은 어머니의 말을 되새긴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한 마지막 순간을 회상한다. 엘리아데에 의하면 성스러운 장소란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교통이 가능한 공간이다.[34] 황샤오

---

33) "瞅這陽光照在身上多暖和, 這小風吹在臉上多舒服, 這鳥叫多好聽. 好好過這一分鍾, 這一分鍾, 你心裏什麽煩心事都沒有. 多少年以後你再回想起這一分鍾, 你就會明白, 什麽叫做好時光. 好多事沒發生以前的那一分鍾, 就是生命裏最好的時光, 我眞想回到那一分鍾."(34회)

34) 멀치아 엘리아데, 『상징, 신성, 예술』, 박규태 역, 서울: 서광사, 1991, p.193.

둥에게는 기숙사 방이 지상의 자신과 천상의 어머니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이때 따스한 햇빛은 그와 어머니 사이 소통의 수단이자 성스러움의 상징이다.

햇빛을 통하여 그는 속과 성의 공간 균열을 경험하면서 초월적 실재와의 교통이 가능해진다. 그는 햇빛을 지긋이 바라보다가 웃으면서 '엄마'라고 불러본다. 그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히에로파니가 이루어진다. 어떤 공간에서든 히에로파니는 그것이 참되다고 믿는 자에게 초월적 실재의 현현으로 여겨지는 법이다.[35]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햇빛은 어머니의 실재로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한편 생명을 계시하며, 생명의지의 확인이기도 하다. 생명의 성스러움이 햇빛을 통해 현현된다. 아들에게 햇빛은 성스러운 존재이자 초자연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제 이 장소는 그의 항구적인 중심이 되었으며 성스러운 힘의 원천이 된다. 이 공간에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거룩한 존재와의 교제를 가능케 한다.

황청둥은 둥메이링과 재결합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향했지만, 그녀에게 거절당한다. 그는 아들이 다니는 대학의 총장인 오스카 씨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몇 달 뒤 아내가 보낸 동영상 파일을 전달 받게 된다. 둥메이링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다. 그때서야 황청둥은 아내가 암에 걸려 곧 세상을 떠나게 되자 첫사랑을 찾기 위해, 자신과 이혼을 요구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사진3>은 둥메이링의 동영상 화면이다.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황청둥은 깊은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방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아내를 잃은 그의 삶은 무의미하며, 이 방은 스스로를 가둔 폐쇄된 공간이 된다.

35) 멀치아 엘리아데, 『상징, 신성, 예술』, 박규태 역, 서울: 서광사, 1991, p.191.

<사진3> 둥메이링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동영상(34회)

황청둥은 아내의 영상을 끝없이 재생한다. 그러던 어느 날 동영상을 보다, 아내가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과 자신의 아내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을 깨닫게 된다. 베이징 응급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내의 실존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동영상의 반복 재생은, 일종의 의례적 행위이다. 사람들은 의례를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신, 조상을 비롯한 거룩한 것을 체험한다. 황청둥은 동영상을 통해 아내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황청둥은 부재와 무의미의 세계에서 탈출하게 되며, 이 방은 그에게 성소가 된다. 그는 죽음의 공간에서 의례적 행위를 통해, 생명의 힘을 얻는다. 생명이란 과거나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코스모스를 개척해가는 과정의 것이다. 그는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황청둥에게는 여전히 큰 과제가 남아있는데 바로 아들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러다 아들이 친구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아 혼수상태로 열흘 동안 입원하게 된다. 그는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돌보면서 하루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꼬박 열흘을 지새웠다. 아들이 좋아하는 농구선수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화와 소설을 읽어주며 어릴 적 이야기도 들려준다.(39-42회)

그리고 아들을 위해 해초의 노래를 부른다. 그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노래이다. 노래를 반복해 부르고 간병하면서 그는 내면의 진심을 깨닫게 되는데, 아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헌신을 결심한다. 그 순간 그는 불안한 속의 세계에서 벗어나,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며 성화된 세계에 진입한다. 그는 여기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며 존재론적 지위를 향유한다. 즉 “아이가 있는 곳이 곧 집(孩子跟哪兒, 家就跟哪兒)”임을 깨닫고, 이제부터 황샤오둥의 아버지로서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42회)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 것이다. 병실은 인생의 항구적인 중심으로 작동하며, 그에게 방향성을 제시한다.

아들 황샤오둥은 어머니와의 사별 이후, 생부와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 사이에서 누구를 택할지 곤혹스런 고민에 빠진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섰다가 두 아버지가 주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요리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 장면을 보고 황샤오둥은 지금까지의 고민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가족이란 혈연과 길러준 정 사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두 아버지와 함께 모여살기로 한다.(46회)

여기서 주방은 황샤오둥이 거룩한 것을 체험하는 공간, 즉 성스러운 공간이 된다. 그가 주방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밖의 세계는 편견이 지배하는 세속적인 공간이었다. 황샤오둥이 주방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른다. 그가 두 아버지를 동시에 인정하는 순간이다. 이에 두 아버지 모두 돌아보면서 웃는다. 두 아버지 역시, 두 아버지를 수용하는 아들을 환영한다. 이제 황샤오둥은 혈연과 비혈연이 융합된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재론적 지위를 얻는다.

<표1> 황씨 부자의 거룩한 공간적 경험

사건	황청둥의 성소	황샤오둥의 성소
출생의 비밀	베이징의 병원(31회)	노숙자의 계단, 미궁(30회)
둥메이링과의 이별	오스카의 방(34-35회)	기숙사(34회)
새 가족의 완성	미국의 병원(39-42회)	주방(46회)

표에서 보듯 거룩한 공간, 즉 성소는 집이 3회, 병원의 실내 2회, 야외의 계단이 1회로 나타난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은 가능한 한 세계의 중심에 가까이 살기를 갈망한다. 인간은 실재의 바로 핵심에, 세계의 중심에 발을 디디고 서거나 거주하기를 원한다. 도시는 도시 밖에 비해 세계의 중심에 가깝고, 전

통사회에서 신전이나 왕궁은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중심의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은 각각의 개인들에게 세계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주론적 상징 혹은 제식에 의하여 성화된다.[36] 집은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 만든 공간으로 이해된다. 집이 히에로파니를 통해 성소로 변하는 순간, 안은 성스러운 세계로, 밖은 무질서한 속된 곳이 된다. 황씨 부자는 실존적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거룩한 것의 현시를 경험했다. 각자의 거주 공간, 즉 집과 병실에서 현현이 이루어졌다.

2) 성스러운 시간과 재생 의지

종교적 인간의 심리적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간은 균질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않다. 예컨대 어떤 시간은 길하고 어떤 시간은 흉하다. 성스러운 시간은 일시적이라는 속성을 가진다. 수련자는 히에로파니를 통해 원초적인 시간을 경험하며, 이는 영원성의 근거가 된다.[37] 황씨 부자는 위의 거룩한 공간들에서 일시적인 성스러운 시간을 체험하면서 원초적이고 태초적인 시공간에 진입한다. 그들은 신비한 시간의 체험 속에서 생명의 부활과 재생을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간을 만드는 행위와 사건들은 기존 질서의 파괴, 옛것을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의 재현 등을 포함한다. 황샤오둥은 다리와 미궁에서 삼자를 동시에 경험한다. 다리에로의 진입은 세속적 시간과 단절하고 기존 질서나 구조를 파괴하는 순간에 해당한다. 미궁으로의 진입은 옛것을 씻는 정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뿌리 찾기는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를 재현한다.

다리 밑에서 세속적인 시간은 정지되었지만 아직 성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 아니다. 그는 새로운 정체성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속의 시간도 성의 시간

36)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서울: 학민사, 1999, p.51, p.58.
37) 이진경・김문덕, 「한국 기독교공간에 나타난 종교현상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M. 엘리아데의 종교현상학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제18권 2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7, p.504.

도 아닌 모호한 상태에 처한다. 이는 상징인류학자 빅터 터너(Victor Turner, 1920~1983)가 설명한 리미널리티에 해당한다. 그는 통과의례를 분리-전이-통합의 3단계로 구분한 반 게넵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38] 신참자가 구질서와 신질서의 경계인 리미널한 상태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를 리미널리티라고 명명한다. 이 때 신참자는 법・전통・관습・의례에 따라 지정된 어떤 지위에도 속하지 않은 위치에 처하게 된다. 그들의 모호하고도 불확정적인 속성은 자주 죽음이나 자궁 속에 있는 것, 불가시적인 것, 암흑, 일식이나 월식 등에 비유된다.[39] 황샤오둥이 바로 이러한 과도기에서 자신의 출생에 대한 혼돈을 지닌 채 방황하는 신참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드라마에 나타나는 첫 번째 성의 시간은 황청둥의 이야기에서 보인다. 그는 베이징 병원에서 죽음과 재생을 동시에 경험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는 병상에서 아내의 환영을 보게 됨으로써 세속적인 시간이 멈춘 채 히에로파니화한 시간에 진입한다.

이때 나타난 아내는 이혼하기 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다정하게 황청둥을 바라보며, 오늘의 장사가 어떠했는지 물어본다. 부부가 헤어지기 전에 일상적으로 나누던 대화이다. 이는 거룩한 시간이 가지는 전형적인 속성인 가역성과 회복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의 의미는 황청둥이 단순히 아내를 만났다는 데에 있지 않다. 이혼하기 전의 아내를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앞으로 황청둥의 행동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황청둥의 현실은 분명 아내와 이혼한 상태이다. 그런데 그는 환영을 통해 이혼하기 이전의 아내를 만난다. 그는 거룩한 체험을 통해 이혼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갔으며,

---

38) 첫 번째 단계인 분리는 신성한 시공간과 세속적 시공간을 분명하게 구분 짓는다. 중간 단계인 전이의 단계에서 제의 주체들은 일종의 애매성의 시기와 영역, 즉 어떤 결과로 생긴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상태의 속성들을 거의 지니고 있지 않은 일종의 사회적인 중간상태(social limbo)를 통과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제의적 주체들이 전체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새롭고 안정되고 분명한 위치로 되돌아감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현상들과 행동들을 포함한다. 빅터 터너,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김익두・이기우 역, 서울: 민속원, 2014, pp.42-43.

39) 빅터 터너, 『의례의 과정』, 박근원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pp.145-146.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황청둥은 아내의 환영과의 만남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고,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아내와의 재결합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황샤오둥은 어머니가 찾아왔던 자신의 기숙사에서 거룩한 시간을 경험한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인식된 햇빛은 그의 주체적 시간성을 유도하는 매개가 된다. 햇빛은 죽은 이를 소환하고 부활시킴으로써, 수련자로 하여금 시간적 흐름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영원성을 획득하게 한다. 성스러운 시간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영원한 실재가 재현되는 시기이다. 주기성, 반복성, 영원한 현재라는 주술・종교적 시간의 세 가지 특질은 모두 히에로파니적 시간의 불균질성이 지닌 의미를 해명해준다.[40] 그는 햇빛을 통해 반복적으로 어머니를 현재에 불러냄으로써 시간의 유한성과 물리적 속성을 극복하고 성의 시간을 경험한다.

다시 황청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오스카 집에서 접하게 된 것은 아내의 비보이다. 그는 며칠 동안 아내가 보낸 동영상을 끊임없이 재생시킴으로써 영원한 시간을 경험한다. 여기에서 시간의 재생과 재구성은 동영상을 모티브로 한다. 처음에 그가 동영상을 재생하고 아내의 죽음을 알았을 때, 영상은 죽음의 메신저일 뿐이다. 동영상을 재생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는 문득 아내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아내는 그의 영혼 안에서 실재로서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거룩한 시간을 맞이한 것이다. 그는 동영상을 매개로 생명의 힘이 흐르는 원형적인 시간을 획득했다. 이후 동영상을 재생하는 시간은 아내와 함께하는 성스러운 시간이 된다.

반복적인 동영상 재생은 성스러운 시간의 반복적인 체험을 의미한다. 이 장면 역시 엘리아데가 설명한 거룩한 시간의 속성이 잘 드러난다. 동영상의 재생을 통해 죽음 이전의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한 시간의 가역성을 보여준다. 또한 영상의 반복 재생은 거룩한 시간의 순환적 속성을 보여준다. 절망의 나락에 빠졌던 황청둥이 동영상을 모티브로 다시 생명력을 되찾은 것은 거룩한 시

40) 멀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서울: 한길사, 1997, p.501.

간이 가지는 회복가능성을 표현한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 황샤오둥을 진정한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한 또 다른 성의 시간을 체험한다.

황샤오둥은 친구들의 몽둥이에 맞아 병원에 실려 오고, 열흘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있게 된다. 황청둥이 노래도 들려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소설도 읽어주지만 반응이 없다. 어두컴컴한 카오스의 시간은 위협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속된 시간이다. 그는 아들이 식물인간이 될까봐 전전긍긍한다. 한편 이 시간은 숭고미를 느끼는 신비로운 순간이기도 하다. 그는 아들의 몸을 닦아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어릴 때 일을 이야기해주는데, 매일 반복하는 이와 같은 행동은 일종의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는 반복적인 의례적 행위를 통하여 아버지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확인한다.

의례는 일반적으로 신이나 선조의 원형적 행위, 신화적 시대에 일어난 행위를 모방한다.[41] 그것은 효과적인 기억장치일 뿐 아니라, 신화적 시간을 재현하여 현재화하고 시간을 극복한다.[42] 병상에 누워있는 황샤오둥은 갓 태어난 생명을 연상케 하며, 그를 돌보는 것은 원형적인 행위와 사건에 속하는 의례적인 행위에 속한다. 황청둥은 갓난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그의 몸을 닦아주고 말을 걸어주며 동화를 읽어준다. 이것은 태초의 신화에서 나타나는 인간 창조의 행위들에 대한 모방에 속한다.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황청둥도 새 생명을 다루듯이 조심스레 황샤오둥을 보살핌으로써 의례적 시간들을 경험한다.

황샤오둥이 두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성소, 주방에서도 거룩한 시간이 나타난다. 두 아버지가 노래하며 즐겁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황샤오둥에게 세속의 시간은 단절되고 성의 시간이 시작된다. 황샤오둥은 두 아버지 사이에서 선택을 번민하는 아들에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아들로 거듭난다. 이제 그에게 두 아버지는 고통을 주는 세속의 존재에서, 생명의 힘과 의지를 복돋우는 성의 존재로 다가온다.

두 아버지의 관계는 세속의 눈으로 보았을 때 대립과 원망의 관계로 설정되는

41) 멀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서울: 한길사, 1997, p.501.

42) 유요한, 『종교, 상징, 인간: 범속함 너머의 의미를 찾는 인간에 대하여』, 파주: 21세기북스, 2014, p.204.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주방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미 서로를 인정하는 거룩한 시간을 통과해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아들 황샤오둥의 거룩한 시간으로 이어진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순간이나 시간도 성스러운 시간에 개방되어 있으며 언제나 히에로파니가 될 수 있다. 황샤오둥은 아버지들의 거룩한 시간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의 거룩한 시간을 맞이했다. 거룩한 시간이 외연을 확장한 것이다.

주방에서의 거룩한 시간은 반복적이지 않은 일회성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대신 태초로의 회귀라는 방식을 통해 히에로파니의 신성성을 드러낸다. 황샤오둥은 황청둥에게 자신의 출생 광경을 들려달라고 요청한다. 황청둥은 둥메이링과 함께 병원에 간 과정, 산모의 진통, 간호사의 당부, 아버지의 긴장감 등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것은 신화에 종종 나타나는 태초의 시간을 연상케 한다. 탄생의 순간은 신성한 시간이며, 그것에 대한 재연은 성스러운 신화적 시간에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출생 광경에 대한 묘사는 가역성을 가지며, 이는 거룩한 시간의 중요한 속성이다.

<표2> 황씨 부자의 거룩한 시간적 경험

사건	황청둥의 거룩한 시간	황샤오둥의 거룩한 시간
출생의 비밀	베이징의 병원에서의 재탄생(31회)	미궁에서의 혼돈의 시간(30회)
둥메이링과의 이별	오스카 방에서의 재생(34-35회)	기숙사에서의 부활과 재생의 시간(34회)
새 가정의 완성	미국의 병원에서의 의례적 시간(39-42회)	주방에서의 신화적 시간(46회)

위의 표에서 보듯이 본고가 분석한 황청둥과 황샤오둥이 경험한 거룩한 시간은 5회이다. 황샤오둥이 미궁에 들어가는 장면은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가운데 재생을 경험하거나 재생을 기도하는 경우가 2회, 제의 성격의 시간이 2회이다. 주방에서의 시간을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축제, 즉 제의 성격으로 보았다.

황씨 부자는 둥메이링과의 사별 후 부활을 체험한다. 아버지 황청둥은 동영상을 매개로, 황샤오둥은 햇빛을 매개로 둥메이링의 부활을 확인한다. 이때 부활 또는 재생은 죽은 사람이 기억하는 자의 실존 안에 유의미한 존재로 각인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죽은 자를 추모하는 대부분의 종교적 제의가 가지는 특성과 유사하다.

새 가정의 완성과 관련해서 두 부자는 의례적 시간과 신화의 시간을 체험한다. 황청둥이 병실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책, 영상, 노래를 들려주며 보살피는 모습은, 아들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의례를 떠오르게 한다. 생명을 부활케 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겠다. 주방에서의 모습은 축제적 제의, 이후 아들의 태어나는 모습에 대한 회상은 생명 탄생의 신화적 성격을 보여준다. 두 장면 모두 거룩한 시간의 경험자 – 수련자 – 들이 생명 탄생의 원초적 시간을 맞이하는 공통점이 있다.

4. 드라마 속 상징의 구조와 의미

엘리아데에 따르면 세계는 질서가 구현된 시간과 공간이며 신의 작품이다. 따라서 세계는 그 자체로서 거대한 히에로파니이다. 히에로파니의 여러 유형 가운데 상징은 매개적 방식을 통해 수련자가 성에 참여하도록 만든다.[43]

일반적으로 히에로파니를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대상이 상징이 될 수 있다. 즉 히에로파니를 연장하고 히에로파니의 대용이 되며 히에로파니화의 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상징이 될 수 있다. 황씨 부자에게도 히에로파니의 변증법을 연장하게 한 대상이 존재한다. 부자에게 나타나는 히에로파니의 상징물에 해당하는 것은 햇빛, 둥메이링의 동영상, 빨간 예복, 해초 노래 등이다. 이 장에서는 주인공 황청둥이 경험한 상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해초의 노래와 결혼식 예복이 그 상징물이다.

---

43) 멀치아 엘리아데, 『상징, 신성, 예술』, 박규태 역, 서울: 서광사, 1991, p.50.

1) 해초 노래와 초월적 생명의 실현

해초 노래는 드라마에서 세 번 등장한다.[44] 처음 두 번은 상황의 설정상 등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히에로파니와 연관된다.[45] 구체적으로 아들이 아무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이다. 아버지가 아들이 빨리 깨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40회)

식물은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식물 이외의 것을 의미할 때 히에로파니가 되는, 즉 성을 구현하고 보여주는 것이 된다.[46] 해초는 거친 파도에 떠밀리면서도 순환과 재생을 반복하면서 존재를 지속하는 실재이다. 그것은 생명의 재생을 상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끊임없이 스스로 재생하는 살아 있는 우주를 상징하기도 한다. 병실에서 황청둥은 아들이 해초의 생명력에 힘입어 다시 눈뜨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때 해초는 주술적 효과나 힘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노래와 춤의 반복을 통하여 해초라는 식물이 실제로 그 병실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가사와 음율・율동을 통해 해초가 묘사되며, 그 생명력이 아들에게 전달된다.

여기서 해초는 히에로파니의 매개물이 된다. 해초를 통해 초월적 존재가 암시되고, 생명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황청둥은 시공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속의 시공간에서 성의 시공간으로 전이한다.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시공간이 노래의 흥과 함께 희망과 생명의 시공간으로 바뀐다. 이때 거룩한 공간은 황청둥의 춤사위로 표상된다. 아들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황청둥은 무아지경에 빠져 생명력을 만끽하면서 스스로 존재론적 변화를 겪는다.

---

44)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해초 해초처럼, 해초가 물결 따라 흔들리네. 해초 해초 해초 해초, 파도 속에서 춤을 춘다네. 해초 해초 해초 해초, 거칠고 사나운 파도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즐거움이란 게 있어, 수많은 사람들, 물결 따라 떠내려가니, 인생은 꿈만 같구나, 사랑하는 그대 어디 있는가. 난 가장 가파른 산길을 걸어봤고, 가장 웅장한 일출을 보았네. 자정 도로변에서, 밤하늘에 질 수 없다고 말했다네.(생략)”

45) 황청둥이 미국에 머무는 곳은, 아들이 다니는 대학의 총장인 오스카씨의 저택이다. 그는 이곳에서 환경미화원 일을 했는데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총장 저택에서 나무를 깎으면서 해초 노래를 부른다. 이때 해초 노래가 처음 등장한다.(12회) 그리고 황씨 부자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 구치소에 갇혔을 때에도 이 노래가 등장한다.(30회)

46) 멀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서울: 한길사, 1997, p.428.

그는 해초에서 힘을 얻는 동시에 초월적 생명의식을 계시받게 되는데 아들이 평생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곁에서 아들을 돌볼 것을 다짐한다.

2) 결혼 예복과 히에로파니의 확장성

복장도 황청둥에게 초자연적 실재를 계시한다. 드라마에서 황청둥의 복장은 세 번 크게 바뀌면서 '농구복→결혼식 예복→평상복'의 순서로 변화를 보인다.[47] 세 번의 변화에서 두 번째 경우가 히에로파니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베이징 병원에서 혹독한 의례적 죽음을 겪은 후 모자를 되찾기로 마음먹고 미국 땅을 다시 밟게 되는데, 미국 공항을 나서는 순간 빨간 예복 차림을 했다. 이것은 그가 19년 전 둥메이링과 결혼할 때에 입던 옷이다. 그 복장을 다시 착용함으로써 19년 전 아내에게 프로포즈하고 결혼하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진다. 예복은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준다.(32회)

빨간 예복은 그에게 존재론적 위치 변화를 가져온다. 그는 아내의 첫사랑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이혼까지 하게 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19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내의 남자가 되고자 한다. 히에로파니의 시간이 가지는 특징인 환원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아내의 첫사랑과 비교하면 경제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빨간 예복을 착용함으로써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기존의 자신과 결별하고 자신감 넘치고 강인한 남자로 재탄생한다. 성스러운 힘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릴 때에도,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며 이해해준다. 그전의 그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오해를 받아 경찰서에 끌려가던 사람이다. 예복의 신성함이 그를 감싸며, 그 초월적 힘이 주변 사람에게까지 확장된 것이다.

종교적 인간은 세계 내에서 특별하고도 개성적인 존재양식을 취한다.[48] 결혼 복장은 황청둥의 특별한 존재양식을 표상한다. 이 복장을 착용하면 일상성을 벗

---

47) 황씨 부자가 미국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그는 공항에서 농구복으로 갈아입는다.(1회) 그리고 아내의 사망 소식을 알고 방에서 식음을 전폐하다가 나중에 평상복을 갈아입고 문밖을 나선다.(32회)

48)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서울: 학민사, 1999, p.179.

어나 특별한 시공간에 진입하게 된다. 상징물의 이동은 성소의 이동을 수반할 수 있다. 공항, 식당 등 황청둥이 빨간 예복을 입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히에로파니적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신화의 세계에서 영웅의 검이나 창과 같은 신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신물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엘리아데가 설명하는 히에로파니의 상징물은 일반적으로 인간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것을 체험하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빨간 예복은 황청둥이 직접 선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엘리아데의 상징물 체계와는 다른 점이 있다.

<표3> 상징의 구조와 의미

상징	성소	성스러운 것의 현시
해초 노래	미국의 병원(40회)	재생의 힘과 생명력
결혼 예복	미국의 공항 외(32회)	아내의 남자로서의 자신감과 강한 의지, 주변 사람들의 관용적 이해

엘리아데의 상징은 동식물과 구조,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다. 본고는 그것을 노래와 복장으로 확장하였다. 양자를 상징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모두 그 자체 이외의 것을 의미하면서 성을 구현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양자 모두 초월적 실재를 의미하고 있다. 해초 노래는 생명력을 현시하고 성스러운 실재를 계시함으로써 히에로파니의 대용이 된다. 해초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끝없이 번식한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창조하며, 무수한 형태를 취하고 재생하기 때문에 결코 쇠진되어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해초는 살아 있는 실재의 주기적으로 재생하는 생명의 표상이다. 해초 노래도 이러한 생명력을 지닌다. 노래를 부르는 순간 황청둥은 생명력을 얻으며 초월적 경험을 한다. 아들의 치유 여부와 별도로 이 노래는 그에게 생명력과 신비한 주술적 힘을 부여한다.

그리고 결혼 복장은 히에로파니의 과정을 지속시키고 확장한다. 복장은 새로운 정체성과 존재양상을 표상한다. 이것은 빅터 터너의 이론에 비추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그에 따르면 전이 단계에서 약자는 의례적인 힘을 지

닌다고 한다. 그것은 하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최고권위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으로 표상된다.[49] 황청둥은 결혼 예복을 착용함으로써 약자의 역설적인 힘을 보여준다. 그는 아내와 아들에 대하여 순종적이던 기존의 상태에서 탈피하여 확고부동의 신념을 지닌 강한 아버지-가장으로 변신한다. 이 과정에서 복장은 그에게 주술적 힘을 준다.

빅터 터너는 또 의례의 전이과정에서 수련자의 '백지상태'(tabula rasa)를 묘사한다. 이러한 상태는 수련자가 새로운 신분과 관계된 지식과 지혜를 수용하고 각인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수련자에 가해진 시련이나 수치는 이전의 신분을 파괴하고 그들의 새로운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만든다. 사회가 그 존재방식을 틀 잡아 주는 것이다.[50] 황청둥의 결혼 복장은 그가 이전의 신분이나 지위를 벗어나 새로운 의식과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조건인, '백지상태'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황청둥의 결혼 복장은 황청둥의 '백지상태'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해초 노래와 결혼 복장 모두 수련자에게 성스러운 힘을 부여하고 새로운 정체성과 의무,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위치 변화와 사회적 지위 변화를 표상하며 성스러운 가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양자 모두 참여자로 하여금 히에로파니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한다.

5. 결어

본고는 드라마 속 황씨 부자의 종교적 삶과 경험의 구조와 의미를 기술하고, 그러한 의미와 구조들이 두 부자에 의해 어떻게 생겨나며,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밝힌 데에 주목했다. 즉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성스러운 공간과 시간을 경험하고 성숙하는 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주요 등장인물들의 성장 서사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

---

49) 빅터 터너, 『의례의 과정』, 박근원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p.156.
50) 위의 책, pp.157-158.

엘리아데의 성과 속은 거룩한 것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인간 존재 양태의 두 측면이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며 낙원에 대한 향수를 지닌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두 성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성과 속은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인간은 속의 세계에서 히에로파니를 통해 성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 히에로파니는 성이 자신의 모습을 인간에게 드러내는 과정을 말한다. 히에로파니의 여러 모델 가운데서 상징은 연상의 힘을 빌려서 이미지를 밖으로 형상화하는 일이다.

본고는 중국 드라마 <아빠와 함께 유학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거룩한 체험을 분석했다. 사회주의권의 작품임에도 드라마의 내용에는 종교적 체험과 각성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비종교적인 인간도 일상에서 종교적인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며, 히에로파니는 어디에든 나타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엘리아데의 설명이 확인되었다.

황씨 부자는 일상의 생활 안에서 성스러운 영역에 진입함으로써 존재론적 초월과 구원을 받게 된다. 황씨 부자 모두 일련의 시련과 경험을 통하여 둥메이링의 부재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자들의 행복한 관계를 구축한다. 거룩한 경험은 인간에게 생명의 힘을 느끼게 한다. 성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황씨 부자는 생명력을 체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정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생명의 힘을 통해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성을 획득한다.

드라마는 또한 새로운 의미의 가족주의를 보여준다. 황씨 부자가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주인공의 갈등과 번민이 시작된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히에로파니를 체험하고 진정한 가족은 실존을 나누는 관계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혈연은 가족을 구성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며, 진정한 헌신과 받아들임을 통해 서로의 실존을 체득할 때 가족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친부 또한 이 완성된 가정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이들의 새로운 가족관계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드라마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족관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한다.

드라마의 거룩한 경험은 성스러운 공간과 시간, 상징과 제의를 수반한다. 주인공 황씨 부자가 히에로파니를 맞이한 공간은 기숙사・저택의 방・주방 등 일

상을 지내는 집이 3회, 병실이 2회, 공항과 식당이 각 1회로 나타난다. 엘리아데는 성과 속을 설명하며 집의 중요성을 주장했는데, 드라마에서도 집이 가장 많은 횟수를 보인다. 집은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 창조된 공간이며, 개별 인간에게 있어 각자의 집은 세계의 중심에 해당한다고 엘리아데는 해석한바 있다. 성의 현현을 통해 일상의 공간은 초월적 공간으로 전이되며, 이때 인간은 우주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맞는다. 드라마는 히에로파니가 인간이 살아가는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엘리아데의 이론에 부합한다.

거룩한 시간은 반복성, 회귀성, 순환의 특징을 보인다. 이는 의례-제의의 시간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하다. 드라마 속의 거룩한 시간은 재생과 제의의 순간이다. 황씨 부자는 아내이자 어머니인 둥메이링의 죽음 이후에 그녀의 부활을 체험한다. 이때의 부활은 죽은 자가 체험자에게 실존적 존재감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한편 황청둥이 병실에서 아들을 위해 반복적으로 책, 영상, 노래를 들려주며 보살피는 모습은 의례적인 체험의 시간에 해당한다. 주방에서 아들 황샤오둥이 목격한 두 아버지의 노래와 춤은 축제의 성격을 보여주며, 제의의 체험에 해당한다. 완전한 가정을 이룬 황씨 부자는 아들 황샤오둥이 태어나는 순간을 회상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회귀에 해당한다. 원초적 생명의 탄생으로의 회귀는 신화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신화는 초월적인 공간과 시간에 대한 모범을 제공하며, 의례는 신화의 공간과 시간을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

성(聖)의 드러남, 즉 히에로파니의 유형은 상징, 신화, 의례, 신의 형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드라마에는 상징물을 통해 주인공의 히에로파니를 표현하는 부분이 다수 나타난다. 드라마에 나타나는 상징물로는 햇빛, 둥메이링의 영상, 결혼 예복, 해초 노래 등이 활용된다. 모두 초월적 힘과 생명의 복원을 수반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엘리아데는 거룩한 경험에 등장하는 상징물을 동식물과 구조, 건축물로 한정했다. 그러나 본고의 고찰 결과 해초 노래와 결혼 예복은 히에로파니의 상징물로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노래와 의복 등이 성의 현현 과정에서 상징물이 될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더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더글라스 알렌, 『엘리아데의 신화와 종교』, 유요한 역, 서울: 이학사, 2008.
멀치아 엘리아데, 『상징, 신성, 예술』, 박규태 역, 서울: 서광사, 1991.
_____, 『성과 속』, 이은봉 역, 서울: 한길사, 1998.
_____, 『성과 속-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서울: 학민사, 1999.
_____, 『영원회귀의 신화: 원형과 반복』, 심재중 역, 서울: 이학사, 2003.
_____, 『종교의 의미: 물음과 답변』, 박규태 역, 서울: 서광사, 1990.
_____,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서울: 한길사, 1997.
빅터 터너, 『의례의 과정』, 박근원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_____,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김익두・이기우 역, 서울: 민속원, 2014.
유요한, 『우리 시대의 신화: 현대 소설 속 종교적 인간의 이야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_____, 『종교, 상징, 인간: 범속함 너머의 의미를 찾는 인간에 대하여』, 파주: 21세기북스, 2014.
정진홍, 『M. 엘리아데: 종교와 신화』, 서울: 살림, 2003.

2. 논문

권성훈, 「김지하 시편의 '성과 속' 의식」, 『한국시학연구』 제62집, 한국시학회, 2020.
신호재, 「종교현상학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현상학적 환원: M.엘리아데의 『성과 속』에서 '속(俗)'의 이중적 의미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73집,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9.
이진경・김문덕, 「M.엘리아데의 종교현상학 관점으로 본 현대 기독교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4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7.
이진경・김문덕, 「한국 기독교공간에 나타난 종교현상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M. 엘리아데의 종교현상학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제18권 2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7.
조관용, 「상징과 신화의 해석을 통한 예술의 이해: 엘리아데(M. Eliade)의 창조적 해석학을 중심으로」, 『美學・藝術學研究』 제8집, 한국미학예술학회, 1998.
진상범, 「Das Nibelungenlied의 지크프리트를 통해 나타난 성년식 서사구조 분석-엘리아데(M, Eliade)의 성년식(Initiation) 이론의 관점에서」, 『世界文學比較研究』 제30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10.
한의정, 「현대미술에서 성(聖)과 속(俗)」, 『美學・藝術學研究』 제38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13.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5월 07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21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6월 10일

Abstract

The Sacred and the Profane in the Chinese Drama <Over the Sea I Come to You>(2019)
- Focusing on the Concept of Eliade

JIANG XUEJ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aspects of the achievements revealed in the Chinese drama 〈Over the Sea I Come to You〉(2019). Eliade's the sacred and the profane are important concepts for explaining human experience of holiness. And it's two aspects of the human being pattern. According to him, humans are religious and have a nostalgia for paradise. Religious or non-religious people all lead true lives in the sacred. The sacred and the profane are world of different dimensions, and humans can enter the world of the sacred through hierophany.

The holy experience shown in the drama involves sacred space, time, symbols and offerings. In the space where the main character Huang and his son greet Hierophany, there will be three daily homes, two hospital rooms, and one airport and one restaurant. It fits Eliade's theory that hierophany can appear anywhere in human life. Holy time in the drama is a moment of regeneration and offer. Huang and his son experience her resurrection after the death of their wife and mother, Dong Meiling. Meanwhile, the scene of repeatedly playing books, videos, and songs for his son in the hospital room constitutes a time of ritual. The songs and dances of the two fathers witnessed by their son Huang Xiaodong in the kitchen show the nature of the festival, which constitutes an experience of offering. In the drama, there are many parts that express the main character's hierophany through symbols of this time include sunlight, videos of Dong Meiling, wedding robes, and seaweed songs. They all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seeks to restore transcendent power and life.

Keyword M.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hierophany, Chinese drama,

Over the Sea I Come to You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1.155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수 방안에 대한 연구

王朶朶*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내 한국어과 학생을 위한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수 학습 방안을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교감적 언어사용은 메시지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대화를 더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내 한국어과 학습자들에 적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습에 매우 중요한 도구인 교재를 대상으로 교감적 언어사용의 제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재 분석의 결과로 교재에서 제시되는 교감적 언어사용의 수와 양상이 적었고, 교감적 언어사용이 교재의 급수별로 균형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제시된 교감적 언어사용이 내용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감적 언어사용의 내용을 재정리해서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수 학습은 중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 학습자들이 점진적으로 교감적 언어사용을 습득하는 데에 나선형의 교수 학습 방법과 명시적인 방법이 도움이 된다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수 학습 방안에 관해서는 도입 단계, 제시 단계, 교수 단계, 연습 단계, 활용 단계, 피드백 및 정리 단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주제어 교감적 언어사용, 중국, 한국어 학습자, 교육 방안, 교재 분석

〈목차〉

1. 서론
2. 교감적 언어사용의 구성요소
3. 중국 내 교감적 언어사용 교육의 현황
4. 교감적 언어사용 학습 내용의 재구성과 교수 학습 방안
5. 결론

* 聊城大学外国语学院 讲师

1. 서론

이 연구는 중국 내 한국어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수 학습 방안을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인간은 한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유대와 결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말을 한다. 우리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길든 짧든 반드시 특정한 말을 한다. “좋은 아침”, “날씨가 좋네”라는 말들은 그 예이다. 짧고 간단하지만 자신이 상대와의 결속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일종의 대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의 의미와 관계없는 역할을 하는 것을 ‘교감적 언어사용’이라고 한다. 교감적 언어사용은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하거나 어떤 행동에 사람을 결속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며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아닌 그냥 막연히 주고받는 말이다(김영주 역, 1987: 323).

교감적 언어사용(Phatic Communion)은 영국의 인류학자인 말리노브스키(Malinowski, 1923)에 의해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 사람을 결속시키려는 친교적 기능을 가지고 대화의 전 과정에 나타난다. 대화의 시작 단계에서는 “야”, “어” 등과 같이 청자의 반응이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가진 짧은 어형의 감탄적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 대화의 도중에서 나타나는 “왔어?”, “그러네요.”등과 같은 말은 명백한 사실에 대해 묻거나 청자가 상대방의 발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주의 집중의 표시가 될 수 있다. 대화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살펴가세요”, “또 만나요” 등과 같이 이별로 인한 좌절감이나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교감적 언어사용은 메시지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될 존재이다.

이와 같은 말이나 행동은 한국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숱하게 행해 왔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다. 하지만 한국에 가보지 못한 중국인 학생들에 있어서는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 내 한국어과 학생들은 교감적 언어를 잘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학습이 필

요하다.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은 언어 사용 행위도 그 나름의 유형이 있고 모든 문화에 의사소통의 상호 작용에 적합한 규범이 있다고 한다(왕한석 외, 2009: 1). 따라서 교감적 언어사용도 언어 사용 행위의 하나로서 적합한 규범을 찾아내서 교육시킬 수 있다.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련해서 Jacobson(1960), Hayakawa(1964), Laver(1975), Lyons(1977), James(1980) 등은 교감적 언어사용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고, 한국 국내에서는 이혜은(1985), 박성철(2006, 2007), 배도용(2012, 2014, 2016), 이영희(2015), 왕둬둬(2017), 왕타타(2019) 등은 일반언어학적 관점에서 교감적 언어사용을 체계화하려 하거나 일부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배도용(2014, 2016)과 이영희(2015)는 한국어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쓰는 교감적 언어사용의 하위 분류인 감탄적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수 학습에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내 한국어과 학생을 위한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수 학습 내용과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왕타타(2019)에서 체계화했던 교감적 언어사용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2장에서는 교감적 언어사용의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3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육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교감적 언어사용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할 것이다.

2. 교감적 언어사용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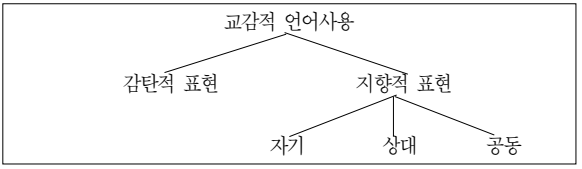
교감적 언어사용의 구성요소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우선 교감적 언어사용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감적 언어사용의 개념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Jacobson(1960), Hayakawa(1964), Laver(1975), Lyons(1977), James(1980), 박성철(2006), 배도용(2012), 朱永生(1989) 등이 있다. 왕타타(2019)는 앞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감적 언어사용의 정의를 재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왕타타(2019: 28)에서 내린 정의를 따를 것이다.

교감적 언어사용은 사람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고 유지해나가기 위해 대화 시작, 이어가기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쓰이는 친교적 기능만을 나타내는 모든 접촉 행위를 말한다.

윗 내용을 보면 교감적 언어사용의 정의는 쓰는 상황, 기능, 대화 속에서 출현하는 위치 등을 중심으로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교감적 언어사용의 분류 체제 및 구성요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교감적 언어사용의 분류 체제에 대해 Laver(1975), James(1980), 박성철(2007), 배도용(2012)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왕타타(2019)는 앞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교감적 언어사용의 실제 사용 사례를 반영해서 배도용(2012)에서 제시한 분류를 다음 <그림 1>(왕타타, 2019: 33)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 교감적 언어사용의 분류



본 연구는 <그림 1>에서 제시된 분류를 따를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교감적 언어사용은 크게 감탄적 표현과 지향적 표현 두 분류로 구분되고, 지향적 표현은 다시 자기 지향적 표현, 상대 지향적 표현 그리고 공동 지향적 표현으로 나뉜다. 감탄적 표현은 구체적인 뜻이 없고 어형이 짧으며 상대와의 결속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말한다. 화자가 발화하는 사이에 청자가 '응', '네', '그래' 등과 같이 말을 한다면, 상대의 말을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으니 발화를 계속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 화자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상대가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발화를 계속할 의욕이 생겨 대화를 계속 끌어나갈 수 있다.

지향적 표현은 발화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따라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자기지향적 표현, 상대인 청자를 가리키는 상대지향적 표현, 그리고 화자와 청자를 모두 가리키는 공동지향적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기지향적 표현은 주로 화자 자신의 수행행위를 서술하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다녀왔습니다.', '다시 연락해 드릴 게요.' 등은 그 예들이다. 상대지향적 표현은 청자인 상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발화로 내용의 핵심 동작은 상대에 의해 이루어진다. '퇴근이에요?', '조심해서 가십시오' 등은 그 예들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지향적 표현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 관여하는 표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이나 대화 참여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좋은 아침', '아들 잘 크지?.' 등은 그 예들이다.[1)]

앞서 교감적 언어사용의 정의에서 지적하였듯이 교감적 언어사용의 구성 요소인 감탄적 표현과 지향적 표현은 사람들을 결속시키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대화의 시작, 중간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모두 나타난다.

3. 중국 내 교감적 언어사용 교육의 현황

교감적 언어사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만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한국어 대화 환경에 노출되지 못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교감적 언어사용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로는 교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의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 시중에 출판된 교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를 연구 대상으로 봐야 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국 4년제 대학교의 한국어과에서 종합 한국어, 말하기, 쓰기, 번역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들 과목 중에 종합 한국어는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지만 한국어의 실제적인 활용보다는 문법이나 어휘에 중

1) 이 부분의 내용은 왕타타(2019: 33-36)의 일부 내용을 재인용하였다. 왕타타(2019)에서는 감탄적 표현과 지향적 표현을 대화에서 출현하는 위치인 열기 단계, 잇기 단계 그리고 닫기 단계 등 단계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점을 두고 있어서 연구 대상으로 삼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실제적인 활용에 학습 목표를 두고 있으며 주로 말하기 수업에서 활용되는 말하기 교재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2]. 구체적인 연구 교재는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교재의 종류

구분	교재명	출판연도	출판사
A	新視線韓國語听說教程 말하기 쉬운 한국어1-6	2014년 (5판)	북경언어대학출판사
B	韓國語視听說教程[3] 1-4	2017년 (2판)	북경대학출판사
C	新世紀韓國語口語教程 초급(상,하), 중급(상,하)	2018년	외어교학우련구출판사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교재는 총 세 종류이다. 하나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에서 재 출판된 '新視線韓國語听說教程'인데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2014년까지 5판이나 출판되었다. 두 번째 종류의 교재는 중국에서 제12차 5년 계획 기간에 쓰이는 교재로 지정된 '韓國語視听說教程'이고 2017년까지 2판 출판되었다. 세 번째 교재는 '新世紀韓國語口語教程'으로 가장 최근에 출판된 교재이다. 이 세 가지 종류의 교재는 인지도나 내용적인 면에서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3대 출판사로 꼽히는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삼기가 마땅하다고 본다. 편의를 위해 본고

2) 실제로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현지 4년제 대학교의 한국어과에서 말하기 수업은 대부분 한국인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는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선생님은 몇 년 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단위로 말하기 수업 교재를 조사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인 저자가 편저한 말하기 교재 한 종류와 한국에서 출판된 말하기 교재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 한 종류, 한중 두 나라의 저자가 공동으로 편저한 교재 두 종류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3) 이 교재는 2011년-2015년 5년간 국가 계획에서 선정된 4년제 대학교 교재로 '十二五' 普通高等教育本科国家级规划教材라는 로고가 찍혀 있다.

에서는 이들 교재를 각각 A, B, C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어서 교재별로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한 표현을 추출하고[4] 현재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감적 언어사용 교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한국어 교재에서의 교감적 언어사용 교육 내용

한국어 교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도구로 그 내용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어 환경에 처해 있지 않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이 다양한 맥락 상황에 노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 교감적 언어사용을 배울 수밖에 없다. 교재는 교사가 한국어를 교수할 때 쓰는 주요 자료임으로 학습자들의 정확한 한국어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 출간된 말하기 교재의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인지, 또한 학습자들의 수준에 알맞고 균형 있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교재를 대조 분석하는 주요 목적이 될 수 있다.

먼저 각 교재에서 나타나는 교감적 언어사용의 빈도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 본 연구에서 분석 항목을 추출하거나 분류시킬 때는 왕타타(2019)에서 제시한 교감적 언어사용 표현의 추출 절차를 따랐다. 일부 표현이 얼핏 보면 상대에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집 앞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웃 사람을 만나면 '어디 가요?'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의 행방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다. 그냥 아무말 안 하고 지나가면 실례인 것 같아서 뭐라도 상대에게 말을 건 것뿐이다. 이를 통해 이웃 사람에게 관심을 표함으로써 상대와의 결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 이웃 사람도 대답할 때는 구체적인 행선지를 밝힐 필요가 없고 얼버무린 대답인 '네'로 답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장도 모두 교감적 언어사용 표현으로 보았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중국인 한국어 교사 5명에게 분류 점검 작업을 의뢰하였다.

<표 2> 교재별로 나타난 교감적 언어사용의 횟수

교재 구분	열기 단계			잇기 단계			닫기 단계			총합계
	감탄적 표현	지향적 표현	합계	감탄적 표현	지향적 표현	합계	감탄적 표현	지향적 표현	합계	
A	6	69 (5+57+7)[5]	75	21	16 (12+4+0)	37	0	19 (4+12+3)	19	131
B[6]	7	60 (12+42+6)	67	29	30 (18+12+0)	59	0	30 (9+19+2)	30	156
C	4	38 (3+29+6)	42	18	16 (14+2+0)	34	2	14 (5+5+4)	16	92

이어서 3가지의 말하기 교재에서 나타나는 교감적 언어사용을 대화 열기 단계, 대화 잇기 단계, 그리고 대화 닫기 단계 등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각 단계에서 또 다시 감탄적 표현과 지향적 표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분류에서 나타난 표현의 횟수를 조사하였다. 표를 통해 보듯이 A교재와 B교재에서 나타나는 교감적 언어사용은 각각 131개와 156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C교재는 92개로 A교재와 B교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A교재와 B교재는 대화 열기 단계에서 나타난 교감적 언어사용의 수가 비슷한 숫자로 보였지만 C교재는 42개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7].

5) 세 숫자는 대화의 시작 단계, 잇기 단계 그리고 닫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지향적 표현의 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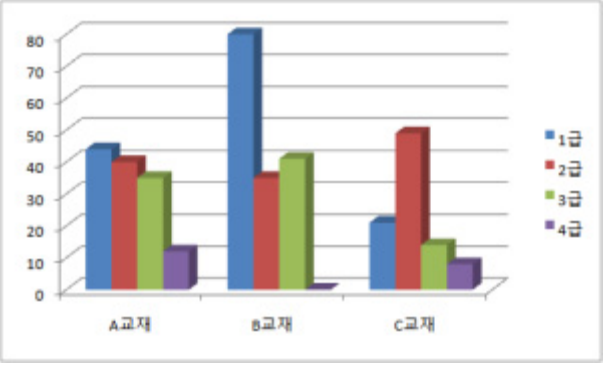
6) 이 교재는 2011년-2015년 5년간 국가 계획에서 선정된 4년제 대학교 교재로 '十二五' 普通高等教育本科国家级规划教材라는 로고가 찍혀 있다.

7) C교재에서의 교감적 언어사용의 부족으로 본문도 딱딱하게 시작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의사: 언제부터 아팠어요?
양메이: 어제 저녁부터 열이 나고 목이 아팠어요. (교재 A, 초급 상. p88)
예문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화 상황에 관한 소개는 물론이고 환자와 의사 간의 인사도 없이 바로 진료 내용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다소 학습자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 저자는 학습 목표에 관한 내용만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이에 큰 관계가 없는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한 내용이 생략돼도 큰 문제

대화 잇기 단계에서의 교감적 언어사용의 경우는 A교재와 C교재에서 비슷한 숫자를 보이는 반면에 B교재는 59개로 높은 숫자를 보였다. 특히 지향적 표현의 경우 B교재는 A교재와 C교재의 두 배인 30번이나 많이 출현되었다. 대화 닫기 단계에서도 B교재는 A교재와 C교재보다 교감적 언어사용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쉽게도 A교재와 B교재에서는 감탄적 표현이 하나도 나타지 않았고 C교재에서도 2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는 대화 닫기 단계에서 쓰이는 감탄적 표현이 원래 많지 않다는 데에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균형 있게 배포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어서 A, B, C 세 종류의 교재를 중심으로 각 급수 별로 출간된 교재에서 교감적 언어사용이 나타나는 횟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먼저 차트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교재 급수별로 나타난 교감적 언어사용



<표 3>을 보면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한 표현은 각 교재의 1급, 2급 그리고 3급 교재에서 집중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특히 A교재에서 가장 균형있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감적 언어사용은 그 내용 구성에 있어 어려운 어휘

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문장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대화 내용과 거리가 생기게 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좋은 학습 자료가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문법이 없으므로 초·중급 단계에 다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B교재의 경우 1급 책에서 나타나는 교감적 언어사용의 수가 다른 교재의 1급 책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숫자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반해 B교재의 4급 책에서는 교감적 언어사용이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B교재의 4급 책에서 정보의 전달에 목적을 둔 신문 뉴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C교재의 경우 1급과 3급 책에서 나타나는 교감적 언어사용의 수가 다른 교재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저자가 새로운 문법이나 어휘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편저하느라 나타난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본문의 중간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대화의 시작과 마무리 단계의 내용을 소홀히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어서 세 종류의 교재에서 나타나는 교감적 언어사용의 표현을 추출하여 이를 분류시킨 다음에 앞서 왕타타(2019)에서 정리한 분류와 비교 분석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 대상인 A, B, C 세 교재에서 나타나는 교감적 언어사용의 수가 적고, 일부 유형만을 중심으로 중복적으로 제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왕타타(2019)에서 제시한 교감적 언어사용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특히 세 가지 교재에서 제시되는 감탄적 표현의 수는 왕타타(2019)에서 제시한 감탄적 표현 수의 반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향적 표현에 있어도 한국인들이 실제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교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일에 대해 질문하는 말, 또한 한국인의 '정' 문화가 깃들어 있는 '빈말 인사말' 등과 같은 지향적 표현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외에 교감적 언어사용은 1급, 2급 그리고 3급 교재에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4급에서 제시되는 횟수가 뚜렷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도 문제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에 따르면 언어기술 영역 중의 4급 말하기 학습 목표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격식과 비격식을 구별해서 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교감적 언어사용은 공식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표현임으로 학습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고 본다.

첫째, 교재에서 제시되는 교감적 언어사용은 실제 대화에서 사용되는 말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표현들은 문법에 있어 틀린 문장이 아니지만 실제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대화 맥락에 맞고 사용빈도가 높은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1) 약사: **어서 오십시오.**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홍단: 감기에 걸렸습니다. (B교재1-p221)
(2) 점원: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웨이빈: 우선 천천히 구경할게요. (C교재2-p108)
(3) 헤럴드: 카오리 씨,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카오리: 아까 지하철에서 예의를 상실한 남자 때문에 책을 잃어 버렸지 뭐예요. (C교재3-p156)
(4) 양메이: **컴퓨터 앞에서 뭐해요**?
웨이빈: 네, 좀 있으면 방학이어서 인터넷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C교재1-p195)

예문(1)은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이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어서 오세요'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또한 '어디가 편찮으십니까'라는 표현도 연세가 많은 노인 말고는 이와 같은 아주 높임 표현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신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또는 '어디가 불편하세요?'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또한 예문(2)는 옷 가게에서 점원과 손님 간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다. 손님이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점원이 하는 말은 '무엇을 드릴까요?'라기 보다는 '혹시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또는 '어떤 옷 찾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예문(3)과 (4)는 상대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질문하는 식으로 상대에게 말을 거는 예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상태나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라이스의 협력원칙 중의 양의 격률[8] 원칙에 따라 필요 이상의 정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 예문 (3)과 (4)

8) 그라이스(1975)는 대화의 4대 협력 원칙을 제시하면서 정보의 양과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정보를 부여하지 마라'고 지적하였다.

에서 화자의 발화를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나 '뭘 해요? / 뭘 보고 있어요?' 등으로 바꿔서 쓰는 것이 좋다.

둘째,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해 대답이 없거나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교감적 언어사용이 질문으로 나타날 경우 얼버무린 대답을 해줘도 상관없지만 이에 대한 대답 없이 바로 다음 발화로 넘어갈 경우 화자를 기분 나쁘게 만들 우려가 있어서 교재에서는 이에 맞는 대답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4) 이단: 영호 씨도 건강 조심하고 잘 들어가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북경오세요.**
영호: **안녕히 계십시오.** (B교재1-p232)
(5) 양메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방학 잘 보냈어요**?
양메이: **선생님도 방학 잘 보내셨어요**? (C교재2-p6)

예문(4)에서 화자인 이단이 청자인 영호와의 유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다시 놀러오라는 요청을 했지만 청자인 영호가 이에 대응되는 말을 하지 않고 '안녕히 계십시오'라고만 대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호는 설령 앞으로 다시 북경에 가지 못할 것이라도 빈말 인사말인 '네, 꼭 올 게요'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예문 (5)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방학 잘 보냈어요?'라는 질문을 했지만 이에 학생인 양메이는 이에 답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되물었다. 이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바람직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양메이가 먼저 선생님의 질문을 먼저 대답한 후에 다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대화 잇기 단계에서 적절한 지향적 표현이 없는 관계로 발화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다.

(6) 이단: 여보세요.
영호: **미안합니다**. 최영숙 씨 좀 부탁합니다. (B교재1-p235)
(7) 제임스: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찍으면서 구경했어요.
사오리: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A교재2-p166)

예문(6)에서 전화가 연결되는 즉시에 영호가 바로 사과하는 말로 발화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 적절한 지향적 표현을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같은 말인 '여보세요?'나 '네, 안녕하세요?', 또한 전화를 제대로 걸었는지 확인하는 말로 '거기는 혹시 00이에요?'라고 먼저 발화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여기에서 '미안합니다'는 상대에게 실제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사과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인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연결어미인 '지만' 또는 '는데'를 사용해서 뒤의 문장과 연결시켜서 발화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예문(7)에서 사오리는 제임스의 여행 경험 이야기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안하고 바로 사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실망시킬 수 있다. 마치 청자인 사오리가 자신의 발화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자인 사오리가 '네, 재미있겠네요'와 같이 상대의 발화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상대의 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화 참여자들 간의 친소관계나 서열관계 등 사회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8) 직원: **안녕하십니까**? **<u>뭘 보내시겠습니까</u>**?
이단: 이 소포를 중국에 부치려고 합니다. (B교재1-p225)
(9) 약사: **어서 오십시오. <u>어디가 편찮으십니까</u>**?
홍단: 감기에 걸렸습니다. (B교재1-p221)

예문 (8)은 우체국에서 직원과 손님 간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다. 직원이 손님한테 존댓말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일반 생활에서는 해요체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직원의 발화를 '안녕하세요, 뭘 보내실 거예요/뭘 부치실 거예요?'로 바꿔서 표현하면 내용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예문 (9)도 마찬가지로 일반 환자에게는 '어디가 아프세요?' 또는 '어디가 불편하세요?' 등과 같은 해요체로 바꿔서 쓰는 것이 좋다.

넷째,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지 않은 교감적 언어사용을 제시되는 부분이 있다.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문장의 언표적인 의미가 아닌 대화의 맥락에 따라 나타내는 화용적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중급 교재에서는 초급 교재와 같은 지향적 표현을 제시하더라도 대답하는 내용을 통해 그 지향적 표현이 화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예컨대 '어디 가?'라는 지향적 표현에 '네' 또는 '저기 좀' 등과 같은 얼버무리는 대답을 만든 것이 괜찮다. 이를 통해 여기의 '어디'가 행선지를 묻는 뜻이 아니고 '어딘가에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다는 뜻을 학습자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감적 언어사용은 한국의 역사나 문화적인 요소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에 관한 보충 설명이 없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어의 교감적 언어사용 중 특히 전형적으로 많이 쓰이는 지향적 표현의 경우 한민족 사람들의 돈독한 정문화가 깃들어 있고, 그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관한 내용이 교재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섯째, 학습자들이 교감적 언어사용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다양한 과제 활동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생활에서 학습자들이 접하게 되는 상황이 매우 다양한데 이에 관한 연습 훈련이 없으면 교감적 언어사용을 원활하게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4. 교감적 언어사용 학습 내용의 재구성과 교수 학습 방안

4.1 교감적 언어사용 학습 내용의 재구성

앞서 중국에서 출간된 말하기 교재를 중심으로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분석 대상인 교재에서 교감적 언어사용의 표현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지 못했고, 제시된 일부 지향적 표현은 한국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양상과 다르게 나타나거나 해당 표현이 교재 등급 별로 균형 있게 분포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원어민 교사가 부족한 중국 현지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 있어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 도구는 역시 교재다. 따라서 교재 안에 적절한 교감적 언어사용 표현을 삽입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왕타타(2019)에서 추출한 한국어 교감적 언어사용 표현을 바탕으로 앞서 교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서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다.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한 표현은 전형적으로 나온 표현들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대화 내용을 조금 바꿔서 써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 모두 제시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왕타타(2019)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대표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제시할 것이다. 교감적 언어사용의 등급 분류에 관해서는 김중섭(2010)[9]에서 제시한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목표'와 '한국어능력시험 어휘 목록'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교감적 언어사용 표현은 어느 한 단계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왕타타(2019)에서 추출한 표현을 단순히 초・중・급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감적 언어사용 내용에 따라 나눠진 분류가 어느 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제시될 수 있는 단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제시되기가 적절한 단계는 '●'로, 제시 가능한 단계의 범위를 '⇒'로 표시하기로 한다.

<표 4> 교감적 언어사용 내용의 재구성[10]

제시되는 분류	초급	중급	고급
야, 어이, 아^1, 어^1, 여보, 어^2, 아^2, 어^3, 응, 네^2,	●	⇒	⇒

9) 김중섭(2010)은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목표를 '주제 영역', '언어기술 영역', '언어지식 영역', '문화 영역'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10)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은 언어 사용 행위도 그 나름의 유형과 적합한 규범이 있다고 한다(한국사회언어학회 역, 2002: 96).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감적 언어사용을 교육시키 전에 먼저 그 유형이나 규범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사례의 구성 요인은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이다(왕한석 외 역, 2009: 1-40). 왕타타(2019)는 한중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한 대조 연구에 있어 중요한 구성 요인인 배경, 참여자, 화제 및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감탄적 표현은 기능, 참여자를, 지향적 표현은 기능 및 참여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의 마지막에 관련 대조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감탄적 표현과 지향적 표현을 교육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이와 같은 분류 체제를 바탕으로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수 학습 내용을 제시하기로 한다.

네[1], 예, 자[1], 자[2], 그래[1],	-	●	⇒
그러네, 그렇지, 그러게, 그럼, 진짜, 정말, 그래[2]	-	●	⇒
그래서, 그런데, 그래[3], 어[4] , 자[2]	-	-	●
소개인사, 귀환 인사, 축원 인사, 양해 구하는 인사, 감사 인사	●	⇒	⇒
위로 인사	-	●	⇒
환영 인사	●	⇒	⇒
하던 일에 대해 묻는 말, 할 일에 대해 묻는 말	●	⇒	⇒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묻는 말	-	●	⇒
알고 있는 일에 대해 묻는 말	-	●	⇒
상대의 방문에 반가워하는 말	-	●	⇒
오랜만에 만날 때 하는 인사	●	⇒	⇒
일반 인사	●	⇒	⇒
상대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평가	-	●	⇒
시간 중심	●	⇒	⇒
공동 또는 타인 중심	-	●	⇒
선행 발화 내용에 따른 감사나 축하 인사	●	⇒	⇒
부탁 인사	●	⇒	⇒
식사 예의	●	⇒	⇒
화자 선행 발화 내용에 대한 위로나 공감 이야기	-	●	⇒
대화 통로 확인	●	⇒	⇒
자연 환경에 관한 이야기	●	⇒	⇒
특정한 사건에 대한 평가	-	●	⇒
떠날 행위를 서술하는 말	●	⇒	⇒
빈말 인사	-	●	⇒
상대에게 주는 축복하는 말	-	●	⇒
만남에 대한 자신의 소감	●	⇒	⇒
상대의 떠남 행위에 대해 당부하는 말	●	⇒	⇒
헤어진 후에 상대의 행동에 대해 당부하는 말	●	⇒	⇒
상대를 만류하는 말	-	●	⇒
기원이나 위로하는 말	-	●	⇒
상대의 노고에 감사하는 말	●	⇒	⇒
다음 만남의 기약	●	⇒	⇒

이상으로 교감적 언어사용의 학습 내용을 등급 별로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제시한 듯이 대부분의 교감적 언어사용의 표현이 초·중급 단계에서 많이 제시된다. 이는 교감적 언어사용은 문법적인 면은 물론이고 형태적인 면에서 볼 때

도 복잡한 표현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2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수 학습 방안

이어서 앞서 제시한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수 내용을 토대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교감적 언어사용 교수 학습의 방안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감적 언어사용을 교수하는 데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수법을 통해서 교수하는 것이 적합할 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감적 언어사용 교수 학습의 전제

교감적 언어사용의 실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교수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감적 언어사용은 크게 감탄적 표현과 지향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의 감탄적 표현은 주로 담화표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지향적 표현은 인사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려운 어휘나 문법 지식 배경이 필요없으므로 교감적 언어사용의 형태적 구조보다는 특정한 맥락에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 교감적 언어사용의 명제적 의미가 아닌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교감적 언어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법을 통해 교육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어서 담화표지와 인사말에 관한 교육을 다룬 문헌을 먼저 살펴보고 이 두 가지 표현에 맞는 교육방법을 구안하도록 할 것이다.

효과적인 교잠적 언어사용의 학습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교감적 언어사용의 화용적 기능에 관한 교수 학습은 중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한 표현의 문법적인 의미는 초급 수준의 숙달도를 갖춘 학습자라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다. 특히 전형적인 표현인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어디가?’ 등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앞서 언

급한 것과 같이 교감적 언어사용은 그 문법적인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대인적 기능, 즉 그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화용적 의미까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초급 학습자들은 기초적인 어휘와 문법에 중점을 두어 배워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화용적 기능까지 교수를 한다면 학습자에게 큰 인지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화용 층위에 대한 교육은 초급보다는 학습자들이 기초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다지게 되는 중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11].

둘째, 나선형의 교수 학습 방법은 학습자들이 점진적으로 교감적 언어사용을 습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김재욱(2009: 77-79)에서 학습자들은 하나의 문법 항목을 여러 단계에 걸쳐 단계적인 학습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를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이를 바로 나선형 학습이라고 하였다. 이와 교감적 언어사용을 교육 학습하는 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교감적 언어사용의 문법적인 의미를 먼저 학습하고, 중・고급 단계로 올라와서 그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친교적 기능을 학습한 다음에 이를 실제 언어생활에서 활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암시적인 방법보다 명시적인 방법을 통해 교감적 언어사용을 교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화용적 특성이 교수된 경우는 교수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 효과가 높았고, 명시적 교수(입력과 연습에 더하여 화용적 특성에 대한 기술, 설명)가 함축적(비명시적) 교수(입력과 연습만 있고 메타 화용적 구성요소 학습이 없었던 경우)보다 효과적이다(Kasper, 1997)[12]. 이와 같은 견해는 유나(2016)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교감적 언어사용에서 특히 지향적 표현의 경우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정 문화가 깃들어 있어서 이에 관한 배경 지식이 없는 한 한국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그 표현의 친교적 기능을 알아채는 일이 어려울 것이다. 특히 한국어 언어 환경에 없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교사가 한국어와 중국어 교감적 언어사용을 비교하면

11) 이에 관해 이해영(2002: 56)도 같은 주장을 보였다.
12) (이해영, 2002: 67)에서 재인용.

서 명시적인 방법으로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감적 언어사용 교수・학습 모형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감적 언어사용은 감탄적 표현과 지향적 표현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한 교육모형을 제시하기 전에 감탄적 표현과 지향적 표현에 관한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탄적 표현은 감탄사에서 유래된 친교적 기능을 가진 담화표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한국 국내에서 담화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몇몇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고, 이론적인 연구 성과와 교육 현장에의 적용 간의 연계가 약한 것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유나, 2016: 19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담화표지 교육에 관한 연구는 감탄적 표현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보고 담화표지 교육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정선혜(2006)에서는 학습자를 학습 주체로 보아 학습자들이 스스로 관측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담화표지 교수 학습 절차를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인지 단계, 분석 단계, 확인 단계 그리고 적용 단계가 있다. 문수지(2013)에서는 담화 교육에 I제시(illustration)-I상호작용(interaction)-I귀납적 유도(induction) 모형이 학습자의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 습득에 유리한다고 보는 McCarthy, M.&Carter,R.(1995)의 주장에 동의하여 이에 관한 담화표지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유나(2016)에서는 인지와 사용에 중점을 두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의 담화표지 교수・학습 모형을 '도입 단계', '식별 단계', '제시 단계', '연습 단계', '활용 단계' 그리고 '피드백 및 정리 단계'로 제시하였다.

지향적 표현은 대부분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전형적으로 쓰는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말은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사말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교육 활동이나 교육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다룬 것인데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또한 유나(2016)에서 제시한 교육 모형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지만 감탄적 언어사용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대로 교

감적 언어사용 교육 방안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널리 쓰고 있는 교육 모형은 상향식 교수 모형 및 하향식 교수 모형 두 가지가 있다. 상향식 교수 모형은 바른 언어 사례를 제시하고 반복 연습하여 바른 언어 자료를 자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모형이고, 하향식 교수 모형은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과제를 제시하여 과제 해결형 언어 습득을 하도록 하는 지도 모형이다(민현식, 2008: 309). 두 모형은 모두 장단점을 갖추고 있는데 잘 가늠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먼저 상향식 교수 모형은 학습자들이 교감적 언어사용의 형태와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장점을 가진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교사가 교감적 언어사용 표현에 대응되는 중국어를 제시하거나 주의사항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주면 학습자의 인지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모형은 교사를 중심으로의 수업을 만들기 일쑤이고,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는 존재가 되어, 교감적 언어사용을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없지만 실제적인 활용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대로 하향식 교수 방안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흥미도 유발은 물론이고, 유의미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학습자의 실제 활용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감적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들이 과제 활동을 통해 일정한 규칙을 귀납적으로 스스로 추론해 내야 하는데, 추론이 잘못될 경우 교감적 언어사용 패턴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육 목표는 원활한 활용에 있어서 하향식 교수 모형을 따른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교감적 언어사용이 맥락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항목이고 이에 관한 명확한 설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향식 교수 방안도 필요로 해서 단순히 어떤 교수 모형이 좋을지 분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향식 교수 모형과 하향식 교수 모형 그 어느 모형도 치우치 않는 중립적인 모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표 5>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수 학습 모형

강의 절차	수업 내용
도입 단계	-중국어 교감적 언어사용 표현이 들어간 중국 드라마 장면을 보여주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이에 해당되는 한국어 표현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의사소통할 때 이런 표현이 없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학습자들이 스스로 생각학게 한다.
제시 단계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한국어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한 표현을 찾아내게 한다. -교사는 교감적 언어사용 표현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교수 단계	-한국어 교감적 언어사용의 개념 및 기능을 설명한다. -한국어 교감적 언어사용에 해당되는 중국어 교감적 언어사용 표현을 메타적인 설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필요할 때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해준다.
연습 단계	-교사가 준비한 과제를 학습자들로 하여금 완성하게 한다.
활용 단계	-학습자들을 팀으로 나누어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한 대화문을 만들어서 역할극을 통해 발표하도록 한다.
피드백 및 정리 단계	-학습자의 과제에 대해 피드백 해주고 수업 마무리 준비를 한다.

우선 도입 단계에서는 교사가 미리 준비한 중국 드라마를 학습자에게 두 번 보여준다. 처음 관람할 때 학습자들이 동영상을 보고 대화 상황 및 내용에 대해 파악하게 한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학습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동영상에서 나타난 교감적 언어사용 표현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와 같은 표현이 없으면 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한국어 표현이 무엇인지를 학습자에게 질문을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교감적 언어사용에 주목하게 하고 교감적 언어사용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도록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도입 단계를 거치고 나서 교사는 한국 드라마 장면을 두 번 보여주고 학습자들이 드라마에서 나타난 한국어 교감적 언어사용 표현을 찾아내게 한다. 첫 번째 보여줄 때 학습자들이 동영상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두 번째 보여줄 때는 학습자들이 교감적 언어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했기 때문에 이들 표현을 스스로 찾아내게 한다. 이와 같은 식별 단계를 통해 학습자들을 교감적 언어사용의 다양한 기능에 주목시켜 화용적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습자들의 대답에 피드백을 해주고 교감적 언어사용 표현을 정리한 다음에 학습자에게 제시해 준다.

교수 단계는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한 기본 내용을 교수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교감적 언어사용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이때 중국어로 된 메타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면 학습자의 심층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제시 단계에서 형성되었던 교감적 언어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초보적인 인식을 한층 더 구체화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다.

연습 단계는 학습자들이 교감적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정확한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 빈칸을 채우는 활동을 진행한다. 교사는 미리 준비해 놓은 과제를 학습자들에게 나눠주고, 학습자들을 하여금 완성하게 한다. 과제에 관련되는 동영상을 미리 학습자에게 보여주고 학습자들이 올바른 교감적 언어사용 표현으로 빈칸을 채우도록 한다. 이는 학습자의 인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활한 사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

활용 단계는 실생활과 관련된 유의미한 활동을 통해 교감적 언어사용에 대한 활용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을 여러 팀으로 나누고 대화 배경 상황을 알려준다. 학습자들이 해당 상황에 의거해서 관련 대화문을 만들고 역할극을 통해 발표한다. 역할극은 언어적인 교감적 언어사용 그리고 비언어적인 교감적 언어사용의 학습 모두에 도움이 된다. 이는 실생활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화 상황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교감적 언어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및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고 수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하는 역할극을 보고 학습자들의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교감적 언어사용에 대해 지도를 해준다. 주요 평가 내용은 언어적인 교감적 언어사용 측면에서의 경어법 사용, 비언어적인 교감적 언어사용 측면에서의 제스처 사용 등이다. 교사의 피드백이 끝난 후에 학습자들을 대화문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이 없는지 물어보며, 궁금한 사항이 없다면 수업을 마무리 한다.

5. 결론

이상으로 중국 내 한국어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수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인 학습자에 맞는 학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중국 현지 대학교의 한국어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한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한 교육은 한국어 교육의 전 과정에 걸치기 때문에 어느 한 수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가장 중요한 도구인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종류의 교재에서 나타나는 교감적 언어사용의 수가 적은 편이고, 제시되는 양상도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재 급수별로 균형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교재의 급수별로 볼 때 교감적 언어사용은 주로 1급, 2급, 그리고 3급 교재에서 나타나고 4급 교재에서는 교감적 언어사용의 표현이 현저히 적었다.

셋째, 내용적인 면에서는 문제점이 많다. 교재에서 제시되는 교감적 언어사용은 실제 대화에서 사용되는 말과 거리가 있거나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해 대답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감적 언어사용의 학습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본고는 왕타타(2019)에서 추출한 교감적 언어사용에 관한 표현들을 학습 내용으로 정리하고 급수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고는 교감적 언어사용의 화용적 기능에 관한 교수 학습은 중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나선형의 교수 학습 방법과 명시적인 방법은 학습자들이 점진적으로 교감적 언어사용을 습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수 학습 방안에 관해서는 도입 단계, 제시 단계, 교수 단계, 연습 단계, 활용 단계, 피드백 및 정리 단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교감적 언어사용은 커뮤니케이션을 더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한국어로 대화를 잘 이어나가려고 하면 교감적 언어사용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교

감적 언어사용의 교육 방안이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한 교육 방안은 여러 조건의 제한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지 못한 것도 한계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감적 언어사용의 교육에 관한 기초 연구임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의 교감적 언어사용의 활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김중섭,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2010.

유나,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구어 담화표지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문수지,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담화표지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민현식,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2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8, pp.261-334.

박성철, 「'패틱 커뮤니온'의 전통적 개념규정과 그 소통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 제20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6, pp.79-113.

_____, 「패틱 커뮤니온의 문화상대성에 대한 고찰 -문화간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문제상황을 중심으로-」, 『독어학』 제16집, 한국독어학회, 2007, pp.91-120.

배도용, 「한국어 교감적 언어사용(Phatic Communion)의 구성 요소와 실현 양상」, 『한국어 교육』 제23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2, pp.179-201.

_____, 「한국어 교실 발화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습자의 교감적 언어사용 양상」, 『우리말연구』 제39집, 우리말학회, 2014, pp.253-274.

_____, 「한국어 교실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습자의 교감적 언어사용 양상 연구 -친교적 언어사용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제48집, 우리말학회, 2017, pp.141-163.

왕둬둬, 「교감적 언어사용의 감탄적 표현에 관한 한중 대조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57집, 한중인문학회, 2017, pp.125-150.

왕타타, 「한중 양어의 교감적 언어사용 양상에 관한 대조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이영희, 「한국어 교실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감적 언어사용 양상 -수업 전개 상황에서 감탄적 표현의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26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5, pp.215-242.

이정민 · 이병근 · 이명현 편, 『언어과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1977.

이해영, 「비교문화적 화용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화용 교육」,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제21집, 2002, pp.45-70.

이혜은, 「B.Malinowski의 Phatic Communion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85.

정선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담화표지 연구 -글세, 뭐, 좀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McCarthy. M. & Carter, R., "Spoken Grammar: What is it and how can we teach it?". *ELT Journal Volume* 49/3.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207-217.

Grice, H. P., "Logic and Communication", Cole, P. & Morgan, J. L.(ed.), *Syntax and Semantics*, vol. 3,1975, 41-58.

Hayakawa, S. I.,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4. (김영준 역, 1994, 「의미론」, 현암사.).

James, C., *Contrastive Analysis*, Longman: London and New York, 1980.

Laver, J., 'Communicative Functions of Phatic Communion', In A. Kendon, R. M. Harris and M. R. Key, eds. *Organization of Behavior in Face-to-Face Interaction*, Mouton, The Hague, 1975.

Lyons. J., *Semantics*, 1, CUP Press., 1977. (강범모 역, 2011, 『의미론1: 의미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Malinowski, B. K., The Problem of Meaning in Primitive Language, In Ogden, C. K. & Richards, I. A. (1923), *The Meaning of Meaning*, London: Routledge and Keagan Paul. pp.196-336.

Ogden. C. K. & Richards. I. A., *The Meaning of Meaning*,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23. (김영수 역, 1987, 『의미의 의미』, 현암사.).

Saville-Troike, Muriel,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John Wiley & Sons. 2008. (왕한석・백경숙・인진성・기혜숙 역, 2009, 『언어와 사회: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입문』, 한국문화사).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5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23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6월 10일

Abstract

Phatic Communion Teaching Program for Korean-majored Students in China

Wang, Duodu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velop a Phatic Communion teaching program for Korean-majored students in China. Phatic Communion doesn't take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as its main purpose, but it has the function of making the conversation more smoothly, and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commun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each Korean students how to use Phatic Communion. In order to develop a teaching program suitable for domestic students, this study firstly analyzes Korean textbooks. As a learning tool, Korean textbook is an important means for domestic students to learn Korean, and the analysis of the content of the textbooks is helpful to grasp the teaching situation of Phatic Communion in China. The results of textbook analysis show that the Phatic Communion expressions in textbooks are relatively simple with a very limited number, their distribution in different levels of textbooks is uneven, and there are also some problems in the content. In order to ensure the teaching effect, this thesis puts forward some teaching requirements, such as teaching Phatic Communion to students with intermediate level, and adopting spiral and explicit teaching methods in the teaching process. In the end, this thesis discusses the class procedures in detail from five stages: leading-in, presentation, teaching, practice, application and feedback.

Keyword Phatic communion, China, Korean learners, teaching plan, textbook analysis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1.181

팬자막과 공식자막 번역 양상의 비교 연구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중심으로

원 림 림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드라마의 중국어 팬자막과 공식자막을 비교, 분석하며, 번역기법을 기준으로 한국 드라마의 중국어 팬자막과 공식자막이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드러나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5년 1월 21일에 중국 미디어 검열을 담당하는 국가광전총국에서 외화 영상물 검열 정책을 정식으로 시행한 뒤 중국 시청자들은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과 같은 과거의 한국 드라마 시청 매개체에서 벗어나 비공식 사이트 등에서 팬자막을 통하여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팬자막은 인터넷 상에서 폭넓게 소비되었다.

외화 검열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 드라마의 정식 수입이 어려운 현 시국에서 팬자막이 널리 소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번역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팬자막의 기술적 향상을 위한 공식자막과의 비교 분석은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1월 21일에 외화 검열 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된 이후 수입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마지막 드라마인 <태양의 후예>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비네와 다블네(Vinay,J.P. and J.Darbelnet)가 제시한 7가지 번역 절차를 사례분석에 적용하여 팬자막과 공식자막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며, 번역 원인과 효과를 분석한다. 팬자막과 공식자막 비교 연구 분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한-중 번역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관련 분야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 팬자막의 기술적 향상을 기대한다.

주제어 팬자막, 공식자막, 자막 번역, 번역 기법, 검열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박사과정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분석 대상과 방법
3. 자막 비교 분석 및 비교 분석 결과
4.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의한 인터넷의 보급과 중국의 문화 콘텐츠 수입 정책 변화로 인하여 중국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는 방식은 크게 변화되었다. 한국 드라마의 시청 매개체는 방송국에서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을 거쳐, 비공식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변화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시청자들이 CCTV를 비롯한 국영방송에서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1]으며 21세기 초기에 들어 한국 드라마의 수입 형태가 점점 방송국 수입에서 주요 동영상 플랫폼[2] 수입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변화되었다[3]. 그러나 2014년에 중국 미디어 검열을 담당하는 국가광전총국(SARFT)에서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는 외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심사와 검열을 거쳐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방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발표[4]한 이후, 중국 동영상 플랫폼의 한국 드라마 수입과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후 2015년 1월 21에 '한외령'[5]으로 칭하는 외화 검열 정책의 정식 시행으로 인하여 외국 문화콘텐츠의 수입이 큰 타격을 입었고 YOUKU, IQIYI,

1) 강완장・위군・이현송,「중국 내 한국 콘텐츠 팬서브(Fansub)공동체에 관한 연구」,『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17, p.75.
2) 중국의 3대 동영상 플랫폼으로 YOUKU, IQIYI, TENCENT VIDEO가 있다.
3) 陈洁,「国内视频网站海外剧引进模式分析」,『齐鲁艺苑』第150期, 2016, p.108.
4) http://www.nrta.gov.cn/art/2014/9/5/art_113_4803.html 참조.
5) '한외령'은 온라인으로 방송될 외화 영상물에 대하여 방송 전에 검열하는 정책이다. 중국 국가광전총국에서 2014년에 발표한 외화 검열 정책에 대한 강화책으로서 2015년 1월 21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TENCENT VIDEO을 비롯한 동영상 플랫폼으로 새로운 한국 드라마를 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졌다.

한편, 중국 국가광전총국의 엄격한 심사로 인한 콘텐츠 내용의 의도적인 편집과 삭제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팬들은 스스로 콘텐츠 번역 및 공유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게 되었고[6]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생산해 내면서 자막번역의 주력군이 되었다. 이로부터 중국 내 시청자들은 과거의 한국 드라마 시청 매개체에서 벗어나 비공식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팬자막[7]을 통하여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다. 현재, 이러한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중국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는 주요 매개체가 되었으며, 이에 팬자막도 인터넷 상에서 폭넓게 소비되고 있다.

또한, 곤잘레스(Gonzalzes 2006), 강완정・위군・이현송(2017)은 팬자막 및 팬자막 공동체[8]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해 주고, 박정윤(2014)은 공동체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차례의 검수와 수정을 거쳐서 자막번역 작업을 수행하는 팬자막을 단순히 비전문가에 의한 수준이 낮은 번역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김순영・정희정(2010)은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팬자막은 더 이상 학문적 연구의 관심권 밖에 머무르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본고는 위법성 문제와 번역 품질 문제 등 태생적인 한계로 인하여 학술적인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팬자막에는 학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전문성에 있어 공식자막과 큰 차이가 있는 팬자막은 공식자막과의 비교 분석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9]

기존 팬자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논즈(1999), 다이즈 신타스(2005), 페레르 사이모(2005) 등이 있다. 중국의 경우, 팬자막은 외국 영상물을 접하는데 매우 흔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한국의

6) 강완장・위군・이현송, 앞의 논문, p.74.

7) 팬자막(Fansub, Fan-subtitled의 줄임말)은 팬들에 의해 번역되고 제작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말한다.

8) 팬자막을 제작하고 해당 콘텐츠를 공유하는 단체를 일컫는다.

9) 공식자막은 정식으로 수입된 드라마를 위해 번역된 자막이자 공식적인 방송용 자막으로 전문성과 품질이 팬자막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 팬자막 특성 연구 7편[10], 한국어 팬자막 수용성 연구 5편[11], 팬서브 공동체 연구 2편[12], 팬자막과 전문가・공식 자막 번역 사례 비교 연구 6편[13], 그리고 팬 번역과 관련된 기타 연구 3편으로[14] 총 7가지 줄기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한국 드라마의 중국어 팬자막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어 팬자막을 사례 분석 측면에서 다루는 연구에는 김가희・최릉우(2015a), 김가희・최릉우(2015b)가 있으나 이들도 한-중 번역이 아닌 영-중 번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한-중 번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외화 검열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 드라마의 정식 수입이 어려운 이 시국에 팬자막이 널리 소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번역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팬자막의 기술적 향상을 위한 공식자막과의 비교 분석은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본다. 본 연구는 팬자막과 공식자막 비교 연구 분야에서 한-중 번역의 사례 분석을 다루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 드라마의 중국어 팬자막과 공식자막을 비교, 분석하며, 번역기법을 기준으로 한국 드라마의 중국어 팬자막과 공식자막이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팬자막과 공식자막의 비교 분석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향후 팬자막의 기술적 향상을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10) 정희정(2008a), 정희정(2008b), 김순영・정희정(2010), 정희정(2010), 이지민(2015a), 이지민(2015b), 서유경(2016)

11) 박경리(2013), 김선영(2013), 오정민(2019a), 오정민(2019b), 최진실(2020)

12) 김호영・홍남희(2012), 강완정・위군・이현송(2017)

13) 박정윤(2014), 박헌일(2014), 김가희・최릉우(2015a), 김가희・최릉우(2015b), 민나래(2015), 이지민(2021)

14) 조성은・조원석(2015), 오정민・김순영(2019), 박소영(2019)

2. 분석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중국 동영상 플랫폼 IQIYI에서 수입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태양의 후예>는 2015년 1월 21일에 중국 국가광전총국에서 '한외령'을 정식으로 시행한 뒤, 100% 사전 제작으로 완성되고 중국 정부의 검열을 거쳐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영된 첫 번째 드라마이다. 또한, 마지막 화 방영이 끝난 후의 시청 횟수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태양의 후예>는 26억 8500만 번의 시청 횟수로 2013년에 수입된 <별에서 온 그대>의 13억 시청 횟수를 초과하여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였다.[15] 이 밖에 중국 3대 동영상 플랫폼인 YOUKU, IQIYI, TENCENT VIDEO를 조사한 결과, 2016년 9월에 '한한령'[16]이 실시된 이후 한국 문화콘텐츠의 수입이 급속히 줄어들어 <태양의 후예>처럼 큰 인기를 끄는 드라마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태양의 후예>는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수입된 한국 드라마 중 최고의 시청률을 차지하고 있다.

<태양의 후예>가 2015년 1월 21일에 외화 검열 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된 이후에 수입된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마지막 드라마이기에 팬자막과 공식자막을 비교, 분석하기에 가장 적절한 콘텐츠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를 감안하여 <태양의 후예>를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태양의 후예>의 팬자막은 'HANMI'자막팀[17]의 자막을 선정하였다. 이 자막팀을 선정한 이유는 'HANMI'자막팀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자막팀 중 번역 품질에 있어서 팬들의 인정을 받는 팬자막 공동체이기 때문이다[18].

---

15) https://www.yicai.com/news/5003160.html 뉴스 참조.

16) '한한령' 즉 한류 금지령이다. 2016년에 중국 국가광전총국에서 새로운 한국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중한 협력 프로젝트의 진행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가 있다.

17) 한국에서는 '팬자막 공동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자막팀'으로 칭하고 있다.

18) 중국에서 품질이 높다고 팬들의 인정을 받는 자막팀에는 'TSKS', 'HANMI', 'XIAOWANJU'가 있으나 <태양의 후예>를 번역한 자막팀은 'HANMI'와 'SHENDAO'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는 'HANMI'자막팀의 번역 품질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사례 분석은 팬자막과 공식자막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방식으로 먼저 두 가지 버전의 자막에 대하여 번역 방식에서 경향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을 골라내고 이들이 번역 기법에서 어떠한 차이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번역 기법'은 비네와 다블네(Vinay,J.P. and J.Darbelnet)의 모델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비네와 다블네는 비교 문체론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불어와 영어 두 언어 간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직접 번역(direct translation)과 간접 번역(oblique translation)이라는 2가지 번역 전략과 이에 따른 7가지 절차를 규명하였다. 직역(literal)의 동의어로 제시된 직접 번역에는 1)차용, 2)모사, 3)직역이 해당되며, 5가지 상황[19]에 의한 직접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되는 간접 번역에는 4)치환, 5)변조, 6)등가, 7)번안이 포함된다.

팬자막은 공동체 작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문화적 각도에서의 비교 분석 접근도 필요하지만 문화적 요소보다 '전문성'이 팬자막의 번역 품질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문화적 차원보다 언어적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팬자막과 공식자막 비교 분석 연구들은 대부분이 자막 글자 수, 주석 사용 등의 형식적 특징이나 이국화 및 자국화라는 큰 전략으로 두 자막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팬자막의 기술적인 향상을 위하여 이국화 및 자국화라는 큰 틀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번역 기법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전문성이 없는 주관적 판단을 통한 자국화나 이국화 선택보다는 구체적인 번역기법을 근거로 자막번역을 수행하면 품질 제고에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팬자막과 공식자막의 비교 분석에 일종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위의 7가지 번역 기법을 사례분석에 적용하고 팬자막과 공식자막이 각각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번역 양상이 나타나는지, 번역 기법에 있어서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중국 외화 검열 정책과 관

19) a. 다른 의미가 된다. b. 말이 되지 않는다. c.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 d. TL의 메타 언어적 경험 내에서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e. 어떤 것과 상응하긴 하지만, 층위가 동일하지 않다.

련지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외화 검열 정책이 작용하지 않은 번역 양상에 대하여 언어적인 차원, 즉, 번역 기법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고, 해당 번역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번역 효과를 논의할 것이다.

3. 자막 비교 분석 및 비교 분석 결과

이 부분에서는 비네와 다블네의 7가지 절차를 기준으로 팬자막과 공식자막을 비교 분석을 하고 이들이 번역 양상에 있어 어떠한 차이점이 드러나는지를 고찰하며, 이러한 번역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번역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 대사 원문을 ST로 표시하고, 팬자막을 TT1으로 표시하며 공식자막을 TT2로 표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TT1과 TT2를 역번역을 해서 괄호 안에 표시해 놓았다.

먼저 분석 기준인 비네와 다블네의 7가지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막 비교 분석에 들어갈 것이다.

직접 번역에 해당되는 기법에는 차용, 모사, 직역이 있다. 차용(borrowing)은 'SL의 단어는 그대로 TL에 전이'되는 번역 현상을 말하며 외래어의 번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예컨대, 중국 화폐 단위 '元'를 발음 그대로 '위안'으로 적는 경우, 영어의 'computer'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컴퓨터'로 번역하는 경우, 이와 같이 원천 텍스트의 단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빌려와 목표 텍스트로 옮기는 번역을 차용이라고 한다. 비네와 다블네는 "차용이 TL에서의 의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이국적 분위기를 가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다."[20]라고 하였다. 모사(calque)는 특별한 종류의 차용으로서 SL의 특정 표현이나 구문이 그대로 TL에서 사용된다는 것이다[21]. 차용과 달리 모사는 출발어의 단어, 구, 절을 옮기면서 발음을 따르지 않고 그 의미를 살려 번역하는 기법이다. 이는 'good morning'과 '좋은 아침'을 예로 들 수 있다. 직역(literal translation)은 단

20) Jeremy Munday, 정연일・남원준 역, 『번역학 입문: 이론과 적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p.73.

21) 위의 책, p.73.

어 대 단어의 번역으로 축어역이라고도 한다. 이는 출발어의 단어와 어순이 도착어에 그대로 옮겨지는 경우를 말한다. 비네와 다블네는 구조적, 메타 언어적 요구와 의미가 완전히 보존될 경우에만 직역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간접 번역에는 치환, 변조, 등가, 번안이 있다. 치환(transposition)은 하나의 품사를 의미를 바꾸지 않고, 다른 품사로 대체하는 방식이다[22]. 예를 들어, 'to my delight(기쁘게도)'를 '~하여 기쁘다'로 번역하는 것은 부사를 동사로 옮기는 치환의 예이다. 변조(modulation)는 언어표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법으로 이를 사용할 때 SL의 의미와 관점이 변하게 되며, 직역이나 치환이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나 도착어에서 부적절하거나 관용 어법에 어긋나거나, 어색할 때 사용한다[23]. 예컨대, 영어의 'lost and found'와 한국어의 '분실물 센터'는 한 종류의 변조이다. 등가(equivalence)에 대하여 비네와 다블네는 동일한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언어에 따라 서로 다른 문체론적 또는 구조적 수단들을 이용하는 경우에 '등가'라는 술어를 사용한다[24]고 설명하였다. 등가는 특히 관용어구나 고유어법의 어법적인 목록, 속담, 감탄사 등을 번역할 때 자주 쓰는 기법이다. 번안(adaptation)은 원천 문화의 특정한 상황이 목표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문화적 지시물을 바꾸는 것을 일컫는다[25]. 번안은 ST에 언급된 맥락이 TT에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절차로 일종의 재창조의 형태이다. 예컨대, 한국의 '네이버'와 중국의 '바이두'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태양의 후예>의 팬자막과 공식자막에서 나타난 번역 기법 상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한다.

---

22) 위의 책, p.74.
23) 위의 책, p.75.
24) 위의 책, p.76.
25) 위의 책, p.76.

1) 직역 VS 생략[26]

예문(1)
ST : 군대에서 쓰던 총 생각하고 막 만지고 그러면 고장 나요 고장
TT1: 不要把这当成你们在军队时用的随便乱用 这样会坏掉的 会坏掉 (이를 군대에서 쓰던 총 생각하고 막 쓰지 마세요 이러면 고장 나요 고장)
TT2: 不是你们当兵时用的那种枪 随便乱摸会坏的 (군대에서 쓰셨던 총이 아니에요 막 만지면 고장 나요)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TT1은 밑줄 친 부분을 그대로 직역하였고, TT2는 '고장'에 대한 번역을 생략하였다. ST에서 '고장'의 반복적인 사용은 극 중 인물의 불쾌와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고장'에 대한 번역을 생략하는 것은 인물의 어투와 태도를 살리는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번역 현상에 대하여 공식자막인 TT2는 자막번역의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을 고려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번역하였지만, 팬자막인 TT1은 이러한 제한을 잘 받지 않고 자유롭게 번역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공식자막으로서 정중하고 공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에서 TT2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고장'을 삭제했으리라 추측되었다. 이로 인해 TT2는 딱딱하고 경직된 번역인 반면 TT1은 생동감이 넘치는, 극 중 인물의 어투와 태도를 잘 살려주는 번역이 되었다.

예문(2)
ST : 원무과에 진료비 수납하고 가세요
TT1: 到院务科交一下治疗费再走吧 (원무과에 진료비 수납하고 가세요)
TT2: 把医药费交了再走 (진료비 수납하고 가세요)

'원무과'가 의료 문화와 관련된 어휘로서 중국에서도 대응되는 어휘를 찾을

26) 예문(1),(2)의 TT2는 비네와 다블네가 제시한 7가지 번역 절차인 차용, 모사, 직역, 치환, 변조, 등가, 번안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본고는 박윤철(2011)에 따라 이를 시공간적 제약이라는 자막번역 규범에 의한 생략 양상으로 보고 '생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수가 있으며 이를 '医务科(의무과)'로 사용하고 있다. TT2에는 이를 생략하는 번역 양상이 나타났다. '원무과'를 발화 의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어휘로 판단하여 생략했다는 번역자의 의도와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앞 예문(1)에서 논의한 것처럼 공식자막은 시공간적 제약이라는 자막번역 규범의 제한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다. 시청자의 빠른 이해를 도와주기 위하여 번역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요소들은 삭제됐다. TT1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자어로 직역하였다. 그러나 '원무과'는 한국 문화를 모르는 중국인 시청자 입장에서 매우 생소한 표현이기에 '院务科'로 직역하면 시청자들의 빠른 이해를 방해할 것이다. 따라서 목표언어권 시청자의 빠른 이해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를 자국화 시켜서 '医务科(의무과)'로 번역하거나 TT2처럼 발화 의미에 지장이 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를 생략하는 번역 전략을 취할 수 있다.

2) 변조 VS 직역, 직역 VS 변조

예문(3)

ST : 다시는 오지 말라면서 진솔하게 주는데 그럼 거절합니까?

TT1: 他给了娃娃诚恳的拜托我们不要再光顾小店 我难道要拒绝吗 (인형을 주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진솔하게 부탁하는데 그럼 거절합니까?)

TT2: 说别再来 这么真诚地送给我 怎好意思拒绝 (다시는 오지 말라면서 이렇게 진솔하게 주는데 그럼 거절합니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조는 관점을 달리하는 언어표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번역 기법이고, 이에 대하여 비네와 다블네는 "SL의 의미나 관점이 변하게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승권(2001)은 변조를 '등가의 의미에 대한 표현 방법의 차이를 파악해서 번역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보통 직역이나 치환이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나 목표언어와는 잘 어울리지 않아 어색할 때 변조를 사용한다. TT1은 중국어에 맞게 어순을 바꿔서 번역하였으며, 이는 '변조' 기법을 사용한 번역이다. TT2는 한국어 어순 그대로 직역한 번역이다.

TT1은 부사구 '진솔하게'가 수식하는 동사의 차이로 인하여 약간 오역을 초래하였으나 어순을 바꿈으로써 자연스러운 중국어 표현으로 번역하였다. 그러

나 TT2는 한국어 어순 그 대로 직역을 하는 바람에 문장 의미의 논리성을 떨어뜨리게 하였고, 자연스럽지 않은 중국어 표현이다. 이에 도착어의 논리성과 자연스러운 정도에서 봤을 때 TT1이 더 나은 번역이라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직역 VS 변조' 양상을 살펴보겠다.

예문(4)
ST : 가든 말든 손님 마음 아닙니까?
TT1: 走不走不应该是客人自愿的吗 (가든 말든 손님 마음 아닙니까?)
TT2: 要不要治疗是客人自己的意愿 (치료를 받든 말든 손님 자신의 마음입니다)

도둑질로 다친 환자가 입원하였고, 병원을 탈출하다가 다시 병원으로 잡아넣는 장면이다. TT1은 ST대로 의문문으로 직역한 반면 TT2는 표현의 초점을 바꾸는 변조 기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 변조가 있다. 하나는 '가든 말든'을 '치료를 받든 말든'으로 번역하는 변조이고, 다른 하나는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는 변조이다. 여기서 두 번째, 즉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번역하는 변조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인물의 감정과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데 TT1과 TT2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의문문과 평서문의 감정 표현 강도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화자의 입장에서는 '가든 말든 손님 마음 아닙니까?'라는 의문문은 '치료를 받든 말든 손님 자신의 마음입니다.'라는 평서문에 비해 감정 표현에 있어 더 강한 표현이고, 청자의 입장에서는 전자(의문문)가 후자(평서문)보다 더 강한 압박감을 청자에게 줄 수 있다. TT1은 원문에 충실하게 의문문으로 번역함으로써 환자의 초조한 심리 상태와 화난 감정을 잘 표현 해냈다. 그러나 TT2에서 이를 평서문으로 바꾸면서 환자의 심리 상태 및 감정에 대한 표현을 살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감정의 표현 강도를 낮추게 하였다. TT1이 더 나은 번역이라 판단되었다.

이는 공식자막이 팬자막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번역 양상이며, 팬자막과 공식자막품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번역 양상이다.

예문(5)
ST : 보니까 오토바이에서 떨어질 때 측방낙법도 칠 줄 알던데 뭐
TT1: 我看他从摩托车上摔下来的时候还会用侧方落法 (측방낙법)
TT2: 我看他从摩托车上摔下来的时候还知道要侧倒地 (측도지)

'측방낙법'에 대한 번역을 살펴보면 TT1은 대응된 한자어로 직역한 반면, TT2는 중국어와 잘 어울리는 표현인 '侧倒地'로 번역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L의 의미나 관점을 다르게 바꾸어 번역하는 방법은 변조 기법이다. 한국에서 '측방낙법'이라고 표현하고 중국에서 이를 '옆으로 넘어지다'라는 뜻으로 '측도지'를 사용한다. TT2는 바로 관점을 달리하는 언어표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변조에 의한 번역이다.

'侧方落法(측방낙법)'이 중국 시청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생소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TT1처럼 단어 대 단어 식으로 직역하는 것보다 TT2와 같이 변조를 해서 중국어 언어관습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베누티(Venuti)의 이국화 및 자국화에 관한 주장에 따라 '번역 행위 자체가 이미 모종의 자국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국화 요소를 어느 정도 첨가하는 것은 번역사의 선택이다. 다만, 자막번역에서 목표언어권 시청자들의 빠른 이해를 위하여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도착어 표현의 선택은 번역자의 의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T1은 출발어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였다. 이는 번역사의 선택이라고 하기보다는 적당한 도착어 표현을 선택하도록 노력하지 않는 탓에 이루어진 괜자막의 번역 양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직역으로 인해 목표언어권 시청자들에게 매우 생소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을 만들게 되는 번역 양상으로는 극 중에 나타난 '보호자', '소지품', '동기' 등 어휘 층위의 번역, 그리고 문장 층위의 번역을 들 수 있다.

예문(6)
ST : 그럼 휙 날아간 그 남잔 뭘까요
TT1: 那么直接飞走的那个男人是什么呢 (그럼 직접 날아간 그 남잔 뭘까요)
TT2: 那这个突然飞走的男人是啥来路 (그럼 이 갑자기 날아간 남자의 정체가

뭘까요)

여주인공이 직장 선배에게 남주인공의 정체를 묻는 장면이다. 이 대사 앞에 나온 '대한민국 육군'과 관련된 대사를 통해 '그 남잔 뭘까요'는 정체를 묻는 것임을 알 수 있다. TT1은 직역을 했고 TT2는 변조 기법을 사용하였다. 박윤철(2011)은 영화나 드라마 속 빠른 장면의 전환은 시청자들이 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로 인해 자막번역에서는 명료한 언어 표현이 요구된다. TT2는 '뭘까요'를 '정체가 뭘까요'로 번역함으로써 뜻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였으며, 이는 시청자들의 빠른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번역 고려사항은 자막번역에서 흔히 간과되는 것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번역 고려사항이다. TT2의 번역은 목표언어권 시청자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빠른 이해를 위하여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번역 고려사항까지 반영된 번역으로 그 책임감과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문(7)

ST : 아주 본진에서 떨어져서 니들끼리 지내니까 직속상관 지시사항은 지나가는 개 짖는 소리지?

TT1: 离开大本营就剩下你们自己 所以就把上级领导的指示当作耳旁风了是吧 (본진에서 떨어져서 니들끼리만 남으니까)

TT2: 天高皇帝远 你们就把上级领导的指示当耳旁风吗 (지배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자유로워서)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TT1은 직역을 한 반면 TT2은 속담으로 변조하였다. '天高皇帝远'은 옛날 중앙 정부의 통치 역량이 먼 지역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배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자유롭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ST를 생동감이 넘치는 이 중국어 속담으로 변역한 TT2는 원문의 뜻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였다. 이는 시청자들이 긴 자막을 읽느라 화면을 놓칠 가능성을 최소화했으며 드라마 장면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와 줄 수 있다. 생동감과 간결성 면에서 볼 때 TT1의 직역보다 더 좋은 번역이라 판단된다. 박

윤철(2011)에서 자막번역은 시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기에 '글자 그대로의 전이보다 짧고 명료한 언어표현으로 번역'해야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TT2는 이 규범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차용 VS 번안

예문(8)
ST : SNS에 동기들 사진 쭉 있습니다
TT1: SNS上有她的同期所有人照片 (SNS)
TT2: 朋友圈里还有很多她同事的照片 (위챗 모멘트)

위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외래어에 대한 번역 양상이다. SNS는 영어에서 오는 표현으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네와 다블네가 제시한 'SL의 단어가 그대로 TL에 전이'되는 차용이다. TT1은 영어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였고, TT2는 이를 원천 문화에서 없는 '위챗 모멘트'로 옮겼다. 비네와 다블네는 번안에 대하여 "원천 문화의 특정한 상황이 목표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문화적 지시물을 바꾸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설명하였다. TT2의 번역은 비네와 다블네가 말하는 번안 개념과 약간 거리가 있으나 본고는 원천 문화에서 없는 문화적 지시물로 바꾸는 번역이라는 점에서 TT2의 번역을 '번안'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TT2는 이국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TT1보다 목표언어권 시청자와의 거리를 한층 더 줄이고 목표언어권 시청자 입장에서 더 친숙한 번역이 되었다. TT2는 'SNS'라는 영어 약칭을 모르는 시청자들도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번역했을 것이다. 다른 외래어에 대한 공식자막 번역도 TT2와 같은 번역 영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래어 번역에서 드러난 번역기법 상의 차이는 시청자 집단의 연령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공식자막은 팬자막보다 더 많은 연령층의 시청자를 겨냥하고 있으며, 팬자막의 주요 소비층에는 젊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식자막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더 적절한 도착어 표현을 선택한 전문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4) 차용 VS 등가

예문(9)
ST : 갑시다 우리 진상 VIP들 만나러
TT1: 走吧 去见咱们奇葩的VIP们 (VIP)
TT2: 走吧 见咱们奇葩贵宾去 (귀한 손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언어에 따라 서로 다른 문체론적 또는 구조적 수단들을 이용하는 경우에 '등가'라는 술어를 사용하며, 특히 관용어구나 고유어법의 어법적인 목록 등에서 등가 기법을 사용한다. TT2는 'VIP'를 중국어의 고유적인 표현인 '贵宾(귀한 손님)'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바로 등가 기법을 사용하는 번역 양상이다. 반면에, TT1은 영어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번역이다. 예문(8)에서 논의한 것처럼 TT2의 이러한 번역은 중국 시청자들과의 거리감을 한층 더 줄게 해주며 더 넓은 연령층의 시청자를 고려한 번역이다. 외래어를 직접 차용한 TT1에 비해 더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다.

5) 차용 VS 생략

예문(10)
ST : 이 시간 이후로 문자도 전화도 톡도 하지 마
TT1: 从现在开始不要给我打电话 也不要发短信 kakao也是一样 (전화도 문자도 kakao도 하지 마)
TT2: 今天别给我打电话 发短信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

'톡'은 한국 고유 어플리케이션 kakaotalk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 문화를 모르는 중국 시청자들에게 아주 생소한 표현일 것이다. TT1은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문화적 지시물과 관련된 어휘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이와 같은 번역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팬자막의 전문성 부족은 이 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TT2에는 이를 생략하는 번역 양상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TT1에서 초래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화의 전체적인 의미 파악에도 지장을 주지 않았다. 이는 발화의 의미 전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목표언어권 시

청자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 변역자의 결정으로 볼 수 있다. TT2의 이러한 번역 양상을 통해 공식자막이 문화적 지시물이 가져오는 이해 상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6) 직역 VS 번안

예문(11)
ST : 하여간 이것들 싹 다 군대 보내버려야 정신 차리지
TT1: 这些家伙都得送到军队才能清醒一些 (이것들 싹 다 군대 보내버려야 정신 차리지)
TT2: 把这帮家伙全送到军队里去才知道洗心革面 (이것들 싹 다 군대 보내버려야 철저하게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려고 하지)

위 예문은 의사인 강모연이 도둑질을 범하고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게 한 대사이다. TT1은 '정신 차리다'를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으나, TT2은 이를 '洗心革面'라는 완전 다른 단어로 번역하였다. '洗心革面'는 '철저하게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뜻으로 '정신 차리다'에 비해 더 강한 혐오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번역을 배제하고 어휘의 사용 상황으로 봤을 때 위 드라마 속의 상황에서는 '洗心革面'와 '정신 차리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도둑질을 하는 환자에게 '정신 차리다'보다 '洗心革面'의 사용을 통하여 도둑 행위를 강렬하게 견책하는 목적에서 TT2는 이를 의도적으로 번안을 한 것이리라 추측되었다.

이는 중국 국가광전총국에서 정한 10가지 영상물 검열 규정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다. 이 규정의 7번에는 범죄 행위를 사주하는 내용이 상영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도둑질을 범하는 극 중 인물의 존재 자체는 '옳지 않은 예'가 될 우려가 있기에 이를 가볍게 평가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TT2의 번역 고려 사항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문(12)
ST : 그럼 뒤져봐야 개털인데
TT1: 把他搜遍了 也分文没有 (싹 다 뒤져봐야 한 푼도 안 나오는데)

TT2: 和他交易没什么好处 (걔랑 거래해 봤자 좋을 거 없는데)

깡패들이 조직에 탈퇴하려던 김기범에게 폭력을 행하면서 탈퇴비를 내라고 하는 장면에서 깡패들이 쫓아오는 유시진과 서대양에게 한 대사이다. TT1은 거의 직역을 하였으나 TT2는 이를 완전 다른 의미로 번역하였다. 특히, '뒤져보다'를 '거래하다'로 모호하게 처리한 것은 흥미롭다. 중국 국가광전총국에서 정한 10가지 영상물 검열 규정을 살펴보면 역시 7번에는 폭력을 선전 혹은 전파하는 내용이 상영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위 대사가 노골적인 폭력적인 표현으로서 검열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TT2는 이를 모호하게 처리한 것이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상으로 팬자막과 공식자막에서 나타난 직역, 변조, 차용, 번안 양상을 다루었다. 치환 기법에 의한 번역 양상은 팬자막과 공식자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 구조적인 차이로 인하여 대개 의무적으로 치환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원문의 '질문이 뭐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에 대하여 두 자막은 모두 치환 기법을 사용해서 명사인 '질문'을 동사 '질문하다'로 번역하였다. 이 밖에 '예쁨은 시계를 사 드린 네가 받아야지'에서 명사 '예쁨'을 각각 '동사+명사' 구조의 '得宠', '개사[27]+명사' 구조의 '被喜欢'로 번역하였다. 비록 표현 방식이 다르지만, 모두 '예쁨을 받다'라는 뜻으로 잘 치환하였다. 아울러, 모사 기법에 의한 번역 양상도 두 자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사는 특별한 종류의 차용으로서, SL의 특정 표현이나 구문이 그대로 TL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드라마 속에는 외래어와 의학용어에 대한 차용 양상이 흔하[28]지만, 이에 비해 표현 측면의 차용인 모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때문에 모사 번역 양상을 다루지 못하였다.

---

27) 명사・대명사 또는 명사성 어구의 앞에 위치하여 동사・형용사와의 시간・방향・장소・대상・목적・방식・비교・피동 따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

28) 두 자막은 의학용어를 모두 대응된 중국어 전문 의학용어로 잘 번역하였기에 차용 양상과 관련한 사례에는 외래어만 다루고 의학용어를 다루지 않았다.

위 사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팬자막은 직접 번역에 치중하고, 공식자막은 간접 번역과 생략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상술한 팬자막 번역 양상은 예문(3)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직접 번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나친 직역으로 인해 목표언어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지 않고 매우 생소한 표현을 자주 목격한다. 이는 팬자막 공동체 번역 현황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한 기사[29]에 따르면 사이트의 조회수를 위해 자막팀들 간에 번역 속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막을 더 빠르게 생산하는 측은 더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3시간 안에 한 화의 자막을 생산해 내야 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 3시간 안에는 번역뿐만 아니라 교정, 편집, 제작 절차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팬자막은 적절한 도착어 표현을 골라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간접 번역에 비해 시간을 상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직역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 다만, 번역 역량의 강화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도 더 좋은 번역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공식자막은 의사소통 차원에서 목표언어권 시청자를 위해 변조, 번안 등 간접 번역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도착어 표현으로 번역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팬자막 번역자들이 번역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자막번역에서 목표언어권 시청자들의 빠른 이해를 위하여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도착어 표현의 선택은 번역자의 의무이다. 원문을 직역하는 것보다 책임을 가지고 적당한 도착어 표현을 선택하도록 노력하면 이와 같은 번역 문제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예문(3)처럼 모든 상황에서 팬자막이 직역하고 공식자막이 자연스러운 간접 번역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팬자막이 '어순 바뀌기'와 같은 변조 기법을 사용해서 공식자막에 비해 더 자연스러운 도착어 구사를 하고 있다. 이는 공식자막은 팬자막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 등 자막번역 규범의 제한을 더 많이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간결하게 번역하다가 초래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

29) '한국드라마자막팀 현황 공개' http://www.15lu.com/shijie/10810.html 참조.

의외로 팬자막에서 공식자막보다 품질 높은 번역 양상이 종종 나타났다. 이는 수차례의 감수 및 수정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작업을 통하여 실현된 것이다. 위에 언급한 예문(3) 밖에 예문(1)과 예문(4)도 해당 번역 양상이다. 예문(1)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함으로써 생동감이 넘치는 표현으로 극 중 인물들의 어투와 태도를 잘 살려주었으며, 예문(4)는 원문의 의문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통해 환자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을 잘 표현해 냈다. 이러한 번역 양상은 직역의 선호가 반드시 나쁜 번역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팬자막의 이러한 번역 효과는 한국어 어기조사 '아'의 번역 및 중국어 어기사 '吧'의 활용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반면, 공식자막은 변조 등의 기법으로 인해 어기조사와 일부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를 생략하거나 예문(4)처럼 문장 유형을 바꾸는 바람에 극 중 인물의 태도, 어투, 심리, 감정 등을 잘 표현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팬자막은 인물의 감정, 태도, 어투 등을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 생동감이 있는 중국어 표현으로 번역하는 양상이 많이 발견되었고, 공식자막은 공식적인 입장에서 격식을 갖추는 공적이고 정중하면서도 딱딱한 중국어 표현으로 번역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자막은 팬자막보다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식자막은 생략, 변조, 번안, 등가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번역 양상은 예문(2), 예문(6), 예문(7), 예문(8), 예문(9), 예문(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문(2)처럼 문화와 관련된 어휘에 대하여 팬자막에서 이를 직역하고, 공식자막에서 이를 생략하는 번역 양상이 발견되었다. 공식자막의 이러한 번역은 자막의 시공간적 제약으로 발화 의미 파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요소를 생략하도록 하는 번역자의 의도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과 판단에서 공식자막의 전문성을 엿볼 수 있었다.

예문(6)과 예문(7)처럼 팬자막은 아무 고려 없이 직역하는 반면 공식자막은 자막번역의 규범을 염두에 두고 짧고 명료한 표현으로 번역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예문(8)과 예문(9), 예문(10)처럼 외래어에 대하여 팬자막은 출발어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전이하는 차용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식자막은 외래어가 가져오는 생소함이나 이해 상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번안, 등가, 생략 기법을 쓰고 있다. 즉, 번안을 통해 도착어 문화권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화적 지시물로 대체하거나, 등가 기법을 통해 고유 표현으로 옮기고, 혹은 발화 의미의 파악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이를 생략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식자막에서 중국 외화 검열 정책에 의한 '번안' 양상을 발견하였다. 앞에 논의한 예문(1)~(10)은 외화 검열 정책과 관련된 번역 양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문(11)과 예문(12)이 이에 해당된 번역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TT1은 검열 규제를 받지 않아서 직역을 한 반면 TT2는 검열 대상에 속하는 표현들을 의도적인 번안으로 원문과 다르게 번역하였다. 이외에 성과 관련된 표현의 번역도 번안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번역의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검열로 인해 완전히 삭제된 드라마 장면도 확인되었다. 드라마 첫 화에 등장하는 한국 특전사들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 특작부대원과 싸우는 장면이 삭제되었다. 검열 정책에 의한 번역 양상이 많지 않았으나 중국의 이러한 외화 검열 정책이 어느 정도 자막 번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맺는 말

본 연구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팬자막과 공식자막에서 드러난 번역 양상의 차이점을 번역 기법에 맞추어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를 중국 외화 검열 정책과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외화 검열 정책이 작용되지 않은 번역 양상에 대하여 번역 기법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고, 해당 번역 양상이 나타난 원인과 번역 효과를 논의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팬자막은 품질이 낮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공식자막보다 품질이 높은 번역 양상이 종종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자막과의 비교 분석에서 팬자막은 직역을 지나치게 하고 많은 면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번역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에서 공식자막보다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 자막

으로서 팬자막은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더 많은 공식자막과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 관계 및 중국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 드라마의 정식 수입이 어려운 현 시국에서 팬자막의 기술적 향상을 위한 공식자막과의 비교 분석 연구는 더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팬자막과 공식자막 비교 연구 분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한-중 번역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관련 분야 연구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또한, 팬자막과 공식자막을 비교 분석하는 데 일종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 작품으로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양적으로 불충분하다. 또한, 외화 검열 정책에 의한 번역 양상을 번역 기법이라는 틀에서 다루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 만에 맞춰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1. 자료

중국 국가광전총국 '온라인 외화 영화와 드라마 관리 규정 강조' http://www.nrta.gov.cn/art/2014/9/5/art_113_4803.html

뉴스 '<태양의 후예> 총 시청량은 26억 8500만 번...' https://www.yicai.com/news/5003160.html

뉴스 '한국드라마자막팀 현황 공개' http://www.15lu.com/shijie/10810.html

2. 단행본

박윤철, 『영상자막 번역과 두 줄의 미학』, 한국문화사, 2011.

Jeremy Munday, 정연일・남원준 역, 『번역학 입문: 이론과 적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3. 논문

강완정・위군・이현송, 「중국내 한국 콘텐츠 팬서브(Fansub)공동체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7, pp.73-77.

김가희・최릉우, 「중국 팬서브, 공식자막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가? -외화 『어벤져스』의 번역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1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pp.251-274.

_____, 「중국 검열이 자막번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6권 2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pp.39-65.

김선영, 「팬 자막(Fansubs)의 독자 반응 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순영・정희정, 「인터넷 기반 비전문가 자막번역(Fansubs)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고찰」, 『번역학연구』 제11권 4호, 한국번역학회, 2010, pp.75-97.

김호영・홍남희, 「전지구적 미디어 텍스트 유통과 팬 문화 자본의 역할: 미국드라마 팬자막(fansub) 제작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언론학회, 2012, p.318.

민나래, 「전문가 자막번역과 팬자막 번역의 비교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박경리, 「미국 드라마 팬자막 이용자의 선호도 조사」, 『번역학연구』 제14권 5호, 한국번역학회, 2013, pp.117-141.

박소영, 「이베로아메리카 한류와 번역 - 방탄소년단 콘텐츠의 스페인어 팬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69권 0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pp.91-116.

박정윤, 「영화 엽기적인 그녀 한불자막 번역 분석: 팬자막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박헌일, 「평가어(Appraisal Systems) 사용에서 나타난 팬자막과 전문가 자막의 비교: 태도(Attitude) 및 강도조절(Graduation)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제12권 3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4, pp.53-70.

서유경, 「러시아 한류 콘텐츠의 팬번역 양상과 특징 연구: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20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6, pp.1-26.

오정민, 「슈퍼히어로 장르영화 자막번역의 수용양상 연구 - 팬들이 제기한 번역 문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20권 3호, 한국번역학회, 2019, pp.289-291.

_____, 「슈퍼히어로 장르 영화 자막번역의 수용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오정민・김순영, 「슈퍼히어로 장르영화 자막번역의 상호텍스트성 - 팬들이 문제제기한 자막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제21권 3호, 한국통역번역학회, 2019, pp.101-124.

이지민, 「팬자막과 전통 영상번역은 과연 다른가? -다중기호성을 반영한 영상번역 정의와 자막 형태, 자수제한, 이국화 전략 탐구」, 『번역학연구』 제16권 2호, 한국번역학회, 2015, pp.165-186.

_____, 「전통 영상번역과 팬자막 비교 연구: 문화 관련 어휘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

학연구』 제19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5, pp.135-158.
_____, 「TED 강연 자막의 양적 축소 전략 연구: 팬자막과 전문가 자막 비교」, 『통번역학연구』 제25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1, pp.141-176.
정희정, 「인터넷을 통한 비전문가 자막 번역의 특성에 관한 소고」, 『통번역교육연구』 제6권 1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08, pp.181-196.
_____, 「팬자막(Fansubs)의 특성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조성은・조원석, 「웹툰 팬번역 양상 연구 -『신의 탑』 팬덤의 정서적 특징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19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5, pp.239-263.
최진실, 「번역의 적극적 수용 형태로서 아마추어 자막번역」, 『한국통번역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20, pp.46-51.
王俊荣・杨颖, 「"限外令"环境下境外剧的引进策略 －以韩剧《太阳的后裔》为例」, 『青年记者』 第24期, 2016, pp.79-80.
陈洁, 「国内视频网站海外剧引进模式分析」, 『齐鲁艺苑』 第150期, 2016, pp.107-112.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5월 03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20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6월 10일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Translation of Fansubs and Official Subtitles
—Focusing on the Drama "Descendants of the Sun"

Yuan, Linlin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fansubs and official subtitles of K-dramas and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based on translation techniques. On January 21, 2015, the 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Administration, which is in charge of media censorship in China, implemented censorship on foreign movies and TV dramas. Since then, Chinese audiences have moved away from the past K-drama watching media, such as online video platforms, to watch the K-dramas through fansubs on unofficial sites or mobile applications. Therefore, fansubs are widely consumed on the Internet.

In this period, when it is difficult to import K-dramas due to foreign video censorship policies, a case analysis study on Korean-Chinese translation has not been conducted even though fansubs are widely consumed. So this kind of study is essential. So, the paper takes "Descendants of the Sun", the last drama that recorded the highest ratings imported after the censorship policy was implemented, as the object of analysis, and Vinay and Darbelnet's 7 translation procedures are applied to case analysis to compare the translation patterns and analyze the causes and effects of translation in fansubs and official subtitles. The study itself is the first research on Korean-Chinese translation that has not been done so far in comparison of fansubs and official subtitles and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s for research in related field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fansubs.

Keyword fansubs, official subtitles, subtitle translation, translation techniques, censorship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1.205

청말 '마정방종(摩頂放踵)'의 감정과 공감 개혁*

-탄스통(譚嗣同)의 『인학(仁學)』을 중심으로

이 영 란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자신의 한 몸을 기꺼이 희생해서 국가의 위기를 구하고자 하였던 탄스통(譚嗣同: 1865-1898)의 감정에 따른 개혁 의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매슬로의 욕구 이론 5단계에 접목하여 그의 감정 정치에 따른 공감 형성의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원초적인 단계인 매슬로의 첫 번째 욕구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이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탄스통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소박하고 강직한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던 그가 친어머니를 11살에 잃고 계모의 학대를 받으며 자라면서,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위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두 번째, 안전 욕구 단계에서 탄스통은 유가와 불교, 기독교의 세 종교 즉 종교의 사상과 학문의 이론을 융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음 아래 그는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임협의 기질을 가지고 천(天)을 넘어서는 인학으로 동서양의 사상을 융합하는 사상적 이론을 바탕으로 변법가로서의 길을 걸어갔다. 또 탄스통은 서양 과학 사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상적 기반의 개념들을 정립하여 공감을 형성하였다.

세 번째, 사랑의 욕구 단계에서 탄스통은 변변파와의 교류 관계 형성으로 집단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 탄스통은 그들과 하나의 목표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는 공감 개혁을 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자기 존중의 욕구 단계로 인과 학의 사상으로 『인학』을 서술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인정 아래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탄스통이 서술한 『인학』은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의 단계에서 그는 마음으로 다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변법을 단행하였다. 마음과 자연을 하나로 생각했던 그는 자연과의 일체화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모두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였다.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3248)

**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주제어 탄스통(譚嗣同), 매슬로의 욕구 이론, 인학, 심력, 감정, 공감, 개혁

〈목차〉

1. 머리말
2. 탄스통의 생리적 욕구인 근본적 감정
3. 안전 욕구 - 종교와 서양 과학과의 조화
   1) 사상의 기둥, 유불야(儒佛耶)의 융합
   2) 서양 과학의 합리성 제시
4. 사랑의 욕구=인의 공동체 의식
5. 변법가 탄스통의 심력(心力) 그리고 희생
   1) 사회적 인정 욕구인 개혁의 바람
   2) 자아실현의 욕구와 삶의 결정
6. 맺음말

1. 머리말

감정은 인간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존재한다. 그 감정의 흔적은 그들이 남긴 글과 작품 속에서 읽어 낼 수 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간적 감정을 드러내면서 타인과의 공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던 것이 하나의 사회적 공론 형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청말 무술변법시기 개혁가들은 개혁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했기에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하면서도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의 의지를 표방하고자 하였다. 베레진은 “공적인 정치적 의례는 민족적 자아가 규정되는 한정된 공간인 정체성의 장으로 기여한다. 의례 행위는 형식을 통해 친밀성을 전달한다.” 이때 발생하는 감정은 “정치적 의례가 의존하는 중심축이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낼 능력을 지닌 정치적 학습 수단이다.”[1] 베레진의 말처럼 감정에 충실한 공감은 새로운 정치적 의례의 중심축이며 새로운 정체성

을 만들어 낼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탄스통(譚嗣同)과 관련한 연구는 그가 정치적 개혁가라는 이유로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그의 감정에 근거한 공적 정치적 공감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도 인간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인간적 감정에 충실한 즉 공감을 통한 개혁이라는 새로운 개념 확립의 필요성이 있다.

실증적 역사연구와 감정이론 연구의 매칭으로 감정 이론을 토대로 청말 개혁가인 탄스통의 삶 안에서 공감 개혁의 흐름과 패턴을 그려보고자 한다. 그의 감정과 공감 개혁의 패턴을 매슬로의 욕구 이론 5단계(Maslow's hierarchy of needs)의 감정 이론 배경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매슬로의 욕구 이론 5단계의 첫 번째 단계인 생리적 욕구(The Physiological Needs)는 항상성(homeostasis) 개념의 발달과 식욕이 신체의 실제 욕구 또는 결핍을 말한다. 매슬로는 이 욕구가 모든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The Safety Needs)로 위험, 위협, 박탈(剝奪)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이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한 사회적인 질서와 구조를 실현해 내고자 한다. 세 번째는 사랑의 욕구(The Love Needs)로 사랑과 호의와 소속감과 관련된 욕구이다.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The Esteen Needs)로 자신에 대한 안정적이고 좋은 평가, 자부심이나 자존감,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존중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The Need for Self-Actualization)이다. 자기완성의 욕망, 즉 잠재적인 자신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이다.[2] 매슬로는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계 혹은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욕구의 서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상위의 욕구가 동기부여의 가치 측면에서 하위 욕구와 다르다는 점을 말하였고, 고정적인 순서의 단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1) 베레진, 「감정과 정치적 공동체: 정체를 위한 감정 동원」, 제프 굿윈 외 저, 박형신, 이진희 역, 『열정적 정치-감정과 사회운동』, 한울아카데미, 2012, p.145.

2) Maslow, Abraham H, 소슬기 옮김, 『매슬로의 동기이론 : 욕구 5단계 이론의 오리지널 완역판』, 유엑스 리뷰, 2018, p.47, p.55, p.65, p.67, p.69.

이러한 인간의 감정 욕구를 하나의 패턴으로 볼 때, 개인에게 있어 상위 욕구는 하위 욕구나 다른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만족한 후 다음 욕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탄스통의 인생에서 그의 감정 욕구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감정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고, 바로 매슬로 5단계 욕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3] 이러한 매슬로의 감정 이론을 토대로 무술변법 개혁가인 탄스통의 감정선을 통한 공감 정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신의 한 몸을 기꺼이 희생해서 국가의 위기를 구하고자 하였던 탄스통(譚嗣同: 1865-1898)의 삶을 통해 그의 감정선에 변화를 살펴보고, 『인학(仁學)』의 인(仁)과 학(學)을 매슬로의 욕구 이론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탄스통의 목숨 건 비장함 속에 담겨져 있는 국가를 향한 슬픔의 감정 체계를 파악하여 공감정치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탄스통의 생리적 욕구인 근본적 감정

단순하게 배고픔과 같은 곧 동물적 감각은 가장 원초적인 단계이다. 그냥 반응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생리적 욕구는 매슬로의 첫 번째 욕구 단계이다. 위기 사항에서 생리적 욕구 단계는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여기에서 위기 상황이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평화로운 사회에서 극히 드문 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할 만큼 극단적인 배고픔을 겪는 일은 드물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이 '배고프다'라고 말할 때는 배고픔보다는 식욕을 느끼는 상태라는 것이다. 생사가 달린 배고픔을 느끼는 경우는 사고를 당했을 때뿐이며 평생 경험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4] 위기 상황에서 생리적 욕구는 또 다른 인생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탄스통은 1865년 전통적인 관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담계순(譚繼洵)은 경관(京官)과 호북순무(湖北巡撫)를 역임한 고급관리였으며, 그의 어머니 서오록(徐五綠)도 현모양처라고 한다. 부친의 임지인 베이징에서 태어난

3) Bailey, William S., *Tie Your case Together with a Good Theme*, Trial 37i2, 2001, p.58
4) Maslow, Abraham H, 소슬기 옮김, 앞의 책, pp.52-53.

탄스통은 3세 무렵 호남성 유양현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7세 때 부친이 호부원외랑(戶部員外郞)으로 부임하여 베이징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12세 때 베이징에 역병(디프테리아 전염병)이 돌아 그의 어머니, 큰 누나 사태(嗣胎), 둘째 누나 사숙(嗣淑)을 모두 잃었다. 탄스통도 사흘 동안이나 앓다가 기적적으로 소생하였다. 그래서 탄스통의 자(字)가 부생(復生)인 것도 새로 태어남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 "내가 소년기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삼강오륜에서 오는 재앙(가까운 혈육의 죽음)을 두루 경험하였고, 그 고통의 강을 헤엄쳐 건너는 일은 산 사람으로서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른 때가 여러 번이지만, 결국은 죽지 못했다. 이로부터 나의 생명을 더욱 가볍게 여기고, 홀로 된 몸이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 외에 다시 무엇을 애석해할 것인가 생각하였다. 깊이 생각하고 높이 쳐다보면서 나는 묵자(墨子)의 머리끝에서 발꿈치까지 희생하는 '겸애(兼愛)'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5]

그는 어려서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겸애'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려는 마음을 품고 자랐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선비서부인일사상(先妣徐夫人逸事狀)」에서 살펴보면,

> "어머님의 성품은 지혜롭고 엄숙한 사람이었다. 우리 형제에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칠 때 타이르셨으며, 걷고 달리는 것에서부터 몸을 두고 남과 교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고 상세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과거의 빈곤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입고 먹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평소에 옷깃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앉으시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셨고 어떤 때는 종일 한 번도 말하고 웃지도 않으셨다. 우리들이 잘못을 하면 회초리를 잡고 때리는데 조금도 봐주지 않으셨다. 고전에 '부엄모자(父嚴母慈)'라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사실 '엄모부자(母嚴父慈)'가 아닐까라고 늘 의문스러울 정도였다.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가지런하고 법도가 있어서 비록 당시에 걱정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심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실지로 과실이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서 그 일하는 바를 온

5) 蔡尙思, 方行編, 『潭嗣同全集』 「仁學 自序」, 北京: 中華書局, 1998, p.289.

전히 했다."[6]

라고 적었다. 탄스통은 엄한 어머니의 덕택에 법도를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탄스통은 오랫동안 궁핍한 생활이 계속되었는데, 탄스통의 어머니는 매일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등에 한 명의 아이를 매고, 가슴에 더 한 명의 아이를 안고 모든 집안을 혼자서 해냈다. 그리고 남편이 고급관료가 된 후에도 옛날의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소채를 먹고 헌 옷을 입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 또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 집안에 서당을 두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탄스통이 서당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옆방에서 베를 짜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는데 하녀였는가?"라고 물었다. 탄스통은 "어머니이십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네 아버지가 고급관료임에도 어머니는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데, 네가 놀기만 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곧 네 양심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어머니를 통해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었다. 탄스통은 그 이후부터 인생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흐트러지지 않고, 삼가고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였다.[7]

가장 원초적인 단계인 생리적 욕구 단계에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탄스통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영향 아래 그의 감정 체계는 소박하고 강직한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친어머니를 11살에 잃고 계모의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그는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아래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부친에게 학대와 냉대를 받는 자식의 서러움을 극도로 받았다.", "아마도 산 사람이라면 참을 수 없는 ... 인륜의 재난"에 대한 절절한 느낌은[8] 그의 생애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탄스통이 체포당하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보냈다는 편지에서 아버지와의 절연

6) 蔡尙思, 方行編, 앞의 책, p.54.

7) 吳端, 「탄스통의 「인학」에 나타난 변혁과 융합 – 유교·대승불교·기독교–」, 『윤리교육연구』 26, 2011, p.67.

8) 두 개의 인용문은 리쩌허우/임춘성, 『중국근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p.318에서 재인용. 앞의 인용문은 량치차오의 『탄스통전』에, 뒤의 인용문은 『仁學』 「自序」에 나온다.

을 내용으로 하는 편지를 위조해서 보내 부자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꾸며 아버지의 연좌처벌을 면하게 했다는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엿볼 수 있다.

탄스통은 어려서부터 마정방종(摩頂放踵;정수리로부터 닳아 없어져 발뒤꿈치에 이른다.)의 뜻을 새기며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위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매슬로의 생리적 욕구 단계에서의 욕구는 단순한 배고픔 단계에서의 감각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인지적 반응도 함께 한다. 탄스통은 어떠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 삶의 즉각적 반응과 함께 다양한 인지적 반응을 보였다.

3. 안전 욕구- 종교와 서양 과학과의 조화

살아가면서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을 선호하는 일반적인 성향인 것이다. 우주와 인간을 충분히 일관적이고 의미 있게 설명하는 종교 또는 세계관을 따르려는 경향 역시 어느 정도는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또 여기서 과학과 철학도 안전 욕구가 일정 부분 동기화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밖에 전쟁이 발발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범죄가 급증하거나, 사회가 분열되거나, 어려운 처지가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등의 위기 상황에서 안전 욕구는 유기체의 자원을 지배적으로 활발하게 조직한다는 것으로 매슬로의 두 번째 욕구 단계이다.[9]

인간은 불확실함과 무질서 등의 위기 상황에서 확실하고 체계화된 사회적 보호 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인간의 감정은 스스로 보호하려고 또 받으려고 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탄스통은 다양한 사상의 융합적 수용으로 자신의 상황과 현재를 되돌아보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9) Maslow, Abraham H, 소슬기 옮김, 앞의 책, pp.62-63.

탄스통은 학술, 정치, 종교 가운데 종교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었다. “간략하게 말하면 학술, 정치, 종교라는 세 기둥(三端)이 존재한다. 학문은 많이 있으나 과학만이 진실의 ‘학(學)’이고, 정치는 많이 있으나 민권만이 진실의 ‘정(政)’이며, 그리고 종교가 가장 어렵다고 하겠다. 정치, 학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할 수 있으나 종교만은 참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정치의 방법(術), 학문의 방법이 사람을 죽일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10]

탄스통은 유가와 불교, 기독교의 세 종교 즉 종교의 사상과 학문의 이론을 융합하여 자신 감정의 합리적 토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그 가운데 불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 사상의 기둥, 유불야(儒佛耶)의 융합

탄스통의 불교에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양원후이(楊文會:1937-1911)[11]로 그의 제자들 가운데 탄스통이 화엄경전을 잘 이해했다고 말하였다. 1896년 후보지부(候補知府)로 난징(南京)에 재직하였던 탄스통은 양원후이에게 불교 경전을 학습해 나갔다. 탄스통이 약 1년 동안 양원후이의 문하에서 화엄, 유식, 정토의

---

10) 吳端, 앞의 논문, p.66.

11) 양원후이(楊文會)는 젊었을 때 독서를 좋아하고 과거를 싫어했다. 평생 奇書를 좋아하고 협객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기도 했다. 27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불교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당시가 바로 末法時代라고 보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불교 경전을 인쇄해야 한다고 생각한 양원후이는 1866년부터 金陵刻經處를 설립하고 40년간에 『淨土四經』을 비롯하여 약 2,000종의 불교경전, 합계 100만권을 발행했다. 1878년에 양원후이가 유럽에 출장했을 때, 런던에서 일본의 淨土眞宗 승려 난조 분유우(南條文雄(1849-1927;일본 메이지 시대 불교계의 선두자로 일컬어지는 淨土眞宗 오오타니 大谷파의 학승이다. 기후현 출신, 1876년부터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유학하고 1884년 귀국했다. 난조 분유우는 1885년 남경대학에서 범어학을 개강하고 근대적 인도학, 불교학의 기초를 닦았다. 1914년에 大谷大學 학장이 되었다.)와 교우하게 되었다. 이후 난조 분유우는 약 1,000종의 唐宋 불교 경전 및 일본의 불교 저작을 양원후이에게 보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했던 것은 『成唯識論述記』와 같은 법상종, 화엄조, 정토종의 경전이며, 이들은 중국근대불교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불교 진흥의 기초를 마련했다. 양원후이는 “이 책들이 없어진 후 얼마나 긴 시간이 흐르고, 이 책들을 다시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러므로 唯識의 종지가 세상에 전습되어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후세에 읽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소중히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吳端, 위의 논문, pp.68-69.

학을 배웠는데, 이러한 불교의 사상은 유가와 기독교 사상과 함께 안전 욕구를 위한 종교관 즉 그의 사상적 기둥을 형성하였다.

> "천(天)과 인(人)이 불평등하게 되면 인(人)과 인(人) 사이에 불평등은 보다 심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 천자(天子)만이 천(天)에게 제(祭)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천자가 천(天)을 세워 천하를 압제하기 시작하자 천하는 천자를 황공하게 천(天)으로 추앙하게 되고 천하 전부가 잔혹한 경우에 처해도 천(天)의 명(命)이라고 여기고 감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12]

그는 천(天)에 대한 부정없이는 그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탄스통은 불교에서 무차별 평등에서 나아가 중국의 '천(天)'의 규모를 확대하는 우주관의 구축에도 접목하고자 하였다. 『화엄경』에서 주장하는 정토 세계로서의 '이화장세계(一華藏世界)'라는 불교적 무한 우주의 틀을 그의 우주론에 위치 지음으로써 중국의 '천(天)'이 천자=황제로 독점, 사유화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13]

탄스통은 양원후이 문하에서 불교를 배우면서

> "성천(性天)의 커다란 근원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는다면 수천 년간 나타났던 화(禍)의 연원과 지금 질곡(桎梏)을 소탕(掃蕩)하고 망라(網羅)를 충결(衝決)해야 할 원인을 다시 보여줄 수 없기에 이미 수십 편을 썼다."[14]

그의 친구인 왕캉니엔(王康年)에게 편지를 보내 이미 『인학』 수십 편을 썼다고 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감의 사상적 토대 형성이 중요했던 것이다. 탄스통은 『인학』 여러 곳에서 불교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 "인의 원을 잘 터득하고 무에 자유롭게 통한 자가 셋이 있다. 부처, 공자, 예수이

---

12) 蔡尙思, 方行編, 앞의 책, p.333.

13) 사카모토 히로코, 「담사동의 『인학』에서의 우주관과 평등관」, 『동아시아 문예부흥과 생명평화 ; 세계생명문화포럼 경기2005』, 경기문화재단, 2005, p.46.

14) 위의 책, p.493.

다. 부처는 공자와 예수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15]

"서학은 모두 불학에 연원이 있고 오로지 서학이 있음으로써 불학이 다시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16]

"공교와 외국 종교가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이 가르침의 대권은 반드시 불교에게 주고 말 것이다. 불교는 순수하다면 극히 순수하고 광대하다면 극히 광대하기 때문에 전요(典要)가 될 수 없다. 오직 교가 나아갈 방향은 지구상의 군교(羣教), 군경(羣經), 제자백가(諸子百家)에 다다르는 것이다. 형식은 논리와 같고 내용은 과학(格致)과 같다."[17]

그는 개혁을 위해서는 궁극적인 원인을 찾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자신 개혁을 위한 공감 형성의 기반을 종교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1884년 청불전쟁(淸佛戰爭) 당시 20세인 탄스통은 신강 순무 류운티안(劉雲田)의 막료가 되었다. 그 때 서북 생활에서 그의 실천적 기질이 보이는데,

"주연을 베풀고 군악을 연주하며 온갖 연회도 공연되었는데, 나는 한 가지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류운티안(劉雲田)과 함께 나란히 말을 타고 산골짜기를 치달리기를 좋아하였다. 때때로 몰래 가까운 변새(邊塞)로 나와 휘몰아치는 서북풍을 마주 하고 서면, 모래와 자갈이 마치 강한 화살처럼 사람을 때렸고 또한 씩씩한 낙타들의 울음소리가 기러기 울음과 승냥이 울음에 화답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팔뚝에 사나운 매를 매고 허리에는 활과 화살을 차고, 백십 여명의 씩씩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움푹한 눈에 우뚝한 콧날을 하고 누런 수염에 이마에 문신을 새긴 서북 사람들과 고함을 치고 말을 치달리면서 앞다투어 맹수를 쫓아가기도 하였다. 밤에는 사막 위에 막사를 설치하고 호족(胡族)들처럼 머리를 묶고 마음대로 다리를 벌리고 앉아. 누런 양의 피를 퍼서 눈에 섞어 마시기도 하였다."[18]

---

15) 蔡尙思, 方行編, 앞의 책, p.289.
16) 위의 책, p.317.
17) 위의 책, pp.351-352.
18) 위의 책, p.20.

이처럼 그는 호걸적인 성격으로 무술을 배우고 협객과 같은 호방한 기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상을 묵가(墨家)의 임협(任俠) 정신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는 이도 있다.[19] 하지만 탄스통은 스스로 "어려서 주역(周易)을 공부하였고, 이어서 삼례(三禮:周禮, 儀禮, 禮記)에 이르렀으며 춘추(春秋)는 홀로 해석하여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20]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전 본래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였던 유학자였다. 스승인 어우양중후(歐陽中鵠)과의 관계에서 인격 배양과 도덕 교육을 배웠으며 그러한 학습과 강학을 통해 호상학적 학맥을 연계함과 동시에 호상학의 민족, 애국 사상의 영향으로 개혁의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21]

탄스통이 베이징에 있을 때 기독교 선교사들과 만나면서 기독교와 유가(교) 사상이 상통한다고 믿었다. 탄스통과 친교를 맺었던 영국의 선교사 프라이어(John Fryer; 傅蘭雅)를 통해 에테르의 개념을 정립하였고, 또 기독교의 남을 사랑함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하느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개념을 인학에 자주 사용하면서 동서의 세 종교를 융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탄스통은『인학』여러 곳에서 종교와 관련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1895년 고향에서 본 수재(水災)에 의한 난민의 참상, 청일전쟁 후의 국가의 위기 등을 보면서도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심적 갈등을 몹시 느낄 때 여러 종교적 체험으로 기독교로부터 촉발된 종교에 관심이 불교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한다.[22] 이러한 마음 아래 그는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임협의 기질을 가지고 천(天)을 넘어서는 인학으로 동서양의 사상을 융합하는 사상적 이론을 바탕으로

---

19) 배영동,「담사동 '인학'의 논리」,『中國史硏究』Vol.11 No.1, 중국사학회, 2000, p.90, 묵가 사상을 전통의 유가 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정통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가 사상의 도(道)만이 정당한 관념으로 받아들였던 그에게 그 자신이 소년 이래 수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지게 된 마정방종(摩頂放踵)의 뜻을 새긴 이유가 묵가의 임협 정신에서 파생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20) 蔡尙思, 方行編, 앞의 책, p.16.

21) 이영란,「변법운동시기(變法運動時期) 호남성(湖南省) 지식인의 서원개혁 구상」,『中國史硏究』Vol.71 No.- , 중국사학회, 2011, p.140

22) 배영동, 위의 논문, p.103.

변법가로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동서양 유불야(儒佛耶)의 사상과 자연과학까지 포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여 안전 욕구를 향한 그의 감정 정치와 공감 개혁의 틀이 형성되었다. 세 종교의 융합은 바로 이러한 감정 욕구의 표출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양 과학의 합리성 제시

매슬로의 안전 욕구 두 번째 단계에서 과학도 안전 욕구가 일정 부분 동기화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탄스통은 서학이 들어 온 시기에 과학으로 유학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시도를 한 변법파의 한 사람이다. 그는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 변법파와 교류하며 서양 과학지식을 습득하였다. 실용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탄스통은 1893년(29세)에 과거시험을 위해 베이징으로 가는 도중에 상하이에서 많은 선교사들도 만나면서 다양한 서양 과학 서적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담사동은 과거 준비보다는 서양의 자연과학 서적과 외국 역사·지리·정치·기독교 신학 서적 및 서양각국 견문기인 『서국근사휘편(西國近事匯編)』, 『환유지구신록(環游地球新錄)』 등의 책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정독하기 시작하였다.[23] 특히 영국의 선교사 프라이어(John Fryer; 傅蘭雅)를 만나 화석, 계산기, X-ray 사진을 보고 서양 과학의 발전 상황을 알게 되었다. 탄스통은 그의 스승인 어우양중후(歐陽中鵠)에게 보낸 편지에서 존 프라이어의 집에서 보았던 X-ray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 "사진 한 장을 보았는데, 전기를 이용한 신법으로 찍은 것이다. 사람의 간담, 폐장, 근락, 골혈 등을 유리를 통하거나 구멍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을 종이에 옮길 수도 있다. 또한 두꺼운 나무판이나 얇은 금속 등을 사람 앞에 두고 사진을 찍어도 마치 막혀있지 않은 듯하다."[24]

전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내부 기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X-ray에 대해 상세

---

23) 이영란, 앞의 논문, pp.141-142.

24) 蔡尙思, 方行編, 앞의 책, p.458.

히 언급하면서 서양 과학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탄스통은 존 프라이어에게서 <치심면병법(治心免病法)>(종교심리학)이라는 책을 얻게 되었다. 그 책을 읽은 후 또 어우양중후에게 편지를 보내 이 책에 대해 언급하였다.

> "정사에 이처럼 밝고, 인심 풍속이 이처럼 가지런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지만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천주와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와 성격책을 여러 차례 읽고 의미를 밝혀보려 하였으나 아무런 얻음이 없고 의혹만 늘어났다. 후에 <치심면병법(治心免病法)>을 얻어 읽어보니 그 본질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 책이야말로 서양 종교의 본질을 알게 해주어 그 의미를 밝힐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 <치심면병법(治心免病法)>이라는 책에서 탄스통이 사용하는 개념인 '이태', '전', '통', '심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가 어우양중후에서 보낸 편지 내용 중 "<치심면병법(治心免病法)> 번역서를 얻어 읽었다.……책에서 다루고 있는 감응의 원리는 모두 격치에서 온 것으로 화학과 전기학의 기초이다."[25]라고 하였는데, 격치 즉 과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그 원리를 중국 전통 사상인 인에 응용하여 해석하였다.

> "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통한다는 것이다. 에테르(以太)도, 전기(電)도 심력(心力)도 모두 통(通)하게 하는 도구를 가리킨다."[26]

라고 그는 인학계설(仁學界說)에서 인학을 정의하며, 에테르, 전기, 심력에 관하여 말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탄스통의 '심력'설은 기계적 유물론 경향을 띠고 있다. '심력'으로 '이태'를 정의하면서 자신의 사상적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 "나의 심력은 남을 감동시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관념의 출발점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의 품격이나 부류가 뛰어

25) 蔡尙思, 方行編, 앞의 책, p.461.
26) 위의 책, p.291.

난지 못났는지 알게 한다. 내가 마주한 것과 내 사이에는 틈이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꿰뚫어 볼 수 있다. 또한 전기가 바로 뇌이고 어디라도 전기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라도 내가 아닌 것이 없다는 점, 함부로 남과 나를 구분하는 짓이 생기면 즉시 '인'이 아니게 된다는 점을 학자는 명백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만 전기와 뇌는 에테르가 특정한 측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에테르는 더구나 차별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라거나 뇌라는 이름도 성립하지 않는다"[27]

탄스통은 에테르, 전기, 수학, 기하학, 물리학 등과 같은 근대 과학의 여러 개념들로 평등, 인 등을 설명하였다. '물리세계'와 '정신세계', '필연세계'와 '자유세계'를 서로 '통(通)'하게 함으로써 세속의 수많은 굴레들을 타파하고 천지 만물과 인아(人我)를 관통해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력 혹은 심력(心力)을 중요시 여겼지만, 그에게 있어서 심력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과학적 방법으로 파악하고 과학의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만 하는 것이었다.[28] 근대 과학의 개념들로 평등, 인을 설명하고, 안전 욕구를 극대화하려는 그의 감정 체계를 읽을 수 있다.

탄스통은 서양 과학 사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적 기반의 개념들을 정립하였다. 그는 우주와 인간을 충분히 일관적이고 의미 있게 설명하는 종교 또는 세계관을 따르려는 경향 즉 과학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안전 욕구를 표출하였던 것이다.

4. 사랑의 욕구=인의 공동체 의식

사람들과 애정 어린 관계를 맺고 싶고, 집단 내에 자신의 자리를 갖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단계는 바로 매슬로의 세 번째 단계인 사랑의 욕구이다.[29]

---

27) 위의 책, p.295.

28) 한성구, 「탄스통(譚嗣同)《인학(仁學)》의 과학적 기초」, 『中國學論叢』 Vol.0 No.64, 2019, pp.188-189.

29) Maslow, Abraham H, 소슬기 옮김, 앞의 책, p.65.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들과의 관계가 집단으로 발전하여 집단을 통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하나의 목표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계를 소중히 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에 해당한다.

1894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당시 개혁파들과 뜻을 같이하며 서양을 본받아 변법을 행하는 이외에 중국이 다시 살아날 길이 없다고 자각했다. 이듬해 여름, 캉유웨이(康有爲) 등이 강학회(强學會)를 창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이징(北京)에 가서 그들의 변법에 참가했다. 베이징에서는 량치차오(梁啓超), 씨아정유(夏曾佑) 등과 사귀었다. 1896년(光緖 22) 탄스통은 여러 지역을 경유하면서 자신의 견문을 넓혀 나갔다. 당시 여정에서 획득한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가 바로 량치차오를 통해 캉유웨이의 학설을 접한 것이었다.[30]

탄스통은 캉유웨이 학설에 크게 감동하여 자신을 "캉유웨이의 사숙 제자"라 불렀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배운 종교와 과학에 캉유웨이의 학설을 종합하여 『인학(仁學)』을 저술하였다.

대표 저서인 탄스통의 『인학』은 사본을 갖고 일본으로 망명한 량치차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31] 량치차오는 탄스통이 세계 성현과 철인들의 지혜를 망라하여 전 세계의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한다고 밝히고 있다.[32]

인학의 인(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테르[33](以太 : ether)가 존재해야 한다고 탄스통은 강조하였다. 그는 에테르란 인의 본체이며 인은 에테르의 활용이라고 하였다. 에테르-인간의 체용(體用)관계에 대한 탄스통의 견해는 중국 전통의 도기론에서 기가 도를 결정한다는 관점이 심화된 것이라는 의미이

---

30) 洪安全 外著 ; 王壽南 總編輯, 『中國歷代思想家』, 臺北, 商務印書館, 1987, p.23.

31) 이외에도 「論中國情形危急 : 1898」, 「論今日西學與中國古學 : 1898」, 「論天體學 : 1898」 등이 있다.

32) 梁啓超, 『淸代學術槪論』, 上海古籍出版社, 1998, p.150, 蔡尙思, 方行編, 앞의 책, 梁啓超, 「譚嗣同傳」, pp.553-558.

33) 에테르는 물리학 용어로서, 17C Rene Descartes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물질과 물질 사이에 하나의 매개가 필요하며, 이 보이지 않는 매개를 에테르라고 명명하였다.

다.[34] 탄스통은 인, 통, 에테르, 심력(心力)이라는 주요 개념으로 철학 세계를 구성하였다. 그는 먼저 인(仁)은 우주만물의 가장 작은 원소로서, 세계 만물을 생성·변화·발전시키고, 궁극에 가서 그들을 모두 하나로 통하게 하는 대원리이자 법칙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 통(通)은 세계 만물들이 서로의 차이점 속에 내재하고 있는 동질성이 부각되고 자신과 타인을 구별함으로써 생겨난 모든 대치 상태가 돌파된 상태로 자유와 평등의 태평 속의 대동 화합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에테르는 우주의 최고법칙인 인(仁)의 물질적 근거로서 인간의 주관의식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동시에 그 자체에 내재적 생명과 운동 원천 - 그것은 인(仁)으로서 자유·평등을 지향한다.- 을 지니고 모든 만물의 변화와 생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에테르는 인(仁)의 본체로서 계속되는 발전적 순환 운동 속에서 대치 상태의 돌파를 통해 통(通)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우주 만물의 대동 화합을 지향한다는 것이다.[35]

탄스통이 말하는『인학』은 세계 모든 성인의 가르침이 하나가 되는 경지이며, 아울러 전 세계의 중생을 차별없이 구제하는 평등의 세계이다. 특징적인 것은 탄스통이 세계 모든 성인의 가르침을 이타적 희생정신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36] 바로 종교, 과학 그리고 변법파의 관계 속에서 사랑 즉 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혁이라는 목표를 함께 하며 노력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차별없는 평등의 세계, 이타적 희생 정신은 곧 타인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사랑=인의 공동체 욕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탄스통은 학회, 학당의 설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학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학을 행해야 하며 그것이 곧 변법의 명이 아닌 변법의 실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37] 학회는 단순히 학이라 명명된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4) 蔡尙思, 方行 編, 앞의 책,「思緯壹壹臺短書- 報貝元徵」, p.197.

35) 최향순,「중국 근대 교육사상가의 철학세계 탐색-탄스통(1865~1898)을 중심으로-」,『한국교육사학』 제20집, 1998, p.363.

36) 김영문,「탄스통의 시 세계」,『중국어문학』 Vol.35 No.1, 2000, p.19.

37) 위의 책, p.437.

학을 하는 이들이 하나로 모여 큰 힘으로 배움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모여서 현재에 할 수 있는 일을 택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제도와 기관으로서 학회의 이면에는 학을 하는 제도적 측면만이 아니라 학(學)이라는 행위와 그것을 행하는 이들이 모인다는 의미, 그리고 그들이 현재 필요한 실천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38] 그래서 그는 후난성(湖南省)에 강학회 지부를 결성하였다. 또 1897년 가을에서 후난성 시무학당(時務學堂), 남학칙조(南學勅詔)를 발포하는 등 학회와 학당을 주로 하는 실천적 개혁을 시도해 나갔다.

탄스통은 캉유웨이(康有爲), 량치차오(梁啓超), 씨아정유(夏曾佑)와의 교류관계를 형성하여 변법파로 발전하여 집단을 통한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 탄스통은 변법파의 교류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들과 하나의 목표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났던 것이다.

5. 변법가 탄스통의 심력(心力) 그리고 희생

1) 사회적 인정 욕구인 개혁의 바람

자존감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가치와 힘과 능력이 있는 느낌, 세상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매슬로의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이다. 하지만 존중의 욕구가 좌절되면 열등감, 무력감, 나약함을 느낀다. 이런 느낌은 결국 근본적인 실망, 다른 보상 심리 또는 신경증적 성향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한 사회적 지지와 인정이 있기를 원하는 단계라고 한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과 역할에 대해 실패와 성공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39]

탄스통은『인학』을 통해 평등한 성원들이 구성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의 공동체 의식 형

38) 이현복, 앞의 논문, pp.159-160.

39) Maslow, Abraham H, 소슬기 옮김, 앞의 책, p.68.

성을 위한 융합적 사상은 바로『인학』에서 나오니

> "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불서에서는 화엄 및 심정, 상종의 서적에 통달해야 하고, 서양서에는 신약 및 산학, 격치, 사회학의 서적에 통달해야 한다. 중국서에는 주역, 춘추공양전, 논어, 예기, 맹자, 장자, 묵자, 사기 및 도연명, 주돈이, 장재, 육구연, 왕양명, 왕부지, 황종희의 서적에 통달해야 한다."[40]

라고 말했다. 그는『인학』에서 일원적 세계의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사상 기반으로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 "모든 법계(法界)와 허공계와 중생계에는 지극히 크면서도 지극히 정미(精微)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접착되지 않은 곳이 없고, 스며들어 적시지 않는 곳이 없으며, 소통되어 연결되지 않는 곳이 없어서, 하나의 물건마다 충만되어 있다. 눈으로 그 형체를 볼 수 없으며, 귀로 그 소릴 들을 수 없고, 코로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이름을 붙일 방법이 없어서 짐짓 이태(以太;이데아)라고 부른다. 그것이 쓰임으로 나타날 때, 공자(孔子)는 인(仁), 원(元), 성(性)이라고 부르고, 묵자(墨子)는 겸애(兼愛)라고 부르고, 석가는 성해(性海), 자비(慈悲)라고 부르며, 예수는 영혼(靈魂), 애인여기(愛人如己), 시적여우(視敵如友)라고 부르고, 과학자는 애력(愛力), 흡력(吸力)이라고 부르는데, 모두가 같은 것이다."[41]

탄스통이 저술한『인학』의 세계는 지극히 크면서도 정미하여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는 인(仁)의 실천적 의미를 유가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중국 고유의 사고와 서구로부터 들여온 새로운 학문을 연결시켜 논했던 것이다. 그는 이미「치사편(治事篇)」釋名(석명)에서 치사(治事)의 근본을 세상의 명(名)으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實)로써 그것을 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 행할 수 있는 것에서 골라 행해야 하지 일체의 명(名)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學)에 대한 관점을 연장해서 본다면 그의 인학(仁學)의 학(學)은 인(仁)에 대한 배움이나 학식만이 아니라 인(仁)의 실천 행위를 뜻하는 것이기도

---

40) 蔡尙思, 方行編, 앞의 책, 仁學界說26, p.293.

41) 위의 책, pp.293-294.

하다.[42]

청일전쟁 패배로 탄스통은 자기 존중 욕구가 생성되면서 정치개혁가로 변화하였다. 19세기 말 중국의 정사가 군주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가슴 아파했던 탄스통은 전제군주가 비인간적 행위를 함에 있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 "군주 자신이 부부의 떳떳한 도리를 더럽히는 것은 더욱 분개할 만한 일이다. 후궁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소위 불알을 제거한 환관(宦官)과 궁중에 가둬둔 궁녀들처럼 사람들이 부부의 도(道)를 일방적으로 끊어놓기 좋아함이다. 군주의 잔인하고 폭악함은 인간의 도리를 무시한 것이다. 비록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43]

군주로써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여 군주에게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궁녀, 환관의 권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점을 지적하였다.[44]

탄스통은 『인학』에서 전제 군주를 민의 하위 개념에 놓았다. 군주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군주를 바꾸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였기에 『인학』을 통해 평등한 성원들이 구성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인과 학의 사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인정받기를 원하였다. 탄스통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과 역할을 사회 안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자기 존중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 자아실현의 욕구와 삶의 결정

매슬로의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앞의 네 단계의 욕구를 모두 충족했더라도, 어떤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종

---

42) 이현복, 「淸末 도덕 개혁의 一端-譚嗣同의 ≪仁學≫을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Vol.35 No.-,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 pp.159-160.

43) 蔡尙思, 方行編, 앞의 책, p.349.

44) 이명수, 『담사동-소통과평등을 사유한 사상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p.100.

종 불만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매슬로는 말하였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진실해야 하고, 진정한 자신에게 가까워지려는 욕망, 자신이 진정으로 될 수 있는 정점에 이르고 싶은 욕망이라고 이 단계이다. 자기 스스로 의미있는 한 존재로서 인지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외부 환경의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자신과 삶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45]

자신의 감정을 시(詩)로 남길 만큼[46] 낭만주의적 애국주의자로 불리는 그는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과 함께 제도 개혁 등 변법을 단행하였다. 무술변법 실패 후 일본 망명의 기회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

> "체포되기 하루 전 일본 지사 몇 명이 탄스통에게 일본으로 건너가라고 권하였지만, 그는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재심 출국을 강요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각국의 변법은 피를 흘리지 않고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중국에는 변법으로 인하여 피를 흘렸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흥성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제 그러한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니, 그것을 탄스통으로부터 시작하게 해달라!"[47]

라는 말을 남기고 체포되어 1898년(光緖 24) 8월 13일 숨졌다. 그는 변법이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하라는 권유를 물리치고 "변법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은 청컨대 나(탄스통)로부터 시작하시오."라고 말하면서 체포되고 처형당하였다. 탄스통이 취한 마지막 행동에서 그의 비장한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그는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한 자신의 바라고자 하는 개혁의 욕구를 실현한 것이다. 그의 죽음이 있었기에 중국은 변법에 이어 혁명이라는 시기를 연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심력(心力)'이다. 탄스통은 유교 중심 개념인 '인(仁)'과 결합하여

---

45) Maslow, Abraham H, 소슬기 옮김, 앞의 책, p.69.

46) 탄스통전집(譚嗣同全集)에 수록된 시는 130首 내외 된다.

47) 蔡尙思, 方行編, 앞의 책, p.556. 梁啓超, 「譚嗣同傳」, 『戊戌政變記』의 부록.

그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의 사상에서 에테르가 천지만물의 통일과 그 작용을 맡는 것이라면, 심력은 인간의 인식능력과 의지력이다. 즉 마음으로 이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믿었던 그는 그의 스승 어우양중후에게 심력을 말하였다.[48]

> "마음의 역량은 비록 천지의 크기로도 비교하거나 헤아릴 수 없으며 비록 천지의 크기라 하더라도 마음을 통해서 이루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며, 개조할 수 있으니, 여의치 않을 것이 없다. 예컨대 화살이 돌에 박힐 수 없으니, 이것은 일정한 이치이다. 이치는 무엇인가? 곧 천(天)이다. 그러나 지성(至誠)으로 감동되는 것은 깃털을 마시게 할 수 있다. 이 이치는 마음으로 도달되는 것이고, 물론 하늘도 마음으로 이르는 것이다."[49]

마치 기적과 같은 일을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그의 견해는 인간은 마음에 의하여 자연과의 감응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과 정신의 세계를 에테르의 속성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인간 내면의 동력을 심력이라 하였다.

> "심력은 볼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그것에 힘입어 일을 처리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물리학자(力學家)의 인력과 척력(凹凸力)의 모양새로 그려낸다.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수록 인력과 척력이 크고, 이 힘이 없으면 일을 처리할 수 없다. 활을 힘껏 잡아당길 때 팽팽해지다가 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인력과 척력이 불끈 움직이려는 순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덤벼도 막을 수 없고 방향도 바꿀 수 없다."[50]

그는 마음으로 다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변법에 임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자연을 하나로 생각했던 그는 자연과의 일체화를 통해 자신 스스로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

48) 이명수, 앞의 책, p.114.
49) 蔡尙思, 方行編, 앞의 책, p.460.
50) 위의 책, p.363.

6. 맺음말

량치차오가 『청대학술개론』에서 “겨우 이 작은 한 권을 남겨 기백이 넘치는 문장이 눈부시게 빛남이 한 순간에 가버렸지만, 그것이 낡은 것을 소탕한 힘은 비할 바가 없다.”라고 탄스통의 죽음을 비통해 하며, 탄스통의 희생으로 ‘개혁’이라는 두 글자를 각인하는 데 큰 몫을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탄스통의 감정 체계의 변화를 매슬로의 욕구 이론 5 단계에 근거하여 그의 감정에 따른 공감 개혁의 패턴을 살펴보았다.

가장 원초적인 단계인 매슬로의 첫 번째 욕구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이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탄스통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의 감정 체계가 소박하고 강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던 그가 친어머니를 11살에 잃고 계모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향한 효심을 보여주었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위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감정의 형성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안전 욕구 단계에서 탄스통은 유가와 불교, 기독교의 세 종교 즉 종교의 사상과 학문의 이론을 융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음 아래 그는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임협의 기질을 가지고 천(天)을 넘어서는 인학으로 동서양의 사상을 융합하는 사상적 이론을 바탕으로 변법가로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또 탄스통은 서양 과학 사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상적 이론의 합리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사랑의 욕구 단계에서 탄스통은 변변파와의 교류 관계 형성으로 집단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 탄스통은 그들과 변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자기 존중의 욕구 단계로 『인학』을 저술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과 학의 사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변법을 함께 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의 단계에서 그는 마음으로 다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변법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실패라는 좌

절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었던 탄스통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였던 개혁을 공감하게 하였다.

◆ 참고문헌

1. 자료

梁啓超,『淸代學術槪論』, 上海古籍出版社, 1998.
蔡尙思, 方行編,『譚嗣同全集』, 北京: 中華書局, 1998.
洪安全 外著 ; 王壽南 總編輯,『中國歷代思想家』, 臺北, 商務印書館, 1987.

2. 단행본

담사동 지음, 임형석 옮김,『인학』, 산지니, 2005.
리쩌허우/임춘성,『중국근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이명수,『담사동-소통과평등을 사유한 사상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제프 굿윈 외 저, 박형신, 이진희 역,『열정적 정치-감정과 사회운동』, 한울아카데미, 2012.
Maslow, Abraham H, 소슬기 옮김,『매슬로의 동기이론 : 욕구 5단계 이론의 오리지널 완역판』, 유엑스 리뷰, 2018.

3. 논문

김영문,「탄스통의 시 세계」,『중국어문학』 Vol.35 No.1, 2000, pp.187-211.
김영진,「譚嗣同의 仁學과 佛學」,『韓國佛敎學』 Vol.42 No.-, 2005, pp.137-164.
배영동, 「담사동 '인학'의 논리」, 『中國史硏究』 Vol.11 No.1, 중국사학회, 2000, pp.85-115.
사카모토 히로코,「담사동의『인학』에서의 우주관과 평등관」,『동아시아 문예부흥과 생명평화 ; 세계생명문화포럼 경기2005』, 경기문화재단, 2005, pp.39-47.
신현승,「신유학(新儒學)의 대동사상(大同思想)과 인(仁)의 공동체」,『동아시아 문화연구』 Vol.66 No.-,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6, pp.113-139.
吳端,「담사동의「인학」에 나타난 변혁과 융합 - 유교 · 대승불교 · 기독교 - 」,『윤리교육연구』 26, 2011, pp.191-204.
이명수,「담사동(譚嗣同)의 사상에 나타난 지천통(地天通)의 가치론」,『東洋哲學硏究』 Vol.12 No.-, 동양철학연구회, 1991, pp.227-249.
이영란,「변법운동시기(變法運動時期) 호남성(湖南省) 지식인의 서원개혁 구상」,『中國

史硏究』Vol.71 No.- , 중국사학회, 2011, pp.123-148.
이현복,「淸末 도덕 개혁의 一端 — 譚嗣同의 ≪仁學≫을 중심으로」,『中國學論叢』 Vol.35 No.-,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 pp.153-178.
임형석,「평등해야 평화롭다. 청말 사상가 탄스통의 평등평화론」,『동아시아불교문화』 Vol.0 No.36, 2018, pp.677-708.
최향순,「중국 근대 교육사상가의 철학세계 탐색-탄스통(1865~1898)을 중심으로-」,『한국교육사학』 제20집, 1998, pp.345-365.
한성구,「탄스통(譚嗣同)《인학(仁學)》의 과학적 기초」,『中國學論叢』 Vol.0 No.64, 2019, pp.183-203.
黃雅琦,「譚嗣同 《仁學》思想體系及其生命實踐」,『퇴계학논집』 Vol.- No.14, 2014, pp.137-162.

劉修志, 「譚嗣同《仁學》中的“公理”思想」, 『烟台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20, pp.119-126.
王 坤,「現代性視域下的譚嗣同“仁學”思想硏究」,『太原科技大學』, 2019, pp.1-63.
呂存凱,「論《仁學》中的世界主義-譚嗣同思想的再檢討」,『中國哲學史』, 2017, pp.113-120.
謝慶芬,「譚嗣同《仁學》宗敎觀硏究」,『湖南大學』, 2012, pp.1-58.
丁鳳麟, 「令人肅然的學術論著－－陳偉桐《譚嗣同<仁學>硏究》評介」, 『近代中國』, 2020, pp.309-310.
Bailey, William S., *Tie Your case Together with a Good Theme*, Trial 37i2, 2001, p.58.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4월 30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25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6월 10일

Abstract

Reform of Emotion and empathy of the Cheongmal 'Madingdangzhong (摩頂放踵)'
- Focused on Tansitong(譚嗣同)'s『renxue(仁學)』

Lee, Youngr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ill of reform according to the feelings of Tansitong(1865-1898), who was willing to sacrifice one's own body to save the national crisis. By grafting Maslow's theory of needs to the 5th stag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attern of empathy formation according to his emotional politics.

The most primitive level, Maslow's first level of needs, is physiological needs. Parents are the mirrors of their children. From a young age, under the influence of her mother, Tansitong grew up as a person with simple and upright emotions. Then, after losing his mother at the age of 11 and growing up being abused by his stepmother, he grew up to be a person who had no fear of sacrificing himself to work for others.

Second, in the level of need for safety, Tansitong tried to fuse Confucianism, Buddhism, and Christianity, that is, the ideas of religion and theories of science. Under this heart, he walked the path as a lawyer based on an ideological theory that fuses Eastern and Western ideas with human learning that transcends heaven, with the temperament of chivalrous spirit(任俠) , who lavishly devotes himself to others. In addition, Tansitong established ideological-based concepts based on his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Western scientific thought, thereby forming sympathy.

Third, in the stage of need for love, Tansitong gained a sense of belonging to the group by forming an exchange relationship with the marginalists. Tansitong tried to reform empathy that contributes to society with a sense of community in that they share one goal with them.

Fourth, he expressed his strong will under social support and recognition to

create an egalitarian society by writing『renxue(仁學)』as the ideology of causality as the level of self-respect.『renxue(仁學)』written by Tansitong laid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sympathizing with the need for reform.

In the last stage, the stage of self-actualization needs, he made a change with the firm belief that anything can be achieved if he puts his mind to it. He thought of the mind and nature as one, and by showing his will through integration with nature, he moved everyone's thoughts.

Keyword Tansitong(譚嗣同), Maslow's hierarchy of needs, renxue(仁學), mental power(心力), emotions, empathy, reform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1.231

중국인 학습자 대상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미디어 콘텐츠의 상호작용성 강화를 중심으로

易 靜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적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연구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콘텐츠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짚어내면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와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도 파악하였다.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비리비리(嗶哩嗶哩, Bilibili)를 플랫폼으로 선정하여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 TOPIK 시험대비를 위해 읽기 시험 25~27번 문제 유형을 내용으로 다루었다. 콘텐츠는 대체로 '콘텐츠 도입 및 내용 제시-연습을 위한 언어 학습-실전 문제 및 답안해설-마무리'로 구성되었으나 인터랙티브 기능(互動視頻)을 설계함으로써 학습자가 직접 선택한 바에 따라 동영상이 이어지며 학습자만의 콘텐츠가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콘텐츠를 비리비리에서 공개한 후에 이용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용자들이 모두 콘텐츠의 구성 및 내용, 또한 상호작용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가 TOPIK 시험대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앞으로 문법교육, 기능교육 등 영역으로 확장되어 더욱 체계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소셜미디어, 한국어교육 콘텐츠, 중국인 학습자, 상호작용, 한국어능력시험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목차〉

1. 서론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
   1) 선행연구
   2) 중국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의 현황
3. 비리비리를 활용한 상호작용적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1) 한국어교육을 위한 비리비리의 활용 가능성
   2) 비리비리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
   3) 비리비리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 이용자 피드백
4.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적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비리비리(嗶哩嗶哩, Bilibili)를 플랫폼으로 선정하여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실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 착안하여 한국어교육의 저변을 넓히고자 한 연구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한국어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시도가 점차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에 관한 논의들 가운데 전통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20년에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오프라인 수업을 위주로 발전해 왔던 한국어교육에서도 시공간의 제한을 초월할 수 있는 온라인 원격 비대면 강의가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외국어 교육 포탈 등 원격 영리 교육기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한국어교육을 시도해 왔으나 2020년으로부터 이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 환경에서 실현되는 한국어

교육이 더욱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도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학습자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어교육 콘텐츠는 질적으로 수준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대면 수업처럼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힘들기도 하다. 콘텐츠 개발자가 사전에 제작한 콘텐츠를 플랫폼에 올리고 나서 학습자가 대부분 혼자서 콘텐츠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를 고립시키며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학습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학습 콘텐츠가 되도록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아직 다른 분야보다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서도 상호작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현재 중국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의 실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 선정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비리비리의 가능성, 즉, 콘텐츠 개발하는 데에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비리비리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모형을 제안해 보도록 한다.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

1) 선행연구

지금까지 온라인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온라인 강의가 주를 이루지만 2010년대부터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도 몇몇 확인되었다. 손예희・김지연(2010)은 트위터(Twitter), 미투데이(Me2day) 등 소셜미디어의 소통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런 매체가 국어교육에 있어 비판적 이해 능력 함양

및 상호작용적 표현 능력 함양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어교육 관련 연구지만, 그 당시에 소셜미디어에 초점을 두었고 이에 기반한 언어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로부터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연구 대상이 폐쇄형 소셜미디어냐 개방형 소셜미디어[1]냐에 따라 나누어서 검토할 수 있다. 폐쇄형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전통 한국어 교실에서 보조 교수 도구로서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도입하여 한국어 학습을 돕는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 방안을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2]. 기존 말하기, 듣기 교육 방안과 달리,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왔으나 전통 교실 환경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개방형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연구들은 오프라인 교실 환경에 국한하지 않고 오로지 온라인 환경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 중에 박유진(2012)과 조일남(2013)은 모바일 앱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사례를 분석한 연구로서 유튜브, 페이스북에서의 기존 콘텐츠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삼은 안재린・심유진(2018), 중국 웨이보(Weibo)에 있는 콘텐츠를 분석한 리앙(2018) 등을 비롯하여 더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주목한 연구가 많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 유튜브에 있는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분석한 김형준(2018)은 선행연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셜미디어 콘텐츠 개발 방안까지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와 다르게 접근한 남신혜(2020)는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Learning Korean' 등)를 네트워크 분석함으로써 소셜미

1) 폐쇄형 소셜미디어는 검색을 통해서만 게시물을 찾거나 확인할 수 있고 주변인들하고만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서영애, 2017). 대표적인 폐쇄형 소셜미디어는 네이버 밴드(Naver Band), 위챗(Wechat) 등이 있다. 개방형 소셜미디어는 불특정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친구를 추가하거나 관심이 있는 채널을 구독하게 하는 플랫폼으로서 누구나 쉽게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개방형 소셜미디어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있다.

2) 김혜정, 「SNS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 사례 연구」, 『화법연구』 제34호, 한국화법학회, 2016, p.139-172.
서영애, 「폐쇄형 SNS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교육방안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제7호,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7, p.101-134.

디어에 기반한 한국어교육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인스타스램의 한국어교육 콘텐츠는 문법보다 어휘를 위주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으며, 학습자들이 콘텐츠에 K-pop 등 문화적 요소를 선호하고 있다.

위에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활용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교사 입장이 아닌 소셜미디어의 직접 이용자인 한국어 학습자의 주도권과 능동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학습자가 자유롭게 학습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교육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국외지역에서도 시간 및 공간의 제약 없이 대량의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물론 전통 오프라인 언어 교실만큼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등 아쉬운 부분이 많이 지적되기도 하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특정으로 인해 이를 오프라인 교실과 다른 차원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승연・박재원(2017)에서는 미디어 콘텐츠에 의한 상호작용 유형은 전통 수업과 달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유형별 상호작용성의 정의 및 고려요소

상호작용성 유형	고려 요소
미디어 콘텐츠의 특징으로서의 상호작용성	- 사용자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도
송신자, 수신자 간의 역할 교환으로서의 상호작용성	- 사용자가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시간, 순서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
구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상호작용성	- 송신자, 수신자의 동시적이고, 지속적 피드백 - 상호적 정보교환에 의한 의미, 이해 형성 - 청각적 인식, 상황에 의한 사회적 현존감, 몰입감, 사회적 상황 정보의 제공

이를 참고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에는 ‘이용자와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용자와 교사(혹은 콘텐츠 개발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교실만큼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와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 또한 이용자와 콘텐츠 개발자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이

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의 교육적 효과를 기반으로 중국인 학습자 대상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상호작용적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 중국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의 현황

중국에서 외국어 교육 포탈 등 원격 영리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온라인 한국어 교육의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는 물론이고 한국어 학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으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절에서 이와 관련된 실제를 살펴볼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는 웨이보(微博, Weibo), 샤오홍슈(小紅書, RED), 더우인(抖音, TikTok), 비리비리(嗶哩嗶哩, Bilibili) 등 여러 플랫폼에서 많이 검색될 수 있으나 플랫폼마다 공유되는 콘텐츠는 다소 차이가 있다[3]. 본고는 한국어교육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이 중에 주로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비리비리를 대상으로 콘텐츠 실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비리비리에서 '한국어'를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2021년 3월 기준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채널 10개와 각 채널에서 제공되는 한국어교육 콘텐츠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비리비리에서 한국어교육 관련 채널

채널	구독자	콘텐츠 내용
韓語養樂多老師	40.7만 명	발음, 노래/드라마로 한국어 배우기, TOPIK 시험대비
史上最全韓語教程	12.1만 명	숙달도별 통합한국어
韓語外教-馬黎娜	11.4만 명	발음, 어휘, 문법, 상황별 말하기 문형, TOPIK 시험대비, 숙달도별 통합한국어, 한국어 학습법

3) 웨이보나 샤오홍슈 등 플랫폼은 페이스북(Facebook)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과 비슷해 주로 사진이나 그림,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콘텐츠도 역시 그림이나 글 등 형식으로 개발된 경우가 많다.

韓語外教_牙牙老師	6만 명	발음, 문법, 어휘, TOPIK 시험대비, 상황별 말하기 문형, 숙달도별 통합한국어, 노래/드라마로 한국어 배우기, 한국어 학습법
早早教你韓語	4.5만 명	발음, 문법, 어휘, 상황별 말하기 문형
韓語餅干老師	4.5만 명	발음, 어휘, TOPIK 시험대비
韓語大牛老師	3.1만 명	발음, 노래/드라마로 한국어 배우기
躺着學韓語	2.8만 명	어휘, 상황별 말하기 문형
滬江韓語	2.8만 명	발음, 어휘, 상황별 말하기 문형, TOPIK 시험대비
韓語老師金龍一	2.5만 명	TOPIK 시험대비

이 10개의 채널의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면, 8개는 한국어 발음, 어휘, 문법 등 언어지식과 관련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는 반면 숙달도별 통합한국어 관련 내용은 3개의 채널에서만 확인되었다. 또한, 언어기능은 말하기만 있지만 상황별 말하기 문형을 다루는 것이 전부였다. 이는 분석된 채널 중 대부분이 개인 운영 채널이므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내용을 구축하기보다는 어휘, 문법, 표현 등 단편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부담 없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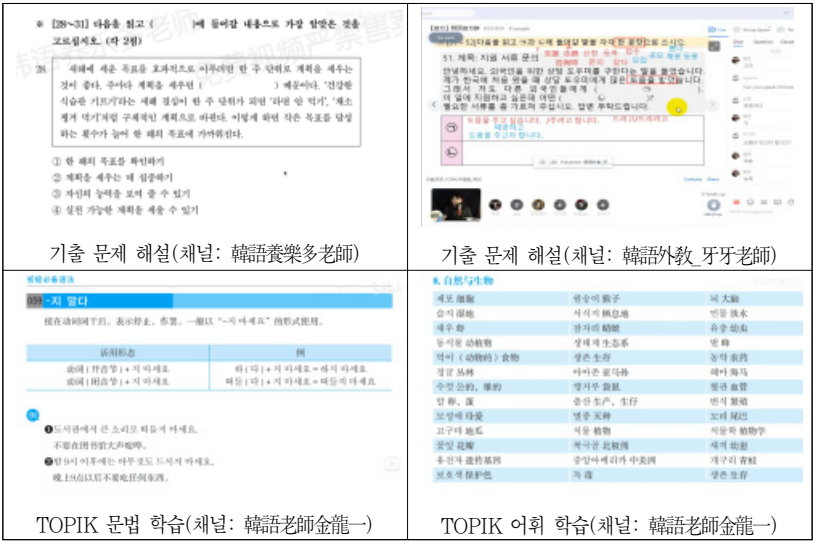
이 외에 많은 채널에서 한국 노래 혹은 드라마를 활용해 한국어를 교수하는 콘텐츠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보통 일반 목적 학습자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동기 및 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대비와 관련된 콘텐츠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독학하는 경우가 많아 TOPIK 시험을 스스로 준비하다가 플랫폼에서 관련 콘텐츠를 많이 찾게 되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재 비리비리에서의 한국어교육 콘텐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채널 운영자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학습자의 특징, 요구, 학습 목표의 요소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리비리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학습자들은 장기적으로 배워야 하는 길고 무거운 학습 내용보다 가볍게 접근해서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비리비리는 개방형 플랫폼이므로 콘텐츠를 이용할 학습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어휘 문법, 언어 기능을 다루게 되면 특정 숙달도를 한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자칫 콘텐츠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의 특징 또한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 결과, 본고는 특정 학습자로 한정하지 않고 TOPIK 시험을 대비하는 학습자라면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콘텐츠 내용을 TOPIK 시험대비와 관련된 것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표 2>에서 제시된 채널들이 공개하고 있는 TOPIK 시험대비 관련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콘텐츠의 내용은 크게 TOPIK 시험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과 TOPIK 시험을 위한 어휘 및 문법 학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TOPIK 시험대비 관련 콘텐츠의 예시



전자는 TOPIK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기출 문제를 화면에 제시하면서 각 문제에 대해 해설하는 동영상 콘텐츠이고 후자는 TOPIK 시험을 위한 어휘, 문법 항목을 교사가 제시・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1>의 예시처럼, 이 콘텐츠들은 모두 교사가 학습 내용을 알려주는 형식, 즉 전통 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이미 제작된 콘텐츠 내용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기가 매우 힘들다. 물론 학습자가 댓글이나 딴무(彈幕)[4]를 이용해서 다른 학습자나 개발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으나 콘텐츠 자체와의 쌍방향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 검토한 기존 TOPIK 시험대비 관련 콘텐츠들의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 비리비리의 인터랙티브 기능을 활용해 학습자가 직접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콘텐츠를 구성하게 할 것이다.

3. 비리비리를 활용한 상호작용적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1) 한국어교육을 위한 비리비리의 활용가능성

비리비리는 2009년 창립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서 2020년까지 월별 1.72억 명의 활성 이용자(active user)를 보유하고 있으며 18~35세의 젊은 층이 총이용자 수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비리비리는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서 현재 중국 젊은 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대부분 젊은 연령층이니 비리비리는 다른 동영상 플랫폼과 달리 이용자와 플랫폼, 콘텐츠 사이에 역동적인 유대감을 지니고 있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주인 의식이 강하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비리비리의 하루평균 동영상 총재생량은 12억이고 월평균 커뮤니케이션 회차는 52억이 넘었다. 그중에 대표적인 커뮤니티 기능인 '딴무(彈幕)'의 2019년 연간 생산량은 총 14억 개일 정도로 이용자와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5].

---

4) 딴무(彈幕)는 말 그대로 이용자들이 재생화면에 남긴 코멘트가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스쳐 가는 모양이 마치 수많은 총알(彈, 딴)이 뭉쳐 형성하는 화면을 가릴 수 있는 막(幕, 무)인 듯하다는 뜻을 의미한다. 딴무 시스템은 일본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ニコニコ動畵'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는데 중국에 들어온 이후 딴무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바로 비리비리이다.

5) 통계 수치는 『嗶哩嗶哩2020年第2季度業績報告』를 참고하였다. https://ir.bilibili.com/static-files/29a668fc-77e7-4e02-83b0-58e1dc3134a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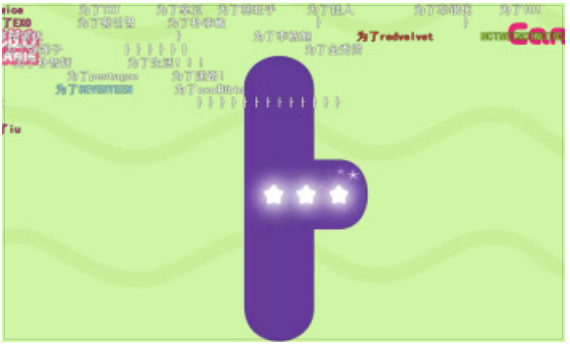
또한, 주된 이용자로서 젊은 세대의 이용자들이 비리비리에 게재되는 동영상 콘텐츠를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소셜미디어로서의 비리비리를 오히려 관심 영역의 지식이나 새로운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열린 온라인 학교로 생각하기도 한다. 현재 비리비리에 공유된 콘텐츠에는 인문・사회학이나 자연・과학 등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요리, 악기, 프로그래밍 등 기술이나 기능과 관련된 내용도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언어 학습 관련 동영상 콘텐츠는 바로 그중의 하나다. 이처럼 비리비리를 비롯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는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리비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콘텐츠는 개인 채널 운영자가 주로 스스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콘텐츠 개발자의 경력, 전문성 혹은 교육 이념, 학습 배경 등이 다양해 개발된 콘텐츠도 역시 질적 내용이 전문성을 갖춘다고 하기가 어렵다.

한편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실제 오프라인의 전통 교실 수업과 비교할 때 흔히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부족은 콘텐츠 개발자(혹은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콘텐츠 사이에 모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등 전통적인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달리, 비리비리에서는 공시성(共時性)을 확보한 코멘트 기능인 딴무(彈幕), 이용자가 콘텐츠 내용을 결정하고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게 하는 인터랙티브 동영상 기능(互動視頻), 실시간 의사소통 가능한 라이브 등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언어 교육 콘텐츠 개발에 있어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동영상 콘텐츠에 존재하는 상호작용 부족이라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점에서 출발하여 비리비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실제 상호작용적 콘텐츠를 개발해 볼 것이다.

(1) 딴무(彈幕)

딴무는 동영상 재생화면에서 이용자들이 남긴 코멘트가 그대로 나타나는 특수한 코멘트 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딴무는 전통적인 코멘트 방식인 댓글과 달리, 이용자들이 어떤 하나의 타이밍에 나오는 재생화면에다가 나름의 생각을 남길 수 있고 이 화면을 본 다른 사람의 딴무도 동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래 한국어 발음과 관련된 콘텐츠에서 재생화면에 나타난 딴무들은 모두 다른 이용자들이 이 화면을 본 그 당시에 남겼던 코멘트이다. 딴무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자가 혼자 동영상을 보고 있어도 같은 화면, 같은 내용을 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다른 이용자와 함께 보고 있다는 것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다.

<그림 2> 딴무의 예시(채널:早早教你韓語)



언어 교육 콘텐츠를 딴무 동영상으로 구현한다면 콘텐츠를 보는 학습자들이 서로 분리된 개체로서 혼자 콘텐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딴무를 통해 학습자들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6]. 이는 댓글만 남길 수 있는 단일한 소통 방식, 이용하기 불편한 코

6) 李興衡(2016)에 따르면 딴무가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참여성(Participatory), 이용자들은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딴무 내용을 봄으로써 이용자들 사이에 '공시성(共時性)의 관계'가 구축되는 즉각성(Instantaneity), 영

멘트 시스템에서 기인한 학습자들 간의 소통 부족 문제, 즉,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기반한 언어 교육 콘텐츠이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습자들이 서로 특정 학습 내용에 주의하게 할 수도 있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으로써 학습 효과를 확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인터랙티브 동영상(互動視頻)

비리비리에서 제공되는 인터랙티브[7] 동영상 기능은 동영상 안에서 시청자가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서 다양한 스토리의 전개가 가능해지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영상 내에서 콘텐츠 내용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체험형 미디어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비리비리에서 인터랙티브 기능을 활용하는 동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테스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으로 테스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동영상에서 추리 게임을 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인터랙티브 기능을 통해서 이용자가 주인공이 되어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의 선택을 함으로써 스스로 스토리의 전개를 촉진하여 혼자만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유형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인터랙티브 동영상은 모두 콘텐츠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결

상과 딴무를 통하여 이용자들은 소통하면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 자기가 선호하는 사교계(Social Circle)를 세울 수 있게 되는 사교성(Sociability), 대부분의 딴무가 완전한 생각이 아니라 불완전한 감정 조각이라는 감정(Emotional)의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 한편, 사교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양방향성(Interactivity)을 제시하고 이 외에 가시성(Visuality), 오락성(Recreational) 등을 제시한 喻昕・許正良(2017), 또한 딴무는 관객들의 감정과 태도를 반영할 수 있어서 유용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조가혼(2019) 등 연구를 통해서 딴무가 콘텐츠 이용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이루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되었다.

7) 인터랙티브(interactive)란 것은 여러 대상 사이에서 상호적인 특정 지향점을 바탕으로 쌍방향적 소통 및 교류를 통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상호작용 행위를 유도 및 지속할 수 있는 성질로서 상호작용적이라고 표현한다(이현정, 2015). 이로 나아가, 이용자와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체계를 인터랙티브 미디어(interactive media)라 정의할 수 있다. 광고,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교육영상 등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 상호작용성을 가미한 새로운 미디어 형식은 소통 공간, 상호작용 공간, 그리고 정보 공간으로서의 역할 및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김승환, 2018).

정하고 구성하는 주도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더 이상 정해진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이 아닌 능동적으로 콘텐츠와 상호작용을 하고 스스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터랙티브 기능이 언어 교육 콘텐츠에서 적용된다면 학습자와 콘텐츠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맞춤형 콘텐츠의 형성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도 더욱 적극적일 수 있으며 학습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

2) 비리비리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8)]

본고는 한국어교육 콘텐츠가 게재될 플랫폼으로서 비리비리의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며 학습자의 특징과 요구를 고려한 결과, 비리비리를 활용한 TOPIK 시험 대비와 관련된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된 콘텐츠의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3> 콘텐츠의 기본 정보

	내용: TOPIK 시험 대비 (TOPIKⅡ 읽기 25~27번 문제 유형) 한국어 숙달도: 중·고급 시간: 6분 30초~21분 37초 언어: 중국어·한국어

콘텐츠 내용은 TOPIKⅡ 읽기 시험 중에서 25번~27번 문제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주어진 신문 기사의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라는 유형으로서 문제 푸는 데에 충분한 언어지식뿐만 아니라 적절한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대부분 학습자가 한국어로 된 신문 기사의 제목을 많이 접하지 못해

8) 본 절에서 개발한 콘텐츠는 비리비리에서 검색될 수 있다. https://www.bilibili.com/video/BV1Hz4y197kU

관련 장르적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항상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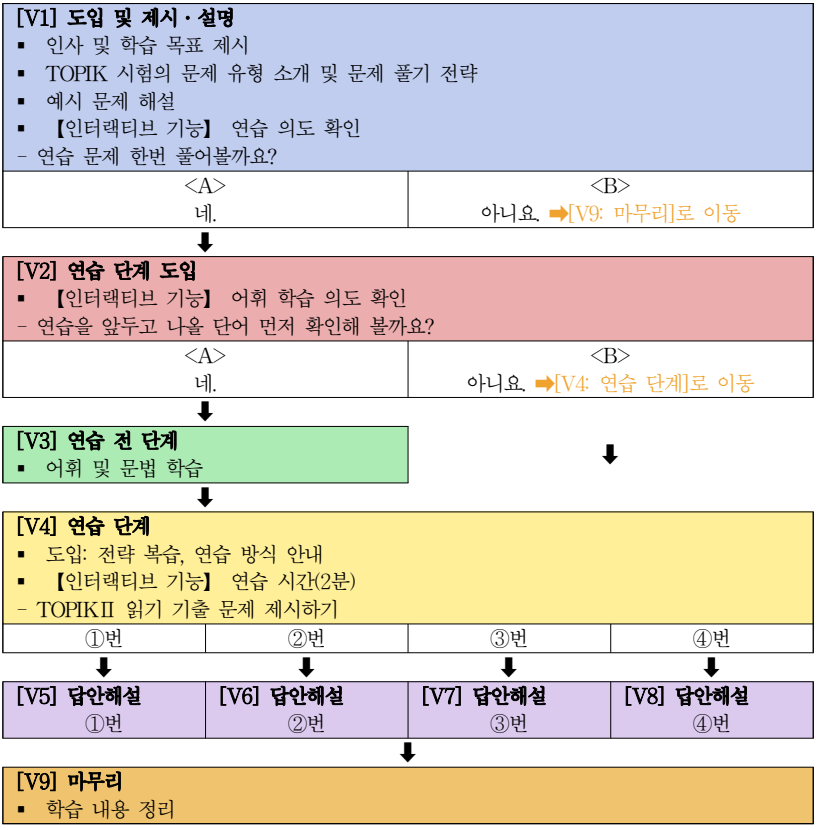
학습자가 짧은 동영상 하나로 이 문제 유형의 특징과 문제 푸는 데에 필요한 전략을 학습하고 연습 기회를 통해 직접 풀어본다면 스스로 TOPIK 읽기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많은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이 유형을 더욱 순조롭게 풀 수 있도록 본고에 TOPIKⅡ 읽기 시험 25번~27번 문제를 콘텐츠 교육 내용으로 삼았다.

본고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는 인터랙티브 기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콘텐츠의 전개 방식이 콘텐츠를 직접 사용하는 학습자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컨텐츠의 재생 시간은 짧게는 6분 30초, 길게는 21분 37초로 학습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를 고려해서 콘텐츠에서 문제 유형, 장르 특징, 문제 풀이 전략 등 내용에 대한 해설은 중국어로 진행했다.

인터랙티브 기능의 사용으로 인해 콘텐츠 구성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 다음 그림과 같이 다양한 전개가 가능하다[9].

9) 학습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완성하는 데에 총 9개의 동영상이 필요한데 그림에서 이를 [V1]부터 [V9]까지 순서를 매겼다.

<그림 3> 콘텐츠의 전개 흐름



이처럼 인터랙티브 기능이 작동될 때마다 학습자가 스스로 이어질 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이미 다 제작된 기존의 콘텐츠와 달리, 학습자가 콘텐츠를 이용하는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콘텐츠를 즉각적으로 구성해 나간다. 즉,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학습자가 할 선택에 따라 콘텐츠의 전개는 다음과 같이 9가지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자기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학습을 미친 후에 연습 문제를 풀지, 언어 학습을 할지, 정답 해설을 볼지까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콘텐츠 구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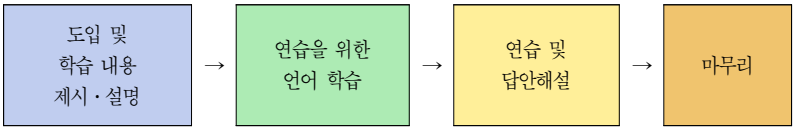
직선적으로 전개되어 있지 않아 콘텐츠 이용하는 과정 내내 지난 단계로 돌려 전에 넘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상호작용적 콘텐츠의 구성

동영상	콘텐츠 내용
V1-V2-V3-V4-V5-V9	도입 및 내용 제시 → 언어 학습 → 연습 → 1번 해설 → 마무리
V1-V2-V3-V4-V6-V9	도입 및 내용 제시 → 언어 학습 → 연습 → 2번 해설 → 마무리
V1-V2-V3-V4-V7-V9	도입 및 내용 제시 → 언어 학습 → 연습 → 3번 해설 → 마무리
V1-V2-V3-V4-V8-V9	도입 및 내용 제시 → 언어 학습 → 연습 → 4번 해설 → 마무리
V1-V2-V4-V5-V9	도입 및 내용 제시 → 연습 → 1번 해설 → 마무리
V1-V2-V4-V6-V9	도입 및 내용 제시 → 연습 → 2번 해설 → 마무리
V1-V2-V4-V7-V9	도입 및 내용 제시 → 연습 → 3번 해설 → 마무리
V1-V2-V4-V8-V9	도입 및 내용 제시 → 연습 → 4번 해설 → 마무리
V1-V9	도입 및 내용 제시 → 마무리

다음으로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전반적 흐름을 고려해서 크게 '도입 및 학습 내용 제시·설명', '연습을 위한 언어 학습', '연습 및 답안해설', 그리고 '마무리'로 나누어서 설명할 것이다.

〈그림 4〉 콘텐츠의 내용 구성



(1) 도입 및 학습 내용 제시·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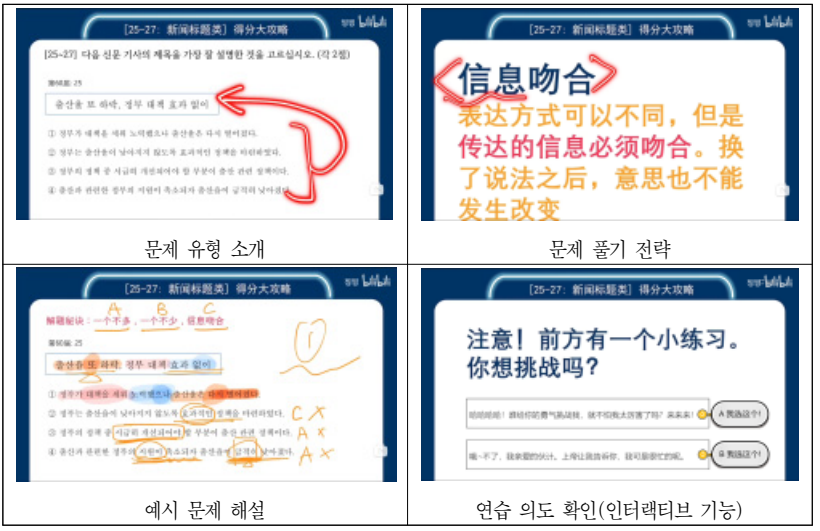
콘텐츠의 시작으로서 [V1] 동영상에서는 먼저 학습자에게 간단한 인사와 채널 소개를 한 후 이 콘텐츠의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이용 방법을 안내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학습 예상 효과를 강조하면서 격려해 주기도 한다.

도입에 이어서, 본 콘텐츠의 학습 내용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한다. 우선, '문제 유형 소개'에서는 기출 문제 하나 제시하면서 학습자에게 문제의 유형,

장르적 특징, 고찰하고자 하는 읽기 능력 등 문제와 관련되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그리고 '문제 풀기 전략'에서는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이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어떤 읽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문제 유형과 전력을 살펴본 다음, '예시 문제 해설'에서는 앞서 '문제 유형 소개'에서 제시했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실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가르친 전략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실제 문제 풀기 전략의 사용 양상을 볼 수 있고 전략에 대한 학습이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V1]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서 인터랙티브 기능을 이용해 실전 연습을 할 의도를 확인한다. 만약, 학습자가 실전 연습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자동으로 [V9] 동영상이 이어져 콘텐츠가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학습자가 연습하겠다고 선택한 경우, [V2] 동영상이 나타나 연습을 위한 언어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그림 5> [V1] 동영상: 도입 및 학습 내용 제시・설명



문제 유형 소개 | 문제 풀기 전략

예시 문제 해설 | 연습 의도 확인(인터랙티브 기능)

(2) 연습을 위한 언어 학습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내용 학습이 끝난 후에 인터랙티브 기능을 통해 학습자가 연습하겠다고 선택한 경우, [V2] 동영상이 이어질 것인데 이때 다시 인터랙티브 기능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언어 학습을 할지를 결정하게 한다. 이는 먼저 관련 어휘나 문법을 알아본 뒤에 문제를 푸는 것과 실제 시험 때와 똑같은 방식, 즉 아무 준비 없이 바로 문제를 푸는 것 가운데 학습자가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습을 위한 언어 학습을 하겠다고 선택한 경우, 학습자가 이어질 [V3] 동영상에서는 연습 문제에서 나타날 어휘, 문법을 먼저 설명해 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 학습을 안 하겠다고 선택한 경우, 바로 연습 문제 풀기를 시작하지만, 학습자가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V3] 동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언어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놓치지 않는다.

<그림 6> [V2~V3] 동영상: 연습을 위한 언어 학습

언어 학습 의도 확인(인터랙티브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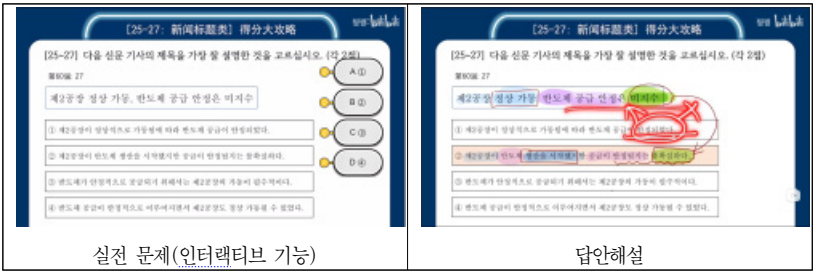
연습을 언어 학습

(3) 연습 및 답안해설

'실전 문제'에서는 TOPIKⅡ 읽기 기출 문제를 하나 선정하여 학습자에게 스스로 문제 풀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제 풀기 전에 다시 문제 유형의 특징, 풀기 전략 등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연습 방법을 설명한다. 학습자가 화면에서 보여준 기출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인터랙티브 기능을 통해 자기의 답안을 고른다. 이때, 학습자가 선택한 바에 따라 [V5]~[V8] 동영상 중 하나가 이어질 것인데 이 네 개의 동영상에는 각각 답안에 대한 해설이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①번을 선택한 후 보게 된 [V5] 동영상에는 정답이 왜 ②번인지, ①번이 왜 틀렸는지, ①번을 선택했다면 나중에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하는 점 등 맞춤형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림 7> [V4~V8] 동영상: 연습 및 답안해설



실전 문제(인터랙티브 기능) | 답안해설

(4) 마무리

본 콘텐츠가 [V9] 동영상으로 마무리된다. [V9] 동영상에서는 학습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학습자에게 딴무나 댓글을 통해서 스스로 본인의 학습 효과를 평가한 결과, 혹은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의견이나 이용 소감도 적극적으로 남기도록 격려한다.

3) 비리비리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 이용자 피드백

본 연구에서 개발된 콘텐츠의 효과를 검증하며 향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비리비리에서 콘텐츠를 이용한 한국어 학습자 3명을 섭외하여 인당 1시간 30분쯤 인터뷰를 진행하였다[10]. 인터뷰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10) 본 연구에서 개발된 콘텐츠는 새로 만든 채널에 업로드되기 때문에 논문 작성 시 기준으로 구독자 수와 재생횟수가 상대적 많지 않았다. 따라서 콘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한 구독자 중에 3명만 섭외해서 인터뷰할 수 있었다.

<표 5> 콘텐츠 이용자 개인 정보

이용자	한국어 숙달도	한국어 학습 목적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 학습 경험
A	3급	일반 목적 → 직업 목적	1년	(중국)실시간 온라인 강의 (중국)독학 (한국)어학당 강의
B	3급	일반 목적	3-4년	(중국)학원 오프라인 강의 (중국)실시간 온라인 강의
C	4급	일반 목적	3년	(중국)독학 (중국)실시간 온라인 강의

이용자 3명 모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였다. 다만 계속 중국에서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이용자 B, C와 달리, 이용자 A는 중급 이후 한국 대학 부속 어학당에서 공부하게 된 이후 한국에서 취직할 계획이 생겼다고 하였다. 한편, 이용자 3명의 지금까지의 한국어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모두 온라인 환경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 이와 같이 이용자 모두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비리비리에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한국어 학습 자원이 매우 부족한 반면 비리비리에서 찾을 수 있는 학습 콘텐츠 훨씬 다양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리비리 콘텐츠를 시공간 제한 없이 편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용 과정에 광고가 없고 '한국어학습'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개설되어 있다는 등 비리비리 플랫폼의 특징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이 더욱 편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용자

11) 이용자 A의 경우, 먼저 폐쇄형 SNS인 위챗(Wechat)에서 한국어 교사와 1대1 실시간 음성통화하면서 입문 단계의 강의를 진행하였다가 초급부터 스스로 비리비리에서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검색하여 독학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비리비리에서 찾은 통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샤오홍슈의 그림/사진 콘텐츠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용자 B는 먼저 오프라인 강의로 한국어를 배우다가 중국 온라인 한국어교육 포탈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실시간 강의를 수강하였다. 이와 동시, 비리비리의 동영상 콘텐츠, 단어 외우는 애플리케이션, 한국어 라디오 방송 등 보조적 학습 자원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용자 C의 한국어 학습은 거의 전반적 독학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3명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사용한 모습을 보였다. 이용자 C는 비리비리의 동영상 콘텐츠 외에 웨이보와 샤오홍슈의 콘텐츠, 위챗 미니 프로그램(微信小程序)과 공식 계정(微信訂閱号)의 구독 기사 등 다양한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서 자기의 한국어 독학을 촉진하였다.

입장으로 앞서 이미 논의한 한국어교육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비리비리의 가능성을 다시 검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콘텐츠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상호작용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1) 내용과 구성

이용자의 피드백에 따르면 세 명 모두 개발된 콘텐츠가 TOPIK 시험대비를 주제로 삼은 것이 본인의 학습 요구를 만족했다고 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은 취미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였으나 본인의 실제 한국어능력을 확인하고자 TOPIK 시험을 칠 계획이 있기 때문에 TOPIK 시험대비 관련 콘텐츠가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체계성 없이 단편적인 언어지식을 다룬 콘텐츠보다 TOPIK 시험대비 관련 콘텐츠는 접근하기 더욱 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현재 비리비리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어교육 콘텐츠는 입문이나 초급 내용이 대부분이고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가 매우 미흡한 반면 본 연구는 TOPIK 중・고급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룸으로써 이용자의 필요에 부응하였다.

한편, 콘텐츠의 구성에 있어 이용자가 모두 '도입-제시 및 설명-연습-해설-정리'와 같은 완결성 있는 학습 과정이 학습 내용의 이해 및 심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특히 연습 단계에서 전 단계에서 배운 지식과 전략을 실제 적용해 보게 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단방향 주입식 강의형 콘텐츠보다 단계별 과정의 설정 덕에 동영상의 길이(최대 20여 분)도 오히려 길지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세 명의 이용자가 모두 본 연구의 콘텐츠가 현재 기존 콘텐츠와의 명확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존의 대부분 콘텐츠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의 재생화면을 다시 비리비리에서 공유하거나 기출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설명만 한 데에 반해, 본고의 콘텐츠를 이용할 때에는 내용 제시 과정에서 보여준 PPT 화면, 설명 시 사용한 필기도구, 동영상 편집, 인터랙티브 기능의 사용 등 콘텐츠 디자인 면에서 개발자의 큰 노력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더불

어, 본 연구의 콘텐츠에는 기출 문제만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서 '신문 기사'의 장르적 특징, 한국어 읽기 전략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공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어 학습에도 효과적이라고 한 피드백도 받았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콘텐츠의 내용 및 구성에 있는 보완점이나 바라는 점에 대한 응답으로 첫째, 콘텐츠의 언어 학습 단계에서 어휘와 문법에 대한 설명과 정리가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었다는 점, 둘째, 연습 단계에서 오답을 고른 경우 바로 해설 영상 나오는 대신 이용자에게 다시 고민해 보고 답을 고르게 하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점, 셋째, 향후 주기적으로 새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제작하고 올리면 좋겠다는 점 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용자의 요구 및 피드백을 반영해서 더욱 높은 질의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2) 상호작용

콘텐츠 이용 시 이루어진 상호작용은 이용자와 콘텐츠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교사(즉, 개발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이용자들이 모두 인터랙티브 기능의 활용으로 콘텐츠를 직접 구성해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신선하며 학습 흥미를 유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게다가 인터랙티브 기능 작동 시, 선택지를 골라야 콘텐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콘텐츠 내용에 집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연습 단계에서 실제 시험을 보고 있는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일정한 긴장감도 부여하여 학습 내용을 열심히 이해하고 내재화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이용자가 인터랙티브 기능 때문에 콘텐츠 흐름이 끊겨 시청 유창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한계점도 짚어주었다. 따라서 향후 콘텐츠 개발 시, 인터랙티브 기능을 사용할 때 전반적인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학습자가 제시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들을 더욱 자연스럽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 채널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콘텐츠의 딴무량과 댓글 수가 모두

부족하다. 따라서 3명의 학습자가 모두 다른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량의 구독자를 유인함으로써 더욱 활발한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과 달리, 이용자와 교사, 즉 콘텐츠 개발자의 상호작용이 다른 한국어 채널보다 잘 이루어졌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질문과 조언을 남길 때 개발자가 항상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콘텐츠에서 채택한 교사가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 모두 상관없다고 하며 소리만으로도 교사의 실재감이 충분하다고 하였다. 특히, 소리만 있으면 오히려 화면에 제시된 내용에 더욱 잘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용자의 피드백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콘텐츠는 기존의 콘텐츠보다 상호작용적이면서 동기 부여와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용 측면으로 TOPIK 시험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이처럼 이용자의 피드백으로 본 연구의 콘텐츠 효과가 검증될 수 있으나 언어 학습 부분과 구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적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이론 및 실제를 살펴보았는데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콘텐츠의 의미와 상호작용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이어서 중국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의 실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리비리에서 기존의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간단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콘텐츠는 학습자의 참여 없이 교사가 단방향으로 내용을 제시・설명하는 주입식 동영상이라는 한계점을 짚어내면서 TOPIK 시험대비와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도 파악하였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3장에서 비리비리의 플랫폼 기능 중 상호작

용을 확보할 수 있는 딴무와 인터랙티브 기능을 살펴본 후에 본격적으로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OPIK 시험대비를 콘텐츠의 주제로 삼아 읽기 시험에서 25~27번 '주어진 신문 기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 유형을 콘텐츠의 내용으로 다루었다. 콘텐츠는 대체적으로 '도입 및 학습 내용 제시・설명 → 연습을 위한 언어 학습 → 연습 및 답안해설 → 마무리' 대로 전개되어 있지만 인터랙티브 기능을 설계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콘텐츠를 구성하는 주도권을 넘기므로 학습자가 직접 선택한 바에 따라 동영상이 이어지며 학습자만의 콘텐츠가 형성된다. 개발된 콘텐츠를 비리비리에서 공개한 후에 이용자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이용자들이 모두 콘텐츠의 구성 및 내용, 또한 상호작용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제공한 피드백을 통해 본 연구의 콘텐츠가 한국어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검증되었으나 언어 학습 관련 내용 심화, 구성 보완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수정 의견도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학술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 또한 중국인 학습자에게 적절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선정하여 이들의 요구를 고려한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해 보았다는 점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TOPIK 시험대비와 관련된 내용에만 한정되었고 언어지식이나 언어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더 많은 이용자 피드백을 수집하지 못했다는 등의 한계가 있다. 물론 본 연구가 학습자와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동영상을 활용해 봄으로써 하나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으나 학습자에게 콘텐츠 구성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에 있어 미디어 콘텐츠의 상호작용성 강화에 초점을 둘 이론적 논의와 다양한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인터넷 자료

嗶哩嗶哩2020年第2季度業績報告 https://ir.bilibili.com/static-files/29a668fc-77e7-4e02-83b0-58e1dc3134a8

[韓語TOPIK中高級] 5分鐘拿下閱讀的<新聞標題類> https://www.bilibili.com/video/BV1Hz4y197kU

2. 논문

김승환, 「인터랙티브 영상콘텐츠 생성을 위한 시청자의 몰입감정상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형준, 「뉴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혜정, 「SNS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 사례 연구」, 『화법연구』 제34호 한국화법학회. 2016, pp.139-172.

남신혜, 「소셜미디어 해시태그로 본 'Learning Korean' -인스타그램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31집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0, pp.1-20.

리앙, 「중국 시나 웨이보(新浪微博)의 한국어교육 콘텐츠 분석」,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박유진, 「한국어교육에서 모바일 앱과 소셜 미디어의 역할 및 활용 사례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서영애, 「폐쇄형 SNS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교육방안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제7집,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7, pp.101-134.

손예희・김지연, 「소셜 미디어의 소통 구조에 대한 국어교육적 고찰 -트위터, 미투데이 등의 마이크로 블로그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33호, 한국어교육학회, 2010, pp.207-231

안재린・심윤진, 「한국어 교육에서의 인스타그램 활용 가능성 탐색 -미국 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29집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8, pp.65-92.

이현정, 「인터랙티브 미디어에 적용되는 인터랙션 의미의 범주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집 8호, 2015, pp.170-178.

조가흔, 「중국 젊은 층의 탄막(彈幕) 이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용과 충족 이론과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의 결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조일남, 「한국어 교육시 활용 가능한 콘텐츠 분석」, 중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최승연・박재원, 「몰입형 VR 기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언어 학습용 콘텐츠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토로타이핑」,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7집 9호,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pp.589-598.

李興衡,「使用与滿足理論視角下彈幕視頻研究」,『傳媒』第7期, 2016, pp.70-72.
喻昕・許正良,「网絡直播平台中彈幕用戶信息參与行爲研究－基于沉浸理論的視角」,『情報科學』第10期, 2017, pp.147-151.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4월 09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25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6월 10일

Abstract

Development of Korean Learning Content for Chinese Learners Using Social Media
—Focus on improving content interactivity

Yi, Jing

Previous research has found that Korean learning content on social media is more convenient but less interactive compared to the offline classroom. In this study, we will present a sample for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Korean learning content on social media. For this research, a Chinese social media platform(Bilibili) has been analyzed to determine its adaptability for creating interactive Korean language learning content. Two features of the platform have been identified as advantages. First one is the bullet screen(彈幕) system provided by the platform that creates a new mode of user communication. The second one is the interactive video(互動視頻) service that had potential to improve the interaction between users and the content. To benefit from these features and to cater to the needs of users an interactive video with the theme of TOPIK exam preparation has been designed. In this video, users could create their unique content and also communicate with other users through the bullet screen system. Users′ feedback upon the participation has revealed their positive response to both the educational and interactive side of the content.

Keyword Social Media, Korean Learning Content, Chinese Learners, Interaction, TOPIK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1.259

자극 유형에 따른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어두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 연구

장봉춘* · 주문현** · 뢰정** · 송수화** · 주롱***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에 의해 산출된 한국어 어두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출실험을 실행하였으며 실험 환경은 두 가지로 하였다. 하나는 주어진 자료를 보고 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실험 자극을 듣고 따라 읽는 것이다. 나아가 두 실험에서 산출된 어두 파열음이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VOT와 후행 모음의 F0를 통해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고읽기 실험에서 산출된 VOT는 평음–경음–격음의 삼중 대립을 잘 나타내고, 후행 모음의 F0도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을 잘 보였다. 그러나 따라 읽기 실험에서 산출된 VOT와 후행 모음 F0는 평음과 격음 사이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 평음의 지각적 특성이 한국어 산출에 오류를 유발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조음 방법을 중심으로 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주제어 어두 파열음, VOT, F0,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 음향적 특성

〈목차〉

1. 서론
2. 실험 방법 및 내용
3. 실험 결과 및 논의
4. 결론

* 주저자 시안외사학원(중국) 조선(한국)어학과 조교수
** 공동저자 시안외사학원(중국) 조선(한국)어학과 조교수
*** 공동저자 한국학중앙원구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에 의해 산출된 한국어 어두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이 시각정보와 지각정보의 자극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한국어 파열음은 여러 음향신호로 구분되며 평음–경음–격음의 삼중 대립을 이룬다. 삼중 대립에 작용하는 음향신호로 성대 진동 시작 시간(Voice Onset Time: VOT)과 후행 모음의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F0)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고, 후행 모음의 강도(Intensity), 지속시간(Duration), H1-H2, H1-F2 등도 제기되었다. 파열음의 VOT값은 초기의 연구들에서 경음<평음<격음의 순으로 실현된다고 보고되었지만(Han & Weitzman 1970), 최근에는 평음과 격음 사이에 VOT의 차이가 선명하지 않다는 논의가 주를 이룬다(장우혁·김길동 2009, 장혜진 2012, 김주희 2015, 박정은 2016). 파열음의 후행 모음 F0는 '평음<경음<격음'의 순으로 실현되고(Han & Weitzman 1970, 정윤자 2010, 장혜진, 김주희 2015, 박정은 2016), 후행 모음의 지속시간은 '격음<평음<경음'의 순으로 나타난다(배재연 외 1999). 후행 모음의 강도는 평음이 경음과 격음보다 약하며(Han & Weitzman 1970, 박한상 2003), H1-H2, H1-F2는 경음이 가장 작게 실현된다(Cho *et al* 2002, Ahn 2000, 박한상 2010).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 연구는 주로 VOT와 후행 모음 F0에 대한 관찰로 이루어졌다. 장우혁·김길동(2009), 레이레이·김영주(2011)의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파열음 VOT값이 평음, 경음, 격음을 구분해주지만, VOT값이 크게 나타나며 특히 격음의 VOT값이 한국인의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으로, 박정은(2016)은 중국인 학습자가 산출한 평음과 격음의 VOT값이 한국인의 것과 통계적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F0와 관련하여 레이레이·김영주(2011), 박정은(2016)은 평음, 경음, 격음의 F0가 비슷한 값으로 산출하여 한국인의 것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장우혁·김길동(2009)은 중국인 학습자에 의해 산출된 후행 모음 F0값이 평음에서 가장 높고 경음과 격음에서는 평음보다 낮게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중국인 학습자에 의해 산출된 파열음의 VOT는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을 이루지만 세부적으로 VOT값이 한국인에 의해 산출된 VOT값과 차이를 보이며, F0의 실현은 한국인의 것과 다른 양상으로 실현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에 이어 VOT와 후행 모음 F0를 대상으로 피험자 대상과 자극 유형을 달리하여 중국인 학습자에 의해 산출된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을 관찰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피험자를 중국 내 한국어 전공 대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한국 내 중국어 학습자를 피험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들은 학교 교육 외의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어를 많이 접하게 되어 한국어의 발음이 한국어 지각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는 언어환경이 제한되어 발음 교육, 교재 음성자료에 더 많이 의존하여 발음을 습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험자를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로 선정하여 언어환경의 차이가 한국어 발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와 비교할 수 있다.

둘째, 실험 방법은 '보고읽기'와 '따라읽기' 두 가지로 하였다. 즉, 파열음의 산출에 작용하는 자극의 유형을 시각 자극과 지각 자극으로 나누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모두 시각자료에 의해 산출된 발음을 대상으로 음향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지각적 특성이 파열음 산출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지각정보를 듣고 이를 따라 읽게 하는 방법을 추가하였다. McGurk & MacDonald(1976)의 실험에 의하면 피험자에게 지각정보에 이와 상충하는 시각정보를 함께 제시하였을 때, 음성 지각은 시각정보의 간섭을 받아 지각정보와 다른 소리로 지각될 수 있다. 이는 시각정보가 음성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된 소리가 자극의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산출실험에서 자극 유형을 시각 자극과 지각 자극으로 달리하였을 때, 산출된 음향신호가 자극 유형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다. 林韶蓉(2009)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각 자극과 지각 자극에 따른 영어 발음의 정확도를 관찰하였는데, 지각 자극에 의해 산출된 발음의 정확도가 더 높았다. 시각자료에 의해 산출된 발음은 화자가 장악하

고 있는 발음 방법 및 발음의 음향적 및 지각적 특성 등 자신의 발음 관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산출한 발음이다. 반면, 지각 자극에 따라 산출된 발음은 자신의 발음 관련 경험과 함께 한국어의 지각적 특성이 직접 관여되어 산출된 발음이다. 산출된 발음의 음향적 특성을 자극 유형을 달리하여 관찰함으로써 발음 관련 경험과 파열음의 지각적 특성 중 어느 것이 정확한 발음의 산출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할 수 있고, 나아가 적합한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데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VOT값의 점진적인 변화가 평음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가?

둘째, 시각 자극에 의해 산출된 파열음이 발성 유형에 따라 VOT와 F0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지각 자극에 의해 산출된 파열음이 발성 유형에 따라 VOT와 F0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가?

넷째, 발성 유형에 따른 파열음의 VOT와 F0의 평균값이 자극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실험 방법 및 내용

1) 피험자 및 실험자료

본 실험에는 총 30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다. 피험자는 시안외사학원 학국어학과의 2학년 재학생들이며 여학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한국어 학습시간은 모두 3학기이며 3개의 반급에서 선정되었지만, 교과과목, 교재, 담당 교사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발음의 반급별 차이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은 보고읽기와 따라읽기 실험으로 나누었는데, 보고읽기는 '가, 까, 카, 다, 따, 타, 바, 빠, 파' 음절을 순서대로 읽게 하였다. 한 음절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총 5번 반복하게 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산출 음성은 다섯 개 발음 중 가운데 세 발음의 음향정보를 평균하여 그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읽기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지각실험도 함께 진행하였다. 지각실험의 음

성 자극은 합성음성이 아닌 자연음성을 선정하였다. 파열음의 지각 단서를 찾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평음 음절이나 격음 음절을 기준으로 VOT값이나 F0값을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실험 자극을 만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Kim *et al.*(2002)에 의하면 평음의 모음에 어떤 발성 유형의 자음이 연결되더라도 평음으로 지각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경음이나 격음의 모음에 평음의 자음이 연결되어도 평음으로 지각하지 않으며, 경음이 연결되면 경음으로, 격음이 연결되면 격음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장혜진 2012 재인용). 이와 같은 후행 모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느 한 유형의 음절을 기준으로 실험 자극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음성자료에서 VOT의 분포를 고려하여 실험 자극을 선정하였으며, 이로 VOT값의 점진적인 변화에 따른 파열음의 지각 반응과 음성 산출을 관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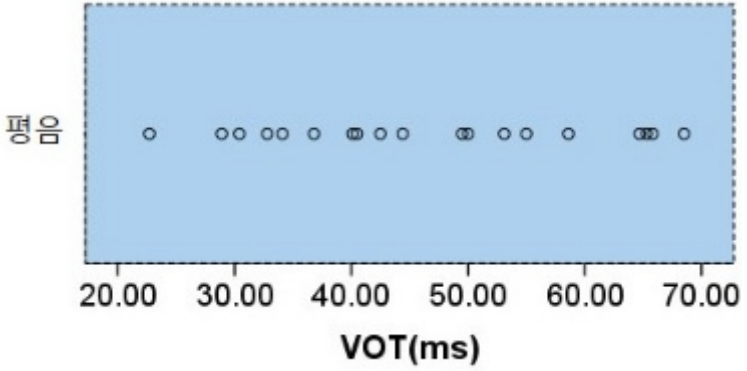
지각실험의 지각 자극은 아래의 한국어교재 음성파일에서 선정하였다.

<표 1> 실험 자극 선정 교재

〔1〕	《McGill Korean 1》	김명희	Hawoo Publishing	2017
〔2〕	《국민한국어1》	국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국민대학교출판부	2014
〔3〕	《基础韓國語1》	金永壽, 張英美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13
〔4〕	《跟首爾大學名師學韓國語語音》	韓國首爾大學語言教育院	外語教學与研究出版社	2011
〔5〕	《首爾大學韓國語1》	韓國首爾大學語言教育院	外語教學与研究出版社	2017
〔6〕	《韓國語1》	李先漢,金京善,王丹等	民族出版社	2008
〔7〕	《성균한국어1(어휘·문법)》	이수미 외	하우	2018
〔8〕	《세종한국어1(증보판)》	편집부	국립국어원	2019
〔9〕	《선문한국어초급1》	라혜민 외	소통	2016
〔10〕	《美麗的韓國語初級1》	韓國語教育開發研究院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16
〔11〕	《한양한국어1》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하우	2018
〔12〕	《아자아자 한국어1》	허용	한글파크	2012

지각 자극은 자음에 모음 '아'가 결합된 단음절 음성만을 선정하였다.[1] 지각 자극은 "가, 까, 카, 다, 따, 타, 바, 빠, 파, 자, 짜, 차"의 총 35개를 선정하였고, VOT의 점진적인 변화에 따른 평음의 산출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35개의 자극 중에서 평음은 모두 VOT값에 따라 선정하였다. 평음의 VOT값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실험 자극 평음의 VOT값 분포



분석에 사용되는 파열음 음절의 수와 음향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2> 분석 자료의 음향정보

		바	빠	파	다	따	타	가	까	카	전체
VOT (ms)	M	41.4	6.77	68.9	47.9	8.67	75.7	51	16.3	102	45
	SD	13.8	0.45	6.15	15.3	1.37	11.8	13.1	4.8	9.42	28.4
	Min	22.7	6.3	64.6	28.9	7.2	67.4	32.8	11.6	93.1	6.3
	Max	65.3	7.2	73.3	68.5	9.9	84.1	65.8	21.2	111	111
F0 (Hz)	M	134	211	316	150	198	219	145	197	254	182

1)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짧은 문장의 어두 첫음절에 실험자료를 배치하거나 단어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산출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단어에 대한 인지가 음절 및 음소의 인지에 간섭을 고려하고, 음절이 연결될 때의 피치패턴의 변동이 기타 음향신호에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여 단음절을 실험자료로 선정하였다.

	SD	35.1	62.1	28.9	52	64.5	91.2	53.1	63.5	87.1	71.1
	Min	113	142	296	111	124	155	101	127	154	101
	Max	211	262	337	227	243	284	213	251	310	337
	N	7	3	2	6	3	2	6	3	3	35

평음의 지각과 산출이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실험 자극은 평음을 가장 많이 선정하였다. F0값은 모음의 앞부분에서 최대치를 측정하였다. 지각실험 시 35개의 자극은 약 4000ms의 간격으로 무작위로 배열하여 파일을 만들었고, 자극은 반복이 없이 한 번만 재생하였다. 산출실험에서 한 음절은 3번 반복하게 하였고, 분석에 사용되는 산출 음성은 마지막 두 발음의 평균값을 선정하였다.

2) 실험 절차 및 분석

실험은 조용한 교실에서 진행하였고, 보고읽기 실험을 먼저 진행하였다. 이 실험이 끝난 후 5 분 동안의 휴식시간을 주고 따라읽기 실험을 진행하였다. 보고읽기 실험은 Tascom DR-100Ⅱ 녹음기와 AKG C420 헤드셋 마이크를 사용하였고, 산출 음성은 표본추출률 48000Hz, 양자화 16bit 로 저장하였다. 따라읽기 실험에서 지각실험은 지각 자극을 핸드폰에 저장하여 음량을 70%로 고정하여 Beats Powerbeats3 이어폰으로 들려주고 따라읽게 하였다. 녹음된 음성은 먼저 Sony SoundForge 9.0 을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되는 음성을 추출하고, Praat 6.0.22 에서 TextGrid 를 이용하여 각 분절음의 구간을 설정하였다. 분절음의 구간은 파형의 영교차점을 찾아 설정하였고, Praat 스크립트로 음향정보를 자동측정하였다.

연구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3 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VOT 값의 점진적인 변화가 지각과 산출에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발성 유형에 따른 VOT 와 F0 의 평균값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발성 유형(평음, 경음, 격음)으로 하고 종속변수를 VOT 값과 F0 값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보고읽기와 따라읽기에

따라 VOT 값과 F0 값이 차이가 있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산출 유형(보고읽기, 따라읽기), 발성 유형으로 하고 종속변수를 각각 VOT 값과 F0 값으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나아가 산출 유형과 발성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검증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논의

1) 실험 결과

(1) VOT값의 변화에 따른 평음의 산출

보고읽기 실험을 위한 평음의 지각 자극은 총 19개이며, 자극의 VOT 최솟값은 22ms, 최댓값은 68.5ms, 평균값은 46.5ms이다. 지각 자극의 VOT값 변화가 평음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기 위해 평음의 지각 자극은 VOT값의 변화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VOT값의 변화와 산출의 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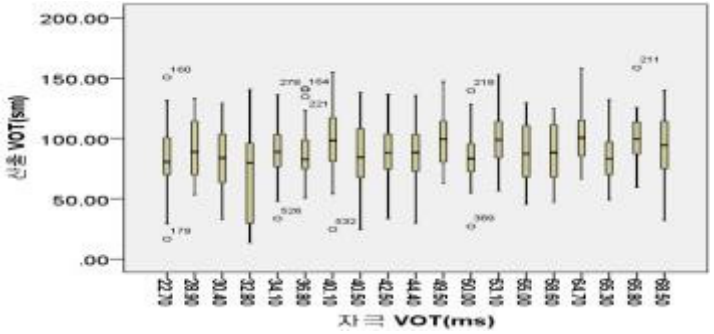
<표 3> 자극과 산출의 상관관계 분석

		자극	산출
자극	Pearson 상관	1	.130**
	유의확률 (양측)		.002
	N	570	570
산출	Pearson 상관	.130**	1
	유의확률 (양측)	.002	
	N	570	570

**p<0.01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극의 VOT값은 산출의 VOT값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상관 계수값(r)은 0.13으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130, p<.01). 자극과 산출의 VOT값 분포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자극과 산출의 VOT값 분포



그림을 볼 때, 자극의 VOT값이 길든 짧든 산출된 발음의 VOT값은 모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실현된다. 이는 20에서 70ms의 범위 안에서 VOT값의 변화가 파열음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보고읽기의 발성 유형에 따른 VOT, F0

보고읽기에 의해 산출된 파열음이 발성 유형에 따라 VOT와 F0의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성 유형에 따라 VOT(F=240.18, p<.001), F0(F=6.934, p<.01) 모두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VOT와 F0에 대해 Scheffe's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VOT 평균값은 경음<평음<격음의 순서로 나타났고, F0 평균값은 평음<경음=격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보고읽기의 파열 유형에 따른 VOT값, F0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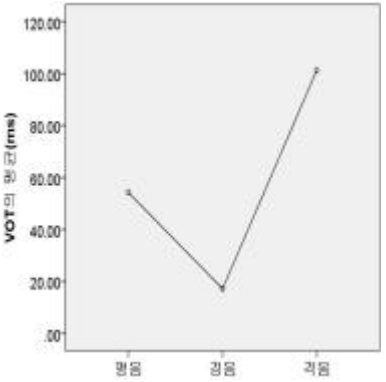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VOT	평음(a)	90	54.28	33.35	240.18***	0.000	b<a<c
	경음(b)	90	17.21	8.72			
	격음(c)	90	101.28	28.40			
F0	평음(a)	90	236.69	27.35	6.934**	0.001	a<b, c
	경음(b)	90	250.00	31.67			

격음(c)	90	250.67	2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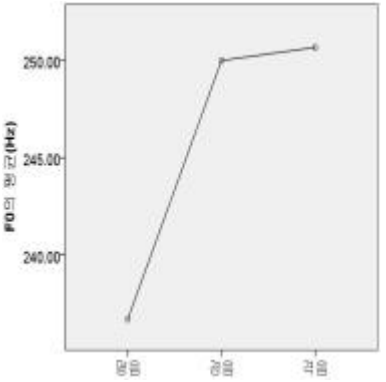
**p<.01, ***p<0.001

통계 결과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발성 유형과 VOT값



<그림 4> 발성 유형과 F0값



그림을 볼 때, VOT 평균값의 분포는 삼중 대립이 선명하여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한국인의 VOT 분포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평음의 VOT평균값은 60ms 미만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한국 내 중국인의 VOT값보다 작게 실현되었다.

F0 평균값은 평음과 기타 파열음 사이에서 선명하게 구분되어 한국인의 파열음 F0 분포와 유사하게 실현되었고,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중국인 학습자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즉, 본 연구의 피험자에 의해 산출된 VOT값, F0값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인과 중국인 학습자의 VOT값, F0값과 모두 차이를 보인다. VOT값에 의해 평음, 경음, 격음이 구분되고, F0에 의해서도 평음과 기타 파열음이 구분되는데, 이러한 발음은 VOT값이 한국인의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삼중 대립이 더 선명한 발음으로 지각된다.

(3) 따라읽기의 발성 유형에 따른 VOT, F0

따라읽기에 의해 산출된 파열음이 발성 유형에 따라 VOT와 F0의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성 유형에 따라 VOT값(F=1020.311, p<.001)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였고, F0값(F=1.283, p>.05)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VOT값에 대해 Scheffe's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VOT 평균값은 경음<평음<격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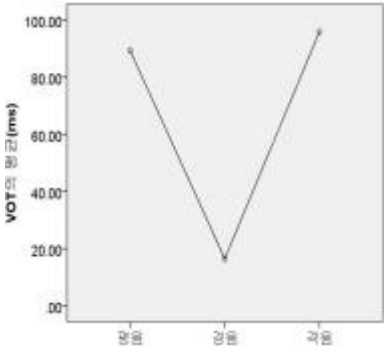
<표 5> 따라읽기의 발성 유형에 따른 VOT, F0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VOT	평음(a)	570	89.29	26.99	1020.311***	0.000	b〈a〈c
	경음(b)	270	16.49	7.05			
	격음(c)	210	95.86	26.58			
F0	평음(a)	570	249.54	24.41	1.283	0.278	a=b=c
	경음(b)	270	251.77	26.75			
	격음(c)	210	252.18	2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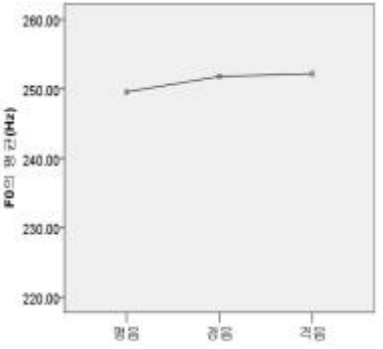
***p<0.001

통계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발성 유형과 VOT값



<그림 6> 발성 유형과 F0값



따라읽기에 의해 산출된 VOT 평균값은 보고읽기에서와 같이 경음<평음<격

음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평음의 VOT 평균값이 보고읽기에서보다 훨씬 길어져 격음에 가깝게 실현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읽기에 의해 산출된 VOT 평균값은 한국인의 VOT 평균값과 같이 평음과 격음 사이에서 차이가 선명하지 않은 한편 한국 내 중국인 학습자의 VOT 평균값과 같이 크게 실현되어 한국인의 발음과 한국 내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모두와 공통점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 평음의 지각적 특성이 격음과 구분하기 어려워 발음 시에는 같은 범주의 VOT값으로 발음하며 격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고읽기에서 평음과 기타 파열음 사이에서 선명한 차이를 보이던 F0 평균값은 따라읽기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지각 자극의 F0값은 파열음의 지각 단서로 작용하지 못하여 산출된 음성에서도 F0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4) 자극 유형과 발성 유형에 따른 VOT와 F0

먼저 자극 유형과 발성 유형에 따라 VOT 평균값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관찰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극 유형(F=33.373, p<.001)과 발성 유형(F=799.941, p<.001)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극 유형과 발성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1.987, p<.001).

<표 6> 발성 유형과 자극 유형에 따른 VOT값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자극 유형	19131.882	1	19131.882	33.373***	.000
발성 유형	917168.738	2	458584.369	799.941***	.000
자극 유형* 발성 유형	71070.943	2	35535.471	61.987***	.000
오차	753280.075	1314	573.273		

***p<0.001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의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VOT의 차이는 평음에서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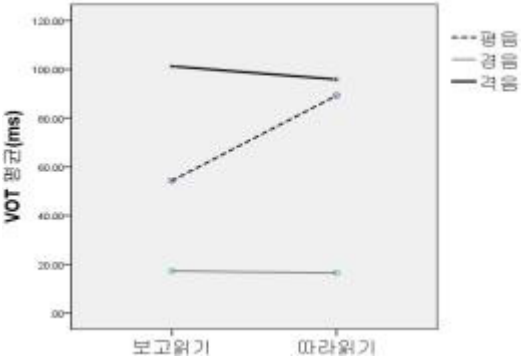
<표 7> 발성 유형과 자극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발성 유형	자극 유형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평음	시각 자극	90	54.278a	2.524
	지각 자극	570	89.289b	1.003
경음	시각 자극	90	17.215 a	2.524
	지각 자극	270	16.485 a	1.457
격음	시각 자극	90	101.278a	2.524
	지각 자극	210	95.862a	1.652

Bonferroni: a<b

통계 결과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자극 유형에 따른 VOT값



위의 통계 결과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보고읽기에서 VOT값은 삼중 대립이 관찰되지만, 따라읽기에서는 평음과 격음의 대립이 관찰되지 않는다. 즉, 화자의 발음 관련 경험에 따라 산출된 발음은 기식의 차이를 고려한 발음이며 발음 교육에서의 교육 내용과 일치한 발음이다. 반면, 지각 자극에 의해 산출된 발음에서는 지각 자극의 VOT값이 길든 짧든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모두 격음의 것으로 지각되어 평음 VOT값을 격음의 것으로 산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발성 유형과 산출 유형에 따라 F0 평균값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관찰하

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극 유형(F=9.365, p<.01)과 발성 유형(F=9.867, p<.0001)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극 유형과 발성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795, p<.01).

<표 8> 발성 유형과 자극 유형에 따른 F0값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자극 유형	5975.987	1	5975.987	9.365**	.002
발성 유형	12593.31	2	6296.655	9.867***	.000
자극 유형* 발성 유형	6119.214	2	3059.607	4.795**	.008
오차	838525.733	1314	638.147		

**p<0.01, ***p<0.001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의 다중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F0도 평음에서만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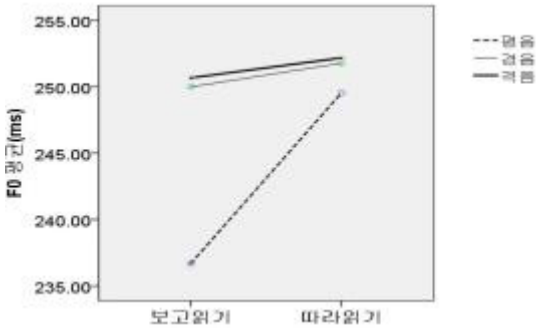
<표 9> 발성 유형과 자극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발성 유형	자극 유형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평음	시각 자극	90	236.69 a	2.663
	지각 자극	570	249.544b	1.058
경음	시각 자극	90	250a	2.663
	지각 자극	270	251.774a	1.537
격음	시각 자극	90	250.67a	2.663
	지각 자극	210	252.176a	1.743

Bonferroni: a<b

통계 결과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자극 유형에 따른 F0값



보고읽기와 따라읽기의 F0값을 비교해 보면 격음과 경음은 F0 평균값의 차이가 없고 평음에서만 차이가 확인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보고읽기에서 산출된 평음의 F0값이 기타 파열음의 것보다 낮게 실현되어 F0로 평음과 기타 파열음을 구분할 수 있지만, 따라읽기에서 산출된 발음은 평음의 F0값이 경음과 격음의 F0값에 가깝게 실현되어 서로 간에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보고읽기에서의 F0값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한국인의 F0값 분포와 유사하고, 따라읽기의 F0값은 한국 내 중국인 학습자의 F0값 분포와 유사하다.

2) 논의

이상으로 본 연구는 자극 유형과 발성 유형에 따라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의 VOT값과 F0값의 실현 양상을 관찰하였다. 전반적으로 자극 유형과 학습 환경에 따라 VOT값과 F0값의 실현은 모두 차이를 보였다. 시각 자극에 의해 산출된 VOT값은 평음, 경음, 격음 사이에서 선명한 차이가 관찰되어 VOT값에 의해 세 파열음이 구분됨을 관찰하였고, F0값에 의해서도 평음과 기타 파열음이 구분됨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지각 자극에 의해 산출된 평음의 VOT값과 F0값은 시각 자극에 의해 산출된 값보다 크게 나타나 VOT값으로 평음과 격음을 구분할 수 없었고, F0값으로 세 파열음을 모두 구분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를 선행연구의 한국 내 중국인 학습자의 파열음 발음과

비교해 보면,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의 시각 자극에 의한 발음이 전반적으로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을 더 잘 보여 주고, 한국인의 발음에도 더 가깝다. 반면, 지각 자극에 의해 산출된 발음은 평음의 VOT값이 크게 실현되고, 세 파열음의 F0값이 비슷하게 실현되어 한국 내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과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한국어의 지각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환경에서 중국인의 파열음 발음은 한국인의 발음과 차이를 더 많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더 많이 접촉하는 한국 내 중국인 학습자는 시각 자극에 따라 발음할 때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보다 VOT값이 크게 실현되고 F0값의 차이가 선명하지 않아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의 지각 자극에 의해 산출된 발음과 비슷한 양상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언어환경이 제한된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가 시각 자극에 의해 발음할 때 파열음의 기식 구간은 파열음 발음의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에 접근하며 F0값도 한국인의 것과 유사하게 실현된다. 반면, 지각 자극에 따른 발음에서는 평음 지각의 어려움이 산출된 발음에 직접 반영되어 평음과 경음의 VOT값에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정확한 지각 능력이 정확한 발음을 도출한다는 Flege(1995)의 음성습득모델(Speech Lerning Model)의 기본 원리에 따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각 훈련을 통한 지각 능력의 향상으로 발음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 자신의 발음 경험으로도 한국어의 파열음을 보다 정확하고 선명한 차이로 발음할 수 있다. 한국어 평음의 지각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학습 기간에 따라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지각 관련 연구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다. 그렇다면 발음의 오류를 유발하는 평음의 지각적 특성을 회피하여[2] 학습자의 발음 경험이 세 파열음의 대립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을 발음 교육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면 정확한 발음을 산출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

2) 이를테면 평음의 음성기호나 유성음화의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두 폐쇄음을 격음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발음 교육 내용에서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4. 결론

본 연구는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각 자극과 지각 자극에 따라 산출된 한국어 어두 파열음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관찰하였다. 지각 자극의 VOT값이 20에서 70ms의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여도 산출된 발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모두 격음에 가까운 발음으로 인식한다. 시각 자극에 의한 발음은 파열음의 삼중 대립이 잘 나타나고 있지만, 지각 자극에 의해 산출된 발음에서는 평음과 격음의 VOT값이 차이가 없고, 세 파열음의 F0값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지각적 특성이 직접 개입될 경우 산출된 발음은 파열음의 삼중 대립을 유지하지 못 한다. 그러나 학습자 자신의 발음 경험에 따라 발음할 경우 발음의 정확도가 더 높으며 파열음의 삼중 대립이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습자의 발음 관련 경험이 발음의 오류를 유발하는 지각적 특성을 배제하면서 파열음의 삼중 대립을 잘 드러내는 발음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발음에 활용한다면 정확한 발음을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레이레이·김영주.「중국인 화자가 발화한 한국어 파찰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성」.『음성·음운·형태론 연구』16(3), 한국음운론학회, 2010, pp.383-400.

박정은,『중국인과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두파열음 산출에서 나타나는 음향적 특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배재연·신지영 · 고도흥, 「음성 환경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의 음향적 특성: 시간적 특성을 중심으로」,『음성과학』5(2), 대한음성학회, 1999, pp.139-159.

장우혁·김길동,「중국어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언어연구』26-3,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09, pp.91-109

장혜진,『국어 어두 장애음의 음향적 특성과 지각 단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Ahn, Hyunkee. “The H1*-H2* Measure”. *Speech Sciences* 7(2), 2000, pp.85-95.

Cho, Taehong and Peter Ladefoged. “Variation and universal in VOT: evidence from 18 languages.” *Journal of Phonetics* 27, 1999, pp.207-229.

Cho, Taehong, Sun-Ah Jun and Peter Ladefoged. “Acoustic and aerodynamic correlates of Korean stops and fricatives.” *Journal of Phonetics* 30, 2002,

pp.193-228.

Choi, Hansook. “Acoustic Cues for the Korean Stop Contrast - Dialectal Variation”. *Zas Papers in Linguistics* 28, 2002, pp.1-12.

Flege, J. “Two methods for training a novel second-language phonetic contrast”, *Applied Psycholinguistics* 16, 1995, pp.425-442.

Han, M-S. and R. S. “Weitzman. Acoustic features of Korean /P, T, K/, /p, t, k/, and /p^h, t^h, k^h/.” *Phonetica* 22(2), 1970, pp.112-128.

Kang, Kyoung-Ho and Susan G. Guion. “Clear speech production of Korean stops: changing phonetic targets and 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24(6), 2008, pp.3909-3917.

Kim Mi-Dam. “Correlation between VOT and F0 in the Perception of Korean Stops and Affricat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speech -icslp. DBLP, 2004.

Kim, Chin-W. “On the Autonomy of the Tensity Feature in Stop Classifi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Stops).” *WORD* 21(3), 2015, pp.339-359.

Kong, Eun Jong. “The development of phonation-type contrasts in plosives: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hio State, 2009.

Lee, Kyung-hee and Jung Myung-sook. “Acoustic characteristics and perceptual cues for Korean Stops.” *Speech Sciences* 7(2), 2000, pp.139-155.

Lisker Leigh and Arthur S. Abramson. “A Cross-Language Study of Voicing in Initial Stops: Acoustical Measurements.” *WORD* 20(3), 1964, pp.384-422.

McGurk H, MacDonald J. “Hearing lips and seeing voices.” *Nature* 264, 1976, pp.746 - 748.

Silva, David J. “Acoustic evidence for the emergence of tonal contrast in contemporary Korean.” *Phonology* 23(2), 2006a, pp.287-308.

Silva. David J. “Variation in voice onset time for Korean stops.” *Korean Linguistics* 13, 2006b, pp.1-16.

林韶蓉. “語言經驗与朗讀:影響英語語音學習的因素.” 外國語文(四川外語學院學報) 25(6), 2009, pp.127-136.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5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20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6월 10일

Abstract

Acoustic Analysis on Korean Word-initial Stops Pronounced by Korean Learners in China

Zhang Fengchun, Zhou Wenxian, Lei Ting, Song Shuaihua, Zhu L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word-initial stops produced by students majoring in Korean in China. To address the goal, pronunciation assessments were performed, and the assessments consisted of two parts. One was to look at and read the material given, and the other was to listen to and repeat the experiment stimulation given. Moreover, how the word-initial stops produced at the two experiments differed was observed with the VOT and following vowel F0.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are as follows. The VOT produced at the experiment of looking at and reading the material given, the three-way (lenis-fortis-aspirated) phoneme distinction was well observed, and the following vowel F0, too, revealed lenis-fortis/aspirated phoneme distinction well. In the VOT produced at the experiment of listening and repeating, difference between the lenis and aspirated phonemes was not observed. This implies that the auditory perceptual features of Korean word-initial lenis phonemes do not influence Korean pronunciation negatively, and also, it stresses the importance of pronunciation education focused on the manner of articulation.

Keyword Word-initial Stops, VOT, F0, Korean Learners in China, Acoustic Characteristics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1.279

근대 중국과 한국에서의 '격치(格致)' 개념 형성과 변화 과정

허 재 영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근대 학문 형성 과정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격치'라는 용어의 개념 형성과 변용 과정을 기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했다. '격치'는 『대학』의 수장(首章)에 등장하는 '격물치지'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사용되었다. 특히 경험적·실증적 연구 방법을 중시하는 근대 학문이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격치의 개념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의 경우 서구의 학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전교 목적으로 중국에 파견된 서양 선교사들도 이와 같은 경향을 고려하여 학술어 번역에서도 전통적인 용어를 상황에 맞게 변용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서 중국의 격치 개념 변용은 한국 근대 학문 형성 과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며, 경험과 실증을 대상으로 한 '격치'와 사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분야를 일컫던 '격물' 개념이 점차 '신구학 대립' 담론에서 '서구 학문'이나 '신학(新學)'을 뜻하는 용어로 변용되다가, '과학'과 '철학' 등의 학술어로 대체되어 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 근대 중국에서의 '격치'는 마테오리치 이후 경험적으로 고증하여 얻은 일정한 지식 또는 연구 방법을 뜻하는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에 비해 '격물'은 물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방법이나 분야를 뜻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둘째, 한국의 근대에서도 격치의 개념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 습득의 방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최한기는 격치 개념을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측으로 사용했다. 또한 개항 이후 서구 학문이 도입되면서 '격치' 개념은 경험적, 실증적 연구 방법을 뜻하는 '과학'과 비슷한 의미를 획득하였으며, 연구 대상을 중시하는 '격물학'이 분과 학문 명칭처럼 사용된 예도 나타났다. 이 용어는 경험과 실증을 중시하는 '과학' 또는 만물의 이치를 대상으로 하는 '철학'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면서 점차 학술어로서의 용법이 약화되기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격치, 격물, 개념, 변용, 경험적·실증적 연구 방법, 과학, 철학

---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 전공 교수

〈목차〉

1. 서론
2. 근대 중국에서의 격치와 격물
3. 근대 한국에서의 격치 개념과 변용
4. 결론

1. 서론

1876년 중국 상해에서 처음 발행된『격치휘편(格致彙編)』제1권 서문에서는 격물의 학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초급 공부이며, 사물의 이치를 알아 궁극에 도달하는 것을 극진히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서양의 격치학을 소개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격치휘편』은 존 프라이어(중국명 傅蘭雅)가 중심이 되어 중국문으로 발행한 대표적인 신문의 하나이다. 근대 중국에서 서양 학문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아편전쟁 직후 1850년대 실용지식전파회의 성립과 1868년 상해 강남 제조총국 번역관 설립 이후로 볼 수 있다. 번역관에서는 다수의 서양서를 중국어로 번역・출간했는데, 존 프라이어도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중요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다.『격치휘편』은 상해 격치서원(格致書院)에서 전교 중심의『중서견문록(中西見聞錄)』을 이어받아 발행한 월간 신문이다. 서문을 쓴 서수(徐壽)에 따르면 존 프라이어가 서양 서적과 최근의 신문에서 격치학과 관계된 것을 조사하여 발췌 번역하고 '휘편'이라고 이름하여 사람들의 규문을 넓히고 지혜를 밝게 하고자 편집하였다고 하였다. 이 신문에서는 영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격치학 300관(款)을 역출(譯出)하여 연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연과학의 초급 지식과 관련된 것들이 다수를 이룬다.

'격치'는 본래『대학』의 8조목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자(朱子)가『대학장구』에서 '격물치지보망장(格物致知補亡章)'이라고 하여,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마음을 밝히는 일(卽物窮理)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 점에서 주자의 격치와 근대의 격치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개념상의 차이가 생겨나며, 근대 학문이 체

계화되는 과정에서 '격치학' 또는 '격물학'이라는 용어의 쓰임에도 혼란스러운 면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격치학'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883년 언해된 정관응(鄭觀應)의 『이언(易言)』으로 보인다. 이 책은 이광린(1960)에서 밝힌 바와 같이 1880년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黃遵憲)으로부터 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권2 '논고시(論考試)', '부론양학(附論洋學)'에서는 '격치지학(格致之學)'이라는 용어가 수시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책에 등장하는 '격치지학'이 분과 학문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하는 방법을 지칭하는 것인지 뚜렷하지 않다.

이 연구는 근대 학술어 '격치'의 개념화 과정과 변화 양상을 자료 중심으로 기술하고, 학술어 변화 과정에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와 관련하여 한성구(2006)의 「중국 근대 "격치학(格致學)"의 변천과 중서 격치학(格致學) 비교」에서는 명청(明淸) 이래 격치학의 변천을 비롯하여 실학 정신과 실측지학(實測之學)으로서의 격치 개념, 격치서원과 『격치휘편』의 격치학 개념을 정리・해석하였다. 또한 한성구(2006)의 「중국 근현대 "과학(科學)"에 대한 인식과 사상 변화」에서는 '격치', '격물(格物)'의 개념이 순수 물리학적 이론이나 자연과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포괄적 성격을 띤 용어라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와 함께 이행훈(2009)의 「학문(學問) 개념의 근대적 변환 - '격치(格致)', '궁리(窮理)' 개념을 중심으로」, 구희진(2010)의 「한말 근대개혁의 추진과 '격물치지(格物致知)' 인식의 변화」, 김선희(2016)의 「격물궁리지학, 격치지학, 격치학 그리고 과학 -서양 과학에 대한 동아시아의 지적 도전과 곤경-」, 김재현(2016)의 「중국에서의 철학 개념의 번역과 수용」 등도 근대 '격치학'이라는 개념어 형성과 변화 과정을 탐구한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중국과 한국에서 사용한 '격치학'은 전통적인 '격물치지'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용어이다. '격물치지'는 조선 시대 성리학자뿐만 아니라 최한기와 같은 근대 실학자들도 빈번히 사용한 용어이다. 그러나 최한기의 '격물궁리'와 1880년대 이후 근대 학문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용한 '격치학' 또는 '격물학'은 개념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근대 중국 학문에서의 격치와 격물, 우리나라 근대 학문에서의 격치 개념 형성과

변용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근대의 '과학', '철학' 등이 이를 대용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근대 중국에서의 격치와 격물

1) 격치의 근대적 개념 형성

한성구(2006)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격치학은 중국 고유의 자생적 전통 격치 사상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것과 서양 근대 과학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격치학(格致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것 두 가지 변화 과정이 있다고 하였다.[1] 널리 알려진 바대로 '격치(格致)'라는 용어는 『대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주희의 '격물치지 즉물궁리'나 주진형(朱震亨)의 『격물통(格物通)』과 같은 서적에서도 이 용어가 쓰였으므로, '격치', '격물' 등이 근대 이전부터 중국 학술의 한 경향을 나타낸 것은 틀림없다. 또한 마테오리치(利瑪竇)의 '석기하원본인(釋幾何原本引)'에서 "서양의 내 나라는 비록 작으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격물 궁리(格物窮理)의 방법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도 독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물리(物理)를 탐구하는 서적도 매우 풍부하다."[2]라고 한 데서 서양 학문 방법론과 유사한 격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용어가 중국 근대 서양 학술어의 하나로 널리 쓰인 시점은 1860년대 이후로 보인다. 그 예로 1868년 상해 제조총국 번역관에서 발간한 번역 서학서를 들 수 있는데, 존 프라이어(傅蘭雅)가 저술한 『역서사략(譯書事略)』[3]에 따르면, 『격치계몽화학(格致啓蒙化學)』, 『격치계몽지리(格致啓蒙地理)』, 『격치계몽격물(格致啓蒙格物)』, 『격치계몽천문(格致啓蒙天文)』(이상 英國 駱克優, 林樂知・鄭昌棪 口譯筆述), 『격치천설(格致淺說)』(范約翰 譯), 『격치승당(格致升堂)』

1) 한성구, 「중국 근현대 "科學"에 대한 인식과 사상 변화」, 『철학과 문화』 13,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2006. p.430.

2) 한성구, 위의 논문. p.433에서 재인용.

3) 이 책은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황종원・허재영・김경남・강미정, 『한국에 영향을 미친 중국 근대 지식과 사상』, 경진출판, 2019에서 부록으로 번역・수록하였다.

(狄考文 譯),『격치측산(格致測算)』(丁韙良 譯) 등 '격치'를 수식어로 사용한 다수의 책명이 발견된다. 구역필술(口譯筆述)은 선교사가 입으로 번역한 것을 중국인이 문자로 기록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3종의 저서 모두 동일인이 구역필술을 하였다. 책명에 '격치'가 수식어로 사용된 것을 볼 때, 이 시기 '격치' 개념은 분과 학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격물치지'라는 학문 방법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격치'가 연구 방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격치휘편』제1권 서수(徐壽)의 '격치휘편서'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격치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초급 공부이며, 사물의 이치를 알아 궁극에 이르고, 지극한 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서문에서는 격치가 사람에게 이롭고 실용할 만한 것으로, '천문(天文), 지리(地理), 산수(算數), 기하(幾何), 역예(力藝), 제기(制器), 화학(化學), 지학(地學), 금광(金鑛), 무비(武備)' 등이 주종을 이루며, '예술(藝術)'은 전문 서적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4] 분야를 달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서문에 따르면 '격치'의 대상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익혀야 할 제반 학문 분야의 초급 지식에 해당한다. 이 신문에 연재된 '격치약론(格致略論)'은 서문에서 제시한 격치의 개념과 대상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약론은 '영국의 어린이가 배우는 격치 가운데 300관(款)을 선별 번역'한 것[5]으로, 권1(1876.2.)부터 권12(1877.1.)까지 연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격치약론(格致略論)의 내용]

권수	연월일	제목	번호(款)	분야
권1	1876.2.	제1장 논만물지관광(論萬物之寬廣)	1-5	만물
	1876.2.	제2장 논성(論星)	6-10	천문
	1876.2.	제3장 논태양 여 행성 혜성(論太陽與行星 彗星)	11-16	천문

4) 傅蘭雅 編輯,「格致彙編序」,『格致彙編』卷1, 格致書院, 1876. p.1. 所謂 格致之有益於人而可施諸實用者 如天文 地理 算數 幾何 力藝 制器 化學 地學 金鑛 武備 等此大宗也. 其餘藝術 尙有多端筆難盡述 若欲求其精奧 各有專書可考.

5) 傅蘭雅 編輯,「格致略論」, 위의 책. p.4. 自英國幼學格致中譯出此書共有三百款以後於每卷絡續印之.

	1876.2.	제4장 논지구위행성(論地球爲行星)	17-25	천문
	1876.2.	제5장 논태양 여 일식 월식(論太陽與日蝕月蝕)	26-29	천문
권2	1876.3.	논체질 여 섭력 동력지례(論體質與攝力動力之例)	30-49	물리
권3	1876.4.	논토질 토석 광(論土質土石礦)	50-60	지질 광물
권4	1876.5.	논토질 토석 광(속)	61-72	지질 광물
권5	1876.6.	논토질 토석 광(속)	73-83	지질 광물
권6	1876.7.	논지면지형상(論地面之形狀)	84-94	지구
	1876.7.	논열(論熱)	95-104	물리
권7	1876.8.	논설여빙 급 동빙지리(論雪與氷 及凍氷之理)	106-109	물리
	1876.8.	논광(論光)	110-116	물리
	1876.8.	논전기 여흡철기(論電氣與吸鐵氣)	117-136	물리
	1876.8.	논풍(論風)	137-138	물리
권8	1876.9.	논무운우로(論霧雲雨露)	139-145	물리
	1876.9.	논수(論水)	146-149	물리
	1876.9.	논체질지원(論體質之原)	150-170	화학
권9	1876.10.	논식물학(論植物學)	171-188	식물학
권10	1876.11.	논동물학(論動物學)	189-232	동물학
권11	1876.12.	논동물학(論動物學) (속)	233-248	동물학
권12	1877.1.	논인류성정 여 원류(論人類性情 與源流)	249-254	생리학
	1877.1.	논인지신체(論人之身體)	255-281	생리학
	1877.1.	논인지영성(論人靈性)	281-301	종교

‘약론’에 소개된 격치의 대상은 ‘천문, 지구, 물리, 지질, 광물, 화학, 식물, 동물, 생리, 종교’ 등 만물(萬物)과 관련된 초급 지식에 해당한다. 격치(格致)는 이 지식을 탐구하고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1장 ‘논만물지관광(論萬物之寬廣)’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수한 일월성신(日月星辰)과 만물이 존재하며, 사람은 향(鄕)・현(縣)・부(府)・국(國)・지구(地球) 속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지구는 둥글며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이며, 태양은 항성으로 열과 빛을 제공하는 이치를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격치가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각 행성에서 사람의 거주 유무나 동식물 등의 존재 여부를 추측하여 알고자 한다고 하였다. 특히 제1장 5관에서는 “이상 말한 바는 격치가가 이미 경험으로 고증하여 얻은 일정한 근거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격치가가 이 천리경

으로 관찰한 항성은 하나의 빛이 아니다. 이에 수많은 항성의 빛을 모아 한 광점을 이룬 것은 각각의 항성을 살필 때 광점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천리경을 사용한다. 천문가가 천상의 무수한 곳에 있는 세밀한 구름을 바라보고 극대천리경으로 그것을 살피면 즉 가히 무수한 작은 광점을 분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다. 이는 마치 구름이 총체를 이루나 만물의 한계를 상상하기 어렵고 또한 만물을 조화시키는 창조주를 떠올리기 어려운 것과 같으니, 그 권한이 어찌 한계가 있겠는가."[6]라고 하여, '경험을 통하여 '천문, 지리, 만물'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 격치의 개념임을 암시하고 있다.

'격치(格致)'가 사물을 탐구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점은 윌리엄 뮈르헤드(중국명 慕維廉)의 '격치이론(格致理論)'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이 번역문은 『격치휘편』 권7~권8에 연재된 것으로, 시간을 헤아리는 데 '연시(年時)'와 '일시(日時)'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의 원리를 기준으로 경험의 축적에 의해 이루어진 시간임을 설명한 글이다. 일시와 연시는 "이상은 가히 무릇 사람들과 동물, 식물의 몸체가 모두 지구의 시간과 부합하며 대대로 전해진 것이니 어찌 스스로 일어남을 알지 못하겠는가. 만약 총명 예지하여 구주께서 천지 만물이 그 쓰임과 상합하도록 하니 또한 서로 마땅함을 알 것이다. 이 이치로 말하건대 이루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님이 없으니 즉 우주 가운데 모든 사물은 그 증거가 아니면 알 수 없으니 어찌 그 이치에 밝지 않을 수 있으리오."[7]라고 하여, 시간의 개념이 오랜 역사를 거쳐 고증된 것으로 이를 탐구하는 것을 '격치이론'이라고 한 셈이다.

---

6) 傅蘭雅 編輯, 「格致略論」, 위의 책. p.5. 以上所言 係格致家已經考得其一定之據. 但另有格致家論 此千里鏡所窺之恒星 非一體之光 乃許多恒星之光聚成一光點 所以任用大千里鏡 不能分其光點窺其各恒星. 天文家 觀天上數處有細微之雲 以極大千里鏡窺之 則可分爲無數極小之光點 而因甚遠 則視之. 如相切成雲狀總之 難 想萬物有界限 又難想造**化萬物之主 其權豈有界限哉**.

7) 慕維廉, 「格致理論」, 『格致彙編』 卷8, 格致書院, 1876. p.10.

2) 격치와 격물의 관계

‘격치’가 사물을 탐구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개념이라면, 이와 유사한 ‘격물(格物)’은 탐구 대상을 중시한 개념으로 쓰일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격치휘편』 권3에 수록된 존 마샬 윌러비 팜햄(중국명 范約翰)의 ‘격물논질(格物論質)’은 ‘영(靈)’과 ‘질(質)’의 관계를 논한 논설이다. 이 논설에서는 영(靈)은 오관(五官)으로 감각할 수 없으나 질(質)이 있어야 영이 있고, 영이 있어야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질(質)을 실질(實質), 유질(流質), 기질(氣質)로 구분하고 각각의 질(質)이 갖는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8] 즉 ‘격물논질’은 ‘질(質)’을 대상으로 한 격치를 의미하는 셈이다. 이처럼 ‘격물’의 개념이 대상을 강조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은 『격치휘편』에 수록된 ‘격물잡설(格物雜說)’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격물잡설’은 각국 격물서(格物書) 가운데 특이한 것을 발췌하여 수록한 칼럼으로 매권마다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다. 예를 들어 권1의 불꽃 없는 등과 관련된 ‘무화지등(無火之燈)’, 해바라기의 쓰임과 관련된 ‘향일규지용(向日葵之用)’, 권2의 꽃잎 등을 땅에 오랫동안 묻어도 죽지 않는다는 ‘화각등종구매불사(花殼等種久埋不死)’, 목롱을 사용하는 이야기와 관련된 ‘편용목롱설(便用木籠說)’, 도시에 여러 종류의 수목이 주는 이익과 관련된 ‘성시다종수목지익(城市多種樹木之益)’ 등과 같이, 사물 현상이나 격치에 이용되는 도구 등과 관련된 간략한 지식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격물’이 물질을 대상으로 한 탐구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는 점은 알렉산더 윌리엄슨(중국명 韋廉臣)의 『격물탐원(格物探原)』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1874년 『교회월보(教會月報)』로부터 1876년 『만국공보(萬國公報)』(교회월보의 후신)에 이르기까지 연재된 것으로, 천지자연물과 인체 생리 등을 상제와의 관계에서 논하고자 한 목적을 갖는 책이다. 총5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도 가장 먼저 논하는 것은 ‘천지(天地)’와 ‘물질(物質)’이다. 즉 격치의 대상으로 ‘천지’, ‘물질’, ‘지구 형세와 자연물’, ‘신체’를 논의하고 ‘상제(上帝)[9]의 유일함과 전능함’

---

8) 范約翰, 「格物論質」, 『格致彙編』 卷4, 格致書院, 1876. pp.8-10.

9) 여기서 상제(上帝)는 기독교의 번역한 개념으로 중국 전래의 상제 개념과는 다르다. 『격

을 논하여 자연물과 생리를 대상으로 한 격치와 종교적 진리가 어긋나지 않음을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즉 '격물'은 천문, 지리, 물질, 사물, 생리 등 존재하는 대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 량치차오는 '격치'가 서구 학문 또는 '신학(新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에게서 '격치(格致)'는 실험에 근거하여 진리를 얻는 학문을 의미한다. 그는 '격치학 연혁고(格致學沿革考)'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격치학 연혁고]
>
> 우리 중국의 철학, 정치학, 생계학(경제학), 군학(사회학), 심리학, 윤리학, 사학, 문학 등은 이삼백 년 이전에는 대개 서구보다 못함이 없었다. 그러나 가장 부족한 것은 격치학(格致學)이다. 대저 허황된 이치는 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실험에 근거한 이후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학술이 지체되고 부진한 것은 시작하지 않고 자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10]

물탐원』'범례'에서는 "上古之世 中國聖人 咸識上帝之榮耀 詩書所載 如昭上帝 明昭上帝 及蕩蕩上帝 等 不能枚擧. 後之學者 數典而忘其祖 或以太極當之 又或信道家者流以玉皇爲上帝則尤荒謬之甚矣. 是書所云 正堯舜禹湯文武周孔所稱之上帝 非世俗所謂上帝也. 亦由古及今 薄海內外獨一無二之上帝 非但爲西國上帝也. 歷述創造之意 歸美一尊 正欲作引路人導 中華人士 仍回中華古道云爾(옛날 중국 성인은 상제의 영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 시서(詩書)에 실려 있는 '상제의 밝으심(如昭上帝)', '밝고 밝으신 상제(明昭上帝)' 및 '위대하신 상제(蕩蕩上帝)' 등 일일이 매거하기 어렵다. 후대의 학자는 몇 가지 전거로 그 조상을 잊고 혹은 태극이 그것을 담당하며, 혹은 도가의 유를 믿는 자는 옥황(玉皇)으로 상제를 삼으니 더욱 황당하고 잘못됨이 심하다. 이 책에서 이르기를 요순우탕 문무주공이 밝혀 상제라고 이른 것은 세속에서 일컫는 상제가 아니다. 또한 예로부터 지금까지 내외에 오직 하나이며 둘이 아닌 상제는 비단 서국의 상제만은 아니다. 지내어 창조를 밝히는 뜻은 귀일하여 존경하고 사람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사들이 이에 중화의 옛날 도리로 돌아간다고 이르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하여, 상제가 중국 인사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적 유일신임을 밝히고 있다.

10) 梁啓超, 「格致學沿革考」, 『飮氷室文集』 下, 廣智書局, 1902. 吾中國之哲學, 政治學, 生計學, 羣學, 心理學, 倫理學, 史學, 文學 等 自二三百年 以前 皆無以遠遜於歐西 而其所最缺者 則格致學也. 夫虛理非不可貴 然必藉實驗 而後得其眞. 我國學術遲滯不進之由 未始不坐是矣.

이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격치'는 베이컨식 경험주의, 실증주의 연구 태도를 일컫는 개념이다. 즉 '격치' 자체는 분과 학문의 일종이 아니라 실험에 근거한 실증주의가 적용되는 방법론을 의미하는 셈이다. 그는 '도언(導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도언(導言)]
> 무릇 천하만물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은 없다. 대저 그 사물이 귀한 것은 발생한 것이 더디고 그 발달이 더욱 느리다. 학문은 사물의 지속과 관계된 것을 찾는 것이니 고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 학문의 연혁을 말하고자 한다면 불가불 상하 천고의 경위를 찾고 이전의 오래된 자취를 살펴 장차 진보의 계단을 삼아야 한다. 학문의 종류가 극히 다양하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형이상학으로 정치학, 생계학, 군학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형이하학으로 질학, 화학, 천문학, 지질학, 전체학, 동물학, 식물학 등이 그것이다. 최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명의에 따라 근거하면 무릇 형이하학에 속하는 것을 모두 격치라고 이른다.[11]

량치차오는 학문의 체계를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나누고, 질학(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질학, 전체학(생리학), 동물학, 식물학 등의 형이하학을 격치학으로 규정하였다. 즉 정치학, 생계학(경제학), 군학(사회학) 등의 형이상학은 궁리(窮理)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나 형이하학은 경험, 실증을 중심으로 하는 격치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서양의 학문사를 요약한 '격치학 연혁고'에서는 '격물(格物)'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또 다른 논설 '근세문명초조 배근・적변아의 학설(近世文明初祖倍根笛卞兒之學說)'에서 베이컨의 학문을 '격물파'로 지칭하고, 데카르트를 '궁리파(窮理派)'로 명명한 예를 찾을 수 있다. 량치차오는 베이컨은 추측을 가장 좋아하지 않는 학자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격물학은 수많은 현

---

11) 梁啓超, 위의 글. 凡天下萬物 未有突然 而生者 大抵其物愈貴 則其發生也有遲 而其發達也愈緩 學問者事物遲最繁賾而高尙者也. 故欲語一學問之沿革 不可不上下千古. 沂端竟委 觀前此萌遠之跡 爲將來進步之階. 學問之種類極繁 要可分爲二端. 其一形而上學 卽政治學 生計學 羣學 等是也. 其二形而下學 卽 質學 化學 天文學 地質學 全體學 動物學 植物學 等是也. 吾因近人通行名義擧 凡屬於形而下學 皆謂之格致.

상의 법칙을 구해 얻는 데 있을 따름이다. 그 현상의 큰 근본은 만물의 원리에 과한 학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가 알 바는 아니다. 만물의 원리에 관한 학문으로 조물주, 영혼 유무, 조물주와 인간, 영혼과 신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너무 높고 오묘하여 믿을 수 없고, 인간사의 실제에 보탬이 되지 않으니 그냥 놓아두면 된다."[12]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격물은 실험과 실증의 대상이 되는 만물을 탐구하는 분야임을 나타낸 셈이다.

이처럼 근대 중국의 '격치'는 분과 학문의 명칭이 아니라 경험적, 실증적 연구 방법이나 태도를 지칭하는 개념이며, 그 대상을 중시한 개념으로 격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근대 한국에서의 격치 개념의 형성과 변용

1) 격치의 전통과 변용

율곡 선생의 어록에 보면, "지(知)는 높기가 하늘이다(知崇天)라고 한 것은 학자가 격물치지(格物致知)하여 지식이 높아지면 그 지(知)의 높음이 곧 하늘의 고명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율곡이 "그렇다."라고 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거경궁리(居敬窮理)의 공부하는 태도를 논하는 혹자(或者)와의 문답에서 율곡은 "궁리만 힘쓰면 억지로 사색하고 힘써 탐구하기에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게 되고, 오로지 존양(存養)에만 힘쓰면 뜬 생각(浮念)이 갑자기 일어나 심경(心境)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질문에 공부하는 요령이 있음을 말하면서, 경(敬)과 의(義)를 함께 힘쓰고 지(知)와 행(行)을 겸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격물치지의 지와 거경 궁리의 도리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13]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에게도 격물치지는 지식을 획득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였다. 그러나

---

12) 梁啓超, 「近世文明初祖倍根笛卞兒之學說」, 『飮氷室文集』 下, 廣智書局, 1902. 황종원 외, 『한국에 영향을 미친 중국 근대 지식과 사상』, 경진, 2019. pp.307-325.

13) 민족문화추진회, 「어록」, 『율곡집』 1, 민문고, 1983. 번역문 pp.482-483. 원문 pp.772-773. 問 居敬窮理兩事皆有所礙 專務窮理 則强索力求 而此心放下不得 專務存養 則浮念條起 而心境不淨矣. 曰功用不知其要 則誠有此患. (中略) 知崇天也. 學者格物致知 知識旣高 則其知之崇 便如天之高明云耶. 曰是也.

율곡과 같은 성리학자들의 지식관은 경험과 실증을 통한 격물치지보다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위한 성의정심(誠意正心)이 중시되었고, 만물의 이치와 기에 대한 궁리(窮理)가 학문 연구의 주된 방법이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19세기 혜강 최한기의 『기측체의(氣測體義)』는 기일원론(氣一元論)을 기반으로 한 경험적 세계관을 밝힌 흥미로운 저서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혜강이 34세 때 『신기통(神氣通)』과 『추측록(推測錄)』을 합하여 펴낸 것으로, '신기통'에서는 몸체, 눈, 귀, 코, 입 등 감각기관을 통해 아는 것과 다양한 것을 참조하고 비교하여 아는 것 등의 실증적, 경험적 지식 습득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신기통』「목통(目通)」에서 인신 형체의 기능과 격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궁격기용(窮格器用)]
>
> 사람의 몸의 형태는 곧 하나의 기계이니, 안으로는 신기(神氣)를 담고 밖으로는 수용(酬用)을 겸한다. 이목구비(耳目口鼻)와 수족두체(手足頭體)가 역시 각각 접용(接用)하는 기물(器物)이 있으니, 귀에는 관이 있으며 입에는 수저와 음식이 있으며, 코에는 냄새나는 물체가 있고, 손에는 잡은 그릇이 있으며, 발에는 밟고 신는 것이 있으며, 머리에는 갓과 건이 있으며 몸에는 의복이 있지만, 오직 눈이 쓰는 기물만은 어찌 다만 한 몸을 통찰하는 데 쓰이는 기물뿐이겠는가. 쓰이는 기물의 기계 원료나 그 기계 원료를 만드는 것까지 모두 눈의 기물이 된다. 무릇 현하에 물리(物理)를 궁구하는 자는 마땅히 기용으로 준칙(準則)을 삼아 기용의 기용에까지 미쳐 가고, 그 우열의 이둔(利鈍)을 변별하는 것이 안력과 신기가 아울러 통한 뒤에야, 격치(格致)가 마땅함을 얻어 착오를 면할 수 있다. 만약 기용으로써 준칙을 삼지 않는다면, 이른바 격치란 것이 그 능력을 쓸 곳이 없을뿐더러 그 모착(模着)을 얻기 어렵다.[14]

혜강(惠岡)의 격치 개념은 인신 형체로써 사물의 이치를 따지는 것을 의미한

---

14) 민족문화추진회, 「窮格器用」, 『氣測體義』 1, 민문고, 1979. p.112, 원문 p.39. 人身形體是一器械也. 內盛神氣外接酬用耳目口鼻手足頭體 又各有所接之器物 耳有管筒 口有匙箸飮食 鼻有臭物 手有執持之器 足有履納之物 頭有冠中 體有衣服 惟目之所用 器物 奚特統察一身所用之器物 至於所用器物之器械物料 又所用器物之器械物料 所由之器械物料 皆爲眼見之器物 凡天下窮格物理者 當以器用爲準的 以及於器用之器用 以辨別優劣利鈍 則參涉于眼力神氣之通 然後格致得宜. 庶免差誤也. 若不以器用爲準的 所謂格致無攸用 其能亦難得其模着

다. 격치는 근본적으로 '물리(物理)를 궁구하는 것'이며, 궁구의 주된 방법은 이목구비 수족두체를 통한 실증적 경험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기측체의』곳곳에 반영되어 있는데,『추측록』제1권(推測提綱)의 '쓰기는 하나 미룰 줄 모른다'(雖用而不知推)에서 "궁격의 학문은 온갖 사물이 이치가 없는 것이 없고 사람의 한마음에 온갖 이치를 갖추었으므로 궁구하지 못할 이치가 없다고 생각한다."[15]라고 한 것이나, 제6권(추물측사(推物測事)의 '물(物)을 버리고 일을 헤아리면 계제(階梯)가 없다'(遺物測事無階)에서 "물을 버리면 일을 베풀 곳이 없고, 그 측량함에도 법칙이 없으며, 옆에서 듣는 사람도 시비를 분별할 근거가 없다. 물로 인하여 일을 헤아리는 데 이르러서는 자연 물의 본말과 일의 전후에 있어서, 조리나 증험을 멀리 구하지 않아도 된다."[16]라는 말에서도 확인된다. 혜강은 격치와 궁리를 엄격하게 구별하지는 않았으나, 본질적으로 경험과 실증을 바탕으로 하는 격치를 궁리보다 우선시하였다.『추측록』제6권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등장한다.

> [추측록 제6권 추물측사]
>
> 오직 궁리라고만 말하면 추측과 유행(流行)의 이(理)에 분별이 없어 궁구하는 것에 일정한 목적이 없으나, 추측을 발명하면 미룸에 추측과 유행의 분변이 있어 헤아림에도 권선징악과 가부에 대한 증험이 있게 된다. 궁리의 학문이란 본래부터 일정한 본원(本元)이 있다고 여겨 나의 지식의 미진(未盡)한 것을 궁구하는 것이고, 추측의 학문은 찾아갈 수 있는 조리를 가지고 취사(取捨)를 징험하는 활법(活法)이다. (중략) 궁리와 추측은 제목이 이미 다르고 입문(入門)이 또한 다르므로 반드시 궁리를 훼방할 것도 없지만, 궁리의 폐단을 살펴보면 이는 오로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니『대학』에 격물(格物)만 말하고 궁리(窮理)는 말하지 않은 데서 그 의의를 볼 수 있다.[17]

---

15) 민족문화추진회,「雖用而不知推」, 위의 책. p.204,원문 p.85. 窮格之學 以爲萬事萬物 莫不有理. 而人之一心具萬理 故無不可窮之理也.

16) 민족문화추진회,「遺物測事無階」,『氣測體義』2, 민문고, 1979. p.102, 원문 p.48. 遺物則事無所施 而其所測量 亦無柯則矣 在傍聽之者 亦無由辨別是非 至於因物測事 自有物之本末 事之先後 而條理證驗 不必遠求.

17) 민족문화추진회,「窮理不如推測」, 위의 책. p.115, 원문 p.58. 惟言窮理則理無分於推測流行 窮無際於溱泊 此擬發明推測 推有分於推測流行 測有驗于勸懲可否 窮理之學有一定

이와 같이 혜강은 격치를 사물을 기본으로 한 추측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이는 마음을 오로지하여 미진한 것을 궁구하는 궁리보다 선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격치는 경험주의, 실증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만물을 기본으로 사리(事理)를 따져 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험주의는 혜강이 한문본 서학서를 접하면서 획득한 사유방식일 것이라는 점은 가와하라 히데키(2004), 김숙경(2013)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18] 이는『추측록』제5권 '서교의 연혁'이나 '물성을 미루어 지구를 헤아리다', '윤전(輪轉)과 나전(螺轉)' 등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리학의 전통과 서학을 융합하여 '추측(推測)'을 기반으로 하는 격치(格致)의 방법을 확립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9] 즉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격치 개념에 따라 '기용학(器用學)', '지지학(地志學)', '천문학(天文學)' 등과 같은 경험적 분과 학문 용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용어로서의 '격치'가 '격치학'이라는 분과 학문 명칭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개항 이후 서구 학문과의 교섭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1883년 언해된 정관응(鄭觀應)의『이언(易言)』권2 '논고시(論考試)'에서는 "셔국은 두어 가지 과거를 ᄇᆡ셕ᄒᆞ야 인ᄌᆡ를 혜아려 션ᄇᆡ를 취ᄒᆞᄃᆡ (중략) 텬문 디리와 격치지학과 측량ᄒᆞᄂᆞᆫ 모ᄃᆞᆫ 학을 겸ᄒᆞ야 닉히지 아니미 업셔"라거나, "태셔에 텬문 디리와 격치지학이며 농졍[농ᄉᆞᄒᆞᄂᆞᆫ 법이라] 션졍과 화학 리학

之本元 而究吾知未盡 推測之學 有條理之可尋 而驗取捨之活法(中略) 盖窮理者 以天地萬物之理爲一理 故究我心窮至則可賅諸理 推測者 性與天有分 物與我有別 推此驗彼而測之者一也. 窮理推測之題目旣異 入門亦異 不必毁窮理 而察窮理之弊專主乎. 大學說格物而不言窮理者 可見其義.

18) 가와하라 히데키,「최한기 기학 체계 내의 과학 - 혜강의 서학 수용과 그 한계」,『대동문화연구』4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pp.165-191. 김숙경,「혜강 최한기의 기학(氣學)에 나타난 서학 수용과 변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19) 혜강은「추측록」제6권「물을 관찰하는 다섯 가지 방법」(觀物有五)으로 '반관(反觀: 나를 가지고 나를 관찰하는 방법)', '무아(無我: 물을 가지고 물을 관찰하는 방법', '궁리(窮理: 나를 가지고 물을 관찰하는 방법)', '증험(證驗: 물을 가지고 나를 관찰하는 방법)', '미발(未發: 나는 있고 물은 없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찰법은 혜강 이전의 사물 관찰 방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리치를 궁구ᄒᆞᄂᆞᆫ 학이라]과 의슐이며 각국 언어와 졍ᄉᆞ와 문ᄌᆞ와 법례를 졍통ᄒᆞᆫ 쟈 수인을 굿이 쳥ᄒᆞᄃᆡ"[20]와 같이 '격치학'이 '천문', '지리', '농정', '선정(船政)', '화학', '이학(理學)'과 같은 분과 학문처럼 쓰였다. 그러나 이 논설은 서양 학문의 체계를 소개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격치학' 자체가 분과 학문의 명칭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학제를 소개하면서 격치학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의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여섯 가지 과목을 분비ᄒᆞ야 몬져 격치지학으로 사ᄅᆞᆷ의 젼신과 ᄂᆡ외에 모ᄃᆞᆫ 위ᄎᆞ를 일통으로 사ᄒᆡᆨᄒᆞ고"라는 설명을 둔다. 이는 『이언』에 쓰인 '격치학'이 '사람의 전신과 내외의 모든 차례를 하나로 살펴 고찰하는 방법'임을 의미하는 셈이다.

서구 학문과의 교섭 과정 쓰인 '격치'의 개념은 『한성주보』 1887년 3월 7일자 '속록서학원류(續錄西學源流)'에도 나타난다. 서학의 기원과 발달 과정을 설명한 이 논설에서는 '격치학'을 '사물의 이치와 까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그 가운데 '격물학(格物學)'과 '화학(化學)'이 존재한다고 하였다.[21] 즉 격치학은 격물학(물리학)과 화학 등의 자연과학과 비슷한 개념을 갖는 셈이다.

이보다 다소 늦은 유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西遊見聞)』 제13편 '태서 학술의 내력'에서는 뉴턴(柳頓으로 차자)을 소개하면서 "태공(太空)과 대지(大地)의 인력을 궁구(窮究)하며 광선(光線)의 공용과 물색(物色)의 근원(根元)을 논

---

20) 鄭觀應, 「론고시」, 『易言』 卷2, 1983. pp.36-37.

21) 博文局, 「續西學源流」, 『漢城周報』 1887.3.7. 格致之學意在卽 物而明其理 卽事而求其故自生民以來莫格致盖非稍知五行之功用者 無以供生人所需 然五行隱寓無窮妙理 自非農丁所能知也. 故自古好學深思之士 尤留意於斯者 本非假以營利 乃在究察造物之底蘊足 以增人力而厚生焉. 其學在有體之諸物分類爲二. 在體大力大較微力而言之之物者謂之格致 在微渺質應感而變化者 謂之化學.(格致의 학문은 그 취지가 사물의 이치와 까닭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인류가 생존한 이래로 이 격치의 학문이 없는 것이 없었다. 대체로 五行의 功用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人生에 꼭 필요하다. 그러나 오행은 은밀해서 妙理가 무궁하여, 농사꾼이나 공원이 다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들이 더욱 이 학문에 뜻을 두었는데, 이는 본디 營利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조물주의 이치를 연구해 人力을 증대시키고 인생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해서이다. 그 학문은 形體를 가진 여러 가지 物을 두 종류로 나눈다. 형체가 크고 힘이 커 微質·微力보다 큰 것을 格物學이라 하고, 미묘하게 應感하는 학문을 化學이라 한다.).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한성순보・한성주보 번역판』, 관훈클럽, 1983.

구하고 만물의 이치를 격(格)하여 조화의 심묘한 문호를 피개(披開)하니 그 저술한 서책이 궁리학(窮理學)의 대본"[22]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생물학에 훔볼트(咸發妬), 쿠비어(赳比茹), 화학에 뢰백(來伯)과 같이 서구의 유명한 학자를 분야별로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궁리학(窮理學)에는 헤겔(惠質), 턴달(親達)과 같은 학자가 들어 있다. 학자와 분야명 가운데 '격치학'이나 '격물학'과 같은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학업하는 조목(條目)'에서는 '농학, 의학, 산학, 정치학, 법률학, 격물학, 화학, 철학, 광물학, 식물학, 동물학, 천문학, 지리학, 인신학(人身學), 박고학(博古學), 언어학, 병학(兵學), 기계학, 종교학' 등의 분과 학문명이 등장한다. 그가 풀이한 '격물학'은 다음과 같다.

> [격물학(格物學)]
> 此學은 萬物의 本體를 窮究ᄒᆞ야 其 理致와 功用을 議論홈이니 其 條目은 浩繁ᄒᆞᆫ지라. 略抄ᄒᆞ야 其 例를 示ᄒᆞ건ᄃᆡ 鐵類의 强緻柔脆ᄒᆞᆫ 者의 力은 其 理由를 解釋ᄒᆞ고 人物의 發音과 天地萬物의 引力과 聲光의 速度와 風雨雷霆 及 霜露의 深妙ᄒᆞᆫ 理窟을 探頤ᄒᆞ며 物體의 方圓長短을 因ᄒᆞ야 其 發用ᄒᆞᄂᆞᆫ 力과 散合ᄒᆞᄂᆞᆫ 機를 議及ᄒᆞ야 尺寸의 違註가 無ᄒᆞ고 此外에 何物을 當ᄒᆞ든지 格知ᄒᆞ기로 準的을 立ᄒᆞ니 泰西 諸國의 富盛ᄒᆞᆫ 根本이 此學을 從하야 成實ᄒᆞᆫ 者라.[23]

『서유견문』에 등장하는 '격물학'은 현대의 자연과학과 응용 기술을 포괄한 개념이다. 이 점에서 분과 학문의 하나로 소개한 '철학(哲學)'과는 차이가 있다. 그는 철학을 "지혜(智慧)를 사랑하여 이치를 통하기 위한 학문"으로 정의하고, "그 근본의 심원함과 공용의 넓음이 경계를 세워 한정하기 어려우니 사람의 언행과 윤기(倫紀)며 백 천 가지 일의 행동거지를 논정(論定)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격물학이 자연과학을 일컫는 개념이라면, 철학은 인문학의 한 분야에 해당하는 셈이다.

---

22) 兪吉濬, 「泰西學術의 來歷」, 『西遊見聞』, 交詢社, 1895.
23) 兪吉濬, 「學業ᄒᆞᄂᆞᆫ 條目」, 위의 책.

2) '격치'의 대용어로서 근대의 '과학'과 '철학'

1895년 근대식 학제가 도입된 이후 교과 명칭이나 분과 학문 명칭으로 '격치'와 '격물'이 사용된 예는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시기 신문이나 학회보에서는 '격치'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독립신문』에는 격치와 격물이 각각 1회씩 등장하며, 『황성신문』에는 격치 96회, 격물 39회, 『대한매일신보』에는 격치 37회, 격물 9회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대조선독립협회회보』에서는 존 프라이어의 『격치휘편』 기사를 전재(轉載)한 경우가 많고, 『대한협회회보』 제5~6호(1908)에는 여병헌의 '격치학의 공용'이라는 논설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신문』은 1899년 3월 10일자 논설에서 "새 학문이 있는 신씨와 옛적 학문이 있는 구씨"를 가정하고, 신구 학문의 대립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을 영국의 격물학사로 지칭한 표현이 등장하며, 1899년 9월 9일자 논설에서는 동서양 학문을 비교하면서 "태서의 학문은 근본이 희랍 성현들이 천문, 지리와 인륜 도리를 강론하여 그 고명한 말씀과 기술이 인민에게 간절하여 효력이 있더니", "화학가에서 물건 품질이 다르고 같은 것과 오행 기운이 합하고 변혁함을 궁구하여 각 항 약 재료를 만들매 격치학과 의리학이 더욱 진보되었으며"와 같은 표현에서 서구 학문의 발달 요인의 하나로 격치학이 존재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시기 신문과 학회보에서 '격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논한 자료는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이다. 두 신문에 나타난 주요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격치 관련 기사]

번호	신문명	연월일	제목	내용
1	황성	1899.4.3.	논설	사물의 따지는 방법과 격물의 개념
2	황성	1899.5.18.	논설	격물치지의 개념과 가치
3	황성	1899.8.2.	논설	각종 신학문의 필요와 격치를 중심으로 하는 교화 정책이 필요함

4	황성	1899.8.9.	格致學의 緣起	베이컨(拜肯)의 학문과 격치신학 창립 관련 기사
5	황성	1899.8.12.	논설	관물(觀物)과 격물(格物)의 차이
6	황성	1900.5.22.	格致研究學問之源	격치는 학문의 근원임을 논설함
7	황성	1901.4.10.	宜讀書懋實	허문 숭상 대신 격물치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학문이 필요함
8	황성	1908.2.21.	學理와 實事의 竝行	동양의 학문으로 격물치지의 전통이 있음을 바탕으로 학리와 실사 병행 필요를 역설함
9	황성	1908.9.27.	物質 文明이 富强之基礎	문명의 종류를 윤리 문명과 물질문명으로 나누고, 산술, 이화, 격치가와 같이 물질문명 연구가 중요함을 역설함
10	대한매일	1906.2.10.	廣新學以補舊學說	서적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사물에 그 이치를 다하고 사리에 그 뜻을 통달하는 일은 격치 학술이 아니면 도달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11	대한매일	1906.3.6.	廣新學以補舊學說	중국의 격치 기예 학문이 전해지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기용학의 중요성을 논설함
12	대한매일	1906.3.16.	現今時代가 新學文과 新知識이 아니면	격치학에서도 신학문 신지식이 필요함을 논설함
13	대한매일	1909.9.10.	開化本旨	격치학은 아리스토텔레스(額利斯多), 소크라테스(索格底), 베이컨(培根)의 학문이라고 설명함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신문에 쓰인 '격치'와 '격물'은 사물을 탐구하는 방법, '과학'과 같은 개념으로 쓰일 경우와 구학문(舊學問)과 대립하는 신학문(新學問)의 특성, 즉 '실용학문'을 뜻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사물을 탐구하는 방법'으로서의 '격치' 개념은『황성신문』1899년 5월 18일자 논설에서, 하늘이 길러내는 이치와 일월성신의 운행하는 도리와 풍운뇌전의 쓰임과 무형한 물질을 추산하는 방법이 격물치지(格物致知)이며, 사람됨과 윤상(倫常), 음식과 이용후생이 모두 격물치지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천지 자연과 인륜 등 모든 것을 탐구하는 방법이 격물치지인

셈이다. 이 신문의 1899년 4월 3일자 논설에서는 사물을 대하는 태도로서 격물을 '완물(玩物: 사물을 감상함, 사물을 즐김)', '고물(考物: 사물을 고찰함, 사물의 이름을 아는 것)'과 구별하여 "사물의 근원을 깨닫고 본성을 통달하며 쓰임을 배열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격물(格物)이 사물의 원리를 탐구하고 이용하는 방법임을 강조한 말이다.[24] 이와 같은 차원에서 격치는 학문 방법론이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방법론을 중시하는 '과학(科學)'이라는 용어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895년 이후 학문 방법론으로서 '과학(科學)'이라는 용어는 재일유학생 단체 회보인 『친목회회보』 제1호 '외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서양 제국의 진보가 '과학 응용(科學應用)'에서 비롯되었다는 문부상의 교육담을 소개한 글이다.[25] 『친목회회보』에는 고의준(高義峻)의 '사물 변천(事物變遷)의 연구에 대한 인류학적 방법'(제2호, 1896.3.15.), 원응상(元應常)의 '학문의 연구'(제3호, 1896.3.23.), '개화의 삼 원칙'(제6호, 1898.4.9.), 이면우(李冕宇)의 '학문의 실행과 허식의 이해'(제4호, 1896.12.15.) 등의 학문 방법론과 관련된 논문이 다수 수록되

---

24) 論說, 『皇城新聞』 1899.4.3. 天地間에 盈한 者ᄂᆞᆫ 物이오 此를 格用ᄒᆞᄂᆞᆫ 者ᄂᆞᆫ 人인ᄃᆡ 人의 智識은 有限ᄒᆞ고 物의 理致ᄂᆞᆫ 無窮ᄒᆞ니 有限으로써 無窮을 泛應코져 함이 엇지 精神만 徒弊치 아니리오. 然ᄒᆞ나 古에ᄂᆞᆫ 古人의 格함이 有ᄒᆞ고 今에ᄂᆞᆫ 今人의 格함이 有ᄒᆞ니 古今人의 格함을 領受ᄒᆞ야 다 我의 格함을 助케 ᄒᆞ면 엇지 物의 能格지 못ᄒᆞᆷ을 患ᄒᆞ리오. 大抵 格物이라ᄂᆞᆫ 것은 玩物ᄒᆞᆷ과 考物ᄒᆞᆷ으로 殊異ᄒᆞ니 玩物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物中의 趣를 樂ᄒᆞᆷ이오 考物ᄒᆞᄂᆞᆫ 者ᄂᆞᆫ 物中의 名을 識ᄒᆞᆷ이어니와 格物이란 者ᄂᆞᆫ 物의 原을 會悟ᄒᆞ며 物의 性을 通達ᄒᆞ며 物의 用을 排置ᄒᆞᄂᆞ니 物을 離ᄒᆞ야 言ᄒᆞ면 人爲人物爲物이로ᄃᆡ 物을 統ᄒᆞ야 言ᄒᆞ면 人도 또ᄒᆞᆫ 一物인즉 物外의 有理ᄒᆞᆷ을 推ᄒᆞ야 萬類로 ᄒᆞ야곰 其所를 各得케 ᄒᆞᆯ 거시어ᄂᆞᆯ 만일 物의 原理를 悟達치 못ᄒᆞ고 物의 性質만 粗知ᄒᆞ면 엇지 其至精의 蘊奧를 能格ᄒᆞ리오.

25) 「日本 文部大臣의 敎育談」, 『親睦會會報』 제1호, 大朝鮮在日留學生親睦會, 1896. pp.49-50. 近日 諸新聞에 在ᄒᆞᆫ 其要領을 槪括ᄒᆞᆫ즉 第一 日本은 維新 以來 二十八年之間에 長足 進步ᄒᆞ나 然이나 其間에 西洋諸國의 非常히 進步ᄒᆞᆫ 事實을 徵ᄒᆞᆫ즉 其進步ᄂᆞᆫ 科學應用에 結果 外에ᄂᆞᆫ 別無ᄒᆞᆫ 故로, 吾人은 須科學을 利用ᄒᆞ야 其發達을 謀ᄒᆞᆷ이 可ᄒᆞ니라. (중략) 然이나 彼我相對ᄒᆞ야 進步의 度合에 非常히 經庭이 有ᄒᆞ면 敎育을 保ᄒᆞ야 根底 培養과 科學應用의 事를 謀ᄒᆞᆫ즉 目下 急務가 되야서 其方法은 몬져 英國語의 普及을 謀ᄒᆞᆷ과 同時 學生의 就學 期間 中 此比較的 不用科學의 屬ᄒᆞᆫ 時間을 省略ᄒᆞ야 英國語 普及의 要略은 今更 說明을 要ᄒᆞᆷ이 아니라 (下略)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보에는 문부대신 교육담 이외에 '과학'이라는 표현을 찾기 어렵다.

'과학'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등장하는 시점은 1906년 이후이다. 허재영(20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년한반도』, 『태극학보』 등에서는 '과학'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된다.[26] 특히 『태극학보』 제5호에 수록된 장응진(張應震)의 '과학론'은 이 시기 대표적인 과학 담론으로 '관찰, 분류, 설명'이 과학의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서양의 사이언스(science)를 번역한 '과학(科學)'이라는 용어가 '격치'를 대용하는 학술어로 대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북학회월보』 제1권 제11호(1909)에 수록된 '제학석명절요(諸學釋名節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諸學釋名節要]
> 科學 英語 사이엔쓰: 科學이란 것은 系統的 學理를 有ᄒᆞᆫ 學問을 謂ᄒᆞᆷ이라. 人智가 發達되ᄂᆞᆫᄃᆡ로 事物을 硏究ᄒᆞᄂᆞᆫ 法이 漸次로 進步ᄒᆞ야 凡百 智識이 더욱더욱 正確ᄒᆞ게 攄得(터득)되여가ᄂᆞᆫᄃᆡ 이 가장 步ᄒᆞᆫ 硏究法을 應用ᄒᆞ야 得ᄒᆞᆫ 條理 잇ᄂᆞᆫ 智識이 科學이라 謂ᄒᆞᄂᆞᆫ 것이니 곳 다만 經驗ᄒᆞᆫ 事物을 蒐集ᄒᆞᆯ 섄만도 아니오 또 確實치 못ᄒᆞᆫ 假定說를 基礎ᄒᆞ야 推測ᄒᆞᆷ도 아니라. 그 事實의 說明에 屬ᄒᆞᆫ 것이면, **當該 事實을 精密히 檢察ᄒᆞ야 그 原因結果의 關係를 硏鑽ᄒᆞ야 統一的으로 說明ᄒᆞᆫ 知識이**오 그 理法의 硏究에 屬ᄒᆞᆫ 것이면, 公認된 原理와 또 最 根本的 事實에셔 正當ᄒᆞ게 究去ᄒᆞ야 必然ᄒᆞᆯ 地에 到着ᄒᆞᆫ 知識이 是라. 그럼으로 科學上에 必要ᄒᆞᆫ 硏究法은 일은바 **歸納的 硏究法**이니 此法은 恒常 一貫ᄒᆞᆫ 論理와 實存ᄒᆞᆫ 證攄가 具存ᄒᆞ야 그 理論에ᄂᆞᆫ 矛盾 撞擊이 含在ᄒᆞᆷ을 許치 아니ᄒᆞᆷ으로 阿某에게라도 普遍히 說示ᄒᆞ야 明瞭히 認知케 ᄒᆞᆯ 수 잇고 또 **適宜允當ᄒᆞ게 記述**ᄒᆞᆷ을 得ᄒᆞᆯ지라.[27]

이 시기 '과학(사이언스)'은 경험으로서의 귀납법과 가정설을 기초한 연역법을 포괄한 연구 방법을 뜻하는 용어였다. 이는 추측과 궁리를 기반으로 하는 '격

---

26) 허재영, 「근대 계몽기 과학 담론 형성과 일제 강점기 과학적 국어학」, 『코기토』 78, 부산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pp.117-147.

27) 「諸學釋名節要」, 『西北學會月報』 제1권 제11호, 1909. pp.8-9. 서북학회. '제학석명절요'에서는 과학의 개념을 제시하고, 과학을 대상과 성질에 따라 '정신적 과학'과 '자연적 과학'으로 나누었다.

물치지'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제학석명절요'에서 "과학상 필요한 연구법은 이른바 귀납적 연구법"이라고 풀이한 점은 궁리보다 추측이 우선한다는 최한기의 사유방식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추측'과 '궁리', '귀납'과 '가정설'의 구별은 앞서 살펴본 량치차오의 형이상학과 형이하학(격치학의 대상)의 구별이나 '과학'과 '철학'의 구별과도 비슷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대한학회월보』제5호(1908)에 수록된 이창환의 '철학과 과학의 범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哲學과 科學의 範圍]
> 哲學이라 ᄒᆞᆷ은 形而上 卽 無形ᄒᆞᆫ 思想과 心理學과 갓튼 거시오, 科學이라 ᄒᆞᆷ은 形而下 卽 有形ᄒᆞᆫ 物理學과 理化學과 가튼 거시니 (중략) **從來 哲學者가 統轄 硏究ᄒᆞ던 現象을 各種 專門學者가 一部分式 分擔ᄒᆞ여쓰니** 然則 哲學의 範圍ᄂᆞᆫ 科學의 分擔을 因ᄒᆞ야 狹小케 되야다 云ᄒᆞᆯ지로다. 然이ᄂᆞ 科學의 依ᄒᆞ야 說明치 못ᄒᆞᆯ 部分이 無限ᄒᆞ니 假量 比較ᄒᆞ야 말ᄒᆞᆯ진ᄃᆡ 家庭에서 下男下女가 各其 料理ᄂᆞ 裁縫이ᄂᆞ 其他 諸般 勞働은 ᄒᆞᆯ지라도 家庭 一切 事務를 다한다고 못ᄒᆞᆯ지니 그 나마지 事務는 主婦가 主掌 處理ᄒᆞᆷ과 갓치 **科學에서 說明치 못ᄒᆞᆯ 거슨 다 哲學의 領分이 되ᄂᆞᆫ 고로 科學의 進步를 因ᄒᆞ야 哲學의 範圍가 狹小타 ᄒᆞ기보담 차라히 哲學이 科學의 母라 ᄒᆞᆷ을 得**ᄒᆞᆯ지로다.[28]

이 논문에 따르면 철학은 무형한 사상과 심리학 등의 형이상학에 해당하며, 과학은 유형의 물리학이나 이화학과 같은 형이하학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경험과 실증을 중시하는 '격치' 개념이 점차 '과학'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고, 근대 계몽기 격치 만능설도 점차 과학만능주의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구학의 대립에서 '격치'가 신학문을 대용하는 '실용 학문'을 뜻하는 개념으로 쓰일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황성신문』1900년 5월 22일자 '격치연구는 학문의 근원'이라는 논설의 경우, 우리나라 학문은 격치에서 쓸모가 없으며, 연구에 힘쓰지 않아 격식 이외에 이상한 물형이 있으면 괴변, 이

28) 이창환,「哲學과 科學의 範圍」,『大韓學會月報』제5호, 대한학회, 1908. pp.16-18.

재라고 개탄한다고 하면서, 서양인은 격치와 연구를 철저히 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나 심오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것을 연구함으로써 괴변이니 이재니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의혹을 밝혀낸다고 주장한다.[29] 이와 같은 흐름에서 『대한협회회보』 제5호~제7호에 연재된 여병헌(呂炳鉉)의 논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 [격치학(格致學)의 공용(功用)]
> 격치라는 것은 격물치지를 일컫는 것이니, 이용후생에 공효가 큰 것이다. 옛날 성현이 이 학문을 강구하지 않은 까닭에 대학 수장(首章)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도리는 격물치지로 본을 삼으나 후세 유학자들이 실학(實學)을 힘쓰지 않고, 점차 사장(詞章)만 숭상함으로 장차 생활에 정력(精力)을 다하되 더듬어 암송하고 읽는 학문에 힘을 소비하되 성공하는 자가 드물더니, 근래 통상 이후로 서양인의 부강한 기술을 보면, 격물학으로 본을 삼지 않은 것이 없으니, 격치의 과목을 보면 천문학, 지문학, 화학, 기학(氣學), 광학(光學), 성학(聲學), 중학(重學), 전학(電學) 등이다.[30]

이 논설은 서양 격물치지학에 해당하는 천문학, 지문학, 화학, 기학, 광학, 성학, 중학, 전학 등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 전제에서 격물학은 '실학(實學)'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부강을 이루었다고 규정한다. 특히 제7호에서는 격치학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희랍국은 문학 예술이 구주 문명의 비조(鼻祖)로 일컬어지나 현세 과학의 두뇌로 격치학을 이끌어 왔으니 그때 국운의 융성과 민지 발달이 가히 서구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오랜 시간이 흘러 허문(虛文)을 숭상하고 실사구시를 하지 못함으로써 학업이 쇠퇴하고 국세가 부진(不振)하니 강약 대소의 말미암음이 모두 학문과 학문하지 않음이 명백히 증명해 준다고 주장하였다.[31] 이와 같은

---

29) 「論說」, 『皇城新聞』, 1900.5.22.

30) 呂炳鉉, 「格致學의 功用」, 『大韓協會會報』 제5호, 1908. p.12. 格致者ᄂᆞᆫ 格物致知之謂也니 其有功於利用厚生이 大矣라. 古昔聖賢이 莫不講究斯學 故로 大學首章에 修齊治平之道ᄂᆞᆫ 以格物致知로 爲本이나 後世儒者가 不務實學ᄒᆞ고 漸尙詞章ᄒᆞᆷ으로 將畢生有用之精力ᄒᆞ야 銷磨於唫詠誦讀之間ᄒᆞ되 鮮有成功者러니 近自通商以後로 見夫西人富强之術이 無不以格物之學으로 爲本ᄒᆞ니 試言格致之科目컨ᄃᆡ 曰 天文學과 曰 地文學과 曰 化學과 曰 氣學과 曰 光學과 曰 聲學과 曰 重學과 曰 電學 等이라.

31) 呂炳鉉, 「格致學의 功用(續)」, 『大韓協會會報』 제7호, 1908. p.11. 溯究格致學之淵源컨

주장은 격치학의 근원이 『대학』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그 자체로서 '신학(新學)', '서양학(西洋學)'의 가치를 갖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32]

이상과 같이, 한국에서의 격치학은 근대식 학제 도입기를 전후로 '과학적인 연구 방법' 또는 '구학과 대립하는 신학'으로서 주로 '서양 학문'을 일컫는 개념으로 변용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 용어는 근대의 학문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분과 학문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지칭하는 대용어로 '과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철학'이라는 용어가 궁리와 이론을 대용하는 학술어로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근대 학문 형성 과정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격치'라는 용어의 개념 형성과 변용 과정을 기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했다. '격치'는 『대학』의 수장(首章)에 등장하는 '격물치지'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사용되었다. 특히 경험적, 실증적 연구 방법을 중시하는 근대 학문이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격치의 개념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의 경우 '서학중원설(西學中源說)'과 같이, 서구의 학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전교 목적으로 중국에 파견된 서양 선교사들도 이와 같은 경향을 고려하여 학술어 번역에서도 전통적인 용어를 상황에 맞게 변용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서 중국의 격치 개념 변

ᄃᆡ 古代希臘國은 文藝學術이 稱爲歐洲文明之鼻祖요 現世科學之頭腦로 首先注力格致之學ᄒᆞ니 其 時 國運之隆盛과 民智之發達이 可謂西歐列邦之第一位러니 及至日久ᄋᆡ 專尙虛文ᄒᆞ고 不能實事求是ᄒᆞᆷ으로 學業이 駸衰ᄒᆞ고 國勢가 因亦不振ᄒᆞ니 由强而弱ᄒᆞ고 由大而小가 皆學與不學之明證也라

32) 일제 강점기 신문에서는 『매일신보』 1911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재된 논설 '격치학의 공용'과 1916년 3월 16일과 18일에 두 번 연재된 우당(于堂)이라는 필명의 '격치학' 두 편의 논설만 발견된다. 전자는 여병현의 '격치학의 공용'과 내용이 거의 같으며, 후자는 격물치지의 유래와 중국 학문사에서 격치학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금일 격치학을 바탕으로 문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용은 한국 근대 학문 형성 과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며, 경험과 실증을 대상으로 한 '격치'와 사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분야를 일컫던 '격물' 개념이 점차 '신구학 대립' 담론에서 '서구 학문'이나 '신학(新學)'을 뜻하는 용어로 변용되다가, '과학'과 '철학' 등의 학술어로 대체되어 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중국에서의 '격치'는 마테오리치 이후 경험적으로 고증하여 얻은 일정한 지식 또는 연구 방법을 뜻하는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에 비해 '격물'은 물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방법이나 분야를 뜻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격치휘편』과 『격물탐원』 등의 책명이나 량치차오의 베이컨과 데카르트 학설을 소개한 논문, 서구 학문사를 정리한 '격치학 연혁고'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한국의 근대에서도 격치의 개념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 습득의 방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최한기의 『기측체의』의 기반을 이루는 『신기통』과 『추측론』은 감각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개항 이후 서구 학문이 도입되면서 '격치' 개념은 경험적, 실증적 연구 방법을 뜻하는 '과학'과 비슷한 의미를 획득하였으며, 연구 대상을 중시하는 '격물학'이 분과 학문 명칭처럼 사용된 예도 나타났다. 그러나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 교과 명칭이나 분과 학문 명칭으로 '격치'와 '격물'이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으며, 경험과 실증을 중시하는 '과학' 또는 만물의 이치를 대상으로 하는 '철학'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면서 점차 학술어로서의 용법이 약화되기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자료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한성순보・한성주보 번역판』, 관훈클럽, 1983.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한성주보』, 관훈클럽, 1983.
구장률 해제, 『소년한반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 『친목회회보』 1, 차배근 저, 『개화기 일본 유학생들의 언론 출

판 활동 연구(1)』, 서울대출판부, 2000.
독립신문영인간행위원회, 『독립신문』 1-9, 경인문화사.
편집부, 『황성신문』, 경인문화사, 1982.
한국학문헌연구소,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아세아문화사, 1978.
한국학문헌연구소, 『대한학회월보』 상・하, 아세아문화사, 1978.
한국학문헌연구소, 『대한협회회보』 상・하, 아세아문화사, 1978.
한국학문헌연구소, 『서북학회월보』 상・중・하, 아세아문화사, 1978.
한국학문헌연구소, 『태극학보』 1~4, 아세아문화사, 1978.
傅蘭雅 編輯, 『格致彙編』 1~12, 格致書院, 1876~1877.
梁啓超, 『飮氷室文集』 下, 廣智書局, 1902.
韋廉臣, 熊野與 訓點, 『格物探原』, 東京 原氏藏版, 1879.

2. 단행본

민족문화추진회, 『기측체의』 1, 민문고, 1979.
민족문화추진회, 『율곡집』 1, 민문고, 1983.
유길준, 『서유견문』, 교순사, 1895.
이광린, 『개화기연구』, 일조각, 1960.
정관응(鄭觀應), 역자 미상, 『이언(易言)』, 간사지 미상, 1883.(홍문각 영인본, 1992.).
황종원・허재영・김경남・강미정, 『한국에 영향을 미친 중국 근대 지식과 사상』, 경진출판, 2019.

3. 논문

가와하라 히데키, 「최한기 기학 체계 내의 과학 - 혜강의 서학 수용과 그 한계」, 『대동문화연구』 4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pp.165-191.
구희진, 「한말 근대개혁의 추진과 '格物致知' 인식의 변화」, 『역사교육』 114, 역사교육연구원, 2010, pp.395-434.
김선희, 「격물궁리지학, 격치지학, 격치학 그리고 과학 -서양 과학에 대한 동아시아의 지적 도전과 곤경-」, 『개념과 소통』 17, 한림과학원, 2016, pp.119-157.
김숙경, 「혜강 최한기의 기학(氣學)에 나타난 서학 수용과 변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김재현, 「중국에서의 철학 개념의 번역과 수용」, 『시대와 철학』 27-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6, pp.39-68.
이행훈, 「學問 개념의 근대적 변환 - '格致', '窮理' 개념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7, 동양고전학회, 2009, pp.377-410.
한성구, 「중국 근대 "격치학(格致學)"의 변천과 중서 격치학(格致學) 비교」, 『한국철학논집』 18, 한국철학사연구회, 2006, pp.425-456.

한성구, 「중국 근현대 “科學”에 대한 인식과 사상 변화」, 『철학과 문화』 13,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2006, pp.23-48.
허재영, 「근대 계몽기 과학 담론 형성과 일제 강점기 과학적 국어학」, 『코기토』 78, 부산대 인문과학연구소, 2018.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4월 25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19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6월 10일

Abstract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Concept of "GYEOKCHI(格致)" in Modern China and Korea

Heo, Jaeyoung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im of describing the process of forming and transforming the concept of the term "GYEOKCHI(格致)" that frequently appears in the process of forming modern studies in China and Korea. The term was originated from 'GYEOKMULCHIJI(格物致知)' in the head of the *DAEHAK*, but its meaning was u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imes. In particular, with the introduction of modern scholarship, which emphasizes experience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s, a great change took place in the concept of traditional enthusiasm. In the case of China,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Western scholarship,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adhere to their own traditions, and Western missionaries dispatched to China for the purpose of whole school also took the same trend into account and adapted the traditional terminology to the situation in academic language translation. It seems to have been trying to do.

In this trend, it seems that the transformation of China's concept of grueling influence had a certain influence on the process of forming modern Korean studies, and the concept of 'GYEOKCHI' for experience and empirical research and the concept of 'GYEOKMUL(格物)', which used to refer to the field of research on objects, gradually became interpreted as being changed from the discourse of the new and old studies to the term meaning 'Western scholarship' or 'New Study', and then replaced with academic words such as 'Science' and 'Philosophy'. The summary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in modern China, "GYEOKCHI" began to be used as a concept to mean certain knowledge or research methods obtained through empirical examination after Mateorici. On the other hand, 'GYEOKMUL(格物)' was used as a concept to mean a research method or field for a substance. Second, even in the modern

era of Korea, the concept of grueling has gradually changed to a concept that means a method of acquiring knowledge based on experience. Choi Han-gi used the concept of exertion as a conjecture based on senses and experiences.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science after the port was opened, the concept of 'GYEOKCHI' acquired a similar meaning to 'science', which means experience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s, and there were examples of using 'GYEOKMUL', which places importance on the subject of research, as the name of a sub-discipline. This term can be confirmed that the use of the term as an academic language has gradually weakened as the term 'science', which emphasizes experience and proof, or 'philosophy', which targets the reason of all things, is widely used.

Keyword GYEOKCHI(格致), GYEOKMUL(格物), concept, transformation, experience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 Science, Philosophy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1.307

韩中日同素逆顺语“社会-会社”考察*

—以形成初期的语义关系为中心

田宇**

국문요약

본고는 한중일 삼국의 문헌 자료를 통하여 ‘사회’와 ‘회사’라는 동소역순어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최초의 의미 관계와 의미변화 및 동소역순어의 출현 원인 등 언어적 측면의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와 ‘회사’는 의미가 분화되어 번역어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통적으로 중국 고전에서 제시된 「社日에 모이던 모임,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들의 결사」라는 의미로 쓰였고 초기에 한중일 삼국에서 잘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18세기 중엽 서학동점 시기에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 서양어 ‘society’와 ‘company’의 대역어로 ‘사회’와 ‘회사’를 사용하면서 각각 ‘society’와 ‘company’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 후에 비로소 ‘사회’는 ‘society’의 번역어로 ‘회사’는 ‘company’의 번역어로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하여 동서양의 언어접촉과 한자권 나라 간의 교류 과정, 근대 번역어의 성립과 역할 및 개별 용어의 의미변화 등과 관련한 어휘사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 의미로서 근대 말뭉치를 구축하고 어원사전을 편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외국어 교육 측면에서 한자권 나라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회’와 ‘회사’처럼 각국에서 공히 사용하고 있는 동형어를 잘 익혀 나간다면 단기간 내에 어휘량을 더욱더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에게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제어 사회, 회사, 동소역순어, 번역어, 한중일

---

* 이 논문은 2021년 2월 18일 한국어의미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초창기 ‘사회’와 ‘회사’의 의미관계>란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韩国全南大学 国语国文学科 博士修了

<目录>

1. 序论
2. 同素逆顺语的判定及成因
3. 韩中日'社会-会社'形成初期的语义关系
4. 结论

1. 序论

韩中日三国作为东亚汉字文化圈国家, 地缘相近, 交往密切, 自古以来汉字和汉文对韩日两国的语言影响深远, 受汉语的影响韩日两国语言中过半以上都是由汉字词组成的, 这些词的存在不仅使古人以笔谈的形式进行交流成为了可能也为现代人的学习和交流提供了诸多便利。在这些汉字词内部还存在着相同汉字但语顺相反的现象, 即所谓的同素逆顺语[1)]。同素逆顺语早在西周春秋时期就已经开始出现, 如诗经『周南·桃夭』中的"之子于归, 宜其室家。之子于归, 宜其家室"一句就出现了"室家"和"家室"一组同素逆顺语。

同素逆顺语作为汉字文化圈国家共同研究探讨的课题, 一直被学界高度关注并取得了丰硕的成果, 特别是进入2000年以后, 以韩中日为首的东亚汉字文化圈各国都积极的对这一课题展开了深入研究, 其中韩国方面的研究主要有成焕甲(2005), 郭秋雯(2010), 黄信爱·崔埈瑚(2019)。成焕甲(2005)对『标准国语大辞典』中收录的双音节字顺倒置汉字语在构造上的特性和语义上的特性进行了考察, 郭秋雯(2010)考察了韩国语中出现同素逆顺语的原因及对形成同素逆顺语的一些限制性条件, 黄申爱·崔埈瑚(2019)以历时性的考察了韩中两国的同素逆顺语"言语-语言"。中国和日本方面的研究主要有史一卿(2011), 屠洁群(2016), 胡玉华(2019), 韩书庚(2019), 匡鹏飞·高逢亮(2020)等, 史一卿(2011)以中日对比的方式考察了两国同素逆顺语的类型及出现语义差异的原因, 屠洁群

1) 对同素逆顺语的名称韩中日三国用语不同, 而且在各国内部也没有统一的名称, 韩国和日本多称之为'同素逆顺语', 中国一般称为'颠倒词', '同素异序词', '同义逆序词', '字序对换的双音词', '序位颠倒的同素词'等, 本文为统一起见, 使用'同素逆顺语'这一名称.

(2016)对中日两国同素逆顺语“短缩-缩短”的形成进行了考察，胡玉华(2019)对汉语中“欢喜-喜欢”在各时期的出现和用法进行了考察，韩书庚(2019)以五十种白话报刊为语料考察了民末清初的同素异序构式的语法、语义及语用等。

韩中日三国从语言学的角度对‘社会’一词的研究主要有高良仓成(2016)，최경옥(2017)，李恭忠(2020)。高良仓成(2016)从社会语言学的观点通过对‘社会’一词在新闻杂志、教科书等出现的具体用例考察了其在语用上的变化。최경옥(2017)考察了‘社会’一词在日本的形成及对韩国的影响。李恭忠(2020)从概念史的角度对‘社会’一词在近代中国的形成过程及对中国的影响进行了考察。

通过对上述先行研究的整理可知，目前各国多集中对同素逆顺语从整体构造上的考察，对个别同素逆顺语历时性的考察寥寥无几，并且对个别词语的考察也仅局限于对韩中或中日两国之间的同义词的比较，同时利用韩中日三国资料对不同语义的同素逆顺语的考察可以说史无前例。韩中日同属汉字文化圈，经过长期的接触和交流势必会对三国的语言产生一定的影响，现在在三国的语言中存在着大量的同形同义词便是最好的证明，因此在研究同素逆顺语这一课题时，有必要对三国的资料同时进行整理和比较，只有这样才能把握历史的全貌。

因此本文以“社会-会社”这组语义完全不同的同素逆顺语作为考察对象，利用韩中日三国的文献资料作为实证依据，重点考察“社会-会社”在形成初期的语义关系及语义变化，意在为韩中日语源辞典的编纂提供一些参考。同时从外语教育和学习的层面，因为韩中日三国语言中存在大量像“社会-会社”这样的同素逆顺语，通过把握两者之间的关系有助于更有效的学习三国语言中的汉字词，因此通过本文希望能唤起教育者和学习者对同素逆顺语的重视。.

2. 同素逆顺语的判定及成因

同素逆顺语，顾名思义是指在相同语素间互换或颠倒前后顺序而形成的词语，如原词为AB，互换A与B的位置变成BA的形式，此时AB与BA便成为一组同素逆顺语。这里需要强调的是同素概念，即“AB/BA”中的A与B要满足同一语

素的条件而不是同一汉字，像“文法/法文”，“文法”中的“法”指的是规律、规则，而“法文”中的“法”指的是国家，所以“文法/法文”不能看作同素逆顺语，类似的例子还有“故事/事故”等，这些词只是同一汉字间顺序的颠倒，而没有满足同素的条件。

现在在韩中日各国的语言体系中存在着大量的同素逆顺语，韩国语中根据成焕甲对『标准国语大辞典』中同素逆顺语的调查，一共出现4,597对(成焕甲，2005:9)，而熊艳辉以『现代汉语词典』和日本的『广辞苑』为文本进行调查，统计出的同素逆顺语数分别是833组，479组(熊艳辉，2012:17)。通过这组数据可以得知，韩中日三国存在着大量共同使用的同素逆顺语，如“健康/康健”，“语言/言语”，“苦痛/痛苦”，“和平/平和”，“离别/别离”，“论辩/辩论”，“夜半/半夜”，“家传/传家”等。当然也有一部分同素逆顺语由中国传入韩日後，在韩日得到发展一直延用至今，而在中国却被淘汰或几乎不再使用，如“热情/情热”，“狂热/热狂”等，这些词互为同素逆顺语存在于韩日两语中，而现代汉语中只有“热情”，“狂热”。

对于出现同素逆顺语的原因，由于汉字和汉文流入韩日两国之后，为适合各自语言的特点发生了一些变化，对于韩中日三国语言中产生同素逆顺语的原因不可同日而语，这里仅以语言交流的观点从内在因素和外在因素进行阐述。首先究其内在因素，人类的认知能力是由低级到高级，由简单到复杂的过程转变而成的，语言也是如此。最初人们使用的语言中大都以单音节词语为主，如在中国古典『左传』中共有2904个单音节词语，而双音节词语仅有788个(刘凡夫，2009:145)，而随着物质文明的丰富以及生产生活交流的需要，单音节汉字词已不能满足这种需要，所以复合音节词开始大量出现。这些复合词在创造初期，由于前後汉字的位置尚未固定，并且这些单音节汉字即使变换前後位置也不会影响其整体语义的改变，所以使用时经常会出现顺序颠倒的情况，这便为初期同素逆顺语的衍生提供了先决条件。同时，汉字具有灵活而发达的造语力，由一个主干词其前後放入不同汉字可生成大量汉字词，如‘N民’和‘民N’，在N的位置可放入不同汉字构成新词，由‘N民’结构组成的词有‘人民’、‘公民’、‘国民’、‘市民’、‘农民’、‘村民’、‘官民’、‘军民’、‘乡民’、‘区民’、‘居民’等，由‘民N’

结构组成的词有‘民人’、‘民国’、‘民众’、‘民心’、‘民意’、‘民军’、‘民报’、‘民生’、‘民族’、‘民工’、‘民公’、‘民间’、‘民主’、‘民用’、‘民营’等，在这一过程中也使一部分同素逆顺语不断出现。

另外，古代文人墨客在创作诗词时，往往讲究平仄押韵，只有押韵的诗词朗读起来才朗朗上口，富有美感，如中国第一部诗歌诗文总集『诗经』中的“桃之夭夭，灼灼其华，之子于归，宜其室家。桃之夭夭，有贲其实，之子于归，宜其家室”一句中的“室家”和“家室”，又如『齐国·东方未明』中的“东方未明，颠倒衣裳。东方未晞，颠倒裳衣”一句中的“衣裳”和“裳衣”，这样的例子在古代的诗歌等文学作品中不胜枚举[2)]。南宋的陈癸在『文则』中曾称赞说“倒言而不失其言者，言之妙也；倒文而不失其文者，文之妙也”。因此为了符合一定韵律，经常会把前後汉字故意颠倒而构成押韵，随着这些诗词被后人的代代相传和吟诵同素逆顺语自然而然地被大量夏制使用。

其次对于外在因素而言，西学东渐时期，西洋的近代化气流不断向东亚蔓延，大量的新文明和新概念用语如洪水一般从西方世界涌入东方，对汉字圈国家的语言产生了深远影响，同时也对各国语言中的词汇体系有所改变。

以韩中日为代表的东亚各国为探索富国强兵，殖产兴业的道路，纷纷开始学习西方的先进科学技术以及政治、经济体制等，在与西方语言的接触和交流过程中，许多晦涩难懂的用语不断出现，由于都是当时东亚各国不存在的概念，所以势必会出现理解上的困难，为了学习和吸收这些词语，不可缺少的环节便是翻译，翻译可以说是当时最省时且行之有效的方法，特别对于汉字圈国家来说可以实现资源共享，因此有学者称东亚的近代化进程是靠翻译实现的，可见翻译在当时的重要性。这一时期在翻译西方新文明概念用语的过程中，日本起到了重要角色。当时在日本担当翻译这一重任的主要是以福泽谕吉(1835-1901)为首的知识层和日本明六社的思想家们，他们具有扎实的汉文功低，精通汉字，所以在用汉字对译西洋语中的概念用语时，除了一部分是亲自创造的以外，其余大部分都是借用中国古典里的汉字字形，经过重新组合或直接

2) 参考韩书庚，「清末民初同素异序构式研究」，山东师范大学 博士论文，2019, pp.114-117.

照搬原来汉字词的方式实现与西洋语的转换，以这种方式形成的汉字词由于数量庞大而改变了日本原有的词汇体系，明治时期前后日语中各语种的分布情况见下表。

〈表1〉 日语词汇各语种所占比例[3]

資料名	言海 (1889)	例解國語辭典 (1956)	現代雜誌 (1964)	高校教科書 (1974)	現代雜誌 (1994)	新選國語 (2002)
語種	%	%	%	%	%	%
和語	55.8	36.6	36.7	18.3	25.4	33.8
漢語	34.7	53.6	47.5	73.3	33.5	49.1
外來語	1.4	3.5	9.8	7.6	34.8	8.8
混種語	8.1	6.2	6	0.8	6.3	8.3

如<表1>所示，在明治时期以前日语中的和语词汇量过半占主体地位，而进入明治时期之后，汉语词的使用量开始大幅增加超过和语词汇而占压倒性地位，这一时期汉语词汇的剧增主要是因为明治时期之后出现了大量表达西洋新文明概念的翻译语[4]。日本明六社的思想家们在翻译西洋语时参考了大量的中国古典文献，直接借用或重组其字形，赋予新义，使之成为新词，这些词重新再进入中国和韩国，被广泛使用。在翻译的过程中，从语言学的经济原则出发，将字序前后颠倒互换的方式既省时又省力，这也是同素逆顺语在这一时期大量出现的原因之一。本文论题中的'社会'和'会社'正是在外因影响作用下形成的，下一章对此进行详细论述。

3. 韩中日'社会'和'会社'形成初期的语义关系

'社会'和'会社'分别由'社'和'会'两个单音字组成，作为复合词的'社会'和'会

3) 山田孝雄(1958)和国立国语研究所(1984)的研究结果. 参考张厚泉，「「電気」の意味変遷と近代的な意义」，『언어사실과 관점』，제36호，2015，p.70.

4) 翻译语的概念各国名称不一，而且根据不同学者所使用的用语也有所不同，日本多用'翻译语'，韩国多用'翻译汉字语'，'新文明用语'，'外来汉字语'等名称，中国多用'回归词'，'新词'的名称，本文为统一起见，使用'翻译语'这一名称.

社’很早就出现在中国古籍中，然而当时的用法和今天所使用的社会’和‘会社’大不相同，为了揭示两者形成初期的语义关系及语义变化，本章利用韩中日三国的古典文献，对译字典，新闻杂志以及语料库等资料，通过调查和对比三国资料中出现的‘社会’和‘会社’来观察其使用情况。为了更好地观察‘社会’和‘会社’的语义变化，首先对现代三国字典中的释义进行说明。

〈表2〉 『汉韩大辞典』和『日韩大辞典』中‘社会’和‘会社’的释义

漢韓大辭典	日韓大辭典
社會: 사회 ① (社) 공동 생활을 하는 인류의 집단. ② 세상. ③ (地) 일정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집단. ④ (制) 村民이 社日에 모이던 모임.	しゃかい(社会): 사회. ①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집단. ② 동류의 한 동아리끼리 모여서 이루는 집단. 上流社会/상류 사회, 芸人社会/예능인의 사회 ③ 온세상. 세간. 社会の情勢/사회의 정세
會社: 회사 (法) 商行爲를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이 협동하여 설립한 營利사업을 경영하는 法人 조직의 단체. 株式會社·合資會社·株式合資會社·合名會社 등이 있음. 公司.	かいしゃ(会社): 회사.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조직된 사단 법인. 会社設立/회사 설립

通过现代汉韩和日韩字典中对‘社会’和‘会社’[5]的注释可知，‘社会’的现代语义主要指营造共同生活的人类集团，而‘会社’是指以营利为目的的组织团体，即分别表示‘society’和‘company’的概念。通过字典上的注释，无法看出两者形成

5) 韩国国立国语院编纂的『标准国语大辞典』对‘社会’的注解为: ①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 ② 학생이나 군인, 죄수 들이 자기가 속한 영역 이외의 영역을 이르는 말. ③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가족, 마을, 조합, 교회, 계급, 국가, 정당, 회사 따위가 그 주요 형태이다. ④ 촌민(村民)이 입춘이나 입추가 지난 뒤에 다섯째 무일(戊日)인 사일(社日)에 모이던 모임. 对‘会社’的解释为『경제』 상행위 또는 그 밖의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 주식회사, 유한 회사, 합자 회사, 합명 회사의 네 가지가 있다. ≒사. 由此可见，现在三国字典上对‘社会’和‘会社’的注释大同小异，从字典上无法把握两者最初的形成关系和语义变化，为了完善现在三国字典的注释及编纂韩中日三国语源辞典，对二者通时的考察是有必要的.

初期的语义关系及变化, 因此有必要利用韩中日三国的史料进行通时的考察。首先, 对中国古典中出现的传统语义进行考察。

1）中国传统的'社会'和'会社'

根据『辞源』, 『辞海』, 『中华大字典』等字源辞典对'社'字的解释可以概括为以下六项: 第一, 社是土地之神, 『左传』昭公二十九年: "共工氏有子曰句龙, 为后土, (中略) 后土为社。" 『礼记』也有同样的记载: "句龙为后土, 能平九州, 故祀以为社。"第二, 社是古代乡村基层行政地理单位。顾炎武说: "社之名起于古之国社、里社, 故古人以乡为社。"『左传』昭公二十五年: "齐侯唁公曰: 自莒疆以西, 请致千社。" 据注, 当时二十五家为一社。又据疏: "礼有里社, (中略) 以二十五为里, 故知二十五家为社也。"第三, 社是社日及民间在社日举行的各种迎神赛会的省称。明人艾南英曾云: "若夫社之为名, 起于乡闾党族春祈秋报之说。"第四, 社是指志趣, 信仰相同者结合的团体。顾炎武认为: "后人聚徒结会亦谓之社", 如唐白居易与香山九老结"香山社"。第五, 社可指行业性团体。早在唐代, 民间结成的"社邑", 有一部分即由各色商行组成, 如小绢行邑, 百米行石经社等。第六, 社又指人民自卫之团体。而'会'是集合、合流的意思, 人和物相聚的地方也可用'会'来表示, 如『论语·颜渊』中出现的"君子以文会友", 后人因此称文人相聚谈艺为'会文'。文人相聚, 志趣相投, 会文谈艺, 结成一个团体, 一般称为"文会"。由此可见, '社'与'会'亦可相通, 即是人与物的聚合。[6] 通过在北京大学语料库古汉语文献中分别对'社会'和'会社'检索, 出现的用例整理如下。

(1)

(a) 鄉民爲社會, 爲立科條, 旌別善惡, 使有勸有恥。(『近思錄』, 1175)

(b) 八月秋舍, 市學先生, 預斂諸生錢作社會, 春社重午重九, 亦是如是。

(『東京夢華錄』, 1187)

(c) "鄉民爲社會"之語, 謂里社之民, 逢節日擧行集會行賽之活動。

---

6) 史江, 『宋代会社研究』, 四川大学 博士论文, 2002, p.1.

(『二程全書』, 1476)

(d) 王叔治七歲喪母, 母以社日亡, 來歲臨里修社會。(『世說新語』, 1585)

(e) 此日當行八關之齋戒(一八)春分日, 民并種戒火草于屋上, 有鳥如烏, 先鷄而鳴架架格格。民候此鳥則入田, 以爲候(一九)社日, 四隣并結宗會社。
(『荊楚歲時記』, 6世紀初)

(f) 天處高而廳卑, 君有至德之言三, 天必賞君, 熒惑果徙三舍, 已具天部星篇。《漢書》曰: 有陰德者, 天報以福。漢雜事曰: 太史言, 有德星見, 当有英才賢德同游者, 詔下諸郡縣問, 潁川郡上事曰: 有陳太丘父子三人, 俱共會社。
(『藝文類聚』, 624)

(g) 漢末, 太史家瞻星, 有德星見, 當有英才賢德。同游者書下諸郡縣, 問潁川郡上事。其日有陳太丘父子四人, 俱共會社, 小儿季方御, 大儿玄方從, 抱孫子長文此是也。 (『太平御覽』, 983)

(h) 古者春秋祭社, 一鄉之人無不會集, 《三國志》注: “蔣濟爲太尉, 嘗與桓范會社下”是也。 (『日知錄』, 1670)

从上面古典文献中出现的‘社会’和‘会社’可知, 此时‘社会’和‘会社’的语义与现在的所使用的大不相同, ‘社会’作为复合词首次见于1175年的『近思录』中的“乡民为社会, 为立科条, 旌别善恶, 使有劝有耻”一句, 这里的‘社会’是指乡村里举行活动时村民之间的聚会, 在『二程全书』和『世说新语』中也用于同样的语义, 而1187年的『东京梦华录』中“八月秋舍, 市学先生, 预敛诸生钱作社会, 春社重午重九, 亦是如是”一句的‘社会’表示结社的意思。‘会社’也是如此, 与‘社会’的语义相通。由此可见, ‘社’和‘会’两字相通, 都是用于指人和物的集合, 古典里出现的‘社会’和‘会社’没有明确区别, 作为一组同义或近义词被使用。为了进一步考证这一点, 利用对译辞典, 观察辞典中对译‘社会’和‘会社’的译词可以为本研究找到一些线索。

明代(1368-1644)末期, 一批以传播基督教教理为目的的西洋宣教士来到中国, 他们在传教的同时也将西方的地理和自然科学等有关西方的知识带到中国, 初期在语言交流上可谓困难重重。为了更好地开展传教活动以及介绍西方, 他们在中国人的帮助下编纂了大量的英华对译字典, 其中具有代表性的如1847年的『英汉字典』, 1860年的『英华字典』, 1916年的『英华官话辞典』等。通过这些辞典的对译情况也可以把握‘社会’和‘会社’最初的语义关系。现将这一时期

出版的对译辞典中‘society’[7]和‘company’[8]的词条整理如下。

〈表3〉 各版『英华字典』中‘社会’和‘会社’的对译情况[9]

年度	字典名	對譯
1847	麦都思英华字典	society: 会, 结社, 主会, 白莲社, 白莲会 company: 羣队, 会众, 朋友会合
1866	英华字典	society: 会, 结社; the triad society, 三合会; the white lotus socity, 白莲社, 白莲会; an Evangelizatuon Society, 福音会; a public society, 公会; to enter a society, 入会; ditto a secret society, 邦会; a member of a society, 会友; members of a society, 会兄弟, 会友; see Association and Club.
1884	井上哲次郎订增英华字典	society: 会, 结社, 三合会, 白莲会, 白莲社, 福音会 company: 公会, 公司, 商会
1899	邝其照英华字典集成	society: 会, 结社, 签题之会 company: 羣, 队, 公会, 公司
1908	颜惠庆英华大辞典	society: 交际, 交接, 应酬, 恳亲; 会, 协会, 社, 互助会, 补仁会, 同谋公益之公会, 公社, 谋求公益之会社, 文学会, 文学社 company: 一羣人, 一班人, 会众; 羣友, 朋党; 公会, 公司, 商会
1913	商务书馆英华新字典	society: 社会, 结社, 交际 company: 朋, 友, 羣, 队, 班, 夥党, 戏班, 会社, 公司, 商会, 陪行, 作伴
1916	英华官话辞典	society: 社会, 一般社会, 人群, 上流社会, 下流社会, 会社, 天足会, 行仁会, 勉励会, 教育会, 保畜会, 爱护牲畜会, 红十字会, 私会, 密会, 会党, 会长, 会首, 会正
1916	赫美玲官话	society: 社会, 交友, 交接, 同伴, 人羣, 会, 会社, 会党 company: 连, 哨, 交友, 交接, 同伴, 公司, 会社

如〈表3〉所示, 1847年的『英汉字典』, 1866年的『英华字典』, 1884年的『井上哲次郎订增英华字典』和1899年的『邝其照英华字典集成』中与‘society’对译的词大都为‘会、结社’, 在1908年的『颜惠庆英华大辞典』中出现

7) 根据『剑桥字典』对英语‘society’一词的释义为“a large group of people who live in the same country or area and have same laws, traditions; an organization for people who have the same interest”。

8) 根据『剑桥字典』对英语‘company’一词的释义为“an organization that sells goods or services in order to make money”。

9) 本表参考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提供的『英华词典』数据库制作而成。

“谋求公益之会社”的表现，直到1913年的『商务书馆英华新字典』中，与‘society’对译的词条里才首次出现‘社会’，此外还有“结社”和“交际”。1916年的『英华官话辞典』和『赫美玲官话』中‘society’的对译词中出现了大量以‘会’字派生的词语，可见这一时期人们对‘society’一词有了更深的认识和理解，值得注意的是‘society’的对译词中同时出现了‘社会’和‘会社’，通过这一点可以判断当时人们对‘社会’和‘会社’不加明确区分，作为一组同义词被使用。同时，在翻译初期，由于尚未形成固定的对译词，在对译‘society’时出现了大量的同义或近义词语群，这一点在‘company’的对译词中也有所体现。最初在1847年收录‘company’一词的『麦都思英华字典』中对应的译词有‘羣队’，‘会众’，‘朋友会合’，1884年的『井上哲次郎订增英华字典』中对应的译词有‘公会’，‘公司’，‘商会’，之后出版的『邝其照英华字典集成』(1899)和『颜惠庆英华大辞典』(1908)中也都大同小异。而到1913年发行的『商务书馆英华新字典』里依然是一词多译，译词尚未统一，特别是在‘company’的译词中同时出现了‘会社’和‘公司’，1916年的『赫美玲官话』中也出现了同样的情况，可见‘会社’和‘公司’两词在初期相当一段时间里也出现了混用的局面。

根据『汉典』对‘会社’一词的解释为“在汉语中原指集会、结社之意，旧时民间有大刀会，哥老会等会社。流传至日韩，被引申为指代公司，商行之意。旧时指政治、宗教、学术等团体或组织”。因此现代汉语中，对应‘company’概念的词多用‘公司’，‘会社’用于指外国公司时，特别指韩国或日本公司时使用[10]。另外，‘会社’表示“政治、宗教、学术等团体或组织”的传统语义在现代汉语中依然可见，其用例如下。

(2) 专门研究如何打铃的“打铃会社”；有专门讲究吃喝的“聚餐会社”。有一个称为“皮特会社”的，每个会员每学期要交会费六十镑，它的活动是每星期大宴一次。很多学生所关心的是毕业後找一个薪水高的工作，好过闲逸的生活。有许多学生是

10) 用‘会社’指公司的用例如：为满足市场对手表款式的要求，大连手表工业公司从日本精工电子工业会社(株)引进冷挤压表壳生产技术和关键设备，与国产设备配套组成表壳生产线，于9月20日开工。这条生产线年产款式新颖的异形表壳十二种，三十万套(单班制)，用来装配“珍珠”牌手表。(『人民日报』，1985)

准备投身政界的。他们除了参加各种党派活动外，还参加全校性的学生团体－－“学生会社”。加入这个会社的学生要付会费十镑。“学生会社”的集会场所是完全仿照英国议会的会议厅布置的。(『人民日报』，1962)

上面例⑵的例文是出自『人民日报』的原文，具有一定的代表性和大众性，文中出现的‘会社’都是指某一团体或组织，即‘会社’的传统语义。通过以上对译辞典中‘society’的对译词同时出现‘社会’和‘会社’，‘company’的对译词同时出现‘会社’和‘公司’可以看出此时还处于语言的过渡期，尚未形成固定的译词，一词多译及多词混用的现象频频出现。

而‘社会’一词在近代形成初期曾译作‘群’被使用，如1895年严复在『直报』上发表的文章中写道:“锡彭塞者，亦英产也，宗其理而大阐人伦之事，帜其学曰‘群学’”。梁启超在『清议报』中也有对‘群学’的使用，如“资生学，即理财学，日本谓之经济学；智学，日本谓之哲学；群学，日本谓之社会学”。『万国公法』的中译本中也将英语原文中的‘society’对译为‘群’，如英语原文为“the peculia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re Nations, and those political societies of men called State”其译文为“人成群立国，而邦国交际有事，此公法之所论也[11]。

2）明治期日本的‘社会’和‘会社’

与中国相同，通过对明治时期以前的资料进行收集和调查，发现在明治维新之前出现的‘社会’和‘会社’与中国古典里的用法相同，即表示传统的“结社或聚会”，并且同时用‘会社’一词对译‘society’和‘company’，如1873年的『附音挿図英和字汇』中‘society’的译词有“会，会社，连众，交际，合同，社友”，‘company’的译词有“群队，聚合，会社，船伴”，‘会社’同时用于对译‘society’和‘company’。这一点在『日本国语大辞典』中也可以得到确认，『日本国语大辞典』中对‘会社’一词的注解如下。

11）参考陈力卫，「近代中日之间的语词概念」，2019，社会科学文献出版社，pp.361-364.

(3)

① 同じ志で物事を行う集団. 同人の会, 仲间, 结社, 社会.

百学连环(1870-71顷) 「Socialism(会社之说) 英の Robert Owen 1771-1858なる人の说にて,政府たるものを废止し农工商悉く各其会社を结びて以て之を世界中に及ぼし国を建てむと欲せしなり.(具有相同志趣行事的集团. 同人的聚会, 伙伴, 结社, 社会).

② 商行为または营利を目的とする社团法人で、商法によって设立されたもの. 合名会社, 合资会社, 株式会社の三种がある. このほか、有限会社法による有限会社も含まれる.(商业行为及以营利为目的的社团法人根据商法设立的, 有合名会社, 合资会社, 有限会社三种, 除此之外, 根据有限会社法设立的株式会社也包括在内).

兰学书翻译に际して日本で造られた译语といわれる. 「社会」と同样に、最初は①の仲间、结社の意味で用いられ, 幕末·明治初期に 「society」の译语となる. しかし 「society」の译语としては「社会」が定着するに及び. 「会社」は 「company」の译语とし定着, もっぱら②の意味で使われるようになるが その时期は明治七年(1874)から10年にかけてのころとされる. 明治初年の过渡期には社会の意味では「仲间会社」「人间会社」のような复合语があり, また 社团法人の意味では 「交易会社」「商人会社」「通商会社」などの形が用いられた. (翻译兰学书期间, 在日本创造了翻译语. 与「社会」一样, 最初用于表示①的“社团, 结社”之意, 到了幕府·明治初期, 成为「society」的翻译语. 不过, 到「社会」成为「society」的翻译语被固定下来, 「会社」成为「company」的翻译语专指上面②的意思, 这一时期经历了从明治七年到十年。在明治初年的过渡期, 用于表「社会」语义的有像「仲间会社」「人间会社」这样的复合词, 还有用于表示社团法人意思的, 如「交易会社」「商人会社」「通商会社」等的形式被使用).

通过上面『日本语国语大辞典』中对‘会社’的注解和说明可知, 明治时期以前, ‘会社’与‘社会’具有相同语义, 都可用于指集会和结社, 并且同时用来对译‘society’和‘company’, 直到‘社会’和‘会社’分别固定成为‘society’和‘company’的译词经过了从明治七年到明治十年, 可见当时为找到一个合适的翻译语所花费的时间之久, 同时也反映出人们对西方‘society’和‘company’概念的陌生和不解。两者在当时的实际用例及变化情况按出现的年代顺序整理如下[12)]。

(4)

ⓐ 寄り合ひてソサイティ仲间会社となれば、その职分を为し、邦国を保护することを得るなり.(相聚在一起, 成为同党的话, 为了其职分可以保护国家.) (中村正直 『自由之理』, 1871)

ⓑ 本朝ニテ学术文芸ノ会社ヲ结ビシハ今日ヲ始メトス.(本国的学术文艺团体于今日正式成立.) (『明六杂志』, 1874)

ⓒ 乃ち民间志气の振ふなり社会の立つたり极めて可なり. (因民间意气扬扬, 可以结社.) (『明六杂志』, 1874)

ⓓ 各その会社を设け、公同の益を谋るを「ソサイティ」とうふ. (设立各自的社团, 谋求共同的利益, 称之为「society」) (『西学一斑』, 1874)

ⓔ 国ハ各人及ヒ会社ト同シク己レ二属财产ヲ保有シ. (国家一律平等地保障所有人和社团的财产.) (『国际法』, 1873-1875)

ⓕ 毕竟是レ亦人间社中ノ一人タレハ互二其社会ヲ结合スル不朽一般ノ律法ハ之ヲ循守セサル可カラス. (无论如何 因为是社团成员中的一员, 互相务必一定要遵守本社团的纪律.) (『国际法』, 1873-1875)

ⓖ 一方から见れば社会の人事は悉皆虚を以て成るものに非ず。(一方面来看, 社会的人事并非全都是虚假不可信的) (『学问のすすめ』, 1876)

通过以上明治时期出版的各种刊行物中出现的'社会'和'会社'的用例也可以看出明治初期两者存在混用的现象, 并且在成为'society'和'company'的译词之前, 都用于中国古典中的传统语义, 指结社或具有相同兴趣爱好者之间组建的团体, 如1871年『自由之理』中的"寄り合ひてソサイティ仲间会社となれば、その职分を为し、邦国を保护することを得るなり", 1874年『明六杂志』中的"本朝二テ学术文芸ノ会社ヲ结ビシハ今日ヲ始メトス", "各その会社を设け、公同の益を谋るを「ソサイティ」とうふ", 其中的'会社'都被称作'society'。由此可以推断日本为翻译'society'和'company'的概念, 借用了中国古典中'社会'和'会社'的字形分别赋予西方'社会'和'会社'的语义, 使其最终成为'society'和'company'的译词。

12) 以上引用文参考최경옥,「메이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비교일본학』, 제39집, 2017, pp.422-423.

3）开化期韩国的‘社会’和‘会社’

通过前面对中国和日本的考察可知，最初‘社会’和‘会社’在两国主要用于表示结社或乡村村民间的聚会，作为同属汉字文化圈的韩国自古与中日两国交往密切，经过长期的接触和交流，在语言上势必会产生影响，因此从这一点来看，韩国在近代之前‘社会’和‘会社’的语义与中日两国相同的可能性极大，为了确认‘社会’和‘会社’在韩国最初的用法，本节利用古代文献，韩英对译字典，新闻杂志等历史资料，收集这些资料中出现‘社会’和‘会社’的用例，以考察两者形成初期的关系及语义变化，首先古典文献中出现‘社会’和‘会社’的用例整理如下。

(5)

ⓐ 又乡伝云，乡老每当忌日，设社会於轮寺，则今月初五，乃舍人损躯顺法之晨也。（『三国遗事』，1310）

ⓑ 幻庵吾所畏，妙处世犹知。了事一宿觉，随缘王者师。看云应自悦，结社会如期。矫首山重隔，因风寄恶诗。（『陶隐集』，1406）

ⓒ 挂席中流望，东南即故州。风涛臣节苦，岁月客心愁。异俗谁青眼，同舟半白头。何时洛社会，樽酒说斯游。（『槎上录』，1636）

ⓓ 教者不善则为易置，择子弟之秀者，聚而教之。乡民为社会。为立科条，旋别善恶，使有劝有耻。（『磻溪随录』，1783）

ⓔ 夫祭祀之礼伊，各有等差为也。截然而不可紊也尼，秦汉以来奴，惑於方士为也，以古奴，鬼神灵仙虚无怪诞之语伊，盛行于世为旅，又谓虐死不灵之鬼伊罗为尼，岂非识理明义之士伊里五，世俗巫祷伊，狂妄尤甚为也，祠土神为旅，结会社为也，迎舡跃马之娱卧，跳浪兵械之戏伊，往往崖，不顾禁律为古，群聚年少为也，求福免祸为也，恣为諂渎为飞尼。（『正俗谚解』，1518）

以上是在韩国古典综合数据库中对‘社会’和‘会社’检索整理出来的用例，‘社会’一词最早见于1310年发行的『三国遗事』中“又乡伝云，乡老每当忌日，设社会於轮寺，则今月初五，乃舍人损躯顺法之晨也”一句，根据文脉可以看出此时的‘社会’与中国古典里的用法相同，即指乡村村民间组织的聚会，之后1406年的『陶隐集』中“幻庵吾所畏，妙处世犹知。了事一宿觉，随缘王者师。看云应自

悦，结社会如期。矫首山重隔，因风寄恶诗”一句也出现了‘社会’，此时的‘社会’是指结社的意思。 1518年刊行的『正俗谚解』中表示同一语义的词使用了‘会社’，由此可见与中国和日本相同，这一时期的‘社会’和‘会社’在韩国也没有明确区分，作为一组同义词或近义词被混用。为了进一步确认这一点，考察近代的韩英·英韩辞典是最直接有效的方法，通过观察与西洋语中‘society’和‘company’的韩语译词可以准确地把握当时的使用情况，现将近代期发行的对译辞典中出现‘社会’和‘会社’的语项整理如下。

〈表4〉 各版对译字典中出现的‘社会’和‘会社’

年度	著者	字典名	語項
1890	Underwood	英韩字典	company: 무리, 회, 계, 떼; (guest) 손님
1891	James	英韩字典	society: 회. 뫼히다
1897	Gale	韩英字典	社会: sacrificial festivals 会社: a guild; A mercantile company
1911	Gale	韩英字典	社会: sacrificial festivals; society 会社: A mercantile company, a guild
1914	James	英韩字典	society: 샤회(社会),공중(公众),단데(团体), (cultivated portion of a community) 샹등샤회(上等社会) company: 회샤(会社), 샹회(商会), 빈객(宾客), 릭빈(来宾), 中队
1924	Gale	三千字典	society: (1) 샤회 社会, 협회 协会, 죠합 组合, 단데 团体, 공중 公众, 회 会. (2) 교제 交际, 즌친 恳亲. (3) (upper classes) 샹등샤회 上等社会, 샹류샤회 上流社会. company: (1) 꼿치잇는것, 함게잇는것 (2) 숀, 숀님, 긱 客 (3) 샤회 社会 (4) 회샤 会社, 샹회 商会 (5) 중딕 中队 (보병외), 승죠원 乘组员 (비의), 비동모.
1928	김동성	最新鲜英辞典	샤회: society, the world, a circle, a community 샤회학: sociology, social science, 샤회주의: socialism, 샤회주의쟈 socialists, 샤회당 socialists. 회샤: a company, a corporation

上面是近代期由西洋传教士编纂的具有代表性的对译辞典， 在1890年和

1891年出版的『英韩字典』中对应‘society’和‘company’的韩语译词中都出现了“会”，此时尚未出现‘社会’和‘会社’的表现，随后1897年出版的『韩英字典』中，‘社会’对应的是‘sacrificial festivals’，‘会社’对应的是‘guild’，仍是中国古典中的传统语义，之后在1911年第2版『韩英字典』中的‘社会’在‘sacrificial festivals’的基础上填加了‘society’一词，而与‘会社’对译的词也由初版的‘a guild’在先‘mercantile company’在后的顺序变成‘mercantile company’在先‘a guild’在后，特别是1914年出版的『英韩字典』，‘society’和‘company’的对译项中分别将‘社会’和‘会社’固定在首位，可见此时对两词的含意有了更进一步的认识和理解。不过，1924年由Gale编纂的『三千字典』中在‘company’的对译项里同时出现了‘社会’和‘会社’两个词，由同一著者编纂的字典中出现了不同的对译，可见此时‘社会’和‘会社’仍处于混用的过渡期，没有被加以严格区分。直到1928年出版的『最新鲜英辞典』中分别将两词对译为‘society’和‘company’，此时才明确两者在字典里的语义关系。由此可见，‘社会’和‘会社’在韩国也经历了两词混用，由‘结社，相聚’的传统语义到现代语义过渡的过程。通过这一过程也可以看出‘社会’和‘会社’传统语义的用法主要受中国的影响，而近代以后变为西洋概念的语义主要受日本的影响，这一点通过俞吉浚的『西游见闻』可以得到证实。

(6)

秩序를 破溃ᄒᆞ야 人世의 安宁에 妨害되ᄂᆞᆫ 者를 驱除ᄒᆞ며 稳平ᄒᆞᆫ 大旨에 障碍ᄒᆞ야 社会의 和好에 损伤되ᄂᆞᆫ 者를 抑遏ᄒᆞ야 民生의 福祉와 安康에 有关ᄒᆞᆫ 事项은 皆其职의 干预ᄒᆞᆷ인泰西人이 大商业을 经营ᄒᆞᆷ에 其物财가 一商人의 事力으로 不及ᄒᆞᄂᆞᆫ 者인 则五人十人或二十人以上이 其议를 合ᄒᆞ야 规则을 建ᄒᆞ고 其事를 行ᄒᆞᄂᆞ니 此를 商买의 会社라 谓ᄒᆞᄂᆞᆫ者라 会社가 每年의 三分或四分利息을 出호ᄃᆡ 其商务가 繁殖ᄒᆞ야 利息이 多ᄒᆞᆫ 时ᄂᆞᆫ 约定ᄒᆞᆫ 利息外에 加给ᄒᆞ기를 约ᄒᆞ며 若会社가 其资本을 速集ᄒᆞ기 要求ᄒᆞᆫ 则一两票纸를 准额의 内로 卖ᄒᆞᄂᆞ니

(『西游见闻』，1895)

上面例文中的‘社会’和‘会社’是韩国文献中作为现代语义出现最早的用例，1881年俞吉浚(1856-1914)作为绅士游览团的一员被派遣到日本考察，期间把自

己在日本亲身经历的所见所闻以报告的形式记录下来，以为后人留下一定的参考，所以完成了『西游见闻』这部著作，其中在执笔的过程中参考了福泽谕吉的『西洋事情』，甚至直接翻译其中的部分章节，在这样的背景下创作的『西游见闻』，其中出现的西洋新概念用语可以说大都是引自福泽谕吉的『西洋事情』，‘社会’和‘会社’便是其中之一，虽然这两个词很早就出现在俞吉浚的见闻录中，不过在当时的社会民众中没有被广泛流通，直到1900年以后‘社会’和‘会社’的概念在各种新闻杂志中频频出现才确定了其在韩国的位置。

通过以上对韩中日三国史料中‘社会’和‘会社’的考察可知，在形成初期二者不加区别，作为一组同义词被混用，此时都用于指结社或相聚，西学东渐时期为了学习西方的新文明思想，日本明六社思想家们开始借用中国古典里的字形来对译西洋语中的抽象概念，在此过程中便出现了语义的扩大，缩小和转换，使原有语义淘汰或不再使用，其中‘社会’和‘会社’便是在这样的历史背景下产生的，被赋予新语义的‘社会’和‘会社’再流回中国和韩国，形成三国汉字词的环流。社会’和‘会社’作为一对特殊的同素逆顺语[13]，虽然现在各自具有完全不同的语义，通过本文对其考察可以证实两者在形成初期是具有关联性的，揭示两者的语义关系，作为基础语史资料将对未来三国语源字典的编纂具有一定参考价值。现将以上对三国的考察整理如下，以对三国语源字典的开发提供一定参考。

〈表5〉 韩中日三国语言中‘社会’和‘会社’的变迁

韓	사회(社會)	회사(會社)
中	社會 shèhuì	會社 huìshè
日	しゃかい(社会)	かいしゃ(会社)
英	society	company
传统语义		
‘社会’一词最早见于1175年的『近思录』中“乡民为社会，为立科条，旌别善恶，使有劝有耻”一句，		

13) 之所以说‘社会’和‘会社’是一对特殊的同素逆顺语是因为大部分的同素逆顺语是可作同义词或近义词被使用的，如‘语言/言语’，‘人民/民人’，‘民族/族民’，‘半夜/夜半’，‘健康/康健’，‘痛苦/苦痛’等，而‘社会-会社’经日本对译西方概念的过程中被赋予西洋语的‘society’和’company’，因此成为两个具有完全不同概念的词.

此时用于指社日时乡村村民间的会合聚集。‘会社’一词最早见于6世纪初梁宗懔所著『荆楚岁时记』中的“
此日当行八关之斋戒(一八)春分日，民并种戒火草于屋上，有鸟如乌，
先鸡而鸣架架格格。民候此鸟则入田，以为候(一九)社日，四邻并结宗会社”一句，
此时用于指结社或具有相同兴趣爱好者间的组织团体。

对译辞典KR

韩英字典(1897) 社会: sacrificial festivals; 会社: a guild; A mercantile company
韩英字典(1911) 社会: sacrificial festivals; society; 会社: A mercantile company, a guild
韩英字典(1914) society: 샤회(社会), 공중(公众), 단테(团体), 샹등샤회(上等社会)
company: 회샤(会社), 샹회(商会), 빈객(宾客), 릭빈(来宾), 中队
三千字典(1924) society: (1) 샤회 社会, 협회 协会, 죠합 组合, 단톄 团体, 공중 公众, 회 会.
company: (1) 깃치잇는것, 함게잇는것 (2) 손, 손님, 긱 客 (3) 샤회 社会 (4) 회샤 会社,
샹회 商会 (5) 중딕 中队 (보병외), 승죠원 乘组员 (빅의), 빅동모.

对译辞典CN

麦都思英华字典(1847) society: 会, 结社; company: 羣队, 会众, 朋友会合
英华字典(1866) society: 会, 结社
井上哲次郎订增英华字典(1884) society: 会, 结社; company: 公会, 公司, 商会
邝其照英华字典集成(1899) society: 会, 结社; company: 羣, 队, 公会, 公司
颜惠庆英华大辞典(1908)
society: 交际, 交接, 应酬, 恳亲; 会, 协会, 社, 互助会, 谋求公益之会社;
company: 一羣人, 一班人, 会众; 羣友, 朋党; 公会, 公司, 商会
商务书馆英华新字典(1913)
society: 社会, 结社, 交际;
company: 朋, 友, 羣, 队, 班, 夥党, 戏班, 会社, 公司, 商会, 陪行, 作伴
英华官话辞典(1916) society: 社会, 一般社会, 人群, 上流社会, 下流社会, 会社
赫美玲官话(1916)
society: 社会, 交友, 交接, 同伴, 人羣, 会, 会社, 会党;
company: 连, 哨, 交友, 交接, 同伴, 公司, 会社

对译辞典JP

『附音挿図英和字汇』(1873)

society: 会, 会社, 连众, 交际, 合同, 社友;
company: 群队, 聚合, 会社, 船伴

注解

‘社会’和‘会社’在形成初期没有明确加以区别，常作为一组同义词混用，
西学东渐时期为了翻译西方的新文明用语，
日本明六社思想家们借用中国古典里的字形创造了大量翻译语，在此过程中出现了语义的转换，
‘社会’和‘会社’便是在这一时期产生的。‘社会’和‘会社’曾同时用来对译西洋语‘society’和‘company’，
经过一段二者混用的过渡期，1875年以后在日本分别被固定为‘society’和‘company’的译词，
之后被中国和韩国容受。不过，在此之前汉语中‘company’已经被翻译成‘公司’，

所以现代汉语中company'的对译词多用公司', '会社'一般用于指韩国或日本公司时使用, 另外, '会社'一词表示"结社"的传统语义仍然在现代汉语中被使用.

4. 结论

本文以韩中日的历史文献资料为实证依据, 对三国的同素逆顺语'社会'和'会社'进行了通时的考察, 通过这一考察可以更好的把握两者的传统语义, 形成初期的语义关系及语义变化的原因, 同时从语言交流的层面对同素逆顺语的产生原因也作了一定说明。

其结果整理如下, '社会'始见于1175年的『近思录』中"乡民为社会, 为立科条, 旌别善恶, 使有劝有耻"一句, 此时用于指社日时乡村村民间的会合聚集。'会社'一词最早见于6世纪初梁宗懔所著的『荆楚岁时记』中"此日当行八关之斋戒春分日, 民并种戒火草于屋上, 有鸟如乌, 先鸡而鸣架架格格。民候此鸟则入田, 以为候社日, 四邻并结宗会社"一句, 此时用于指结社或具有相同兴趣爱好者间的组织团体。作为传统语义的'社会'和'会社'没有明确加以区别, 常被当作同义词混用, 到了18世纪左右, 所谓西学东渐时期, 大量表达新文明思想概念的用语从西方涌入东方, 为了学习这些用语, 明治初期日本明六社思想家们担负起翻译的重担, 为对译西方'society'和'company'的概念, 从中国古典中选用了'社会'和'会社'的字形, 使其分别被赋予'society'和'company'的语义, 起初'社会'和'会社'同时被用于对译'society'和'company', 经历了两者混用的过渡期后, 于1875年左右'社会'和'会社'分别成为'society'和'company'的译词首先在日本被固定下来, 确定了其各自的角色, 之后再被中国和韩国所容受, 一直使用至今。不过, 在用'会社'对译'company'之前, 中国已经用'公司'一词完成了与'company'的对译, 所以现代汉语中'company'的译词多用'公司', '会社'一般多用来指称韩日公司, 另外, 现代汉语中'会社'的传统语义仍然被使用。

韩中日三国同属汉字文化圈国家, 地缘相近, 自古往来密切, 交流频繁, 特别在语言上, 由于三国间长期的接触和交流, 使三国的语言中存在着大量的同素逆顺语, 本文作为三国语汇交流史的重要一环, 对考证三国语言中个别词汇

的形成和容受具有重要意义，同时对未来编纂三国语源字典时具有一定参考价值。为了进一步更深入地探究韩中日三国语言中个别词汇的语义变化及关系，有必要对其他像‘社会-会社’这样的同素逆顺语进行考察和分析，作为本稿未来发展的课题，在今后不断开拓和完善这一研究。

◆ 参考文献

1. 资料

BCC语料库，http://bcc.blcu.edu.cn/
CCL语料库，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Cambridge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국립중앙도서관，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index.do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人民日报，http://bcc.blcu.edu.cn/zh/search/2/%E4%BC%9A%E7%A4%BE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英华词典』数据库，台湾中央研究院研究所.

2. 单行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汉韩大辞典』，1999-2008，단국대학교출판부.
대동문화사 사전편찬부，『日韩大辞典』，1994，서울：대동문화사.
황호덕·이상현，『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2012，박문사.
俞吉浚，『西游见闻』，东京：交询社，1895.
陈力卫，「近代中日之间的语词概念」，2019，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
小学馆国语辞典编辑部，『日本国语大辞典』第2版，2000-2002，东京：小学馆.
刘凡夫，『汉字を媒介にする新语の伝播-近代中日间语汇交涉の研究』，辽宁：辽宁师范大学出版社，2009，p.145.
山田孝雄，『国语の中における汉语の研究』，宝文馆，1958.

3. 论文

郭秋雯，「한국어 동소역순 한자어에 대한 일고찰」，『국어학』，제57호，2010，pp.175-202.

成焕甲, 「字顺倒置汉字语研究」, 『语文研究』, 제33집, 2005, pp.7-34.
이한섭, 「근대어 성립에서 번역어의 역할」, 『새국어생활』, 제22권, 2012, pp.23-34.
최경옥, 「메이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비교일본학』, 제39집, 2017, pp.415-432.
黄信爱·崔埈瑚, 「韩中同素逆顺语“言语-语言”考察」, 『语文研究』, 제47권, 2019, pp.37-65.
韩书庚, 「清末民初同素异序构式研究」, 山东师范大学 博士论文, 2019, pp.102-128.
胡玉华, 「连文复音词“欢喜/喜欢”研究」, 『동양 한문학 연구』, 제52집, 2019, pp.237-254.
匡鹏飞·高逢亮, 「论“展开”和“开展”」, 『汉语学报』, 第1期, 2020, pp.43-50.
李恭忠, 「近代中国“社会”概念的早期形成」, 『近代史研究』, 제3집, 2020, pp.96-99.
史 江, 『宋代会社研究』, 四川大学 博士论文, 2002, p.1.
史一卿, 「中日同素逆顺二字汉语についての対照研究」, 吉林大学 硕士论文, 2011, pp.37-44.
屠洁群, 「日中同素异顺语短缩-缩短の形成について」, 『论集』, 第2期, 2016, pp.121-134.
王丽娟, 「两组同素逆顺词的词义演变研究」, 『语言研究』, 第3期, 2015, pp.144-145.
熊艳辉, 「中日における同素逆顺语の意味的特徵」, 燕山大学硕士论文, 2012, pp.37-44.
张厚泉, 「「电气」の意味变迁と近代的な意义」, 『언어사실과 관점』, 제36호, 2015, pp.69-95.
高良仓成, 「「社会」用语法による表象の特质について」, 『社会学评论』, 제67집, 2016, pp.73-88.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5월 10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17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6월 10일

Abstract

A Study on “Shehui-Huishe” in Inverse Morpheme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ian, Yu

Based on the theory of contact linguistics, this paper aims to research inverse morphemes words ‘society’ and ‘compan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lassical literature, historical materials, dictionary and corpus from Korea, China and Japan. The two words first appeared in the Chinese classic, the original meaning of ‘Shehui’ and ‘Huishe’ means ‘holding a gathering or party and forming an organization with a common interest’ in the ancient period, but since the 18th century, translation is essential to study Western advanced technology and idea, so Meirokusha intellects tried to translate the concept of ‘society’ and ‘company’ by the Chinese character ‘Shehui’ and ‘Huishe’. At the beginning, ‘Shehui’ and ‘Huishe’ were indistinguishable and always translated ‘society’ and ‘company’ simultaneously, since 1875, ‘Shehui’ and ‘Huishe’ became the translated words of ‘society’ and ‘company’ respectively. As a new concept, ‘Shehui’ and ‘Huishe’ that got this new meaning were accepted to China and Korea again. But the word ‘company’ is always uesd ‘Gongsi’ insted of ‘Huishe’ in morden Chinese language, and ‘Huishe’ is used foreign company, especially Korea company and Japan company. Besides the original meaning of ‘forming an organization with a common interest’ is used as well in morden Chinese language.

Keyword Society, Company, Inverse Morphemes words, Translation words, Korean, Chinese and Japanese

https://doi.org/10.26528/kochih.2021.71.331

新罗花郎道与『论语』关联研究

曲劲竹*

국문요약

신라 화랑도(花郎道)는 본토 종교에 발붙여 유(儒)・불(佛)・도(道) 문화를 융합하였다. 세속오계(世俗五戒)를 중심으로 삼교(三教)를 관통하여 종교와 이성, 환상의 세계와 현실을 중요시하는 도덕 체계와 미적 의식을 갖고 있다. 유가학파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아갔으며, 유가 경전의 작품인『논어(論語)』는 사인(士人) 개인의 도덕 수양과 주체에 대한 규약을 중시하였다. 화랑도(花郎道)의 충(忠)・용(勇)・인(仁)・효(孝) 그리고 의(義)・이(利) 관념과 자연의식(自然意識)은 서로 같은 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존재한다. 양자의 의(義)・이(利) 관념과 자연의식(自然意識)은 획일성이 존재한다. 전부 효(孝)를 시작점으로 도덕 체계를 세웠다. 하지만 화랑도(花郎道)는 충(忠)・용(勇)을 주체로,『논어(論語)』는 인(仁)을 핵심으로 한다. 화랑도(花郎道)의 인(仁)은 인간과 인간 이외의 기타 생물도 중요시하고 있지만『논어(論語)』는 전자에 기운다. 화랑도(花郎道)와『논어(論語)』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한국 고대문화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문화와의 깊은 인연을 살펴보는데 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주제어 신라, 화랑도, 유가(儒家),『논어(論語)』, 관련

* 中国) 延边大学 朝汉文学院 东方文学专业 在读博士

<目录>

1. 序论
2. 新罗社会对『论语』的接受
3. 花郎道与『论语』中忠勇思想的关联
4. 花郎道与『论语』中仁道思想的关联
5. 花郎道与『论语』中孝道思想的关联
6. 花郎道与『论语』中义利观念的关联
7. 花郎道与『论语』中自然意识的关联
8. 结论

1. 序论

新罗花郎道具有鲜明的政治性、宗教性与文化性。崔致远在其『鸾郎碑序』中写道："国有玄妙之道，曰风流。设教之源，备详仙史，实乃包含三教，接化群生。且如入则孝于家，出则忠于国，鲁司寇之旨也。处无为之事，行不言之教，周柱史之宗也。诸恶莫作，诸善奉行，竺乾太子之化也。"[1]花郎和郎徒平时在山中修行，闲暇时游乐山水、互相唱和，战争时是英勇杀敌的将士。在超脱现世的信仰世界里，他们是虔诚的佛教信徒；在自然山水的世界中，他们风流超脱、潇洒畅达，近似于道家人物；在世俗社会中，他们忠孝节义、舍生取义，近似于儒家臣子。可以说，新罗花郎道立足于本土宗教，借鉴并融汇儒、释、道文化，形成了以"世俗五戒"为核心，贯通三教，宗教与理性、幻世与现实并重的道德体系和审美意识。

儒、释、道原本就存在诸多契合之处，花郎道中的本土宗教又与这三者水乳交融，浑然一体，因此很难将它们单独剥离出来。但若仅从儒家的角度进行考察，也可以发现两者之间密切的联系。『三国遗事』中有"聚徒选士，教之以孝悌忠信"[2]"使人悛恶更善，上敬下顺，五常六艺，三师六正，广行于

1) 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56.
2) 一然 撰, 权锡焕・陈蒲清 注译, 『三国遗事』, 长沙: 岳麓书社, 2006, pp291.

代”[3]之语。“五常六艺”中的“五常”指的是“仁”“义”“礼”“智”“信”，“六艺”指的是“礼”“乐”“射”“御”“书”“数”。它们与“孝悌忠信”同属儒家的重要范畴。“三师六正”中的“三师”指“太师”“太傅”“太保”，“六正”指“圣臣”“良臣”“忠臣”“智臣”“贞臣”“直臣”。这样的言语显然具有鲜明的儒家色彩。

儒家作为一个一以贯之的流派，虽然在发生、发展过程中形成了完整的思想与道德体系，但不同时代的不同典籍之间，也存在或多或少的差异，有着不同的特质与侧重点。孔子作为儒家的创始人与代表人物，“把原始文化纳入实践理性的统辖之下”[4]，“把理性引导和贯彻在日常现实世间生活、伦常感情和政治观念中”[5]，使得依赖外在、虚无的神灵的世界观、人生观、价值观回归人和社会本身。这种立足于现实，积极对待人自身、人与人、人与社会、人与自然的精神，以及由此表现出的“忠”“勇”“仁”“孝”“义”等美德成为了儒家思想的核心。与以『孟子』为代表的后世儒家典籍相比，『论语』更加强调对主体的规约，更注重个人道德与修养的建立，而较少对君主与国家治理提出明确要求，亦未涉及世界观的构建。与之相对应，花郎和郎徒皆为佛教徒，世界观被佛教所统御，与儒家的关联主要体现在现实生活中。而在现实生活中，他们更加强调自身的品德修养，处理人与自身、人与外界关系时严于律己，这与『论语』中的思想有着较多的相通之处。然而，目前对这一问题进行研究的成果相对少见。本文即尝试探讨新罗花郎道与『论语』之间的关联。

2. 新罗社会对『论语』 的接受

新罗从地方部落发展成为国家政权，最终统一韩半岛。在此过程中，不断改变社会形态，发展本土文化，同时借鉴与吸收中国制度、文化，这促成了政治制度的变革、文化的繁荣，对综合国力的提升起到了积极作用，对『论语』的接受便是其中的重要一环。根据『三国史记』记载，其于公元503年改

3) 一然 撰, 权锡焕·陈蒲清 注译, 『三国遗事』, 长沙: 岳麓书社, 2006, pp291.
4) 李泽厚, 『美的历程』, 北京: 三联书店, 2009, pp52.
5) 李泽厚, 『美的历程』, 北京: 三联书店, 2009, pp52.

国号为“新罗”，改王号“麻立干”为“王”“大王”，到元圣王四年（788）定读书三品，基本完成了制度与文化的由武转文。

> 以出身读『春秋左氏传』，若『礼记』，若『文选』，而能通其义，兼明『论语』『孝经』者为上。读『曲礼』『论语』『孝经』者为中。读『曲礼』『孝经』者为下。若博通五经、三史、诸子百家书者，超擢用之。前只以弓箭选人，至是改之。6)

从这段史料中可以看出，新罗原本以弓箭选拔人才，元圣王年间转而以文化水平选拔人才，而衡量文化水平的标准，正是是否精通以儒家经典为主的汉文典籍。兼通经史与诸子百家，博览群书的人被视为人才中的最高品阶；兼明文辞与儒家经典的人才次之；仅熟读儒家经典的人才再次。在这三个品阶中，『论语』的地位是不可取代的。最高品阶的人才要求博览群书，这其中必然包括『论语』。第二个品阶的人才在『左传』『礼记』和『文选』中需精通一门，但必须精通『论语』和『孝经』。第三个品阶的人才依然需要精通『论语』，只精通『曲礼』和『孝经』却不懂『论语』的人只被列为最低的品阶。由此可见，新罗统治者将是否精通『论语』列为选拔人才的重要标准。

花郎道存在于新罗改国号、王号与确立读书三品之间，这段时间可以说是制度与文化的变革期。换言之，是『论语』与中国制度、文化被逐步借鉴与融合的阶段。新罗政权扶持花郎道，“欲使类聚群游，以观其行义，然后举而用之”7)，“知其人邪正，择其善者，荐之于朝”8)，也就是选拔人才，为国家效力。将品行端正的少年组织到一起，教授知识与文化，使其“相磨以道义”，最终培养成国家所需的人才，此中的培养标准想必是与国家选拔人才的标准相一致的。可以想见，在逐步接受『论语』的新罗，『论语』有可能是花郎和郎徒必须精通的典籍，也一定会对他们的人生态度产生深远的影响。“相磨以道义”可能是相互揣摩『论语』中的章句，“观其行义”也可能是观察其对『论

6) 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134.
7) 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56.
8) 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56.

语』的实践情况。事实上，在花郎及郎徒的生活方式、戒律、修炼目标和生平事迹中，大多能够发现与『论语』的关联。

3. 花郎道与『论语』 中忠勇思想的关联

『说文解字注』云：“忠，敬也。敬者，肃也。未有尽心而不敬者。”[9]在心态上，“忠”体现为对某个事物的崇敬与肃穆之心；在行为上，体现为对某人或某一组织竭尽全力。“勇，气也……气之所至，力亦至焉，心之所至，气乃至焉。故古文勇从心。”[10]“勇”是力与意气之所至，是诸多美德中较为刚健的一种。『三国史记』中的花郎形象，大多为新罗统一三国之事尽心竭力，早在和平时期就抱有为国出征志向。战争之前，他们往往主动请缨；如若战败，他们宁愿玉碎也不投降。这充分体现了“忠”与“勇”的美德。

在众多花郎和郎徒的事迹中，最能体现“忠”“勇”的要属金庾信将军。金庾信十五岁为花郎。611年，他看到百济、高句丽和靺鞨侵犯新罗疆土，便在岳石崛中对天盟誓，表达了扫平侵犯国土的“寇贼”的强烈意愿。建福四十六年（629），新罗派兵攻打高句丽娘臂城。新罗军队在战斗中处于劣势，金庾信以豪言鼓励士兵奋勇杀敌，并身先士卒，最终带领士兵斩杀五千余人，生擒一千余人。644年，金庾信任押梁州军主，克百济七城。645年，他刚回到国都便传来了百济攻打新罗的消息，国王命令金庾信带兵御敌，他尚未归家见妻子儿女就再次出征了。三月，金庾信战胜归来，百济又出兵攻打新罗，王又命其领兵，当时的军队没有准备好，他就亲自和士兵一同准备相关事宜，领兵西行，依旧没有回家。军队路过家门口时，他的家人出门迎接，他却连看都不看，継续行军。此后，金庾信又多次带兵出征，为新罗统一三国做出了不可磨灭的贡献。

此外，真兴王年间，新罗出兵加罗国，“十五六”岁的花郎斯多含率领其郎徒参与了战斗，并击退敌人，为国家立下战功。在一次对百济的战争中，十

9）许慎 撰，段玉裁 注，『说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pp502.
10）许慎 撰，段玉裁 注，『说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pp701.

六岁的花郎官昌参与了战斗。由于敌众我寡，官昌被俘。百济元帅惜其年少英雄，将其放还。放还后，他坚持再战，最终战死。其父见到他的头颅，说“能死于王事，无所悔矣。”[11]郎徒金歆运年少时听到其他郎徒讨论某人战死沙场之事，“慨然流涕，有激励思齐之貌”[12]。永徽六年（655），新罗伐百济、高句丽，金歆运从军，在百济之地遭到夜袭。大舍诠知劝他不要参与战斗，若死于夜间偷袭，则他人不知死者为何人，且身为贵族应爱惜生命。他说“大丈夫既以身许国，人知与不知一也”[13]，坚持战斗，最终战死。

『论语』对“忠”与“勇”也进行了较多的论述。对“忠”的论述，如“君使臣以礼，臣事君以忠”[14]“君君，臣臣，父父，子子”[15]。孔子的“忠”还体现为对周代文化与制度的强烈崇敬之心，如“郁郁乎文哉！吾从周”[16]，“夷狄之有君，不如诸夏之亡也”[17]。这种忠君、宗周的思想在后世的儒家学说中不断发展与强化，逐渐形成了“三纲五常”中的“君为臣纲”，是为死谏的诤臣、以身殉国的亡国之臣的信念源泉之一。对“勇”的论述，如“知者不惑，仁者不忧，勇者不惧”[18]，可见孔子对“勇”的肯定态度。

花郎道与『论语』都体现了“忠”与“勇”，且具有诸多相通之处，但同时也存在一定的差异，主要体现为以下两点：

第一，在花郎道与『论语』各自的道德体系中，“忠”“勇”所处的位置不同。在花郎道中，这两者是主体。花郎和郎徒恪守“世俗五戒”，即“一曰事君以忠，二曰事亲以孝，三曰交友以信，四曰临战无退，五曰杀生有择”[19]。其中“事君以忠”位居第一，可见对“忠”的重视程度。无论金庾信、斯多含、官昌

11）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537.
12）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537.
13）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537.
14）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32.
15）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143.
16）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30.
17）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26.
18）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143.
19）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522.

还是金歆运，『三国史记』中记载的花郎与郎徒的事迹多与战争有关，不仅数量较多，所占篇幅也较大，可以说对“勇”的表现较为集中。相比之下，“仁”是『论语』的核心思想，共在书中出现了105次，而“忠”“勇”出现的次数以及在其思想中的地位都不及“仁”。

第二，花郎道与『论语』中“忠”“勇”的表现方式不同。花郎道的“忠”主要针对国家与君主，而“勇”则主要表现在战场上，且两者关系密切，可以说是一体之两面。花郎和郎徒为社稷安危而奔波，为了扫除“无道”之异族而修炼武艺，在战场上不顾个人生死，英勇杀敌，导致“世俗五戒”中的“事君以忠”与“临阵无退”产生了密切的联系，形成了以忠君爱国为本质的武人之勇。相比之下，『论语』中除了对国家和君王的“忠”，还有对周代文化的“忠”，“勇”则与多种美德相关。当子路询问孔子，君子是否应该“尚勇”的时候，孔子说：“君子义以为上，君子有勇而无义为乱，小人有勇而无义为盗。”[20]奉“义”为最高准则才是君子之勇，否则就是匹夫之勇、小人之勇。孔子多次强调，不以美德为本的勇将导致混乱，如“勇而无礼则乱”[21]“好勇疾贫，乱也”[22]“好勇不好学，其蔽也乱”[23]。可见在孔子眼中，只有具备“礼”“义”“知”等美德的“勇”才是值得称赞的。“仁者必有勇，勇者不必有仁”[24]“见义不为，无勇也”[25]，君子之勇是美德和学识在君子心中积聚后的自然勃发，也是对诸多美德的实践。

导致两者存在差异的主要原因有以下几点：

从国内局势上看。一方面是君主与贵族的权力斗争。新罗初期存在着许多位高权重的贵族门阀，他们常常限制君主，使权力不能集中。通过一系列的制度改革，贵族逐渐被统摄在中央集权之下，而花郎道的建立正是改革措施之一。一方面是中央与地方的矛盾。从公元二世纪到五世纪，新罗不断扩充领

20）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214.
21）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90.
22）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93.
23）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207.
24）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164.
25）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23.

土、吞并周边的小国，最终得以与百济、高句丽分庭抗礼。快速的扩张使得新罗的内政并不稳定，这些小国虽然被吞并，成为新罗的一部分，但部族制度依然存留下来，成为中央集权的离心力。中央将全国各地的优秀青少年组成花郎道，让地方精英参与到中央统治当中，并为其灌输统一的思想，以消除原本部族文化中的隔阂，形成民族意识，培养民族精神。也就是说，花郎道存在的目的之一是加强中央集权，促进民族意识的形成。在这样的目的驱使下，“忠”显得尤为重要。

从半岛局势上看。新罗是三国之中建立最晚，实力最弱小的，与其他两国的关系也较为复杂。当时的韩半岛战事频繁，新罗起初与百济共同对抗高句丽，随后趁百济与高句丽交战，侵占了百济的领土，后又侵占高句丽领土。因此其在韩半岛处于被孤立的被动的状态。总之，新罗有扩张的野心，又处在被动的形势之下。新罗积极借鉴中国文化，也是为了使国家迅速强大起来，摆脱被动的局面。在扩张的过程中，战争是不可避免的，所以“勇”被提到了极高的位置。

从国家观念与民族意识上看。中国在春秋战国时期采取“封邦建国”的政治体制，各个诸侯国拥有独立的行政权，行政权之上还存在一个更高的权威，即周天子。虽然周天子逐渐失去威信，但国家观念与民族意识依然存在。民族与国家的形成不仅仅是种群的繁衍与政权的确立，还是文化的构建，是世界观、人生观与价值观的认同。从文化的角度来看，这些诸侯国之间已经形成了民族意识，具有相同或者相似的文化传统。换言之，诸侯们虽然相互征伐，但这只是周王朝的内部矛盾。在孔子看来，当时社会动荡的原因是“礼崩乐坏”，人心不古。想要恢复部族社会的原始人道主义与民主遗风，让百姓脱离战乱与压迫，需要拯救人心，而非诉诸战争，因此“仁”成为孔子学说的核心。韩半岛同样政权林立，但这些政权之上并没有一个更高的权威，部族之间的文化传统也非同源同质。新罗本国的民族意识与国家观念都处在形成阶段，整个韩半岛的民族意识亦是如此。因此在新罗人眼中，其他国家的人是异族，金庾信将敌国之人比喻成“豺虎”就是很好的证明。在他们看来，国家与人民的困厄来自于异族，而非人心，自我拯救的途径在很大程度上就是击退敌

军，消灭敌国，或者扩张领土，争取更多的生存空间。这是导致两者存在不同的重要原因之一。

从组织形式上看。花郎道依附于君主的统治，是国家意志的体现，甚至可以说是中央集权的一部分，因此花郎和郎徒不能不“忠”。换言之，若是不强调“忠”，花郎道便没有了存在的价值。与之相比，孔子的学说和『论语』是私学而非官学的产物。儒士信奉儒家思想，归属于儒家学派，却并不属于某一个官方组织。因此儒学最高理想虽然需要通过政权来实现，但儒士本身相对独立和自由，不完全依附于权力。从春秋末期开始，儒士无论在政治制度还是思想观念上，都不必完全听从于最高统治者。虽然他们在相权与皇权的斗争中地位不断下降，直至清代成为皇权的附庸，但总的来说，两者之间更多的是合作关系。正因如此，儒家的核心思想是效忠于百姓的“仁”，而花郎道则是以维护政权为出发点的“忠”和“勇”。

从人才的评价标准上看。儒家“六艺”中虽然包含骑射与兵法，但道德修养与文化修养才是首要的，因此以『论语』为代表的儒家思想呈现出更多的人文关怀。上文论及，新罗原本只是以弓箭选拔人才，于公元788年定读书三品，彻底改变了人才选拔方式。但这种改变不可能一蹴而就，尚武传统不可能在短时间内完全改变，甚至在相当一段时间内是文武并重，或者武胜于文的。花郎道存在于文化的变革期，所以保留了浓重的尚武色彩，“忠”“勇”的地位不言而喻。

4. 花郎道与『论语』 中仁道思想的关联

『说文解字注』云：“仁，亲也。从人二。”[26]“仁”是与众人相处之时的亲人、“爱人”之心，乃至爱物之心，这是『论语』的思想核心所在，也是孔子最注重的美德。花郎道的“仁”主要体现为“世俗五戒”中的“杀生有择”，涉及人与其他生物，同时又与“勇”之间存在相互关照的关系。如果说“事君以忠”是对

26）许慎 撰，段玉裁 注，『说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pp365.

“勇”的激发与引导，使其形成一种自发的意识，那么“杀生有择”就是从外部将花郎和郎徒的“勇”限制起来，不使“勇”失其道。

当下的学者多将“杀生有择”阐释为花郎道对佛教思想的接受。究其原因，提出“世俗五戒”的圆光法师是佛教高僧，且将“杀生有择”解释为“六斋日、春夏月不杀，是择时也；不杀使畜，谓马、牛、鸡、犬，不杀细物，谓肉不足一脔，是择物也。如此唯其所用，不求多杀”[27]。特定的时期戒杀生、不杀替人劳作的牲畜、不杀微小的动物，这确实具有浓厚的佛教色彩，但也可以从中发现与『论语』中仁者之心的关联。

从“世俗五戒”求取者与制定者的初衷与身份来看。根据『三国史记』的记载，贵山与帚项拜见圆光法师的初衷是：“我等期与士君子游，而不先正心修身，则恐不免于招辱。盍闻道于贤者之侧乎？”[28]“正心”和“修身”出自儒家经典『礼记』<大学>：“古之欲明明德于天下者，先治其国；欲治其国者，先齐其家；欲齐其家者，先修其身；欲修其身者，先正其心；欲正其心者，先诚其意；欲诚其意者，先致其知；致知在格物。”[29]『论语』中也有“朝闻道，夕死可矣”[30]之语。也就是说，二人想要做儒家的“士君子”，而在他们看来，圆光法师是世俗中的“贤者”。圆光法师在中国游学十一年，对儒家典籍颇为熟悉，回国后积极参与政事，被尊为“圣人”，死后以国王之礼下葬。可见圆光法师并非不理政事的民间高僧，除了佛教徒的身份以外，还带有浓重的世俗大臣的色彩。圆光法师认为“菩萨十戒”不适用于世俗中人，因此制定“世俗五戒”授予贵山与帚项两位世俗之人。也就是说，“世俗五戒”是入世的戒律，而非出世的戒律，或者说是以佛教戒律的形式承载入世观念。

从韩半岛早期佛教的特征来看。一方面，其“尽量淡化了教义中所含有的超现实和超国家思想，并代之以对现世利益的祈祷和对国家的镇护”[31]。另一

27）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522.
28）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522.
29）朱熹 撰,『四书章句集注』, 北京: 中华书局, 2012, pp3.
30）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40.
31）何劲松.『韩国佛教史』,北京:宗教文化出版社,1997, pp23.

方面，佛教起初在新罗民间传播了约一个世纪，未能形成气候，法兴王以国家意志推行，新罗佛教才兴盛起来。因此佛教自法兴王、真兴王的推广之后成为新罗国教，具有了政治化、世俗化、积极入世的特质。这也赋予了“杀生有择”一戒以世俗之学解读的可能性。

『论语』中的“仁”多是人与人相处之道，但也涉及人与动物的相处方式，如“子钓而不纲，弋不射宿”[32]。当仁者之心在君子的心中逐渐壮大，就会由推己及人发展到推人及物，将仁者之心施与其他生物。孔子本人并未明确提出这一思想，但弟子对他行为的观察与记录却使其引而不发，成为“仁”的一个侧面，并且这种思想被后世儒家更加充分地阐释了出来。从『孟子』中的相关内容可以推断出，导致孔子这一行为的无外乎感情与社会发展这两个因素。感情因素即“恻隐之心，仁之端也”[33]，“恻隐之心”使君子不忍心滥杀，使“君子远庖厨”[34]；表现为“数罟不入洿池”[35]的第二因素则是出于维持农业、牧业以及自然资源的可持续发展考虑。这并非佛教出于因果观念或慈悲心理而产生的不杀观念，而是在充分尊重人本能需求基础上的尽量节制。也就是说，为了满足人的生活需要，必要的杀戮还是不可避免的。反观“杀生有择”一戒，也是节制杀戮而非不杀，不难看出其与『论语』的相通之处。

另外，从花郎和郎徒的事迹中，我们可以看出他们的仁者之心并非仅仅针对动物，也是针对于人的。最典型的例子要属花郎斯多含。公元562年，在新罗与加罗国的战争中，花郎斯多含带领一千多郎徒上阵杀敌，并取得了胜利。因为立有战功，斯多含在战后获得了三百名俘虏。出于仁者之心，他并未将这些俘虏杀掉或作为奴隶役使，而是给了他们良民的身份，将他们放归。可见，虽然“世俗五戒”中的“杀生有择”带有极强的佛教色彩，但依然包含很强的儒家因素。

32）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83.
33）杨伯峻 译注,『孟子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8, pp59.
34）杨伯峻 译注,『孟子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8, pp11.
35）杨伯峻 译注,『孟子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8, pp4.

5. 花郎道与『论语』 中孝道思想的关联

花郎道的“孝”主要体现为“世俗五戒”中的第二戒，即“事亲以孝”。它与“交友以信”相同，关注的是个人私德。虽然相关事迹较少被记载到历史文献中，但依然可以从中发现孝道的影子，如金庾信将军的儿子－－郎徒金元述。金庾信立有赫赫战功，金元述也身居行伍，征战沙场。在一次面对唐军与靺鞨联军的战斗中，新罗一些将士明知必败，亦准备战死，其中就包括金元述。他的部下淡凌劝他不要做无谓的牺牲，说：“男儿不苟生，将何面目以见吾父乎？”[36]在淡凌的阻止下，金元述保全了性命，战败而归。金庾信对此非常不满，建议大王将其处死。金元述无颜面对父亲，于是归隐田园。金庾信去世后，金元述面见母亲，希望得到原谅，其母依旧没有原谅他。后来唐军再次攻打新罗，元述再次上阵杀敌，立下战功。因为被父母不容，元述拒绝官爵，依旧归隐，终身不仕。

“三年无改于父之道，可谓孝矣”[37]，孔子认为父亲在世的时候，孝子不应该违背父亲的意愿，父亲去世之后，三年不改变父亲的志向。子承父业是“孝”的一种表现形式。身为大将军的儿子，加入军队是継承父亲的事业；誓要战死，是継承父亲的意志。得到赦免后无颜面对父亲，父亲过世后请求母亲的原谅，唐军再次进攻时的奋勇杀敌，这些都是金元述之“孝”与『论语』的相通之处。

此外，花郎和郎徒的言语也体现出了其对“孝”的高度重视。金庾信率兵攻打娘臂城时，新罗军心涣散，他鼓励将士们说：“我兵败北，吾平生以忠孝自期，临战不可不勇。”[38]又如628年，新罗讨伐百济。新罗处于劣势，花郎钦春角干鼓励儿子盘屈：“为臣莫若忠，为子莫若孝。见危致命，忠孝两全。”[39]在面对强敌的时候，花郎和郎徒经常“忠”“孝”并提，以鼓励自己或将士。由此

36) 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502.
37) 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44.
38) 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487.
39) 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536.

可见，在花郎道中，“忠”与“孝”都是极其可贵的品德。两者分别对应国家和家庭这两个层面：“忠”是国家层面上最重要的美德，“孝”则是家庭层面上最重要的美德。

『论语』云：“孝弟也者，其为仁之本与！”[40]崔致远云：“入则孝于家，出则忠于国……”[41]如果说“仁”是『论语』的核心思想，是君子追求的最高人生境界，那么“孝”就是“仁”的逻辑起点，是其根基所在。上文论及，花郎道受到新罗社会、思想等因素的影响，以“忠”“勇”为道德体系中的主体，这与『论语』存在一定差别。但相同之处在于，不仅两者都本自于“孝”，并且花郎道由“孝”到“忠”“勇”的过程与『论语』由“孝”到“仁”的过程，其内在的逻辑路径也是一致的。『论语』中的“仁”并非无差别的爱，而是在充分尊重合理欲望的基础上，用理性来调节、疏导人生的负面，以达到社会安定和谐的目的。也就是说，孔子的思想并非无我，而是在爱自己和父母的基础上，将其推广至全社会。花郎道从“孝”到“忠”“勇”的过程也是如此，从爱父母开始，将其逐步推广至国家、百姓和君王。

6. 花郎道与『论语』 中义利观念的关联

相关历史文献并未详细记载花郎道如何看待“义”与“利”的关系，但通过对『三国史记』中郎徒剑君事迹的分析，可知其具有“义在利先”的观念。627年秋，庄稼因为降霜而绝收。第二年春天和夏天发生了严重的饥荒，百姓只能卖掉自己的儿子以换取食物。当时剑君在宫中担任舍人一职。其它舍人盗取了唱翳谷仓里的粮食，并与同僚们瓜分，只有剑君不接受粮食。其它舍人对剑君说：“众人皆受，君独却之，何也？若嫌小，请更加之。”[42]剑君笑着说：“仆编名于近郎之徒，修行于风月之庭，苟非其义，虽千金之利，不动心焉。”[43]

40）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2.
41）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56.
42）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544.
43）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544.

其他舍人担心剑君告发他们，欲以宴请之名行谋害之实。剑君收到邀请后察觉到是一个圈套，于是向近郎诀别。近郎了解情况后建议剑君不去赴宴，并告发他们。但剑君念在饥荒之年，诸舍人的行为情有可原，且自己理直而诸舍人理曲，不应该逃避，坚持赴宴。宴会上，诸舍人在剑君的食物里下了毒，剑君明知有毒却依然食用，于是被毒死。为了坚持道义，坚决不接受偷来的粮食；为了坚持道义，坦然的面对别人的谋害。从郎徒剑君的事迹中，可以看出这样的观念。

『论语』中的义利观念也是如此。“君子喻于义，小人喻于利。”[44]『论语』中的“义”即符合儒家道德规范的行为。人们往往因为利益而巧取豪夺，做出不符合“义”的事情，所以孔子经常将“义”与“利”并提。但孔子并未将两者视为对立的存在。他的思想包含以理性疏导人的欲望的成分，但并非完全禁欲。因此他不反对人们追求世俗中的利益，但反对在利益面前放下对道德的坚持。作为一个君子，应该首先考虑“义”，其次才考虑“利”。他要求君子做到“见利思义”[45]“见得思义”[46]。如果“利”和“义”同时摆在面前，在选择一方的同时必须放弃另一方，那么君子会放弃眼前的利益，转而安享贫穷。“饭疏食饮水，曲肱而枕之，乐亦在其中矣。不义而富且贵，于我如浮云。”[47]做一个有道的君子比做一个为富不仁的人更有乐趣。可见花郎道与『论语』中的义利观念是趋同的。

7. 花郎道与『论语』 中自然意识的关联

中国古代不同的思想流派与文人群体，其自然意识具有不同的特征。魏晋时期是“人的自觉”与“文的自觉”的时期，当时的文人刚刚摆脱“完全屈从于神学目的论和谶纬宿命论支配控制下的两汉时代”[48]，人的意识空前觉醒。魏

44) 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42.
45) 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168.
46) 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200.
47) 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80.

晋文人的文学审美是纯粹的，不带功利性的审美；对自然山水的审美亦是非功利性的。道家的自然意识则是超越的，是通过山水领悟宇宙的本质，达到一种返还先天、超脱世俗的逍遥境界。儒家的自然意识与两者略有不同。孔子经常将自然与现实生活联系起来，或赞美，或感叹。“子在川上曰：‘逝者如斯夫，不舍昼夜。’”[49]孔子又经常将自然与君子的美德联系起来，他说“为政以德，譬如北辰”[50]，“仁者乐山，智者乐水”[51]，“岁寒，然后知松柏之后凋也”[52]。在孔子的眼中，自然万物有其美德。在山水中流连忘返是对自然事物美德的陶醉，也是对君子自身美德的认可，这就是“比德山水”的自然意识。

“相悦以歌乐，游娱山水”是花郎道修炼的重要内容之一，史籍中不乏花郎与郎徒结伴游乐山水的记载。如『三国遗事』中，夫礼郎成为国仙后“领徒游金兰”[53]，以及“第五居烈郎、第六实处郎、第七宝同郎等三花之徒，欲游枫岳”[54]。学者们大多将花郎道的这一特征与中国的魏晋风骨或道家思想联系起来。但实际上，这样的只言片语只是记录了游乐山水的行为，却没有详细描述在山水中的体验，更无法考察其如何看待人与自然之间的关系，因此很难作为论证花郎道与两者之间存在联系的依据。

在为数不多的相关文献中，只有花郎忠谈师所作的乡歌<赞耆婆郎歌>对自然山水进行了较为具体的描绘。作品如下：

向高空仰望，
明月散发出满天的清光，
月儿穿过悠悠白云在天空翱翔，
耆婆郎的身影就像明月一样。
它映照在伊乌川的绝壁上，

48）李泽厚，『美的历程』，北京：三联书店，2009，pp90.
49）杨伯峻 译注，『论语译注』，北京：中华书局，2006，pp105.
50）杨伯峻 译注，『论语译注』，北京：中华书局，2006，pp11.
51）杨伯峻 译注，『论语译注』，北京：中华书局，2006，pp69.
52）杨伯峻 译注，『论语译注』，北京：中华书局，2006，pp109.
53）一然 撰，权锡焕·陈蒲清 注译，『三国遗事』，长沙：岳麓书社，2006，pp275.
54）一然 撰，权锡焕·陈蒲清 注译，『三国遗事』，长沙：岳麓书社，2006，pp466.

那里的渡口碧波荡漾。
耆婆郎的精神啊，
永远是我的榜样。
啊呀，
请看青松巍然挺立，
那花朵不怕严寒冰霜。[55]

这首乡歌借壮丽的自然风光赞美了耆婆郎高洁、勇敢与坚韧的美德。诗歌开头描写夜空中的明月，其散发出柔和的清光，穿梭在洁白的云层中，映照在伊乌川的绝壁与碧波上。明月指代耆婆郎，清光指代其美德，表现出其德高望重的特点；洁白的云层指代与耆婆郎交游的人们，谓其所结交的均为品德高尚之辈；大地上的绝壁与碧波指代后辈，谓其有非凡的感染力，能够影响后辈。诗歌结尾挺立的青松与不畏严寒的花朵同样指代耆婆郎，谓其不与世俗同流合污，在险恶的环境中能坚持自我。可以说，这既是对自然山水之美的感知，也是用自然山水之美观照耆婆郎的美德。这样的表达方式，无疑具备“比德山水”的特征。

花郎和郎徒除了在山水之间陶冶情操、相互唱和，还需要“相磨以道义”。当两者紧密相关的时候，就不得不注意到其与儒家自然意识的关系。可以说，“相悦以歌乐，游娱山水”与『论语』中的“莫春者，春服既成，冠者四五人，童子五六人，浴乎沂，风乎舞雩，咏而归”[56]有异曲同工之妙。但值得注意的是，仅凭借一首乡歌，无法窥探花郎道自然意识的全貌，而是仅仅能够反映它的一个侧面。换言之，花郎道“相悦以歌乐，游娱山水”的行为，既有可能源自新罗本土文化，也可能与魏晋、道家，或者『论语』中“比德山水”的自然意识存在密切关联。又或者，花郎道的自然意识本就丰富多样，与四者均存在深厚的渊源。

55）一然 撰, 权锡焕・陈蒲清 注译, 『三国遗事』, 长沙: 岳麓书社, 2006, pp125-126.
56）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pp135.

8. 结论

新罗在社会变革过程中，立足本土文化，接受了以『论语』为代表的儒家思想。由于当时韩半岛和新罗国内社会、历史、文化的不同特征与需求，以及花郎道独特的社会属性，其道德体系与审美意识与『论语』存在相通之处的同时，也存在一定差异，并由此展示出新的面貌。具体而言：二者的义利观念与自然意识有着相同的特质，且均以“孝”为逻辑起点，遵循相同的逻辑路径构建道德体系。但『论语』以“仁”为最终诉求，而花郎道则呈现出以“忠”“勇”为主体的特征。不仅如此，二者“忠”“勇”的表现形式也有所不同。花郎道的“仁”融汇佛、儒两家，因此兼及人与其他生物，而『论语』虽然也涉及后者，但更偏向于前者。花郎道对古代韩国历史与文化、民族意识与民族精神产生了深远的影响。对此议题进行研究，不仅有助于考察其形成与发展历程，也有助于拓展儒家思想在不同社会历史背景下的阐释空间。

◆ 参考文献

1. 资料

金富轼 撰, 孙文范等 校勘, 『三国史记』,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一然 撰, 权锡焕・陈蒲清 注译, 『三国遗事』, 长沙: 岳麓书社, 2006.
权锡焕・陈蒲清 编著.『韩国古典文学精华』, 长沙: 岳麓书社, 2006.
许慎 撰, 段玉裁 注, 『说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朱熹 撰,『四书章句集注』, 北京: 中华书局, 2012.
杨伯峻 译注,『论语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6.
杨伯峻 译注,『孟子译注』, 北京: 中华书局, 2008.

2. 单行本

李泽厚, 『美的历程』, 北京: 三联书店, 2009.
李泽厚, 『中国古代思想史论』, 北京: 三联书店, 2008.
李泽厚, 『由巫到礼 释礼归仁』, 北京: 三联书店, 2015.
何劲松, 『韩国佛教史』,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1997.
李甦平, 『韩国儒学史』, 北京: 人民出版社, 2009.

邢丽菊, 『韩国儒学思想史』, 北京: 人民出版社, 2015.
韦旭昇, 『韩国文学史』,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8.
赵润济 著, 张琏瑰 译, 『韩国文学史』,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1998.
韩国哲学会 编, 白锐等 译, 『韩国儒学史』,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1996.

3. 论文

蔡美花,「韩国古典美学范畴－－“风流”」,『东疆学刊』第1期, 2013, pp.1-6+111.
李岩,「新罗花郎道之思想特色及其审美趋向」,『东疆学刊』第4期, 2009, pp.1-6.
李岩,「简论新罗花郎道审美追求及其思想内涵」,『当代韩国』第1期, 2010, pp.96-100.
李甦平,「论韩国的三教和合－－以花郎道为中心」,『当代韩国』第4期, 2001, pp.70-75.
蒋荣,「花郎道与中国文化」, 南京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6.
刘相海,「论花郎道的演变及其特征」,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2006.
姜云,「韩国风流思想的历史嬗变与价值研究」, 延边大学博士学位论文, 2010.

논 문 접 수 일	2021년 05월 07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5월 24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06월 10일

Abstract

The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HWA RANG DO of Silla and "The Analects of Confucius"

Qu, Jingzhu

HWA RANG DO of Silla is based on the local religion, which draws on and integrates the culture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nd forms the moral system and aesthetic consciousness with "secular five commandments" as the core, integrating the three religions, religion and rationality, fantasy and reality. The Confucian school emphasizes going into the society, and its classic "The Analects of Confucius" pays attention to the individual moral cultivation and the regulation of the subject. The Confucian culture with "The Analects of Confucius" as its core has been widely accepted by the society of Silla. There are many correlations between HWA RANG DO and "The Analects of Confucius", which are mainly manifested in loyalty, bravery, benevolence, filial piety, the views of righteousness and benefit, as well as natural consciousness. Both of them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in their views of righteousness and benefit and as well as natural consciousness, and both take filial piety as the starting point to construct moral system. However, HWA RANG DO takes "loyalty" and "bravery" as the main part, while "The Analects of Confucius" takes "benevolence" as the core; "Benevolence" of HWA RANG DO involves both human beings and other creatures, while "The Analects of Confucius" is more inclined to the former. The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HWA RANG "The Analects of Confucius" will help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ancient culture, as well as the deep origin with Chinese culture.

Keyword Silla, HWA RANG DO, "The Analects of Confucius", Confucianism, Correlation

한중인문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중인문학회(한문표기 : 中韓人文學會, 이하 "학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한국학의 진흥 및 그 성과의 해외 소개
2. 재외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해외 한국학의 활성화
3.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학술·문화·사상적 교류 및 관계 탐구
4. 기타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제3조(사업)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2. 학회지『한중인문학연구』간행
3. 한중인문학 관련 도서 간행
4.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제4조(연구 윤리)

1. 학회의 제반 활동은 학술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다.
2.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별도의 〈윤리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한중인문학 관련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문화, 언어교육 분야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기타 한중문화 교류에 관여하는 전문가 및 기관

제6조(가입) 학회의 가입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조직)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전공별, 지역별)
3. 분과이사 약간명
4. 감사 2인

제11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분과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2. 행정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의 사업을 기획·조정한다.
3. 분과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와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무사항 일체를 감사하며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 계획의 심의
   ② 예산 및 결산의 심의
   ③ 임원 선출 및 인준
   ④ 회칙 개정
   ⑤ 기타 중요사항
3. 임시총회는 학회 운영상 특별히 의결이 필요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공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③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중요사항

제16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제반 활동 및 회원의 연구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 연구 윤리 규범을 홍보하고 〈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의결) 회의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내역)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기금, 입회비, 연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21조(예·결산) 예산 및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기 타

제22조(내규)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중인문학연구』 編輯委員會 規定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발행) 본 위원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는 다음 지침에 따라 발행된다.

1. 연4회 발간하되, 3월 30일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게재 심사 대상은 투고된 학술대회 발표문과 수시로 접수한 논문으로 한다.

제3조(연구 윤리)

1. 본 위원회의 활동은 학술연구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 이행에 바탕을 둔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의 활동은 본 학회의 〈윤리 규정〉에 의한 제반 규약을 준수한다.
2. 이와 관련한 사안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1.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인원) 편집위원은 아래의 분야에 따라 위촉한다.

1. 한국 인문학 : 문학, 어학, 고전, 역사, 문화, 교육 등 6개 분야
2. 한중 비교학 및 중국학 : 중국 문학, 중국 어학, 중국 사상, 비교 문학 등 4개 분야
3. 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로서 연구업적과 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임명한다.

제6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2.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자

제7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편집활동의 제고를 위해 약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제9조(투고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이면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0조(논문의 범위)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로 한정한다.(기취득한 학위논문을 요약 및 발췌한 내용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의 접근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1. 한국학의 내적 특성을 심화시키거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
2.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인문학 분야 및 한국학의 정체성 탐구와 관련 있는 내용

제1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논문 한 편 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2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 점수	5	4	3	2	1
논문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총점					

제4장 심사 절차 및 심사 규정

제13조(접수)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을 통해 수시로 받는다.

제14조(예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예심을 한다.

제15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예심을 거친 논문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의뢰서'와 함께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제16조(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 평가란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데 택일하여 기록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규정)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서 3인 이상이 게재에 동의할 경우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심사결과 2인 이상 '수정 후 게재' 판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2주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확인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5.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대하여 투고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논문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7. 심사결과 2인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한다. 단 1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수정 후 게재'에 준한다.
8. 심사 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

① 투고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구체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한 가지 중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수의 판정 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④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 이의 신청자는 재심 논문 심사비 등을 포함하여 내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재심은 심사비 납부 이후에 진행한다.

9. 투고자에게는 논문의 게재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명시한 '논문심사 결과서'를 통지한다.
10. '수정 후 게재' 판정에 대해 투고자는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여 제출하고, 그 수용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정한다. 만약 심사자의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이나 구체적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제한한다.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11. 발행 면수 제한 때문에 논문 편수를 더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2. 외국학자의 논문을 학회지에 일정 비율 수록하도록 한다. 수록 비율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13. (재투고 금지) 재투고는 1회에 한하며 1차 심사절차와 똑같이 진행하고, 만약 심사결과에서 '게재불가' 판정인 경우와 1회 반려된 논문은 동일한 제목이나 그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제5장 투고 규정

제18조(투고) 투고는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메뉴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시 학회에서 요구하는 '논문투고신청서' 양식과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공동저자인 경우 저자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저자가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9조(접수 마감) 접수 마감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20조(원고 작성) 논문 작성 요령은 제26조의 논문 작성 양식을 따른다.

제21조(투고 제한) 단독 저자 및 공동 저자의 투고 시, 연속 2회 투고 및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다.

제22조(원고의 제출) 논문의 내용 상 그래프나 표 등이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1 부를 출력하여 그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기, 겉표지와 논문을 철하여 아래의 학회사무실로 제출하고 인수증을 받는다. 우편 제출 시 논문 겉표지에 '『한중인문학연구』 제 00호 투고 논문'이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쓴다.

학회사무실 주소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3호관 121호 인문학부 철학전공
한중인문학회 유성선
E-mail : kochih@hanmail.net

제23조(심사비)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비를 학회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서 접수 후 심사위원들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24조(게재료) 심사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일반 논문과 연구비 수혜 논문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영문초록)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 영문 초록 교정을 의뢰한다. 영문 초록 교정에 드는 비용은 논문

저자가 부담하여, 게재료에 반영한다. 단 저자가 별도 교정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영문 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영문 초록 교정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연구 윤리) 연구 윤리를 심의 감독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회장이 임명한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7조(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방지) 논문 투고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 즉시 학회 측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즉시 이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에 돌입한다.

제28조(논문 작성 양식) 논문 작성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은 "한글(2005 이상)"으로 작성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편집 후 총면수 24쪽 이내) 내외로 하고, 150매 이상(편집면수 30쪽 이상)은 투고를 제한한다.(출판 편집 후 24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다.)
3. 논문의 체제는 제목, 성명, 국문개요, 국문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 성명,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한다.
4.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 등은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하고, 공동 저자가 있을 경우 주저자(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또는 제2저자) 등을 빠짐없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성명/대학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성명/대학명/학부과정, 석사과정, 석사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명/교사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명/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기관명/직위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성인	성명/전)소속명/종별 학위, 전)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소속/직위가 없는 미성년자	성명/최종소속명/학생, 졸업, 재학연도

5. 모든 논문은 국문개요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국문 주제어와 영문 주제어를 각각 5개 이상 표기한다.

6. 편집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 종류	용지 여백		용지 방향
사용자 정의 폭 : 153㎜ 길이 : 225㎜	위쪽	19.0㎜	좁게
	아래쪽	27.0㎜	
	왼쪽	22.0㎜	
	오른쪽	22.0㎜	
	머리말	13.0㎜	
	꼬리말	0	
	제본	0	

7.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① 본문의 항목구분은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② 표 및 그림은 〈표 1〉 제목, 〈그림 1〉 제목의 순서로 한다.

③〈 〉작품,『 』작품집,「 」논문,『 』신문 · 잡지 · 저서, ‘ ’강조 및 간접인용,“ ”직접 인용으로 한다.

8. 논문의 스타일 모양은 다음과 같다.

스타일 이름	글자모양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바탕글	10	95	-9	신명태명조	0	0	10	170	양쪽
국문개요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논문제목	13.5	90	-6	휴먼명조	0	0	0	170	중앙
1	12	90	-6	신명태명조	10	0	0	170	양쪽
1)	10.6	90	-7	신명중고딕	10	0	0	170	양쪽
(1)	10	95	-8	신명중명조	10	0	0	150	양쪽
①	10	95	-9	휴먼명조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휴먼명조	10	0	10	150	양쪽
각주	8.6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14	138	양쪽
참고문헌	8.9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30	145	양쪽
영문초록	9	90	-7	신명신명조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중고딕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오른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9.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수정 2016. 01. 13)

① 저자,「논문명」,『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인용쪽수는 p 또는 pp로 표기한다.)

② 영문 각주일 때 논문은“ ”로,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참고문헌은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완전한 서지정보를 표기한다.

② 학술지에 실려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게재 면수(해당 논

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반드시 표기한다.

③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권 문헌 다음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④ 국내문헌은 저자의 姓을 가나다 순서로, 동양권 문헌은 저자 독음을 가나다순으로, 그리고 서양권 문헌은 저자 姓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⑤ 외국 논문의 경우 자국 언어의 문헌을 국내문헌으로 간주한다.

제6장 논문의 학회 이용권

제29조(학회의 저작권) 학술지『한중인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저작권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학회의 이용권을 자동 허락한다.

제30조(논문의 이용)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게시된 논문은 회원에 한하여 무료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논문 공개) 한국연구재단(KCI)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상업 이용 금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저자와 학회 간에 별도 협약을 맺는다.

부 칙

제33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를 따른다.

제34조(개정)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한중인문학회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제반 활동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약)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 규정 준수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의무) 본 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윤리 조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해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의 연구 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6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제8조(사회책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9조(학문의 자유) 연구자는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로서의 자세) 연구자는 자신의 학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간다.

제3장 연구 관련 윤리

제12조(저자의 의무)

1.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회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인터넷 및 SNS 등등 게시 자료 포함)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

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6.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 게재 후라도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제13조(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4조(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임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삼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2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부칙

제21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2조(시행)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彙 報

2021. 05. 12. 한중인문학연구 71집 1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1. 05. 31. 한중인문학연구 71집 2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1. 06. 10. 한중인문학연구 71집 3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1. 06. 25. 한중인문학연구 71집 4차 편집위원회 개최
2021. 06. 30. 한중인문학연구 71집 발간

2021年度 事業計劃

1) 한중인문학연구 70집 투고 마감 (2021년 02월 10일)
2) 한중인문학연구 70집 발행 (2021년 03월 30일)
3) 한중인문학연구 71집 투고 마감 (2021년 05월 10일)
4) 한중인문학연구 학술지 평가 서류 제출(한국연구재단, 2021년 05월 04일)
5) 한중인문학연구 71집 발행 (2021년 06월 30일)
6) 한중인문학연구 72집 투고 마감 (2021년 07월 30일)
7) 제47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21년 08월 02일, 온라인(비대면) 진행)
8) 한중인문학연구 72집 발행 (2021년 09월 30일)
9) 한중인문학연구 73집 투고 마감 (2021년 10월 30일)
10) 제48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21년 11월 중, 국외(대만) 예정)
11) 한중인문학연구 73집 발행 (2021년 12월 30일)

〈알림〉

1.『한중인문학연구』증간 안내

2014년부터 학회지 발간을 4회로 증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투고 마감일 : 01월 30일, 04월 30일, 07월 30일, 10월 30일
- 발행일 : 03월 30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0일

2. 『한중인문학연구』 72집 원고 모집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회원은 원고 마감 기한을 지켜 학회로 원고를 보내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편집면 기준 30쪽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타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잘 참고하시어 투고하시기 바랍니다.(학회의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만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 논문 투고 :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
- 투고 마감 : 2021년 07월 30일
- 발행 예정 : 2021년 09월 30일

3.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 안내

55집부터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외국학자 논문도 동일 적용)

- 심사료 : 6만원(재투고 논문일 경우에도 동일 적용)
  단, 이의제기로 인한 재심사 논문의 경우에는 재심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심사료 6만원과 회의비 4만원(합계 10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 게재료 : 기본 10만원(편집면 24쪽 이내)
  추가분량 편집면 1쪽당 2만원씩 추가(편집면 최대 30쪽까지 가능)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교내지원 10만원, 교외지원 20만원 추가
  단, 두 곳 이상의 지원을 받는 연구비 수혜논문은 항목별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가 납부한다.(게재료는 연구비 지원이 높은 곳을 기준으로 청구비는 가장 높은 금액 100%와 나머지는 각각 50%를 합하여 계산한다.)

- 편집면 24쪽 이내 게재료의 예:
  교외지원(100%)+교내지원(50%)=40만원
  교외지원(100%)+교외지원(50%)+교내지원(50%)=55만원

4. 회비 납부 안내
학회 가입비, 연회비 및 심사료는 다음과 같으며, 논문 심사는 연회비 및 심사료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가입비 : 30,000원
연회비 : 30,000원
투고 논문 심사료 : 60,000원
학술지 해외 배송료 : 20,000원 (중국의 경우, 기타 해외지역은 별도문의)
학회통장 : 신한은행 100-029-987203 한중인문학회

* 연회비를 장기미납하신 회원의 경우 아래의 가, 나, 다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국내, 국외 회원 동일하게 적용)
가. 1년 연회비 3만원과 재입회비 3만원, 총 6만원 납부
나. 3년 연회비 9만원 납부
다. 5년내 연회비를 납부실적 있을 경우 재입회비 면제, 연회비 3만원 납부

* 회원 주소록을 정비하오니 소속,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로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학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한중인문학회 신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인문학회 도메인 주소 : http://kochih.kr/

신규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ID 생성 시 영문 또는 숫자만 허용합니다. 이에 기

존 가입자 중 특수기호나 스페이스가 들어간 ID는 교체를 권장해드립니다.

6. 학회지 PDF 발송

2018 가을 학회 총회 의결에 따라 제62집부터 기관 회원 등을 제외한 모든 회원님께 PDF 파일로 된 학회지를 발송합니다.

한중인문학회 제12기 임원진 및 위원진

(2020.1.1~2021.12.31)

명 예 회 장 : 김상대(아주대명예) 한계전(서울대명예) 송현호(아주대명예)
최병우(강릉원주대명예) 박윤우(서경대) 한용수(동국대)
임경순(한국외대)

고 문 : 김공환(아주대명예) 김종철(서울대) 김호웅(중국 연변대)
김현숙(이화여대명예) 류종렬(부산외대) 민현식(서울대)
박경현(경찰대명예) 박순애(호남대) 박옥걸(아주대명예)
박인기(경인교대명예) 박일룡(홍익대) 서준섭(강원대명예)
송하춘(고려대명예) 우한용(서울대명예) 유인순(강원대명예)
윤석달(항공대명예) 윤여탁(서울대) 이정숙(한성대명예)
전인영(이화여대명예) 정병헌(숙명여대명예) 조창환(아주대명예)
최유찬(연세대명예) 최학출(울산대명예)

회 장 : 유성선(강원대)

전공 부회장 : 구본관(어학:서울대) 정호웅(문학:홍익대) 임치균(고전:한중연)
문철영(역사:단국대) 김성룡(사상:호서대) 차성만(문화:서경대)
서 혁(교육:이화여대) 장현숙(여성:가천대) 박현규(한국학:순천향대)
전영근(교육:광동외어외무대)

지역 부회장 : 이명찬(서울:덕성여대) 유문선(인천경기:한신대) 이미림(강원:강릉원주대)
송기한(대전:대전대) 이후일(충청:선문대) 김하림(광주:조선대)
공종구(전라:군산대) 박경수(부산:부산외대) 백수진(대구:계명대)
김주현(경상:경북대) 조성식(제주:제주대)

행정 부회장 : 정래필(영남대)

분 과 이 사 : 〔총무〕 이기원(학술:강원대) 황정희(재정:강원대) 민재원(전북대)
박 진(국민대) 우신영(인천대) 조명숙(아주대) 홍순애(동덕여대)
구재진(세명대)
〔기획〕 김정우(이화여대) 박 강(부산외대) 윤선자(전남대) 정우택(성균관대)
정충권(충북대) 황영미(숙명여대) 남연(북경대) 신현승(정강산대)
김 준(고려대)
〔연구〕 김 현(서울대) 김근호(전남대) 김신정(방송대) 최미숙(상명대)
송윤미(강원대) 조하연(아주대) 김명숙(중앙민족대) 이연도(중앙대)
이난숙(강원대)
〔편집〕 전 긍(국민대) 김성진(대구대) 김 현(서울대) 김호정(서울대)
여호규(한국외대) 이명아(동국대) 장윤희(인하대) 김원중(단국대)
김정우(이화여대) 이해영(중국해양대) 유정은(강원대) 민재원(전북대)
박 강(부산외대) 박성일(한국체대) 이선이(경희대) 임치균(한중연)
임대근(한국외대) 정래필(영남대)

〔국제〕 박성일(한국체대) 김환기(동국대) 신영덕(인니국립대) 임대근(한국외대)
박춘란(서북정법대) 윤경애(대련민족대) 이영남(광서사범대)
김영희(조지메이슨대) 김여진(강원대) 선저이꾸마르(네루대)
유전전(운남사범대문리학원)
〔섭외〕 조원일(전남대) 김원중(단국대) 김 호(경인교대) 오영미(한국교통대)
조현일(원광대) 지수용(화중사범대) 유전전(운남사범대문리학원)
〔홍보〕 황혜진(건국대) 김상일(동국대) 김영주(대진대) 김현주(한국외대)
이태숙(단국대) 최재선(산업기술대) 김경선(북경외대) 여수일(중국옥림대)
〔교육〕 권순희(이화여대) 김미순(한국외대) 김성진(대구대) 김혜영(조선대)
류수열(한양대) 송현정(제주대) 허재영(단국대) 전영근(광동외어외무대)
하윤서(강원대)
〔정보〕 김형규(아주대) 권혁래(용인대) 박종훈(부산교대) 장은영(조선대)
차희정(명지대) 최인자(가톨릭대) 노금숙(호남사범대) 윤 호(절강공상대학)
섭우군(절강공상대학)
〔출판〕 윤의섭(대전대) 곽명숙(아주대) 권성우(숙명여대) 김원명(한국외대)
류보선(군산대) 최일의(강릉원주대) 최호영(경북대) 김두영(강원대)
감 사 : 구재진(세명대), 구문규(강릉원주대)
간 사 : 행정학술-조기연(강원대), 편집정보-이봉재(강원대)
* 밑줄은 실무담당 상임이사입니다.

〈편집위원회〉

편집자문위원 : 권용옥(남서울대) 김석회(인하대명예) 류종렬(부산외대)
민현식(서울대) 박인기(경인교대명예) 서준섭(강원대명예)
손희하(전남대) 윤여탁(서울대) 윤정룡(한남대명예)
이영춘(한중문화연구소) 전인영(이화여대명예) 정병헌(숙명여대명예)
최유찬(연세대명예) 金基石(上海外國語大) 金虎雄(延邊大)
沈定昌(北京大) 尹允鎭(吉林大) 許世立(吉林大・珠海)
- 총18명
편집위원장 : 이은희(한성대)
편 집 위 원 : 김성진(대구대) 김원중(단국대) 김정우(이화여대) 김 현(서울대)
김호정(서울대) 민재원(전북대) 박 강(부산외대) 박성일(한국체대)
신재홍(가천대) 여호규(한국외대) 유정은(강원대) 윤의섭(대전대)
이선이(경희대) 임치균(한중연) 장윤희(인하대) 전 긍(국민대)
정래필(영남대) 이해영(중국해양대) 한용수(동국대)
- 총20명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 임경순(한국외대)
위 원 : 김성룡(호서대) 김정우(이화여대) 문철영(단국대) 박성일(한국체대)
박윤우(서경대) 박일룡(홍익대) 유성선(강원대) 윤의섭(대전대)
이선이(경희대) 이영호(제주대) 이은희(한성대) 임치균(한중연)
전 긍(국민대) 조원일(전남대) 한용수(동국대)

- 총16명

한중인문학연구 제71집

2021年 6月 22日 印刷
2021年 6月 30日 刊行

發行人 : 유 성 선
製作處 : 도서출판 솔문,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205-803
전화 : 02-306-9588, 팩스 : 02-309-9588
事務室 :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3호관 121호 인문학부 철학전공
한중인문학회 회장 유성선
T. 033-250-8230 F. 0303-3440-9676

http://kochih.kr/
E-mail : kochih@hanmail.net

값 15,000원